

<제17회 전주학 학술대회>

전주의 정체성과 전주정신

일시 : 2015년 7월 16일(목), 09:30 ~ 17:30

장소 :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

전주역사박물관 · 전주시 ·
전주학연구위원회 · 온다라인문학연구단

학/술/대/회/ 일/정

□ 제17회 전주학 학술대회 “전주의 정체성과 전주정신”

09:30~10:00	등록 및 접수	
10:00~10:30	개회식 개회사 Ⅱ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관장) 축 사 Ⅱ 김승수(전주시장) 박현규(전주시의회 의장) 나종우(전주문화원 원장) 소순열(전주학연구위원회 위원장)	진행 / 이상균(전주대학교 교수)
10:30~10:55	주제발표 1.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본 전주정신 _ 조법중(우석대학교 교수)	
10:55~11:20	주제발표 2. 전주 풍류문화와 전주정신 _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관장)	
11:20~11:45	주제발표 3. 사람이 하늘 _ 김기현(전북대학교 교수)	
11:45~13:10	중 식	
13:10~13:35	주제발표 4. 창조적 변방성의 정신, ‘삭임’과 ‘꽃심’ _ 김승중(전주대학교 교수)	
13:35~14:00	주제발표 5. 완판본 옛 책으로 본 전주정신 _ 이태영(전북대학교 교수)	
14:00~14:25	주제발표 6. 문화로 본 전주정신 _ 함한희(전북대학교 교수)	
14:25~14:40	휴식	
14:40~15:05	주제발표 7. 전주품격론 _ 송화섭(전주대학교 교수)	
15:05~15:30	주제발표 8. ‘저항’보다 ‘풍류’, ‘직설’보다 ‘풍자’ _ 박병창(우석대학교 교수)	
15:30~15:50	휴식 및 장내정돈	
15:50~17:30	종합토론 _ 홍성덕(전주대학교 교수), 최기우(최명희문화관 학예실장) 총 평 _ 장명수(전 전북대학교 총장)	좌장 / 소순열(전북대학교 교수)

목 / 차

■ 주제발표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본 전주정신 _ 조법중(우석대)	9
전주 풍류문화와 전주정신 _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38
사람이 하늘 _ 김기현(전북대)	55
‘창조적 변방성의 정신’, ‘삭임’과 ‘꽃심’ _ 김승중(전주대)	72
완판본 옛 책으로 본 전주정신 _ 이태영(전북대)	95
문화로 본 전주정신 _ 함한희(전북대)	127
전주품격론 _ 송화섭(전주대)	144
‘저항’보다 ‘풍류’, ‘직설’보다 ‘풍자’ _ 곽병창(우석대)	175

■ 종합토론 202

홍성덕(전주대), 최기우(최명희문학관)

주제 발표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본 전주정신

조 법 중*

<목 차>

- I. 전주지역의 역사적 공간 개관
- II. 한국사 전개 속에 나타난 전주
 - 1. 고조선, 마한, 백제 역사와 익산 - 전주 권역
 - 2. 가야와 전주
 - 3. 삼국통일 전쟁기 고구려 망명인·유민과 전주
 - 4. 통일신라 완산주 설치와 미륵신앙의 중심
 - 5. 후백제 왕도 전주
 - 6. 조선왕조의 발상지 전주
 - 7. 근대로의 변혁,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 전주
- III. 전주의 음식, 비빔밥의 유래와 특성
- IV. 전주정신의 성격과 내용
 - 1. 한국 고대시기 문화융합과 새로운 대안의 땅, 전주
 - 2. 백제 부활의 땅 전주
 - 3. 왕도(王都)의 땅 전주
 - 4. 조선을 먹여 살린 땅, 생명의 전라북도, 전주
 - 5. 모두가 하나되어 평등한 대동(大同)과 개벽(開闢)의 땅 전주
- V. 결론

전주정신의 파악은 전주권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 역사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이 만들어낸 정체성을 통해 그 정신이 추출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지역역사의 성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각 시기별 특성과 내

*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용을 연결 지어 전주정신의 일단을 파악하고자 한다.

I. 전주지역의 역사적 공간 개관

전주의 역사공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주라는 공간이 만들어진 통일신라시기의 내용으로부터 검토하여야 한다. 신라는 통일이후 685년(신문왕 5) 전국을 9주5소경 체제로 편제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주는 현재 호남지역의 중심지역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즉,全州지역은 685년 익산지역의 고구려유민 반란 진압 후 이들을 남쪽지역으로 옮기며 설치한 행정거점인 完山州이다.²⁾ 즉, 백제의 완산지역에 익산지역의 보덕국 대문의 반란을 진압하고 고구려유민을 남지로 이치하면서 설치된 곳으로 백제고지의 다른 중심 권역이었다.

그리고 757년(경덕왕 16)에는 이를 중국식 명칭으로 바꾸었으며, 혜공왕대에 옛 명칭을 복구



[그림 1] 신라 9주 5소경

시키는 등 각 시기별로 사정에 따라 이름이 바뀌기도 했다. 그런데 그 체제를 알 수 있는 삼국사기 경덕왕 16년(757) 12월조를 보면, 구체적인 편제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사벌주를 상주(尙州)로 고쳐 주1, 군10, 현30을 소속시키고,
 삼랑주를 양주(良州 또는 梁州)로 고쳐 주1, 소경1, 군12, 현34를 소속시키고,
 청주를 강주(康州)로 고쳐 주1, 군11, 현27을 소속시키고,
 한산주를 한주(漢州)로 고쳐 주1, 소경1, 군27, 현46을 소속시키고,
 수약주를 삭주(朔州)로 고쳐 주1, 소경1, 군11, 현27을 소속시키고,
 웅천주를 웅주(熊州)로 고쳐 주1, 소경1, 군13, 현29를 소속시키고,
 하서주를 명주(溟州)로 고쳐 주1, 군9, 현25를 소속시키고,

2) 五年春復置 完山州 以 龍元 為摠管 三國史記 卷第八 新羅本紀 第八 神文王 (685)

완산주를 전주(全州)로 고쳐 주1, 소경1, 군10, 현31을 소속시키고,
무진주를 무주(武州)로 고쳐 주1, 군14, 현44를 소속시켰다³⁾

이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은 전주(全州)라는 명칭은 통일신라의 광역 행정구역 명칭이며 그 포괄범위가 상당히 넓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완산주 즉 전주에 편재된 행정지역을 보면 즉, 전주에 속한 주1 소경1, 군10, 현31의 내용을 보면 완산, 두이현, 구지산현, 고산현, 남원, 대시산군, 정촌현, 빈굴현, 야서이현, 고사부리군, 개화현, 혼랑매현, 상칠현, 진내군, 두시이현, 물거현, 적천현, 덕근군, 가지나현, 지양초현, 공벌공현, 시산군, 감물아현, 마서량현, 부부리현, 벽골군, 두내산현, 수동산현, 내리아현, 무근현, 도실군, 력평현, 돌평현, 금마저군, 소력지현, 알야산현, 간소저현, 백해군, 난진아현, 우평현, 임실군, 마돌현, 거사물현⁴⁾으로 현재의 전라북도지역과 거의 같은 공간적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무주군, 진안군, 논산시, 금산군, 익산시, 군산시, 장수군 등지로 위치가 비정되고 있다.⁵⁾ 즉, 전주에 속해있는 행정구역은 현재의 전라북도와 충남지역일부(논산, 금산)까지를 포괄한 광역의 공간이었다.



[그림 2] 고려 5도양계와 12목

따라서 삼국사기에 나타난 ‘전주’라는 역사공간을 설정할 때는 현재의 전라북도 공간이 일차적인 역사공간으로 설정되게 된다.

한편, 전주는 후삼국시대 후백제의 왕도로 위치하였다가 고려가 통일한 이후 고려시대 전주는 ‘전주목’으로 위치하고 있다. 즉, 성종 2년(983년)에 전국의 주요거점에 12목을 설치하였다. 앞서 전주는 12목의 하나로 전라도 지역의 나주목, 승주목과 함께 중심공간으로 다시 자리 잡았다. 이때 전주목에 속한 지역은 금마군, 낭산현, 옥야현, 진안현, 우주현, 고산현, 운제현, 마령현, 여양현, 이성현, 함열현으로⁶⁾ 앞서 영역보다 축소되기

3) 冬十二月改 完山州 為全州 領州一小京一郡十縣三十一 三國史記 卷第九 新羅本紀 第九 景德王 16 年(757)

4) 완산주의 군·현 三國史記 卷第三十七 雜志 第六 地理 四 百濟

5) 정구복 외, 1997 《역주 삼국사기》4 주석편 (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는 하였지만 현재의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진안, 완주 일대를 포괄하는 공간이었다.
이같은 전주의 공간은 조선시대가 되면 좀 더 축소되어 재조정된다.

전주부(全州府)

동으로 진안현(鎭安縣) 경계까지 47리, 서쪽으로 임피현(臨陂縣) 경계까지 74리, 금구현(金溝縣) 경계까지 19리, 남으로 금구현(金溝縣) 경계까지 38리, 임실현(任實縣) 경계까지 42리, 북으로 익산군(益山郡) 경계까지 37리, 여산군(礪山郡) 경계까지 61리, 고산현(高山縣) 경계까지 40리, 서울로부터는 5백 16리가 된다.

【건치연혁】 본래 백제(百濟)의 완산(完山)이며 비사벌(比斯伐), 또는 비자화(比自火)라고도 한다. 신라 진흥왕(眞興王) 16년에 완산주(完山州)를 두었다가 동왕 26년에 주를 폐지하고, 신문왕(神文王) 때 완산주(完山州)를 다시 설치하였다. 경덕왕(景德王) 15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어 9주를 완비하였다. 효공왕(孝恭王) 때 견훤(甄萱)이 여기에 도읍을 세우고 후백제(後百濟)라 하였다. 고려 태조 19년에 신검(神劍)을 토벌하여 평정하고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라 하였다가 23년에 다시 전주(全州)라 하였다. 성종(成宗) 12년에 승화절도안무사(承化節度安撫使)라 하였고, 14년에 12주에 절도사를 두고 순의군(順義軍)이라 하여 강남도(江南道)에 예속시켰다. 현종(顯宗) 9년에 안남대도호부(安南大都護府)로 승격하였다가 뒤에 다시 전주목(全州牧)으로 고쳤다. 공민왕(恭愍王) 4년에 원(元) 나라 사신 야사불화(堊思不花)를 가둔 일 때문에 부곡(部曲)으로 강등하였다가 5년에 다시 완산부(完山府)라 하였다. 본조(本朝) 태조 원년에 임금의 고향이므로 완산유수부(完山留守府)로 승격시켰고, 태종(太宗) 3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으며, 세조(世祖) 때에 진(鎭)을 두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3권 전라도(全羅道) 전주부(全州府)

상기 사료에 나타난 사방경계의 내용을 보면 조선시대 전주부의 공간적 범위는 현재의 전주시, 완주군지역으로 축소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전주시는 1935년 일제강점기시절 조선의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읍군 분리화 정책으로 전주읍과 전주군을 이질적인 존재로 나누어 전주읍과 완주군으로 분리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의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공간적 분할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전주라는 역사공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통일신라시대 현재의 전라북도지역을

6) 本百濟完山【一云比斯伐，一云比自火】，威德王元年，爲完山州。十一年，州廢。義慈王十九年，新羅與唐將蘇定方，滅百濟，遂有其地。眞興王十六年，改今名，二十六年，州廢。神文王四年，復置完山州，景德王十五年，又稱全州。
後甄萱，立都於州，太祖滅之，改安南都護府。二十三年，還爲全州。成宗十二年，稱承化節度安撫使，十四年，置十二州節度使，號順義軍，屬江南道。顯宗九年，陞安南大都護府。十三年，又名全州。恭愍王四年，以囚元使堊思不花，降爲部曲。五年，復爲完山府。別號堊山【成廟所定】，又號甄城。有新倉津。屬郡一，縣十一。領知事府一，郡一，縣令官四。
高麗史 卷五十七 志 卷第十一 地理 二 全羅道 全州牧

넘어서는 광역 행정공간 ‘전주’에서 고려, 조선을 거치며 공간적 축소화가 진행된 전주목, 전주부등의 공간을 감안한 인식과 논리전개가 필요하다.



[그림 3] 조선시대 전주(전주읍+전주군) 과 1935년이후 전주와 완주군 분리행정구역도

II. 한국사 전개 속에 나타난 전주

1. 고조선, 마한, 백제 역사와 익산-전주권역

우리나라 역사 전개과정에서 통일신라시대 전주로 포괄된 지역적 개념을 그 이전시기 까지 소급해보면 호남지역의 중심지역은 익산과 전주로 대표된다. 지리적으로 이 일대지역은 익산의 미륵산을 기점으로 전주의 모악산까지 연결되는 산줄기로 포괄된 말발굽모양의 형태로 그 사이에 만경강이 서해로 흘러가는 일종의 분지형태의 지역이다. 이같은 모습은 산과 강 그리고 사람이 사는 지역중심의 독특한 지도인 대동여지도에 뚜렷하게 잘 나타나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진행된 다양한 역사내용을 정리해보면 이곳은 한국고대문명의 요람 지역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한국역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⁷⁾

7)익산 미륵산에서 전주 모악산으로 연결된 공간은 한국 청동기문화의 중심권역중 하나로 최근 익산 및 전주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 청동용범 및 각종 선사유적에 의해 그 면모를 잘 나타내고 있다.

金善基·崔完奎·金鍾文,1986, 益山郡 文化財地表 調査報告書 마한·백제문화 9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이상균 2011 전북지역의 고고학 전주대학교출판부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역사 속에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곳은 금마(金馬) 지역부터이다. 즉, 고조선 준왕(準王)의 망명지로 이곳이 역사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고조선은 일반적으로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등 삼조선으로 나뉘어 존재한 것으로 전통사서는 구분하고 있다.⁸⁾ 이 가운데 이른바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準王)이 기원전 194년경 위만(衛滿)이 일으킨 정변으로 쫓겨난 후 좌우 궁인을 이끌고 망명한 곳으로 《고려사》 지리지 이후 모든 전통지리지들이 현재의 금마지역으로 기록하고 있다.

《삼국지》 동이전 한조에서,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패망하자 좌우궁인(左右宮人)을 데리고 한(韓)에 망명하여 한왕(韓王)이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후한서》 동이열전 한조에서, 위만에게 밀려난 준왕이 수천 명을 데리고 마한(馬韓)을 공격하여 부수고 한(韓)왕이 되었다고 하여, 준왕 집단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그 지역을 마한이라고 구체화시켜 놓았다.

이러한 준왕남래설은 13세기 말 《三國遺事》와 《帝王韻紀》에 이르러, 준왕이 읍거와 입도한 마한의 지역이 金馬郡, 즉 전라도 익산지역이라고 더욱 사실화되었다. 이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益山이 馬韓의 國邑, 즉 馬韓國으로 인식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준왕남래설은 조선 후기에 더욱 발전하여, 17세기 洪如河의 《東國通鑑提綱》 이후 ‘三韓正統論’이라는 틀로 종합되었다.⁹⁾ 삼한정통론은 準王의 전라도 익산 도래를 매개로 고대사의 정통이 箕子朝鮮으로부터 남쪽의 마한으로 계승되었다고 보는 정통론적 인식이다. 조선 후기 三韓史 인식에서 삼한정통론은 역사지리 고증과 함께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고 근대사학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¹⁰⁾ 또한 이같은 인식이 1897년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는 역사적 밑바탕이 되었다.

물론 근래의 논의는 準王의 南來 지역에 대해 전통적인 益山說에서 벗어나, 경기 廣州 京安,¹¹⁾ 충남 稷山,¹²⁾ 洪城 金馬,¹³⁾ 강화도,¹⁴⁾ 충남 內浦지역,¹⁵⁾ 전북 金堤·全州¹⁶⁾ 등이

8) 고조선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인식은 《三國遺事》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삼국유사에서는 <고조선> 조에서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함께 기록하고 있으며 「위만조선」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한편, 《帝王韻紀》에서는 <前朝鮮>이란 항목에서 단군조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後朝鮮> 항목에서 箕子에 의한 조선을 언급하여 후속하는 衛滿朝鮮과 함께 三朝鮮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인식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조선시대 전통사서에 유지되고 있다.

조법중, 2009, 이야기 한국고대사, 청아

9) 金貞培, 1976, <準王 및 辰國과 三韓正統論의 諸問題> 《韓國史研究》 13; 1986,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고려대 출판부 참조.

10) 박대재, 2010, <삼한의 기원과 국가형성> 《한국고대사입문》 1(증보판), 신서원. 문창로, 2011,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삼한 연구-연구 추이와 특징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62, 79~89쪽 참조.

11)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1985, 修訂版, 252~253쪽.

12) 千寬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 《韓國學報》 2, 3, 일지사.

13)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일조각, 172쪽, 318~321쪽.

14) 成周鐸, 1987, <馬韓·初期百濟史에 對한 歷史地理的 管見> 《馬韓·百濟文化》 10, 155쪽.

15) 李基東, 1990, <馬韓史 序章-西海岸航路와 馬韓社會의 黎明-> 《馬韓文化研究의 諸問題》, 원광대 마한·

새롭게 거론되고 있으나 전통지리서에 나타난 익산지역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 사실로서 전통적 역사관의 기축이 되었다. 물론 이지역이 익산 구체적으로는 금마일대로 지목되고 있지만 전주지역으로 파악되는 광역적 공간의 핵심인 익산-전주지역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같은 고조선 준왕의 남래 이후 금마일대는 마한(馬韓) 54국 중 건마국(乾馬國)이 이곳에 있었으며, 백제(百濟) 무왕에 의한 마지막 천도(遷都)예정지(또는 별도(別都))로서 자리 잡았다.

한편, 백제의 지역거점 가운데 익산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논고들을 통해 많은 지적이 제기되었다.¹⁷⁾ 특히, 무왕의 익산천도¹⁸⁾ 가능성을 중심으로 별도설¹⁹⁾, 별부설²⁰⁾, 신도설²¹⁾ 등 다양한 논의 속에서 익산의 백제사에서의 중요성은 수도 사비와 거의 같은 수준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²²⁾ 이같은 공간은 익산-전주를 포괄하며 백제의 후기 중심지역으로 유지되었다.

특히, 금마지역은 백제 武王에 의해 수도에 준하는 새로운 도시와 관련체계가 갖춰진 곳으로 백제 붕괴 후 백제부흥전쟁의 군사적 중심으로 기능하지는 않았지만 백제 부흥군의 전략적 행동의 주요 역할을 수행한 곳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군사적으로는 취약하지만 백제이래의 주요 거점으로서의 공간적 성격은 나당전쟁시 신라에 의해 고구려부흥군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즉, 지역방어를 위한 군사적 공간 즉, 羅城이나 주요 거점 山城보다는 개활 공간의 寺刹, 王宮 등 국가적 종교 의례적 성격의 거점인 금마일대는 백제부흥군의 전술적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같이 익산지역은 넓은 평야를 끼고 있어 방어기능이 취약한 곳으로 자체적인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백제의 사비도성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으로서 의미가 부각된다.²³⁾

한편, 익산지역의 교통거점으로서의 성격과 신라와의 군사적 관계에서 중요성이 부각되어 기존의 5부 5방에서 6부 5방으로 왕경 세력화하였을 것으로 파악하고 익산 세력이

백제문화연구소, 119~125쪽.

16) 徐毅植, 2010, 〈辰國의 變轉과 ‘辰王’의 史的 推移〉《歷史教育》114, 269쪽.

17) 익산천도문제를 비롯한 논의는 다음자료 참조
이도학 2010 《백제 사비성 시대 연구》 일지사

18) 황수영, 1973, 〈백제 제석사지의 연구〉《백제연구》4

송상규, 1976, 〈왕궁평성에 대한 연구〉《백제연구》7

金三龍 1977 〈百濟의 益山遷都와 그 文化의 性格〉《馬韓 百濟文化》2.

19) 이병도, 1976, 〈서동설화에 대한 신고찰〉《한국고대사연구》박영사.

20) 김주성, 2001, 〈백제 사비시대의 익산〉《한국고대사연구》21.

21) 조경철, 2008, 〈백제 무왕대 신도건설과 미륵사, 제석사 창건〉《백제문화》39

22) 백제사에서 익산지역의 중요성 및 천도관련 논의 등은 본고 논의전개의 전제적 요소이나 관련 논의는 생략하고 진행코자 한다.

23) 이도학, 2003, 〈백제 무왕대 익산천도설의 검토〉《익산문화권연구의 성과와 과제》

왕실과 결합되었을 것²⁴⁾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 미륵사석탑 사리봉안기 내용분석과정에서 익산경영의 중심자인 선화공주를 신라출신이 아닌 익산출신으로 보기도 한다.²⁵⁾ 이같이 익산-전주로 연결되는 공간은 고조선과 마한, 백제로 연결되는 역사전개의 내용을 포용한 공간이었다.

2. 가야와 전주

전주 지역의 다른 명칭으로 비사벌이란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비사벌이란 지명은 현재 경남 창녕(昌寧)지역의 옛 명칭으로 창녕과 전주지역에 동일한 고지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는 삼국사기 기록자의 오류로 이해되었다.

16년 봄 정월에 比斯伐에 完山州를 설치하였다.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4 眞興王

全州는 본래 百濟의 完山이었다. 眞興王 16년(555)에 州를 삼았다. 眞興王 26년(565)에 州를 폐했으며, 神文王 5년(685)에 다시 完山州를 설치했다. 景德王 16년(757)에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 領縣은 3개이다. -『三國史記』卷36 雜志5 地理三 新羅

그러나 최근 이같은 기존의 삼국사기 오류설로 보는 논의에 대해 백제가 서기 4세기 후반경 근초고왕(近肖古王)때에 가야(加耶)지역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진행하였고 그때 가야지역에 백제의 군령(軍令), 성주(城主)가 배치되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과 연결시켜 파악하는 입장이 제시되었다.²⁶⁾ 즉, 백제세력이 가야로 진출하였고 이후 신라의 가야진출에 따라 이들이 다시 백제지역으로 복귀하면서 창녕지역의 백제계통 사람들이 현재의 전주지역으로 재배치되면서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창녕의 옛 지명인 비사벌을 가지고와서 살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입장을 감안한다면 전주지역의 옛 지명으로 존재한 비사벌이란 명칭이 이 같은 역사적 연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전주지역의 역사성이 다양한 문화적 연계 고리로 설정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이해된다.

즉, 전주지역에는 가야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요소가 공유되는 역사적 연결고리가 존재

24) 장미애, 2010, <무왕의 세력기반으로서 익산의 위상과 의미>《한국고대사연구》제60권 p.p.167-173

25) 김수태, 2010, <백제무왕대의 대신라관계>《백제문화》42.p.p.76-80

26) 李康來 1987 百濟「比斯伐」考 崔永禧先生 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탐구당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삼국통일 전쟁기 고구려 망명인·유민과 전주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은 신라의 산국통일과정에서 고구려유민들이 대거 이동하여 고구려적 역사전통이 계승된 역사경험을 보유한 공간이다.

고구려와의 연결은 전주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즉, 완산주 설치 이전에 고구려 승려 보덕이 망명하여 터를 잡은 곳이란 점이다. 이같이 전주지역은 고구려승려 보덕의 망명지이자 보덕국반란 진압 후 사민된 고구려유민들이 관여된 거점지역이란 점에서 기존의 백제 유민과 함께 고구려유민들이 연결된 공간으로 파악된다.

먼저 전주와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내용은 고구려 승려 普德이 盤龍山 延福寺에서 하루밤새 전주 高達山으로 날아왔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²⁷⁾

그때 보덕(普德)화상은 반룡사(盤龍寺)에 있으면서 좌도(左道)가 정도(正)에 맞서면 국운이 위태로울 것을 걱정하여 여러 차례 [왕에게] 간했으나 듣지 않았다. 이에 [그는] 신통력으로 방장(方丈)을 날려 남쪽의 완산주(完山州) [지금의 전주(全州)이다.] 고대산(孤大山)으로 옮겨가서 살았다. 곧 영휘(永徽) 원년(650년) 경술(庚戌) 6월이었다. [또 본전(本傳)에서는 건봉(乾封) 2년 정묘(丁卯) 3월 3일(667년)이라고 하였다.] [그후] 얼마되지 않아 나라가 망하였다. 총장(總章) 원년 무진(戊辰)(668년)에 나라가 망했으니, 경술년과는 19년의 간격이 있다. 지금 경복사(景福寺)에 비래방장(飛來方丈)이 있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상은 《국사(國史)》이다.

- 『三國遺事』 卷3 興法第三 寶藏奉老 普德移庵

사료에서 주목되는 것은 보덕의 망명시기이다. 보덕 관련기록에서 보덕이 전주지역으로 이동한 시기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²⁸⁾ 《三國遺事》는 보덕의 移庵 시기를 永徽元年 庚戌(650) 6월로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이규보의 〈南行月日記〉에서는 乾封 2年 (667년) 丁卯 3月 3日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三國遺事》는 國史 내용을 중심으로 보덕관련 기록을 수록한 것에 대해 이규보의 기록은 현재는 전하지 않는 崔致遠의 기록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두 기록내용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三國史記》의 기사²⁹⁾에서는 650년 보덕이 고구려에서 백제로 망명하였다고 나타나 있

27) 정선여 2010 신라로 유입된 고구려 유민의 동향, 역사와 담론, 제56집 호서사학회.

배재영 2010 보덕(普德) 전승에 관한 시론적 검토 백제학보 3, 백제학회.

28) 鄭善如, 2007, 《고구려 불교사 연구》서경문화사.

29) 九年夏六月, 盤龍寺 普德和尚以國家奉道, 不信佛法, 南移完山 孤大山

《三國史記》20 高句麗本紀 10 寶臧王

고 《三國遺事》도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650년을 망명시점으로 보고 있다. 즉, 650년은 보덕이 고구려 반룡사에서 남하하여 고대산에 도착한 시점이고 667년은 경복사가 완공되어 이주가 마무리된 시점으로 이해³⁰⁾하거나 667년을 강조한 것은 최치원이 보덕의 이주와 고구려멸망을 연결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해되었다.³¹⁾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구려승려가 현재의 전주지역에 종교적 망명을 단행하여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불교를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이를 계기로 고구려유민들이 대거 익산-전주권역 즉, 금마지역으로 이동하였던 사실이다.

즉, 신라는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취약하지만 과거 안승집단의 근거지였던 고구려의 漢城과 같은 副都 성격을 갖는 전주-익산 지역을 고구려유민의 체류공간으로 활용하여 고구려부흥세력이 군사적으로 독립화되는 것도 막고 이 일대의 백제세력이 상호 연결되거나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지역을 활용하였다고 파악된다. 그런데 신라와 당의 전쟁이 종료되자 이들에 대한 정책을 바꾸고 보덕국왕 안승을 경주로 옮겨 살게 하는 등 세력해체를 도모하였다. 이에 고구려유민들이 신문왕 4년(684년) 반란을 일으키자 신라는 진압작전을 진행하고 금마지역을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이들을 남쪽 땅으로 흩어버리고 이곳을 약화시키기 위해 彌勒山과 母岳山으로 포괄되는 지역의 중심거점을 옮겨 바로 다음해인 신문왕5년(685) 完山州와 南原小京을 세웠다.

이때부터 비로소 현재의 전주지역이 이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아 역사의 전면에 부상케 된 것이다. 이때 완산(完山)이란 지명은 백제이래의 지명인 완산(完山)을 유지한 것으로 《삼국사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후 경덕왕(景德王) 16년(757) 전국을 9주(州) 5소경(小京)체제로 개편하면서 완산주(完山州)를 전주(全州)로 개명하였다. 이때 명칭 개편은 경덕왕의 한화정책(漢化政策)의 일환으로 고유지명을 중국식 지명으로 바꾸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畵의 뜻이 “온전할 ‘전’”으로 온과 완(完 완전할 완)의 음이 서로 통하여 변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4. 통일신라 완산주 설치와 미륵신앙의 중심

신라는 685년 전주지역에 완산주를 설치하여 신라의 9주 5소경체제를 구축하였다.

한편, 보덕 등 고구려 망명인이 이주한 전주지역은 앞서 보았듯이 안승 등 고구려유민

30) 노용필, 1989,〈보덕의 사상과 활동〉《한국상고사학보》2

정병삼, 2003,〈보덕의 불교와 7세기 삼국사회〉《보덕화상과 경복사지》신아출판사

鄭善如, 2007,《고구려 불교사 연구》서경문화사.

31) 김주성, 2003,〈『보덕전』의 검토와 보덕의 고달산이주〉《韓國史研究》121

들이 익산지역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보덕국 세력들이 신라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후 다시 신라에 의해 전주로 옮겨진 곳이었다.

그리고 익산지역의 미륵사로 대표되는 미륵신앙의 구심력은 백제붕괴와 이 지역에 설치된 보덕국의 반란 및 신라에 의한 해체, 지역민의 사민 등에 의해 더 이상 구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모악산의 금산사로 미륵신앙의 중심축이 이동되었다.

이 같은 신라의 정책에 대해 이 지역민들은 전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전주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전주지역의 종교적 지주역할을 한 금산사(金山寺)를 중심으로 진표(眞表)는 백제이래의 미륵신앙을 부흥시켜 지역민들의 종교적 안정과 정치적 구심력을 유지하였다.

진표는 백제가 신라에 의해 멸망(660년)한 후 약 60년이 지난 718년(또는 734년)에 전라도 萬頃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진내말(眞乃末), 어머니는 길보랑(吉寶娘)이며 성은 정(井)씨라고 한다. 금산사를 중창한 眞表에 대한 전기는 현재 3종류의 자료가 전해지고 있다. 988년 贊寧이 찬술한 《宋高僧傳》에 실린 〈唐百濟國金山寺眞表傳〉, 1197년 瑩峯이 지어 1199년 鉢淵寺에 세운 〈鉢淵藪 眞表律師 眞身骨藏立石碑銘〉, 일연이 찬한 〈眞表傳簡〉 등³²⁾ 이다.

이들 기록에서 가장 오래된 『宋高僧傳』에서 진표를 「百濟國金山寺眞表傳」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백제유민세력을 대표하는 역할이 강조되었다.³³⁾

종래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된 진표에 대한 연구는 占察懺悔敎法の 수행자로서 독자적인 占察敎法을 창안했으며,³⁴⁾ 신라 왕경에서 활동한 太賢과 대비시켜 지방에서 활동한 法相宗 승려로 보기도 한다.³⁵⁾ 한편, 사회사상적으로 眞表는 百濟遺民으로 反新羅의 이상국가 건설을 주도한 자로,³⁶⁾ 그의 미륵신앙을 신라 말 농민봉기,³⁷⁾ 나아가 甄萱이나 弓裔의 反新羅 움직임과 관련지어 보기도 한다.³⁸⁾ 즉 진표에 대한 연구는 점찰법회와 미륵신앙의 두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반신라성이 강조되었다.

32) 金南允, 1997 〈眞表의 傳記 資料 檢討〉國史館論叢 78

33) 李基白, 1986, 〈眞表의 彌勒信仰〉《新羅佛教史研究》, 一潮閣.

34) 金煥泰, 1972,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研究〉《佛敎學報》9

金煥泰, 1987, 《新羅佛教研究》, 民族文化社

蔡印幻, 1986, 〈新羅 眞表律師 研究(I)〉《佛敎學報》23; 1987, 〈新羅 眞表律師 研究(II)〉《佛敎學報》

24; 1988, 〈新羅 眞表律師 研究(III)〉《佛敎學報》25

35) 文明大, 1974, 〈新羅 法相宗(瑜伽宗)의 成立問題와 그 美術(上)(下)-甘山寺 彌勒菩薩像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中心으로-〉《歷史學報》62, 63; 金南允, 1995, 《新羅 法相宗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36) 李基白, 1986, 〈眞表의 彌勒信仰〉《新羅佛教史研究》, 一潮閣.

37) 趙仁成, 1996, 〈彌勒信仰과 新羅社會〉《震檀學報》82

38) 尹汝聖, 1998, 《新羅 眞表와 眞表系 佛敎 研究》원광대 박사학위논문

이같이 전주지역은 과거 백제의 땅에 살던 백제유민들과 신라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주해온 고구려유민들이 신라에 의해 행정적으로 재편되어 형성된 공간이었다. 또한 결과적으로 인적 구성도 삼국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별한 역사공간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인의 얼굴을 연구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 주목된다. 즉, 한국인의 얼굴 특징은 연구한 조용진 교수는 전국의 얼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인들의 얼굴형태가 의외로 북방계형이 많이 발견된다고 보고하고 있다.³⁹⁾ 그 이유가 앞서 말한 고구려유민의 대거 전북지역 이주에 있다는 사실과 연관된다고 본 조교수는 광개토왕 형상을 제작할 때 전라북도 출신 대학생들의 얼굴도 참조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전라북도 특히, 익산-전주권이 고구려와 역사적 문화적으로 그리고 형질적으로도 깊게 연결된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5. 후백제 왕도 전주

신라 51대 왕인 진성여왕(887~897)은 국정의 문란과 흉년으로 기근까지 들게 되니 백성이 유리하고 도적이 별때처럼 일어나 민심이 동요되고, 지방의 여러 주군에서는 조세(租稅)를 내지 않아 국가 재정이 궁핍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조세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미 중앙정부의 명령이 지방에서 시행될 수는 없었다. 지방에서는 정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진성여왕 3년(889)에 이르러서는 신라가 전면적인 내란상태로 들어 가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주지역이 우리 역사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은 후백제왕 견훤의 전주정도를 통해 전주가 후백제수도로서 기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백제가 붕괴된 이후 새로운 역사전개의 축으로서 기능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견훤은 상주 가은현 또는 광주 출신으로 전하는 존재였다.⁴⁰⁾ 그런데 그는 900년 전주로 근거를 옮겨 후백제를 공식 출범시키고 후삼국 통일의 웅지를 토로하였다.

진성6년(892), 완산의 도적 견훤이 주에 응거하여 후백제라고 자칭하였다. 무주 동남쪽의 군현이 그에게 투항하였다.⁴¹⁾

39) 조용진 2002 文化에 있어 한국성을 결정하는 한국인의 신체조건 溫知論叢 8 溫知學會
조용진, 2007 미인, 해냄출판사,

40) 申虎澈, 1993, 後百濟甄萱政權研究 一潮閣

41) 진성六年, <完山>賊<甄萱>據州, 自稱<後百濟>, <武州>東南郡縣降屬.

효공왕(孝恭王) 4년(900)에 견훤이 무진주(武珍州 : 광주)로부터 서순(西巡)하여 완산주(完山州 : 전주)에 이르자 주민(州民)이 환영하므로 견훤은 인심 얻은 것을 기뻐하여 측근에게 말하기를,

“우리 삼한(三韓) 시초에 마한(馬韓)이 먼저 일어난 뒤에 혁거세(赫居世)가 발흥하였으므로 진한(辰韓), 변한(卍韓)이 이에 따라 일어났으며 이에 백제(百濟)가 금마산(金馬山)에 건국하여 600년이 되었던 바 총장(總章) 년간에 당(唐)나라 고종(高宗)이 신라(新羅)의 청에 따라 장군 소정방(蘇定方)을 보내어 수군(水軍) 13만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오니 신라의 김유신(金庾信)은 땅을 휘말아 황산(黃山)을 지나 사비(泗水)에 이르러 당나라 군사와 연합하여 백제를 쳐서 멸망시켰던 바 이제 내가 어찌 완산(完山)에 도읍(都邑)을 세워 의자왕(義慈王)의 분함을 풀지 아니하랴?”

하고 드디어 후백제왕(後百濟王)을 칭하였다.⁴²⁾

상기 사료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견훤은 892년 무진주 즉 현재의 광주에서 거병하였다가 서기 900년 전주로 옮겨 공식적으로 후백제왕을 칭하면서 새로운 국가로서의 출발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주목되는 사실은 1)에 나타나고 있듯이 견훤이 전주에 당도하자 “주민(州民)이 환영하므로 ” 라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후속되어 견훤이 인심을 얻은 것에 부응하여 우리 역사인식의 정통성논의를 제시하였고

나의 기약하는 바는 활을 평양문루(平壤門樓)에 걸고 (나의) 말에게 패강(溟江=대동강)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오.
- 『삼국사기』 권50 열전 제10 견훤

사료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의지를 표방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고조선-마한-백제계승인식의 표현으로 먼저 견훤은 “내가 생각해보니 마한이 먼저 일어났고 혁거세가 후에 일어났다.” 라는 말을 통해 후대 실학자들이 제기한 마한정통론적 인식을 제기하였다. 즉, 고조선 준왕의 금마지역 망명과 이를 계승한 마한 그리고 이를 다시 계승한 백제라는 역사인식을 피력하여 자신이 부흥하고 계승한 백제가 우리역사의 정통성을 갖고 있으며 바로 자신이 후삼국의 분립상황에서 가장 역사적 정통성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⁴³⁾

또한, 견훤은 고조선-마한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백제가 당과 신라의 공격에 의해 붕

42) 《삼국사기》 권 제50 열전 제10 견훤

43) 조법중,〈후백제 甄萱의 역사계승인식 -高句麗 및 百濟의 馬韓계승인식을 중심으로-〉,《史學研究》第58.59 合集號 -乃雲崔根泳博士停年紀念論文集- 1999. p.483 ~ 494.;《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2000.

괴되었는데 이제 그 백제의 터전인 전주에서 다시 백제를 부흥시켜 의자왕의 목은 원한을 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즉, 견훤은 고조선이래 왕조의 전통을 갖는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의 목은 원한을 풀고 역사전통을 계승시켜 백제를 부활시킨 장소로서 전주를 선택한 것이었다. 특히, 전주에서 한분에 보이는 금마산 즉, 익산지역을 하나의 역사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앞서 설정한 익산-전주권의 하나의 역사공간 권역임을 확인시켜준다.

한편, 견훤은 고려 왕건과의 서신교환에서 “나의 기약하는 바는 활을 平壤門樓(평양문루)에 걸고 (나의) 말에게 溟江[폐강:大同江(대동강)]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강한 통일의지를 천명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고려의 수도인 개경지역을 장악한다는 의지가 아니라 고구려의 수도 평양을 장악하겠다는 표현이다. 이는 견훤의 강력한 후삼국 통일 의지의 표명으로 앞서 지적된 것처럼 고구려 영역의 통일과 이를 확대한 고조선의 역사 문화적 영역적 복구를 염두에 둔 민족사적 통일의지가 극명하게 표현된 내용으로 이해된다.

견훤은 이같은 의지에 걸맞는 국가 체제 확립과 도시구성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견훤은 영토를 확대해 나가면 많은 인력은 전주로 옮겨 전주지역의 인구를 넓혔음을 보여주고 있다.

天成 2년(景哀王(경애왕) 4년, 927) 9월에 萱(훤)이 近品城(근품성)을 攻取(공취)하여 불태우고, 나아가 신라의 高鬱府를 습격하고서 신라 서울 근처로 육박하니 新羅王(신라왕)이 太祖(태조)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10월에 太祖(태조)가 장차 出兵(출병)하여 구원하려 하는 중에 萱(훤)이 갑자기 신라 서울로 쳐 들어갔다. ……왕의 族弟(족제) 金傳(김부)로써 王位(왕위)를 계승하게 한 후, 王弟(왕제) 孝廉(효렴)과 宰相(재상) 英景(영경)을 捕虜(포로)로 하고, 또 國庫(국고)의 財貨(재화)·珍寶(진보)와 兵仗(병장), 子女(자녀)와 百工(백공) 중의 技巧者(기교자)를 취하여 자신이 데리고 돌아갔다.

萱(훤)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古昌郡 瓶山(병산) 아래에 와서 …… 順州城을 襲破(습파)하였는데, 장군 元逢(원봉)이 防禦(방어)하지 못하고 城(성)을 버리고 밤에 도망하므로 萱(훤)이 백성들을 사로잡아 全州(전주)로 옮기어 갔다.

三韓(삼한)을 經略(경략)하고, 백제의 옛나라를 復興(부흥)하였다. 塗炭(도탄)을 廓清(확청)하니 백성들이 安集(안집)하고, 風雷(풍뢰)처럼 鼓舞(고무)하니 遠近(원근)이 駿馬(준마) 달리듯 하였다.⁴⁴⁾

사료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견훤은 927년 신라 경주를 공격하고 데려온 百工之巧者를 활용한 전주도성건축이 상정된다. 또한 안동전투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주지역으로 이주시켜 전주지역의 인적 보충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주 안동등 신라 중심지역인들의 대거 전주사민은 전주지역의 인적구성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다. 즉, 앞서 백제 지역민에 고구려 유민들이 더하여 지고 통일신라시기 경주 등 신라 중심지역인들의 이주로 인해 백제, 고구려, 신라인의 자연스러운 지역적 결합이 이루어진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신라지역민들의 전주이주와 관련되어 주목되는 것은 전주 성황신과 관련된 내용이다. 즉, 전주성을 지키는 성황신을 모신 성황사는 전주 승암산내 견훤의 古宮墟로 전하는 건물지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전주 城隍祠는 1199년(고려 신종 2년)에 全州牧使綠兼掌書記로 도입했던 李奎報가 祭神文과 夢驗記를 남기고 있으므로 그 연조가 적어도 8백년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 세종12년의 기사에서 전주성황신은 5위이며 국가가 제사를 관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⁴⁵⁾ 현존하는 성황신도 5위로서 그 내용이 조선 초기 이래 변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주목되는 사실은 전주성황신의 그 실체가 新羅 마지막 왕 敬順王과 그 가족이란 사실이다.⁴⁶⁾ 즉, 다섯 신상 명칭이 신라의 마지막 왕 김부 대왕과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 구성을 보면 제2부인 최씨 부인, 김부 대왕, 정후 허씨(正后許氏), 최씨 부인 소생의 태자(太子), 태자비 매씨(妹氏)의 순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전주성을 지키는 성황신이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과 그 가족이란 점이다. 이는 전주가 후백제의 수도였으며 견훤의 도읍이란 역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사실이다. 이는 후백제 붕괴이후 고려가 후백제의 수도인 전주의 중심세력을 신라계 이주민으로 바꾸고 후백제지역의 지역적 상징인 성황신을 신라 마지막 왕 일가로 설정하여 지역적 중심세력을 교체한 결과로 파악된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전주지역을 새로운 역사전개의 토대를 마련케 하고 민족사적 통일과 통합의 경험을 한 단계 승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된다.

이같이 후삼국시기 전주는 후백제의 수도로서 왕도로서의 경험과 신라지역민들의 이주를 통한 백제, 고구려, 신라인들의 인적 융합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전주가 갖게 하였다.

44) 삼국사기 열전 견훤

45) 《세종실록》 49권 3집 세종 12년 8월 6일

46) 《동고사기》

또한 수도를 방위하는 사령관념이 투영되어 관련 공간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전주에 남아 있는 지명 중에는 이같은 사령체계의 내용에 부응하는 표현이 남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麒麟峯, 鳳凰巖 등이 나타나며⁴⁷⁾ 龍머리고개(완산)가 전해져 사령체계에 대응하는 3가지가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주 KBS 정원앞의 거북바위가 이같은 사령신앙체계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거북으로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공간구조는 전주의 수도로서의 성격과 후백제 역사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확인시켜준다.

비록 37년이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주는 한 나라의 수도로서 그에 걸맞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중심지였으며 당시 기록에 의할 때 가장 화려한 궁성과 도성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후삼국 최대의 도시 경험 또한 갖게되었다.

6. 조선왕조의 발상지 전주

전주가 우리역사에서 가장 인상 깊은 역할로 남아있는 것은 조선왕조의 개창과 관련된 역할이다. 조선왕조를 개창한 이성계는 전주 이씨이지만 고향은 함경도 영흥지역이다. 전주는 그의 4대조인 목조 이안사 때까지 대를 이어 현재의 이목대 근처에서 살아왔는데 목조 이안사가 전주지역 판관과의 불화로 함흥지역으로 도피하였고 이후 함경도 영흥지역에 터를 잡아 이성계는 이 지역에서 출생하였다. 이 지역에서 무관으로 성장한 이성계는 고려 말 우왕 때 전북지역에 침입한 왜구 소탕을 위해 남원 운봉 지역에 급파되었고 이 때 황산(荒山)지역에서 대승리를 거두어 전국적인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황산대첩을 거둔 이성계는 자신의 본관도시인 전주에 개선하였고 이때 전주이씨 종친들이 현재의 오목대에서 승리 축하 연회를 베풀어주었다. 그런데 연회에서 이성계가 한고조 유방의 대풍가를 읊어 새로운 왕조탄생에 대한 의중을 드러내어 새로운 왕조 탄생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전한다. 이같은 인연은 이후 태조의 영정을 모신 경기전이 마련되고 조선왕조실록을 모신 사고가 설치되어 조선왕조의 출발과 역사를 담보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특히 임진왜란을 거치며 다른 지역에 모셨던 태조의 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이 모두 불타고 망실된 것에 비해 오직 전주지역만이 이들 어진과 실록을 안전하게 수호함으로서 역사수호의 도시로서의 성격을 갖게 하였다. 이때 어진과 실록이 보존되지 못하였다면 조선왕조 전반기의 역사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뻔 했지만 전주지역민들의 노력으로 이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이같은 역할만으로도 전주는 우리

47) 《신증 동국여지승람》 전주 산천

기린봉(麒麟峯) : 부의 동쪽 6리에 있다. 봉우리 위에는 작은 못이 있다.

봉황암(鳳凰巖) : 부의 서쪽 5리에 있다. 그 아래에 못이 있다.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었다.

경기전은 조선왕조를 창건한 태조 이성계의 진용 즉, 실제초상을 모신공간일 뿐만 아니라 전주이씨 시조를 모신 조경묘가 함께 있으며 조선왕조 역사인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전주사고와 이 실록을 일진왜란에서 구한 역사수호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먼저 경기전의 유래를 보면 경기전은 서울, 경기의 경기가 아닌 조선 왕조를 개창한 전주 이씨의 발상지인 전주를 경하(慶賀)하기 위해서 건립한 전각(殿閣)으로서 여기에 태조(太祖)의 수용(肅容), 즉 태조의 영정(影幀)을 모시고 있다.

《완산지(完山誌)》에 의하면 영락(永樂) 경인(庚寅), 즉 태종 10년(1410)에 창건되어 태조의 수용을 봉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기전의 최초의 전호(殿號)는 어용전(御容殿)이었으며, 태종 12년 11월에는 이를 진전(眞殿)이라고 하였다. 전주 영전(影殿)을 경기전이라고 호칭한 것은 세종 24년(1442)의 일이었다. 전주의 영전을 경기전, 경주의 영전을 집경전, 평양의 영전을 영송전으로 하였고 함흥은 준원전으로 불렀다.

최초의 태조영정은 태종 10년에 경주의 태조영정을 모사(模寫)한 것을 모시었는데 임진정유왜란 중에는 정읍→아산→강화→묘향산 등지로 전전하며 보존되다가 광해군 6년(1614)에 경기전을 중수(重修)한 뒤에 경기전에 다시 봉안되었다. 그런데 어진이 오랫동안 보존되며 퇴락되자 구분을 세초매안 즉, 물로 탈색시키고 어진을 그렸던 비단을 백자그릇에 넣어 땅에 묻고 새로운 어진을 모시게 되었다. 즉, 고종(高宗) 9년(1872)에 서울 영희전(永禧殿)의 태조영정을 모본(模本)으로 새로 그린 영정을 경기전에 봉안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전은 조선왕조실록과 선원록 등 조선왕조의 역사와 왕실 족보 등이 존재하였던 전주사고가 있었다.

전주사고를 처음 설치한 것은 1449년(세종 21년)의 일이다. 이미 충주사고와 함께 성주 및 서울의 춘추관사고 와 함께 모두 4곳에 두었는데 처음에는 숭의사라는 곳에 두었다가 1473년(성종 4년) 5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경기전 동쪽 담장 안에 건립을 보게 되었다. 이곳에 보관된 사고가 임진왜란 때 유일하게 보존되어 현재 조선왕조실록을 다시 제작하는 원본이 되었던 것이다. 즉, 전주사고는 조선왕조의 역사를 수호한 역사수호도시 전주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그 의미와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이러한 태조어진을 지켜낸 600년의 역사와 조선왕조실록을 보전한 전주의 역사는 조선왕조 발상지 전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사를 수호한 공간으로서 그 의미와 가치는 헤아리기 어렵다.

경기전에는 태조 어진이 모셔져 있는 침전과 이곳에 배향을 드리는 공간 및 회랑건물

이 연결된 정전공간과 제사를 준비하는 부속건물 등이 있는 전사청 공간, 그리고 조선왕 조실록을 모셨던 사고가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사고는 별전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또 영조 대에 조경묘가 추가 되어 크게 경기전은 4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일제 강점기 때 전사청공간이 헐리고 일본인을 위한 소학교가 건립되었다가 현재의 중앙초등학교로 연결되었다. 나중에 현재 학교자리로 옮겼다. 이곳도 사실은 일제의 헌병대 주둔지였다고 한다.

한편, 조경묘(肇慶廟)는 전주 이씨의 시조인 신라 사공(新羅司空) 이한(李翰)과 시조비(始祖妣)인 경주 김씨의 위판(位版)을 봉안한 곳이다. 영조 47년(1771)에 유생들이 시조 사공(司空)에게 제사 드리지 않고 있음은 크게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사공공(公)의 묘사(廟祠)를 건립하여 제사를 드릴 것을 주청하였던 조경묘의 건립에 착수하여 그해 11월 중에 완공되었고 그와 함께 양위(兩位)의 위판을 조경묘에 봉안하였던 것이다.

이 공간은 한때 고종의 마지막 후손중의 한명으로 알려진 이문용여사가 마지막을 보낸 곳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완주군 구이면에 존재하던 예종대왕태실이 현재 경기전 안에 있는바 조선왕조의 혈연적 계승관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로서 완형이 남은 유일한 태실로 알려져 있다.

이들 전국에 산재한 태실이 일제 강점기 때 서울 서삼능 근처로 별도로 모셔지는 과정에서 대부분 훼손되었는데 지상구조물로서 완형이 남아 조선왕조의 혈연적 계승성을 기념하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

7. 근대로의 변혁,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 전주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전주는 발상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전봉준이나 김개남과 같은 최고 지도자를 배출한 곳도 아니었다. 하지만 전주는 농민혁명이 발발한 전라도의 수부(首府)이자 감영이 있던 곳이었던 만큼, 농민혁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들이 이루어진 현장이었다. 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전주에서는 농민혁명의 전사(前史)로 평가되는 삼례집회, 농민군 최대의 승리인 전주성 점령, 관군과 농민군 사이의 격전인 완산전투, 양자의 타협인 전주화약과 전주회담, 재봉기를 위한 농민군의 집결과 해산 직전의 최종 집결 등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를 테면 전주는 농민혁명을 통해 체제를 변화시키려 한 농민군이나 이를 막으려는 조선정부 모두에게 공수(攻守)의 상징적인 장소였고, 그에 걸맞는 진퇴(進退)의 공방이 이루어진 격전의 심장부였다.

그런데 전주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서 조선왕조의 근간을 뒤흔들고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였으며 집강소(執綱所)통치를 진행하여 우리 역사

상 최초로 진정한 민본주의와 지역민에 의한 자치를 실행한 곳이었다.

Ⅲ. 전주의 음식, 비빔밥의 유래와 특성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은 비빔밥과 한정식이다. 전주는 685년 완산주가 성립되고 757년 전주로 명칭이 개정된 이래 1,300여 년 전부터 전주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하여 900년에는 후백제의 도읍지였으며, 조선왕조를 일으킨 전주 이씨의 관향으로 조선시대에는 전라도 전 지역을 총괄하는 전라감영이 있던 행정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담당해온 역사적인 도시이다.

또한 호남 평야의 중심이자 서해안의 풍부한 해산물, 그리고 무진장의 산간의 생산물들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산해진미가 다 모일 수 있는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이같은 전주의 역사 지리적 특성은 전주여인들의 음식솜씨와 결합되어 한국최고의 음식문화를 꽃 피워 “멋과 맛의 고향 전주”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전주비빔밥은 평양냉면, 개성탕반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음식이었다. 비빔밥은 ‘골동반(汨董飯)’으로 기록되었는데 조선초기인 세조(1455~68 재위)시기 인물과 관련된 기록에서 골동반이란 표현이 확인되고 있어 그 존재가 일찍부터 확인된다. 비빔밥이 한글로 언급된 문헌은 1800년대 말의 ‘시의전서’로서 이 문헌에는 비빔밥이 ‘부빔밥’, ‘골동반(汨董飯)’으로 함께 기록돼 있다.

‘골동반의 골(汨)은 ‘섞을 골’ 동(董)은 ‘간직할 동’으로 ‘골동’이란 여러 가지 물건을 한데 섞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골동반이란 ‘이미 지어 놓은 밥에다 여러 가지 찬을 섞어서 한데 비빈 것’을 의미한다.

음식을 설명하는 자료 가운데 조선 23대 임금인 순조(純祖)때 홍석모가 저술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849년)의 동지 달편에 “골동지반(骨董之飯)”이란 말이 나온바 있고 조선양반가 음식책의 대표적인 것으로 작자미상 필사본인 시의전서(是議全書, 1800년대 말엽)에서는 부빔밥(汨董飯)이라 써여있다. 한자어 골(汨)은 ‘어지러울 골’ 자이며 동(董)은 ‘비빔밥 동’자로 골동(汨董)이란 여러 가지 물건을 한데 섞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이 그대로 연결되어 방신영씨가 1917년 저술한 《조선요리제법》에서는 부빔밥이라 써여 있다.

이와 같이 문헌상으로 볼 때 비빔밥의 명칭은 많이 바뀌어졌으나 밥에 여러 가지 찬을

섞어서 한데 비빈다는 뜻은 차이가 없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는 1800년대와 1900년대의 100년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난다. 100년 동안 식품재료의 생산이 증가함은 물론 한식이 완성된 시기라고 본다면 이 시기 재료변화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비빔밥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유형이 전해지고 있다.

먼저 궁중 음식설이 있다. 즉, 조선시대 임금님이 먹는 밥을 일컫는 ‘수라’에는 흰수라, 팔수라, 오곡수라, 비빔 등 4가지가 있는데 비빔밥은 점심때나 종친이 입궐하였을 때 먹는 식사였다는 설이 있다. 또한 선달그믐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묵은 해의 남은 음식을 없애기 위하여 묵은 나물과 밥을 비벼 먹었다는 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악의적으로 이를 거지밥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것은 일반 서민의 농번기 음식설이 있다. 즉, 봄철과 같은 농번기에는 하루에 여러 번 음식을 섭취하는데 그때마다 구색을 갖춘 상차림을 준비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그릇을 충분히 가져가기도 어려웠으므로 그릇 하나에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 먹게 되어 유래하였다는 설이 있다. 이를 설명한 최승범선생의 ‘란록기(亂綠記)’에 이러한 농번기 전주비빔밥의 유래가 잘 묘사되어 있다.

“산과 들 바다가 고루 갖추어진 전라도의 음식은 세 곳에서 나는 것을 모은 것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농번기에 농가의 아낙네는 들에 밥을 이고 갈 때 버들고리나 광주리 밥동구리를 모두 동원하여 찬 접시를 담고 나가려 하니 어찌 나를 수 있으랴, 그래서 생각한 것은 큰 옹배기 같은 그릇에 밥을 담고 찬을 그 위에 열열히 담고 고추장 한그릇 담고 숟가락 챙겨 이고 나갈 때 논고랑 밭고랑을 쉽게 걸어가서 밭둑 논둑의 하늘아래 야외식탁이 펼쳐진 것이 비빔밥이고 보니 식단 합리화라 칭송한다. 바로 전주의 비빔밥은 농경문화에서 그 유래를 들 수 있는 대목이다.

보다 실제적인 전주비빔밥의 유래는 전주와 같은 대표적인 예향도시에서 자주 진행되었던 제례문화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조선시대 전주에서 진행된 다양한 제사와 의식 때 진설된 음식을 조상신 등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신인공식(神人共食)의 의식에서 유래하였다는 설로 전주비빔밥은 전주가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전라감영이 있는 도시이고 조선태조의 어진(초상)을 모신 경기전(慶基殿)에서 서울의 종묘에서 행해졌던 종묘제례와 격이 같은 제사가 지방에서 행해졌던 사실을 감안할 때 왕실의 음식인 비빔밥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후기까지 전국의 소문난 비빔밥은 전주부빔밥, 평양골동반, 해주교반, 진주화반 등인데 이들 지역의 특징은 모두 각 지방의 대표도시로서 많은

의식이 진행되었던 곳으로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경기전에서 종묘제례와 같은 의식이 행해졌고 전라감사가 객사 등에서 망궐례 등을 진행하면서 의례에 참가하였던 모든 관리와 백성이 함께 준비된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전통이 전주비빔밥의 유래라고 파악된다. 즉,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난 전주음식의 우수성과 풍부한 식재료 및 경제적 풍요로움에 기반한 전주의 음식문화가 전주 지역 의례공동체 음식인 비빔밥으로 종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전주비빔밥은 그 재료가 밥, 콩나물, 황포묵, 쇠고기, 육회(육회볶음), 고추장, 참기름, 달걀 등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 즉, 다른 지역은 제사와 관련된 전통을 유지해 음식에 붉은 색의 고추장을 쓰지 않고 간장으로 비빔 진주헛제사밥, 안동헛제사밥 등으로 유지된 것에 비해 전주에서는 고추장을 사용해 맛있는 비빔밥으로 발전시켜 제사음식의 성격이 아닌 산사람을 위한 한국을 대표하는 전주비빔밥으로 정착되었다. 또한 전주비빔밥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상하귀천 구별 없이 똑같이 같은 음식을 나눠먹는다는 점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대동(大同)의 음식임을 보여준다.

IV. 전주정신의 성격과 내용

1. 한국 고대시기 문화융합과 새로운 대안의 땅, 전주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당과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협조를 구한 고구려유민들을 옮겨 살게 하면서 세운 보덕국(報德國)이 세워졌다. 신라는 백제지역에 대한 견제와 당나라의 신라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구려멸망직후 고구려왕족 안승(安勝)이 이끄는 고구려유민들을 과거 백제의 최대 거점인 금마지역에 옮겨 보덕국(報德國)을 건립시켜 신라까지 복속시키려한 당과 함께 맞섰다. 그러나 이들 고구려유민들이 자신들을 신라가 이용만 하였음을 깨닫고 신문왕 4년(684년) 반란을 일으키자 강력한 진압작전을 진행하고 금마지역을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이들을 남쪽 땅으로 흩어버리고 이곳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륵산(彌勒山)과 모악산(母岳山)으로 포괄되는 지역의 중심거점을 옮겨 바로 다음해인 신문왕5년(685) 완산주(完山州)와 남원소경(南原小京)을 세웠다. 이때부터 비로소 현재의 전주지역이 이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아 역사의 전면에 부상케 된 것이다.

완산(完山)이란 지명은 백제이래의 지명인 완산을 유지한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에는 전주의 다른 명칭으로 비사벌이란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비사벌이란 지명은 현재 경남 창녕(昌寧)지역의 옛 명칭으로 백제가 서기 4세기 후반 경 근초고왕때에 가야지역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진행하였고 그때 가야지역에 백제의 군령(軍令), 성주(城主)가 배치되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과 이후 신라의 가야진출에 따라 이들이 다시 백제지역으로 복귀하면서 창녕지역의 백제계통 사람들이 현재의 전주지역으로 재배치되면서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창녕의 옛 지명을 가지고와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주지역은 고조선 마한의 전통과 백제의 기반 그리고 가야, 고구려의 문화적 전통, 신라적 현실을 함께 포용한 역사의 용광로로서 한국의 역사문화의 종합관과 같은 성격을 갖게 되었다.

2. 백제 부활의 땅 전주

완산주(完山州)란 지명은 경덕왕(景德王) 16년(757) 전국을 9주(州) 5소경(小京)체제로 개편하면서 전주(全州)로 바뀌었다. 이때 명칭개편은 경덕왕의 한화정책(漢化政策)의 일환으로 고유지명을 중국식 지명으로 바꾸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全의 뜻이 “온전할 ‘전’ ” 으로 온과 완(完 완전할 완)의 음이 서로 통하여 변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같은 신라의 정책에 대해 이 지역민들은 전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전주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전주지역의 종교적 지주역할을 한 금산사(金山寺)를 중심으로 진표(眞表)는 백제이래의 미륵신앙을 부흥시켜 지역민들의 종교적 안정과 정치적 구심력을 유지하였다.

3. 왕도(王都)의 땅 전주

후삼국시기 무진주(茂珍州=현재의 광주)에서 신라에 반기를 들었던 견훤(甄萱)이 900년 백제를 부활시킨 후백제를 정식으로 세우고 그 첫수도로서 전주를 선택하여 백제 부활의 땅 전주로서의 위상을 더욱 드높였다. 비록 37년이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주는 국가의 수도로서 그에 걸맞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중심지였으며 당시 기록에 의할 때 가장 화려한 궁성과 도성시설을 갖춘 그리고 가장 책이 많았던 도시로서 명실상부한 후삼국 최대의 도시였다. 그러나 견훤과 신검부자의 갈등은 결국 국가의 쇠망으로 연결되어 936년 후백제의 붕괴와 함께 전주의 위상은 약화되고 고려의 지역적 차별정책에 의해 상당히 위축된 모습으로 유지되었다.

이같은 대립적 구도는 고려 시기라는 완충기를 거쳐 결국 조선왕조 개창의 기반지역 즉 조선왕조의 관향(貫鄕)으로서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전주가 우리역사에서 가장 인상 깊은 역할로 남아있는 것은 조선왕조의 개창과 관련된 역할이다. 조선왕조를 개창한 이성계는 전주 이씨이지만 고향은 함경도 영흥지역이다. 전주는 그의 4대조인 목조 이안사 때까지 대를 이어 현재의 이목대 근처에서 살아왔는데 목조 이안사가 전주지역 판관과의 불화로 함흥지역으로 도피하였고 이후 함경도 영흥지역에 터를 잡아 이성계는 이 지역에서 출생하였다. 이 지역에서 무관으로 성장한 이성계는 고려 말 우왕 때 전북지역에 침입한 왜구 소탕을 위해 남원 운봉 지역에 급파되었고 이 때 황산(荒山)지역에서 대승리를 거두어 전국적인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황산대첩을 거둔 이성계는 자신의 본관도시인 전주에 개선하였고 이때 전주이씨 종친들이 현재의 오목대에서 승리 축하 연회를 베풀어주었다. 그런데 연회에서 이성계가 ‘대풍가(大風歌)’를 읊어 새로운 왕조탄생에 대한 의중을 드러내어 새로운 왕조 탄생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전한다. 이 같은 인연은 이후 태조의 영정을 모신 경기전이 마련되고 조선왕조실록을 모신 사고가 설치되어 조선왕조의 출발과 역사를 담보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특히 임진왜란을 거치며 다른 지역에 모셨던 태조의 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이 모두 불타고 망실된 것에 비해 오직 전주지역만이 이들 어진과 실록을 안전하게 수호함으로서 역사수호의 도시로서의 성격을 갖게 하였다. 이때 어진과 실록이 보존되지 못하였다면 조선왕조 전반기의 역사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끔직한 상황이 발생할 뻔 했지만 전주지역민들의 노력으로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이같은 역할만으로도 전주는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었다.

4. 조선을 먹여 살린 땅, 생명의 전라북도, 전주

이순신장군은 임진왜란시기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이 조선의 군량미로 보급되어 조선이 일본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던 사실을 중시하여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었을 것이다.(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 고 말하였다. 바로 호남평야의 땅 전북이 그 핵심 공간인 것이다. 이 전통을 계승하여 새롭게 우리 대한민국 아니 통일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토대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마련하는 전라북도의 역사적 역량을 새롭게 이해하고 새로운 시대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5. 모두가 하나 되어 평등한 대동(大同)과 개벽(開闢)의 땅 전주



[그림 4] 전주부성모습. 성벽과 사대문의 모습이 남아있고 제방이 쌓이전 전주천의 모습이 잘 남아있다.(1900년대 초)

전라북도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의 사람중심의 전통인식을 계승한 동학의 정신이 가장 넓게 유포된 지역으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조선왕조의 근간을 뒤엎고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면서도 일본과 청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 관과 민이 화해하여 우리 역사상 최초로 관과 민이 함께 협의하는 집강소(執綱所)통치를 통해 진정한 민본주의와 지역민에 의한 자치를 실행한 곳이었다. 특히, 일본에 의해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보국안민(輔國安民)(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케 함)과 척양척왜(斥洋斥倭)(서양과 일본의 침략을 물리침)를 외치며 분연히 일어난 절의의 땅이었다. 이러한 대동과 변혁의 정신은 종교적으로 계승되어 증산 강일순의 후천개벽과 소태산 박중빈의 정신적 문명개벽으로 발전되어 새로운 세계로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V. 결론

우리나라 역사 전개과정에서 호남지역의 중심지역은 전주권역으로 대표된다. 전주권역은 지리적으로 익산의 미륵산을 기점으로 전주의 모악산까지 연결되는 산줄기로 포괄되며 그 사이에 만경강이 흘러가는 일종의 분지형태의 지역이다. 이곳은 한국고대문명의 요람 지역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한국역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전주권역은 크게는 현재의 전라북도와 충남일부지역을 포괄하고 작게는 만경강을 사이에 두고 전주-익산으로 연결된 공간이었다. 이 지역이 우리 역사 속에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고조선 준왕의 망명지로 이곳이 역사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른바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準王)이 기원전 194년경 위만(衛滿)이

일으킨 정변으로 쫓겨난 후 망명한 곳을 《고려사》 지리지 이후 모든 전통지리지들이 현재의 금마지역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실은 1897년 조선의 고종이 외세에 의해 실추된 국가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황제국으로 출범하면서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바꾸게 된 역사적 근거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현재의 대한민국(大韓民國) 국호로 연결되어 대한민국 국호발상지로서 전라북도지역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마한(馬韓) 54국중 건마국(乾馬國)이 이곳에 있었으며, 백제(百濟) 무왕에 의한 마지막 천도(遷都)예정지(또는 별도(別都))였다. 더욱이 이곳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고구려(高句麗)유민들을 옮겨 살게 하면서 세운 보덕국(報德國)시기까지 익산(금마일대)일대가 중심거점이었고 통일신라이후 지역중심이全州로 이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통일신라는 백제지역에 대한 견제를 위해 高句麗멸망직후 고구려왕족 안승(安勝)이 이끄는 고구려 유민들을 과거 백제의 최대 거점인 금마지역에 옮겨 보덕국(報德國)을 건립시켜 전형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어하는 외교책)” 정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고구려유민들이 자신들을 신라가 이용하였음을 깨닫고 신문왕 4년(684년) 반란을 일으키자 강력한 진압작전을 진행하고 금마지역을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이들을 남쪽 땅으로 흩어버리고 이곳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륵산(彌勒山)과 모악산(母岳山)으로 포괄되는 지역의 중심거점을 옮겨 바로 다음해인 신문왕5년(685) 완산주(完山州)와 남원소경(南原小京)을 세웠다. 이때부터 비로소 현재의 전주지역이 이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아 역사의 전면에 부상케 된 것이다. 이때 완산(完山)이란 지명은 백제이래의 지명인 완산을 유지한 것으로 《삼국사기》에는 이 지역의 다른 명칭으로 비사별이란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비사별이란 지명은 현재 경남 창녕(昌寧)지역의 옛 명칭으로 창녕과 전주지역에 동일한 고지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는 삼국사기 기록자의 오류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백제가 서기 4세기 후반경 근초고왕(近肖古王)때에 가야(加耶)지역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진행하였고 그때 가야지역에 백제의 군령(軍令), 성주(城主)가 배치되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과 이후 신라의 가야진출에 따라 이들이 다시 백제지역으로 복귀하면서 창녕지역의 백제계통 사람들이 현재의 전주지역으로 재배치되면서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창녕의 옛 지명을 가지고와서 살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입장을 감안한다면 전주지역의 옛 지명으로 존재한 비사별이란 명칭이 이같은 역사적 연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전주지역의 역사성이 다양한 문화적 연계 고리로 설정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이해된다.

이후 경덕왕(景德王) 16년(757) 전국을 9주(州) 5소경(小京)체제로 개편하면서 완산주(完山州)를 전주(全州)로 개명하였다. 이때 명칭개편은 경덕왕의 한화정책(漢化政策)의 일환으로 고유지명을 중국식 지명으로 바꾸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畵의 뜻이 “온전할 ‘전’ ” 으로 온과 완(完 완전할 완)의 음이 서로 통하여 변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같은 신라의 정책에 대해 이 지역민들은 전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전주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전주지역의 종교적 지주역할을 한 금산사(金山寺)를 중심으로 진표(眞表)는 백제이래의 미륵신앙을 부흥시켜 지역민들의 종교적 안정과 정치적 구심력을 유지하였다. 또한 후삼국시기 무진주(茂珍州=현재의 광주)에서 신라에 반기를 들었던 견훤(甄萱)이 새로운 국가를 정식으로 세우고 그 첫수도로써 전주를 선택하여 전주의 위상을 더욱 드높였다. 비록 37년이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주는 한 나라의 수도로서 그에 걸맞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중심지였으며 당시 기록에 의할 때 가장 화려한 궁성과 도성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후삼국 최대의 도시였다. 그러나 견훤과 신검부자의 갈등은 결국 국가의 쇠망으로 연결되어 936년 후백제의 붕괴와 함께 전주의 위상은 약화되고 고려의 지역적 차별정책에 의해 상당히 위축된 모습으로 유지되었다. 이같은 대립적 구도는 고려 시기라는 완충기를 거쳐 결국 조선왕조 개창의 기반지역 즉 조선왕조의 貫鄕으로서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전주가 우리역사에서 가장 인상 깊은 역할로 남아있는 것은 조선왕조의 개창과 관련된 역할이다. 조선왕조를 개창한 이성계는 전주 이씨이지만 고향은 함경도 영흥지역이다. 전주는 그의 4대조인 목조 이안사 때까지 대를 이어 현재의 이목대 근처에서 살아왔는데 목조 이안사가 전주지역 판관과의 불화로 함흥지역으로 도피하였고 이후 함경도 영흥지역에 터를 잡아 이성계는 이 지역에서 출생하였다. 이 지역에서 무관으로 성장한 이성계는 고려 말 우왕 때 전북지역에 침입한 왜구 소탕을 위해 남원 운봉 지역에 급파되었고 이 때 황산(荒山)지역에서 대승리를 거두어 전국적인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황산대첩을 거둔 이성계는 자신의 본관도시인 전주에 개선하였고 이때 전주이씨 종친들이 현재의 오목대에서 승리 축하 연회를 베풀어주었다. 그런데 연회에서 이성계가 한고조 유방의 대풍가를 읊어 새로운 왕조탄생에 대한 의중을 드러내어 새로운 왕조 탄생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전한다. 이같은 인연은 이후 태조의 영정을 모신 경기전이 마련되고 조선왕조실록을 모신 사고가 설치되어 조선왕조의 출발과 역사를 담보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특히 임진왜란을 거치며 다른 지역에 모셨던 태조의 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이 모두

불타고 망실된 것에 비해 오직 전주지역만이 이들 어진과 실록을 안전하게 수호함으로서 역사수호의 도시로서의 성격을 갖게 하였다. 이때 어진과 실록이 보존되지 못하였다면 조선왕조 전반기의 역사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끔직한 상황이 발생할 뻔 했지만 전주지역민들의 노력으로 이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이같은 역할만으로도 전주는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었다.

또한 전주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서 조선왕조의 근간을 뒤엎고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였으며 집강소(執綱所)통치를 진행하여 우리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민본주의와 지역민에 의한 자치를 실행한 곳이었다.

따라서 전주로 상징되는 이 일대지역의 다채로운 역사적 경험은 고조선과 마한의 전통과 백제 이래의 역사적 전통에 고구려유민의 역사 그리고 가야의 역사와 신라의 통합정책이 아우러진 역사의 현장이었다. 또한 후백제 왕도로서 왕도의 땅으로 자리하였고 고려에 의한 통합을 통해 민족사적 새로운 통합이 이루어진 현장이었다. 즉, 우리 역사의 지역적 갈등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현실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보여주는 곳이다.

또한 조선왕조의발상지로서 근대적 변혁을 추진한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으로서 역사의 변혁과 대안을 제시한 지역이 전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같은 전주지역의 역사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서의 위상과 내용에 부응하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변명과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지역, 계층, 민족적 통합의 과제에 대한 역사적 터전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

즉, 전주의 역사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경험은 전주지역에서 ‘대동(大同)’의 문화가 꽃피우는 특성을 나았다. 특히, 호남평야의 중심거점으로 새로운 대안과 창조의 역량을 제공하였으며 구성원이 하나 되는 문화 즉, 대동의 문화를 꽃피웠다.

한편 전주(全州)의 한자표현 가운데 승암산자락 후백제 유적에서 발견된 전주성 명문와당에 나타난 전주성(全州城)의 한자표현 중 전(全)자가 같은 동(同)자의 옛 표현인 동(仝=同)자와 비슷한 글자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전(全)을 숙달된 솜씨로 썼던 후백제시기 사람의 흔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전(全)과 동(同=仝)이 연결되어 전주는 결국 모든 사람을 갈게 대우한다는 대동의 의미와도 연결되는 역사적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같은 의미는 최근 전주시가 다함께 어울려 힘을 합친다는 의미의 다올마당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도 연결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전주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든 구성원을 서로 갈게 만든다는 의미의 ‘대동(大同)정신’, 또는 순수 우리

말로 ‘다울정신’ 이 전주정신이라고 생각된다.



전주 풍류문화와 전주정신

이 동 회*

<목 차>

- I. 머리말
- II. 전주정신 정립의 필요성과 방안
- III. '전주 사불여'와 풍류문화
- IV. 전주 풍류문화의 역사적 기저
- V. 풍류문화에 깃든 전주정신
- VI. 맺음말

I. 머리말

전주는 통일신라 이래 일도의 중심도시로서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도시이다. 통일신라 때 주가 설치되어 전북일원의 중심지가 되었고, 후백제 때 왕도가 되었으며, 고려 때는 전주목으로 전북권의 중심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왕조의 발상지인 풍패지향으로 예우되었으며, 전라감영이 설치되어 호남제일성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는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로 자리하고 있다.

전주는 천년이 훨씬 넘게 전북 또는 전라도의 중심도시로서, 때로는 왕도로서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조선제일의 곡창지대 전라도의 수부로서 풍부한 경제력을 토대로 문화예술을 크게 꽃피웠다. 음식맛이 빼어나기로 명성이 높고 세계무형유산 판소리의 본산이며, 선비정신을 담은 서화의 고장이고, 고소설을 비롯해 많은 책을 출간한 출판의 도시이며, 우리 종이 한지의 대표적 생산지이다.

그러면 이러한 전주 역사문화를 관통하는 지역정신은 무엇일까? 전주 역사문화의 토대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정신이 유효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심이 될 수

* 전주역사박물관 관장

있으며, 미래 전주발전도 끌어갈 수 있는 전주정신은 무엇일까? 전주시는 2014년에 출범한 민선 6기에 들어와 전주정신정립을 시정의 큰 과제로 삼고 2015년 전주정신을 제정 선포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전주정신 학술대회도 이런 선상에서 개최된 것이다.

필자는 2006년 『전주학서설』에서 전주정신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¹⁾ 이후 2009년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역사, 문학, 사상, 민속, 고고학, 농업경제 제분야에 걸쳐 전주정신을 모색하기 위한 전주정신 대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저항과 풍류, 상생과 해원, 동학의 인내천, 화이부동, 넉넉함과 포용력, 기개와 기품, 새로운 세상 추구 등이 전주정신으로 제기되었다.²⁾ ‘저항과 풍류’는 일찍이 최명희가 『혼불』에서 전주정신으로 주창한 바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이 삶의 중심이 되면서 각 지역별로 지역학 연구 붐이 일어나고, 이 지역학들의 공통된 주제로 지역정체성과 지역정신 정립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정체성과 지역정신 정립은 지역민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지역민들의 결집력을 높여서 지역공동체를 공고히 하며,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전주 사불여(全州四不如)’를 중심으로 전주가 풍류도시임을 밝히고, 전주 풍류문화에 깃든 전주정신을 찾아본 것이다. 전주정신을 모색해 가는 시론적인 글이지만 전주의 지역정신을 정립해 가는데 일익을 했으면 한다.

II. 전주정신 정립 필요성과 방안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하는 지역학연구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논리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학연구는 1993년 서울시립대학교의 서울학연구소 개창에서 비롯되었으며,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과 함께 활성화되었고, 현재는 광역자치단체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지역학연구가 확산일로에 있다.³⁾

1) 이동희, 「전주학 정립의 필요성과 방법」 『전주학서설』, 전주역사박물관, 2006, 22~23쪽.

2) 전주정신토론회 때 발제문과 토론문은 『전주학연구』 3(전주역사박물관, 2009)에 게재되어 있다. 발제자로 장명수, 홍성덕, 토론자로 김기현, 소순열, 송화섭, 이동희, 이상균, 이태영, 조법종, 이종민, 김남규, 고언기 등이 참여하였다.

3) 정정숙,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전주학은 전주역사박물관에서 2005년 ‘전주학의 본산’을 표방하면서 태동되었다. 지난해 2014년까지 10년에 걸쳐 전주학은 전주학학술대회 16회 개최, 전주학 정기학술지 『전주학연구』 8집 발간(연 1회), 전주학총서 31책 발간, 전주학 시민강좌 13기를 진행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전주와 그 일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광역단위 ‘전북학’은 아직 출범을 못하고 있다.⁴⁾

지역 정체성과 지역 정신 정립은 지역학 연구의 공통된 주제요 지역학 연구자들의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지역 정체성 규명은 지역학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며, 각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근간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 그래서 각 지역학의 개념정의를 보면 그 목적에 거의 다 정체성 정립을 표방하고 있다.⁵⁾

지역학이 각기 자기 지역의 정체성과 정신 정립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첫째, 지역민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역학의 목적이지만, 지역 정체성과 지역 정신 정립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은 지역민으로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고취시켜서 지역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둘째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지역민들이 지역정체성과 지역정신을 공유하여 문화적 동질감을 갖게 되면, 지역민들의 결집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지역정신은 지역민들을 결집시키는 매개체로, 지역민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연결하는 고리이다.

셋째,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지역의 문화유산도 지역정신과 연계되어 설명될 때 그 가치를 더 발휘할 수 있다. 지역정체성과 지역정신은 지역 인지도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문화관광자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전주정신 정립도 그 필요성과 가치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다. 전주정신이 정립됨으로서 전주인들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고, 전주지역 공동

4) 전북학 출범을 위한 간담회를 2014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개최한 바 있다. ‘전북학’이라는 이름은 1997년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에서 『전북학연구』(3책)를 발간하면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전북학연구소가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 전북도에서 지원하여 전라문화연구소가 아닌 타기관에서 ‘전북학’이라는 이름으로 논총을 몇 책 내고는 중단되었다.

5) 정정숙, 앞의 책, 14~15쪽.

체가 강화되며, 전주의 지역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전주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전주가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도시 위상이 위축되어 현재 지역에 대한 자부심 보다는 상실감과 부정적 인식을 가진 지역민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지역정신 정립을 통한 지역민 자긍심 고취는 더욱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전주는 그 지역적 위상이 과거와 현재의 괴리가 큼으로, 이를 좁혀주고 이런 괴리감을 극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에서도 지역정신 정립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지역정신을 규명하고 정립하고자 할 때 그 방안과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먼저, 전주역사문화의 지속적 특질에서 전주정신을 찾아야 한다. 전주지역의 역사문화에 관한 종합적연구를 통해 지역적 특질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그 특질의 기저가 되었던 정신이 무엇인가 찾아야 하는데, 이 때 지역정신은 한 시대의 현상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지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전주역사문화의 지속적인 특질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이런 지역의 지속적 특질이 일부계층만이 아니라 보편적이어야 할 것이다. 특정계층만의 특질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보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이는 신분과 계층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역민들을 모두 아울러야 하는 지역정신이 되기 어렵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지역정신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주정신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성이 있어야 한다. 되도록이면 현재와의 괴리감이 적어야 할 것이다. 전주의 과거에 존재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면, 더욱이 사람들의 기억속에서조차 사라졌다면 현재의 전주인들을 움직이기 어렵다. 전주정신이 현재와 미래에 기여하려면 그 맥락이라도 현재에 남아서 이어지는 면이 있어야 힘을 발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성, 보편성, 현재성과 함께 전주정신에는 미래가치가 담겨야 할 것이다. 전주정신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전주역사문화의 특질 중에서 미래가치가 큰 것을 끄집어내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전주의 과거 속에서 미래에 유용한 정신을 지역정신으로 정립해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주정신은 시대의 변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⁶⁾

이렇게 전주역사문화에서 지속성, 보편성, 현재성, 미래가치성을 가진 전주정신

6) 홍성덕, 「전주정신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 『전주학연구』 3, 전주역사박물관, 2009, 175~176쪽.

이 모색되고 정립되면 지역 정신문화의 중심축이 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전주정신이 고착화되어 유연성이 결여되거나 지나치게 하나의 정신만을 고집하고 주창한다면 오히려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해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Ⅲ. ‘전주 사불여’와 풍류문화

십여년전 지역신문에 ‘한자어’를 연재하면서 한자속담사전에서 ‘전주 사불여(全州四不如)’라는 한자어를 찾아 소개한 적이 있다. 전주의 특질을 말한 것으로 “벼슬아치가 아전만 못하고[官不如吏], 아전이 기생만 못하고[吏不如妓], 기생이 소리만 못하고[妓不如聲], 소리가 음식만 못하다[聲不如食]”는 것이다.⁷⁾ 즉 전주의 특질로 아전, 기생, 소리, 음식 네가지를 들고 이 중에 제일은 음식이고, 그 다음이 소리이며, 그 다음이 기생이고, 그 다음이 아전이라고 것이다.

필자가 아는 한 이때까지 전주를 논하면서 이같은 ‘전주사불여’는 언급된 적이 없었다. 보통 전주지역에서 ‘전주사불여’라고 하면 김철수씨가 지역에 전해오는 설화라고 하여 1960년대에 『전주야사』에 수록해 놓은, ‘벼슬아치가 아전만 못하고[班不如吏], 기생이 통인만 못하고[妓不如通[退], 술이 안주만 못하고[酒不如肴], 배가 무만 못하다[梨不如菁]’는 것이다.⁸⁾

한자속담사전과 『전주야사』의 전주사불여가 똑같지는 않지만 전주의 성향을 엿비슷하게 담고 있다. 먼저 같은 것은 ‘관불여리’, ‘반불여리’이다. 한자속담사전의 ‘관불여리’는 벼슬아치가 아전만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주가 감영소재지이므로, 여기에서 ‘관’은 중앙에서 파견된 전라감사일행을 뜻하는 것이다. 『전주야사』에 전하는 ‘반불여리’의 ‘반(班)’ 또한 전라감사일행으로 해석된다. 글자상으로는 ‘반’이 양반일 수 있지만, 전라감영고을에서 아전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한자속담사전의 ‘관불여리’로 볼 때 그렇다. 김철수씨도 한양에서 내려온 감사일행으로 해석하였다.⁹⁾ 결국 전주의 특질 ‘관불여리’, ‘반불여리’는 곧 중앙에서 부임한 감사일행보다 전주토착세력인 아전세

7) 임종욱, 『한국한자어속담사전』, 이회, 2001, 462쪽.

8) 김철수, 『전주야사』, 전주시관광협회, 1967, 124~125쪽. 역문은 필자가 가감한 것이다.

9) 위와 같음.

력이 더 강하다는 뜻이다.

조선말 전주 아전들이 득세했음은 대원군이 지적한 조선사회의 3대 병폐에도 잘 나타나 있다. 매천 황현이 『오하기문』에서 언급했듯이, 대원군은 충청도 사대부, 평안도 기생, 전주 아전을 조선사회의 세가지 큰 폐단으로 꼽았다.¹⁰⁾ 이는 전라감영이 소재한 전주 아전들의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대변해 준다.

감영에는 영리들이 있어서, 감영 소재지의 아전세가 컸겠지만 전라감영의 소재지인 전주는 유달랐던 것이다. 전주아전들의 득세에는 중앙의 세도가들과의 연계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전주의 토착세력들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관불여리’, 즉 벼슬아치가 아전만 못하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물론 아전세력이 감사일행보다 세력이 꼭 컸다기 보다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전주아전세력이 대단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자속담사전에 그 대단한 전주 아전이 기생보다 못하다고 하였다. 비록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전주기생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해준다. 아마도 전주기생의 뛰어난 기예와 화려한 차림새를 크게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생하면 평양을 떠올리지만 전주 기생 또한 출중했던 것이다. 전통의 시대 기생의 기예는 곧 풍류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으로 기생이 뛰어나다는 것은 전주의 예향적 성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전주야사』에서는 기생이 통인만 못하다고 하였다. 통인은 전라 감사와 전주부윤의 심부름꾼으로 전주대사습놀이의 주역들이다. 조선말 죽천 박정양의 포쇄일기에 보면 전주 통인들의 호사스런 차림새에 대해, “통인놈의 호사보소, 잔줄누비 명주바지, 고은 보라 분주 동옷, 생주 겹옷 눌러 입고, 천청모 초 전배자에, 국수 누비 왜증 토시, 자주 감사 쾌자에다, 남전대 띠를 띠고, 은장도 찰 싹지와, 약낭 향낭 갖춰 차고, 통대자 허리띠에, 전주머니 주황끈을, 빗 좋게 꿰어 차고, 중중치레 가관이다.” 라고¹¹⁾ 하였다. 기생이 통인보다 못하다는 것은 김철수씨의 해석처럼 통인들의 이런 차림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양도 이런 전주 통인들의 차림새에 놀라서 장황하게 이를 기록했다. 전주기생도 화려한 차림새가 출중한데, 전주통인들의 차림새가 이보다 낫다고 하니 통인들의 행세를 짐작할 만 하다.

10) 황현지음·김종익옮김,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64쪽.

11) 박정양저·최강현역주, 『조선시대 포쇄일기』, 신성출판사, 1999, 83쪽.

다시 한자속담사전의 ‘전주사불여’로 돌아와서 논의를 전개하면, ‘기불여성(妓不如聲)’이라고 하여 아전과 기생보다 더 대단한 것이 소리라고 하였다. 전주 소리가 그만큼 빼어나다는 것으로 조선후기에 시작된 전주대사습놀이도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지금도 전주대사습놀이는 이런 전통에 힘입어 판소리 최고의 등용문으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전통기 전주 대사습놀이는 전라감영과 전주부영의 통인들이 소리꾼들을 불러 모아 놓고 경연대회를 펼친 것으로 여기에서 인정을 받으면 명창으로 예우되었다. 소리의 최고 등용문이 한양이 아니라 전주에 있었다는 것은 예향 전주와 관련하여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리고 한자속담사전 전주사불여에 ‘성불여식(聲不如食)’이라고 하여 이런 소리보다 더 뛰어난 것이 음식이라고 하였다. 아전, 기생, 소리보다도 음식이 최고라는 것이다. 즉 한자속담사전의 전주사불여는 전주의 특질로 아전, 기생, 소리, 음식을 뽑고 이 중에서 음식을 전주 최고의 특질로 평하였다. 전주음식이 빼어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처럼 잘 표현한 말도 드물다. 전주음식의 역사성과 관련해 의미가 큰 전주사불여이다.

『전주야사』에 전하는 전주사불여에도 이와 유사한 ‘주불여효(酒不如肴)’라는 말이 있다. 김철수씨는 ‘주불여효’에 대해, “가지각색 비방으로 비벼담아 그 술맛 좋기로 천하에 알려진 소문난 명주로도 그 실은 부성의 여염집이나 주모들의 솜씨로 다루어 내놓는 그 회가 동하는 주안상의 안주맛에 기대어 비로소 그 술맛이 드러나게 된다는 설화이다. 것처럼 부성의 여염네들의 손 놀려 차려놓는 그 안주상은 우선 눈으로 코로 스며드는 시각취각부터서가 놀랍고 그 맛인 즉 강호에 높이 알려진 자랑인데서 빛은 소리다”라고¹²⁾ 하였다.

천하명주도 전주 여인네들의 안주가 있어야 제맛이 난다는 것으로 전주지역 안주상에 차려놓은 음식의 맛깔스러움을 말한 것이다. 지금 전주 막걸리집이 유명세를 가진 것도 한 상 걸판지게 차려놓는 안주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불여효’도 결국은 전주음식의 빼어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철수씨는 천하명주도 전주음식으로 인해 빛이 난다고 풀었지만, 글자 그대로 하면 술이 안주만 못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자속담사전이나 『전주야사』에 전하는 전주사불여 둘 다 공히 전주음식의 빼어남을 예찬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야사』에 채소 무가 과일 배보다 맛이 좋다는 ‘이불여청(梨不如菁)’

12) 김철수, 같은 책, 125쪽.

도 전주음식을 직접 예찬 한 것은 아니지만, 넓게 보면 전주음식과 관련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무가 음식을 만드는 식재료라는 점에서 그렇다. 무는 전주 8미의 하나이다.

‘전주사불여’는 전주지역에 전해지거나 한자어로 전해지는 것을 한자속담사전과 『전주야사』를 편찬하면서 수록한 것이다. 따라서 누가, 언제 이런 ‘전주사불여’를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전주사불여를 통해서 전주의 특질로 토착세력이 강하고, 그들이 빚어 놓은 음식문화를 비롯한 풍류문화가 매우 뛰어났음을 인지하는데는 무리가 없다. 특히 전주의 특질로 아전, 기생, 소리, 음식을 들고 있는 한자속담사전의 전주사불여는 전주지역 풍류문화의 뛰어남을 잘 보여준다.

전라감사가 종2품인데, 이 감사보다 아전세가 강하고, 이 아전보다 풍류의 성격을 띤 소리, 기생, 음식이 더 대단하다는 것은 전통기 전주의 풍류문화가 얼마나 빼어났는지를 실감케 한다. 현재 전주음식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소리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실 전주는 전통적으로 문화예술이 발전하여 일찍부터 예향이라고 칭해졌다. 전주사불여에 나오는 소리와 음식 외에도 서화(書畵), 출판문화, 한지 등이 매우 빼어난 곳이 전주이다. 창암 이삼만으로 대표되는 전주지역의 서화는 선비정신을 담은 서예와 문인화로 그 이름이 높다. 창암 이삼만은 조선후기 3대 명필의 하나로 그의 글씨체는 물이 흐르는 듯하다고 하여 유수체라고 한다.

전주는 또한 출판문화가 발달했던 곳으로 완판본이라는 이름으로 고소설을 비롯해 사서삼경 등 많은 책들이 전주에서 출간되었다. 완판본이란 한양 경판본에 대비해 완산에서 출간한 책이라는 의미이다. 완산은 전주의 옛지명이다. 전주에는 전라감영 책판이 현재도 5천여장이 남아 있어 출판도시 전주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다.

전주는 이런 서화와 출판의 기반이 되는 우리종이 한지 생산을 대표하는 곳이다. 전주는 한지의 본가로 불리기도 한다. 전주한지는 곧 전주 출판문화와 서화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전주부채 또한 질 좋은 전주한지가 기반이 되었다. 전주부채는 임금에게 올리는 진상품으로 전라감영에 선자청을 두고 제작하였다. 후백제 견훤이 고려 왕건에게 선사하였던 것도 부채이다. 전주한지와 전주부채는 일찍부터 전주의 특산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³⁾

13) 이동희, 「전주한지의 역사성에 관한 기초적 고찰」 『전북사학』 45, 전북사학회, 2014.

전주사불여와 예향으로서 전주의 특질을 놓고 볼 때 전주는 문화예술이 발전한 풍류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혼불의 작가 최명희를 비롯해 많은 도내외 사람들이 전주를 풍류의 도시, 또는 예향이라고 칭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 같다. 전주를 맛과 멋의 도시라고 하였는데, 이말이 곧 전주가 멋을 추구하는 풍류도시의 정체성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한국의 문화적 전통으로 풍류를 꼽고, 한류의 뿌리가 우리의 전통적인 풍류라고 했을 때,¹⁵⁾ 그 풍류의 대표적 도시로 전주를 들 수 있을 것이다.

Ⅳ. 전주 풍류문화의 역사적 기저

그러면 전주에 풍류문화를 꽃피운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전주와 전라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차대와 이로 인해 지역인재들의 중앙진출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풍류문화 발전의 요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즉 중앙진출이 안되어 문화가 발전했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이런 차대가 전주 풍류문화 발전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전주역사문화의 기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풍류문화 발전의 배경으로 우선 전주의 경제력을 꼽아 볼 수 있다. 전라도는 조선 국가재정의 1/3을 담당한 조선제일의 곡창지대였다. 동학 때는 국가재정의 반절이 전라도에서 나왔다고 한다. 매천 황현은 『오하기문』에서 전라도는 재물이 풍부하여 서울사람들이 아들을 낳아 호남에서 벼슬시키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하였다.¹⁶⁾ 전라감영이 감사가 일도를 순력하는 행영제에서 감영에 머무는 유영제로 처음 바뀐 감영인데, 이런 것도 전라도의 재정이 가장 탄탄했기 때문이다.¹⁷⁾ 전주는 그런 호남의 수부였다.

전주는 전라감영이 소재한 지방정치의 중심이자 교통의 요지로 물산이 집결되는 경제와 유통의 중심지였다. 남문밖장은 전라도 최고의 장으로 전국에서도 꼽아주는 큰장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전주성 사문 밖에 장이 섰을 뿐 아니라 인근에도 장이 서서, 전주지역은 하루걸러 장이 서다시피 하였다. 전주는 평양, 대구와 함께 조선의 3대시장으로 불렸다.¹⁸⁾

14) 민주식은 풍류의 개념을 논하면서 “멋이란 무엇보다 정신적 자유이며, 현실에 구속되지 않은 생활이다. 이런 의미에서 멋은 풍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달리말해 멋은 현대인에게 풍류의 별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풍류사상의 미학적 의의』 『미학·예술학연구』 11, 한국대학예술학회, 2000, 73쪽)

15) 권상우, 「한류의 정체성과 풍류정신」 『동서철학연구』 43, 한국동서철학회, 2007.

16) 황현지음·김종익옮김, 앞의 책, 63쪽.

17) 김태웅, 「조선 후기 전라감영의 재정구조와 운영」 『전라감영연구』, 전주역사박물관·전라문화연구소, 144쪽.

전주의 탄탄한 경제력은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풍류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전주가 산업화로 이행하면서 옛 위상을 잃었지만, 광복이후에도 이곳 출신이 아닌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 이유로 전주에 와서 활동한 경우들이 있었다. 전주 문화예술 발전에는 경제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전주를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판소리를 한의 소리라고 한다. 그래서 전주가 한이 많아 판소리의 고장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전통시대에 삶의 애환은 조선 8도 구석구석에 다 있었다. 그리고 판소리에는 한을 달래주는 해학이 있다.¹⁹⁾ 전주가 한이 많아 소리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해학과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그나마 전주에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력과 함께 전주 풍류문화가 발전한 요인으로는 오랜 역사에 걸쳐 지속된 중심도시로서의 정치적 위상이다. 전주는 통일신라 때 685년(신문왕 5) 9주 5소경으로 지방체제가 개편되면서 주(州)가 설치되어 전북권의 중심지로 자리하기 시작했다. 후삼국 시대 전주는 36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후백제의 왕도로 자리하여 왕도로서의 역사를 경험한 몇 안되는 도시 중의 하나이다. 고려시대에는 전주목으로 나주목과 함께 전라도의 중심지가 되었다.

전주는 고려말 관찰사제가 시행되면서 조선왕조 500여년간 전라감영이 설치되어 전라도의 수부(首府), 으뜸도시로 자리하였다. 전주부성의 정문 풍남문에 ‘호남제일성(湖南第一城)’ 편액이 걸린 것은 이런 연유이다. 하삼도 중에서 감영이 조선왕조 내내 한 곳에 있었던 곳은 전주 밖에 없다. 임진왜란후 경상도는 상주에서 대구로 감영을 옮겼고, 충청은 충주에서 공주로 감영을 옮겼다. 그리고 전주는 일제강점기에 이어 현재까지도 전북도의 도청소재지로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전주는 통일신라 이래 전북 또는 전라도의 중심도시로, 때로는 왕도로서 정치적 위상을 천년이 훨씬 넘게 이어오고 있다. 전주처럼 천년이 넘게 중심도시로서의 역사를 지금껏 지속하고 있는 곳도 드물 것이다. 이렇게 오랜 세월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전주를 품격이 있는 풍류도시로 발전시킨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전주와 전라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차대로 중앙진출이 제한되어 문화예

18) 전주역사박물관, 『일제시대 전주부 신설관계 자료집』(박물관번역총서), 2003, 13쪽.

19) 박경리는 “한의 정서는 소망이고, 그 소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우리한의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가 퇴보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왜곡되고 말았다.”고 하였다.(이기동, 「풍류에서 한류를 꿈꾸다」 『문화재사랑』 117, 문화재청, 2014·8, 13~14쪽에서 재인용)

술이 발전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중앙 진출이 어려웠던 것이 문화예술이 발전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는 생각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며, 또 중앙진출이 적었던 것은 타의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능동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고려시대 훈요십조, 조선시대 정여립사건 등으로 호남인재들이 중앙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후백제의 왕도요, 호남의 수부요, 정여립의 출신지인 전주도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어쩌면 백제 멸망이후 호남 전체 내지 차대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근래 전라도에 대한 차대가 없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필자는 중앙정부의 전라도에 대한 차대 내지 견제가 있었다고 본다. 선조대 정여립 사건이후 호남출신 인재들의 문과 급제율이 떨어져 충청도보다 급제자가 적으며 이후 그 하향세는 더 커졌다. 이것은 정여립사건으로 전주와 전라도가 반역향이 되어 차대 내지 견제를 받는데 요인이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고 필자의 생각도 그렇다.²⁰⁾

그러나 중앙정부의 차대만이 이 지역 출신들이 중앙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한 이유일까?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호남사람들의 중앙진출이 많지 않았던 것은 벼슬에 나가지 않아도 나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것에도 요인이 있다고 본다. 즉 경제적 여력으로 벼슬에 덜 연연한 것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매천 황현도 『오하기문』에서 조선말의 호남사람을 평하기를 “재주가 뛰어난 인재들의 진출이 막혀 벼슬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하였다.²¹⁾ 벼슬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벼슬에만 매달리지는 않은 호남지역 풍조의 일단을 감지해 볼 수 있다.

호남인사들의 중앙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중앙의 견제도 있지만 벼슬에 대한 집착도가 덜한 데에도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전주지역에 토착세력이 강하고 풍류가 발전한 데에는 전주사람들이 경제력을 토대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벼슬에 덜 연연하고 나름의 독자적 삶을 영위한 것에도 큰 요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전주의 역사문화, 그리고 전주정신을 읽는 중요한 코드이다.

중앙에 기준을 두지 말고 지역 관점에서 전주를 해석하면 전주역사문화가 달리 보이는 점이있고, 더 풍요로우며 자유로울 수 있다. 정치적 소외 내지 차대가

20) 이동희, 「정여립 모반사건 이후 호남사람의 동향」 『전주학연구』 3, 전주역사박물관, 2009, 90~102쪽.

21) 황현지음·김종익옮김, 앞의 책, 63쪽.

전주의 문화예술을 발전시켰다는 논리와, 전주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문화예술을 발전시켰다는 해석은 의미가 다르다.

전주에 풍류문화가 발전한 것은 지방정치의 중심지로서 호남의 너른 들녘을 토대로 중앙정치에만 연연하지 않고 나름의 독자적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랜 역사에 걸쳐 지속된 전주의 특질이며, 따라서 전주정신도 여기에서 찾아질 수 있다. 즉 전주 풍류문화에 전주정신의 근간이 있다는 것이다.

V. 풍류문화에 깃든 전주정신

풍류(風流)라는 말을 글자 뜻대로 풀면 ‘바람의 흐름’이다. 풍류의 뜻에 대해 국어사전에는 “속된 일을 떠나서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²²⁾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에는 풍류를 “속되지 않고 운치 있는 일이나 음악을 일컫는 말”라고 정의하고, 그 설명문에 풍류란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 멋이 있는 것, 음악을 아는 것, 예술에 대한 조예, 여유, 자유분방함, 즐거운 것 등 많은 뜻을 내포하는 용어라고 하였다. 『두산백과사전』에는 풍류를 “고대 제천 행사에서 비롯된 한국 고유의 전통 사상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멋과 운치가 있는 일이나 그렇게 즐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인다”라고 하였다.

한편 풍류에 관해 논자들이 정리한 개념을 보면 민주식은 “풍류란 자유 분방한 정신이 세속적 가치를 초탈하여, 현실과의 관련을 지니면서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이다”라고²³⁾ 하였다. 이종묵은 “자연을 벗삼아 멋과 예술을 알고, 여유와 자유분방함 등을 즐기는 것이 풍류”라고 하였고, 이기동은 풍류가 초월적이고 포용과 융합의 덕목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²⁴⁾

이러한 풍류에 대한 개념과 논의들을 정리하면 풍류란 여유와 자유분방함, 포용과 융합의 정신으로 멋스럽고 운치 있는 일을 추구하며, 자연과 함께 예술세계에 노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 풍류문화에도 이런 풍류의 정신과

22) 신기철·신용철편,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이데아, 1986.

23) 민주식, 「풍류사상의 미학적 의의」 『미학·예술학연구』 11, 한국대학예술학회, 2000, 75쪽.

24) 이종묵, 「집안으로 끌어들인 자연」 『문화재사랑』 117, 문화재청, 2014·8, 4쪽 ; 이기동, 앞의 글, 13쪽.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전주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전라도의 수부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조선시대 전주는 3대도시로 칭해질 정도로 큰 도시였다.²⁵⁾ 『호구총수』에 등재된 1789년(정조 13) 전국 호구수를 보면, 호수는 전주가 한양과 평양에 이어 3번째이고, 인구수는 한양, 평양, 의주, 충주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그리고 전주는 통일 신라 이래 중심도시로서의 역사가 지속된 곳이다. 전주의 이런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전주사람들에게 여유와 넉넉함을 가져다주었고, 이로 인해 형성된 넉넉한 전주사람들의 심성이 풍류문화를 발전시켰다고 본다. 전주가 양반도시요 전주사람들이 점잖다고 하는 것은 전주사람들의 여유와 넉넉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또한 전주사람들의 넉넉한 심성과 함께 포용의 정신은 풍류문화에 깃든 전주정신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풍류는 지상을 초월해 있으므로 초월적이고, 풍류는 지상의 모든 것을 포용하므로 포용적이라고 하였다.²⁶⁾ 전주사람들의 배타적이지 않은 개방성과 포용력은 전주에 풍류문화를 꽃피웠고 전주를 전주답게 끌어온 전주정신이다. 조선말 전주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만개한 것도 전주의 포용정신이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조선의 상징인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 앞에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 전동성당이 건립된 것은 타문화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은 전주의 포용력에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더불어 전주 풍류문화에 깃든 전주정신으로 어떤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분방함도 전주의 문화발전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정과 관련해 주목된다. “멋이란 무엇보다 정신적 자유이고, 현실에 구속되지 않은 생활이며, 이런 의미에서 멋은 풍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즉 멋은 현대인에게 풍류의 별명”이라고 하였다.²⁷⁾ 전주에 문화예술이 발전한 데에는 이런 자유분방한 전주정신이 작용한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최명희는 『혼불』에서 전주를 꽃심을 지닌 “저항과 풍류”의 도시라고 하였다. 꽃심은 싹을 틔워내는 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정을 의미한다. 『혼불』에서 관련 대목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25) 『전주부사』(1943)에 전주의 도시위상을 “예로부터 전주는 서울에 버금가는 대도읍으로 거기에 평양을 더해 조선의 3도(三都)로 칭해졌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 전주부사』, 2009, 204쪽)

26) 이기동, 앞의 글, 13쪽.

27) 민주식, 앞의 논문, 73쪽.

풍광도 수려하고, 물산도 풍부하며, 교통의 요지로서 사람과 물물의 왕래가 빈번하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이 되는 전주 완산이,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런 끔찍한 백안(白眼) 외면을 당했던 것이다. 그것은 꽃심을 가진 죄였는지도 모른다. 세월이 가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의 꽃심을 지닌 땅. 그 꿈은 지배자에게, 근(根)이 깊은 목의 가시와도 같아서, 기어이 뽑아내버리고자 박해, 냉대, 소외의 갖은 방법을 다 하게 했다.(최명희, 『혼불』 8권)

어쩌면 〈저항과 풍류〉 이 두가지는 아주 상반되어 보인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자는 저항하지 않으며, 억울할 일이 없는 자, 혹은 세상을 거머쥐려는 욕망으로 들끓는 사람의 검붉고 길쭉한 혈관에는 풍류가 깃들지 못한다. 풍류는 빈자리에 고이고, 빈자리에서 우러나며, 비켜 선 언덕의 서늘한 바람단이 이만큼에서 멀리 앞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면 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한 바탕 한 뿌리에서 뻗은 두 가쟁이다.(최명희, 『혼불』 4권)

최명희는 전주를 저항과 풍류의 도시로 보고, 이 둘은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전주는 풍류문화가 발전했고, 여기에는 저항정신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꽃심을 지닌 저항정신은 곧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정, 즉 변혁의 정신이다. 이런 정신이 봉건제를 마감하고 누구나 평등한 근대사회로 나가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창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주가 풍류의 도시라고 할 때 빠뜨려서는 안되는 것이 문화예술을 아끼고 즐기는 전주사람들의 성향이다. 문화예술을 애호하는 성향이 전주사람들에게 없다면 정치력과 경제력만으로, 넉넉한 심성과 포용의 정신 만으로 풍류문화가 발전할 수는 없다고 본다.²⁸⁾ 전주사람들의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주사람들의 넉넉함, 포용력, 자유분방함과 함께 전주에 풍류문화를 발전시켰던 것이다.

전주는 풍류문화에 깃든 넉넉한 심성과 포용의 정신, 자유분방함과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나가려는 열정, 그리고 문화예술을 애호하는 성향이 전주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근대사회로 나가는 거대한 운동을 이곳 전주에서 꽃피웠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전주정신은 곧 미래 전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이어가고 발전시켜야 할 지

28) 조인수는 풍류에 대해, 권력이 있다거나 부유하다고 해서 쉽게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 생각이 얹매이지 않아 자유분방하면서도, 뜻이 맞는 사람들과 더불어 즐기려는 풍성한 마음씨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옛그림으로 살펴보는 풍류』 『문화재사랑』 117, 문화재청, 2014·8, 8쪽)

역정신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VI. 맺음말

전주는 오랜 역사와 함께 문화예술이 발전한 풍류의 도시이다. 이런 전통으로 인해 지금도 전주에는 많은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이 남아 있고, 이런 전통문화 자산이 산업화에 뒤쳐졌던 전주를 문화의 시대에 주목받는 도시로 자리하게 하였다. 전주 한옥마을에 연 600만의 관광객이 모여드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한옥이지만 내면적으로 전주의 오랜 전통과 이런 전통이 빚어 놓은 도시 분위기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런 전주의 역사문화를 창출한 전주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각인되는 것이 없다. 전주가 전주다움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신문화가 바로서야 하고, 전주정신이 그 정신문화의 축이 되어야 한다. 전주문화유산도 전주정신이 같이 했을 때 더 가치를 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주정체성을 논하고, 전주정신을 정립하려는 전주시의 시도는 유효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본고가 이에 부응하여 전주정신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부족한 점이 많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시론적인 글로써 전주정신을 논하는데 작은 디딤돌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한계를 인지하고 필자가 찾아본 전주정신의 요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주는 통일신라 이래 전라도와 전북의 중심도시로서 지속된 정치적 위상, 조선제일의 곡창지대 전라도의 수부로서의 경제력, 그리고 벼슬에 덜 연연했던 성향을 토대로 풍류문화를 꽃피웠다. ‘전주 사불여(全州四不如)’, 즉 벼슬아치가 아전만 못하고, 아전이 기생만 못하고, 기생이 소리만 못하고, 소리가 음식만 못하다는 한자어는 예향이라는 전주 특질과 함께 어울려 풍류도시로서 전주를 잘 보여준다.

전주정신은 이런 풍류문화에 깃든 풍류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넉넉한 심성과 포용의 정신, 자유분방함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문화예술을 애호하는 성향 등이 문화예술이 만개한 풍류도시 전주를 지탱하고 끌어온 전주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전주정신이, 때로 과거와 현재의 형태가 다를지라도 그 맥락이 전주사람들에게 남아 있으며, 또 미래가치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 시대에 맞게 표현한다면 전주는 곧 ‘문화 창 의 도시’로서의 정신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한다.

전주정신 정립과 관련해 덧붙여 하나 더 언급한다면 전주정신으로 정립해 긍정적으로 살려나가야 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부정적이거나, 시대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모되어야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하늘

김 기 현*

<목 차>

- I. 전주정신의 유무
- II. 선비정신
- III. 풍류정신
- IV. 동학정신
- V. 사람이 하늘

I. 전주정신의 유무

‘정신’이란 사고와 감정, 의지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것은 원래 한 개인의 내면적 실체와 성향, 상태를 일컫는 말로써, 사람마다 제각각 특유의 모습을 갖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그 말을, 개인을 넘어 집단의 특징을 규정하는 데 사용하곤 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게도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신이 있다는 것이다. 호남의 정신, 한국정신, 민족정신, 시대정신 등이 그 예다. 지역적으로 호남사람들은 다른 지방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고방식이, 국가적으로 한국인은 타국인들과는 다른 심성이, 전통적으로는 한국인 특유의 정신적 유전인자가, 역사적으로는 각 시대 고유의 정신이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온 전주정신 또한 이러한 인식 속에서 제안되었을 것이다. 이는 전주사람들의 집단적 특성을 규명하고, 또 그들의 공동체적 자아를 확인·성찰하며, 이를 토대로 미래 전주지역의 진로를 모색해 해주는 의의를 갖는다. 전주학의 연구자들만 그러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지역학의 연구가 점점 활발해 지는 요즈음 그러한 논의는 각 지자체의 관심꺼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타지역은 차치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일련의 의문을 갖는다. 과연 ‘전주정신’

* 전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이라 할 만한 것이 있는가? 예를 들면 한국정신이라 하면 그 동안 국제교류 속에서 체험적으로 확인된 한국인 고유의 사고방식으로 잡힐 만한 것이 있겠지만, 국내 여타지역과는 달리 전주의 형성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해온 전주인 특유의 정신이 있는가?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아니 사람들은 때로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거론하기도 하지 않은가? 전주(전북)사람들이 겉으로는 유순하지만 뒤로는 남을 무함하기 좋아한다는, 또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비난이 들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들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전주인들의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실상을 확인하고 대답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심지어 부정적인 전주정신까지도 말이다. 물론 이는 부정적인 것을 자성하여 긍정적인 삶의 세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다.

한편 전주정신의 논의는 그것의 역사적 실체나 또는 현재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 이상으로 미래지향적 가치를 찾으려는 뜻도 거기에 담겨 있을 것이다. 전주사람들이 앞으로 가져야 할 삶의 정신을 모색하고 정립하고자 하는 뜻 말이다. 이는 전주의 지역이나 전통과는 무관하게 인간과 삶에 관한 일반론의 성질까지 띤다. 말하자면 전주인이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한국인으로서, 아니 인류의 일원으로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할 정신가치를 전주정신에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거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을 아울러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만난다.

지금까지 전주정신의 논의는 아직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주로 전주 (또는 전북) 지역의 전통만을 찾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자들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그것은 대체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집약되는 것 같다. 선비정신과 동학사상과 풍류정신이 그것이다. 그것들이 과연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전주인들 특유의 정신인가 하는 문제는 일단 접어두자. 설사 그것들을 다른 지역과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주인이 앞으로 가져야 할 삶의 정신으로 그것들을 재정립할 수만 있다면 논의의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저 세 가지의 정신이 막연하게 거론되지만 할 뿐, 그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나아가 그것들을 현대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깊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저 정신(사상)들은 깊고 폭넓은 함의를 갖고 있는 만큼, 연구자들은 그것들의 내막을 오늘날의 문법으로 새롭게 밝히고 또 전주정신으로 통합하여 천명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II. 선비정신

전주가 과거에 많은 선비들을 배출한 고장이라면 그들이 지역민들을 감화시킨,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 있으며 앞으로 ‘창신創新’ 해야 할 정신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선비정신이라고 요약하지만, 사실 그것은 대단히 막연하다. 그것은 그들의 철학 전체를 응축 집약하고 있어서 그 중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먼저 선비정신의 정체를 대략적으로나마 밝힌 다음에 전주 정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비정신의 핵심을 천명하고 있는 맹자의 글을 읽어보자.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자리에 서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길을 걷나니, 뜻을 펼 기회가 주어지면 만민과 더불어 그것을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만이라도 그 길을 가리라. 이러한 뜻을 부귀도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도 변절 시키지 못하며, 위엄과 무력도 꺾지 못할 것이니, 이를 일러 대장부라 한다.¹⁾

맹자의 유명한 ‘대장부’ 론이다. 국어사전을 보면 대장부란 ‘사내답고 씩씩한 남자’ 라고 풀이되어 있지만, 그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맹자의 생각은 이와 차원이 다르다. 먼저 위의 글 뜻을 풀어보자. 대장부가 머무는 ‘넓은 집’ 과, ‘바른 자리’ 와, 그리고 ‘큰 길’ 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다. 거기에는 정신지평상 설계된 인격세계가 담겨 있다. 그것들은 인격존재의 규모와 방향을 은유한 말이다. 즉 ‘넓은 집’ 이란 사랑을, ‘바른 자리’ 란 예의를, 그리고 ‘큰 길’ 은 의로움을 뜻한다. 그러므로 대장부는 사랑과 예의, 의로움의 정신으로 세상에 우뚝한 사람을 가리킨다.

대장부는 선비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선비는 사랑과 예의와 의로움의 정신을 인간의 본질로 여겨 평생의 실천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 으로 여기면서 그 안에 들어가 살고자 하였다. 나아가 선비는 사랑을 인간존재의 핵심으로 여겼다. 공자는 말한다. “군자가 사랑을 버린다면 어떻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겠는가.”²⁾ 심지어 맹자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사랑은 사랑이다.”³⁾ 사랑이야말로 인간 고유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1) 『孟子』, <滕文公下>.

2) 『論語』, <里仁>.

3) 『孟子』, <盡心下>.

사랑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을 것이다. 아니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사회현실 속에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생물호성(生物好性)(또는 생명사랑의 성향: biophilia)이 있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다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인류의 출현과 진화 이래 유전적인 성질로 이해한다. 사람들은 무생물보다는 생물에, 사멸적인 것보다는 생명적인 것에 친화감과 애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선비는 그 이상으로 사랑을 천부의 본성으로 여겼다. ‘천부’란 하늘이 부여했다는 뜻이다. ‘하늘’은 진화론에서 벗어나는 말이긴 하지만, 함께 진화해온 생물들 가운데 유독 인간만이 그러한 품성을 갖고 있음을 보면 거기에는 하늘의 뜻이 담겨 있을 법도 하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본성이자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은 옛글을 빌려 말한다. “사랑은 사람이 타고난 천지의 마음이다.”⁴⁾ 그리고 보면 “사랑=사람=하늘”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만도 하다. “천인합일(天人合一)”이라는 고전적 명제를 응용한다면, 사람은 사랑을 통해 하늘과 하나가 된다.

사랑은 매우 넓은 외연을 갖는 말이다. 그것은 남녀의 애정에서 시작하여 친구간의 우정, 이웃사랑, 민족애, 인류애에까지 걸친다. 아니 선비에게 사랑은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을 향해 열린 생명애의 정신까지 함축한다. 그리하여 선비의 사랑은 풀 한 포기, 개미 새끼 한 마리에 대해서까지 따뜻한 마음을 갖는다. 그는 자신이 그들과 똑같은 생명임을 깨달으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생육을 도와주려 하였다. 사실 사랑이란 바로 그러한 것이다. 것처럼 상대방과 생명을 교감하고 상통하면서 그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고 보살피려는 사랑을 선비는 평생의 과제로 여겼다. 다음의 감동적인 글을 읽어보자. “선비는 뜻을 넓고 굳세게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기 때문이다. 사랑의 짐을 지었으니 무겁지 아니한가. 죽은 다음에야 걸음을 멈출 테니 멀지 아니한가.[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⁵⁾

사랑은 어렵거나 거창한 이념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 공자는 말한다. “사랑이 먼 것이더냐? 내가 사랑하고자 하면 사랑이 다가온다.”⁶⁾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남을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자기

4) 『退溪全書 一』(성대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仁說>206쪽.

5) 『論語』, <泰伯>.

6) 『論語』, <顏淵>.

안에 갇혀 사는 사람에게 사랑은 강 건너의 일이나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조차 한순간 마음을 연다면 길가의 잡초에 대해서까지 애정어린 눈빛을 보낼 것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 그러하듯이 말이다. 사실 그러한 마음을 조금만 더 열어 이웃이나,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한다면 그들은 반려동물에게서 얻는 기쁨 이상으로 참삶의 행복을 얻을 것이다.

한편 대장부(선비)가 상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길”은 ‘의로움(정의)’의 길이었다. 의로움이야말로 인간이 걸어야 할 ‘큰 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어디를 갈 때 안전한 큰 길을 이용하려 한다. 작은 길은 불편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다.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길은 역시 인간존재의 본령에서 나오는 의로움(과 사랑, 진리)의 ‘큰 길’이다. 누구도 그것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으며, 또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의롭지 못한 길은 ‘작은 길’이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목격하는 것처럼, 아니 자신에게서 자각하는 것처럼, 뇌물을 주고받거나 음모를 꾸미는 등 불의한 짓은 남들이 보는 ‘큰 길’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작은 길’을 오가며 남몰래 행해진다. 어떤 행로에서든 ‘큰 길’을 택하는 선비(군자)와 달리 소인은 ‘작은 길’을 찾는 사람이다. 선비는 의로움의 ‘큰 길’을 걸음으로써 사회에 정의를 세우려 하는데, 소인은 ‘작은 길’에서 은밀하게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 한다. 이러한 소인은 자타간 대립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는 공동선의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소인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이제 잠시 체쳐두었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의로움이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사람들이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개념의 무지와 오류가 행동의 착오를 빚어내는 것이다. 의로움이란 일종의 가치 합리적 정신을 뜻한다. 그것은 결과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어떤 행위 자체가 옳기 때문에 무조건 행하려는 정신이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손실을, 심지어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올바른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이 점에서 의로움의 정신은 이해타산 속에서 결과를 계산하는 잇속의 마음과 구별된다. 율곡栗谷 이이李珥(1536-1584)는 말한다. “의로움은 이해타산 없이 행하는 정신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해타산을 한다면 그것은 잇속의 마음으로써, 그는 도둑이나 다름없다. 선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공명을 얻으려는 마음이 끼어 있으면 그것 또한 잇속의 마음이다. 군자는 그것을

도둑보다 더한 심보로 여긴다.”⁷⁾

조선시대 여러 차례의 사회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선비들의 기개 또한 이러한 의로움의 정신에서 발원한 것이었다. 만약 자신들의 언행이 초래할 죽음의 결과를 염려했다면 그들은 임금 앞에서 결코 정론을 펴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의로운 죽음이 삶을 성취해준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퇴계는 말한다. “의로움은 삶의 길이요, 잇속의 마음은 죽음의 길이다.”⁸⁾ 과연 그럴까? 이는 잇속의 마음을 파헤쳐보면 곧 이해될 수 있다.

잇속의 마음은 순전히 자기중심적이다. 그것은 남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한다. 그것은 사회적 공의公義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하여 남과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를 무규범의 혼란에 빠트린다. 결국 그것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비정하고 살벌한 삶을 끊임없이 부추길 것이다. 거기에는 일차원적인 생존의 의지만 난무할 뿐, 인간존재의 고결한 정신은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살피면 의로움의 정신을 팽개친 채 잇속만 따지는 삶은 정신적 죽음의 길이 아닐 수 없다.

그러고 보면 “잇속의 마음은 죽음의 길”이라는 퇴계의 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경고처럼 들린다. 물질만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자본주의에 더하여 위정자들이 경제이익만을 국정의 제일지표로 내세워 국민을 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국민소득이 향상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의 이름으로 잇속을 숭상하는 사회는 사람들을 정신적인 죽음으로 내몰 뿐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이나 낮은 행복지수가 이를 여실히 말해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동안 추구해온 목표를 근본적으로 반성하면서 재정립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는 재리財利를 이익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정의를 이익으로 여겨야 한다.”⁹⁾ 사람들은 “이득거리를 보거든 그것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見利思義]”¹⁰⁾ 개인이나 사회나 정의(의로움)의 ‘큰 길’을 지도가치로 확립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개인의 삶을 성취시켜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까지 살게 해주는 위대한 힘이다.

마지막으로 선비(대장부)가 서고자 했던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자리”에 관해 살펴보자.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동의 표준으로 여기는 자리를 말한다. 그것은 무슨

7) 『栗谷全書 一』(성대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東湖問答>, 331쪽.

8) 『退溪全書 二』, <答金彦遇問目>, 59쪽

9) 『大學』

10) 『論語』, <憲問>.

물건이 놓여 있는 공간과 같은 부동의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모든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거지의 품위를 은유한다. 과연 어떤 것이 품위 있는 행동거지인가를 말하기는 물론 대단히 어렵다. 사람마다, 사회마다, 시대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인의 품위의식은 서양인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그렇기는 하지만 모든 문화는 행동의 품위 여부를 나름대로 판단케 해주는 각각의 기준을 갖고 있다. 예의(에티켓)가 그것이다. 말하자면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들은 예의바른 행동에서 품위를 느끼고, 반대로 무례하게 구는 자에 대해서는 “못된 놈”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므로 “예의를 모르면 사람으로 설 수 없다.”¹¹⁾는 공자의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타당하다. 예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지라도 말이다.

예의는 인간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사교술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은 만남이다.” 자타의 만남과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외롭다는 생각조차 남의 존재를 이미 상정하고 있다. 것처럼 삶은 만남 속에서만 영위되는 것이라면 자타의 관계를 매개해주는 윤리질서가 자연스럽게 모색될 수밖에 없다. 예의가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은 예의를 주고받으면서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예의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예의를 통해서만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아무리 약육강식의 사회라 하지만 사람들이 동물적인 성향을 감추고 짐짓 예의를 갖추는 것은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다. 공식석상에서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도 그 한 예에 해당된다.

사람들이 결혼의 예식이나 장례절차를 지키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 서로 사랑하므로 함께 살면 될 것을 왜 굳이 번거로운 예식을 치르려 하며, 부모의 시신을 어디 적당한 곳에 흔적 없이 묻어버리면 될 것을 왜 꼭 장례식을 거행하는가. 그것은 자신이 동물들처럼 아무데서나 흘레하는, 그리고 부모님이 죽어서 아무 뜻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존재가 아니라, 고상한 인간임을 확인하고 천명하고 싶어서다.

그처럼 예의는 행동거지의 품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됨을 자궁하게 해준다. 선비들이 예의를 그토록, 지나치리만큼 중요시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들은 예의의 인간학적인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퇴계는 단적으로 말한다. “예의를 한 번 잃으면 야만인이 되고, 두 번 잃으면 짐승이 된다.”¹²⁾

예의는 행동의 걸치레에 그치지 않는다. 선비들은 그 이전에 예의 정신을 매우 소중하

11) 『論語』, <堯曰>.

12) 『退溪全書 二』, <論四學師生文>, 338쪽.

게 여겼다. 진지하고 성실하며 경건한 마음이 그것이다. 이를테면 자타간 만남의 자리에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장례의 자리에서는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퇴계는 말한다. “문밖을 나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손님을 대하듯이 정중하고, 일에 임해서는 제사를 받들듯이 경건해야 한다.”¹³⁾ 그래야만 너와 나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또 삶이 의미 깊어질 것이다.

선비들은 예의정신이 결여된 의례적 태도를 비난해마지 않았다. 공자는 말한다. “예라, 예라 하지만 보석과 폐백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겠는가!”¹⁴⁾ 이는 오늘날 같으면 결혼의 예물을 교환하는 걸치레 풍조에 대한 비판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최명희 선생의 『혼불』에 나오는 노인의 말을 빌리면 예의의 형식은 ‘콩깍지’에 불과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알맹이’만 가지고는 안 된다. “씨앗이요 열매인 콩 ‘알맹이’는 콩 ‘깍지’가 없으면 애초에 생겨날 수도 없고, 클 수도 없고, 익을 수도, 거둘 수도 없는 법”(『혼불』)이기 때문이다.

저 노인은 ‘콩깍지’의 예의형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콩깍지’만 근사할 뿐 알맹이가 별레 먹은 경우도 많다. 것처럼 ‘알맹이’ 없는 그것은 그저 불쏘시개로만 쓰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예의의 정신을 결여한 채 겉으로만 꾸미는 예의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의의 형식과 정신(내용)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자는 말한다. “꾸밈(형식)과 바탕(내용)이 잘 어우러져야 군자라 할 수 있다.”¹⁵⁾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잠깐 되돌아보자. 사람들에게는 예의의 관념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그것이 걸치레에 불과하고 구속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하지만 인간관계를 매개해줄 규범이 없을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예의를 소홀히하는 것은 곧 자타간 만남의 가벼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무례한 태도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고결성을 사람들 스스로 부정하는 짓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고 성실하며 경건한 정신을 결여한 의례적인 태도는 당연히 배제해야겠지만, 참다운 예의정신에 입각하여 인간의 품위와 위엄을 높여줄 예의를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제 선비(대장부)의 정신을 요약해보자. 그는 사랑으로 만민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고, 예의로 행동의 품위와 위엄을 지키며, 의로움으로 세상에 당당하게 나선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흔히 접하는 것처럼, 그가 부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빈궁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여기에서 있었다. 그것은 인간존재의 본령에서 발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3) 『退溪全書 一』, <敬齋箴>, 209쪽.

14) 『論語』, <陽貨>

15) 『論語』, <雍也>.

이를 외면한 채 오직 부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두고 맹자는 다음과 같이 탄식한다.
“사랑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요, 의로움은 사람의 바른 길인데, 사람들이 편안한 집을 비워둔 채 거기에서 살지 않고, 바른 길을 버려둔 채 걷지 않으니, 딱하구나!” 16)

Ⅲ. 풍류정신

풍류란 국어사전에 의하면 “속된 일을 떠나서 풍치가 있고 멋들어지게 노는 일” 이라 한다. 일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낭만이요 유희다. 학문적 안목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세상사의 간섭과 억압, 일상의 긴장과 스트레스, 이성의 감시와 지배를 벗어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심미활동의 일종이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상의 구속과 책임에서 탈피하여 정신의 자유를 누리며, 단조롭고 지루한 생활을 벗어나 활력을 얻는다. 정읍 출신의 불우현不憂軒 정극인丁克仁(1401-1481)의 유명한 <상춘곡賞春曲>은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상당히 길지만 옛사람들의 풍류세계를 엿보기 위해 전문을 한 번 읽어보자. 어투를 오늘날에 맞게 풀었다.

세속에 묻힌 분들 이내 생애 어떠한가.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에 남자 몸이 나 같은 이 많건마는, 산림생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단 말인가. 초가삼간을 푸른 시내 앞에 두고,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다네.

엣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 아름다운 풀들은 가랑비 중에 푸르구나. 칼로 마름질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물주의 신묘한 공력이 사물마다 야단스럽도다.

숲속에 우는 새는 봄기운에 끝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누나. 물아일체物我一體이니 감흥이 다를까. 사립문 앞을 거닐어보고 정자에도 앉아서 유유자적 읊조리니 산중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로움 속 참맛을 아는 이 없이 나 혼자로구나. 여보게 이웃들아, 산천구경 가져꾸나. 들길걷기 오늘 하고 물놀이는 내일 하세. 아침에는 산나물 캐고 저녁에는 낚시하세.

갓 피여 익은 술을 두건으로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술잔 세며 마시리라. 봄바람이

16) 『孟子』, <離婁上>

문득 불어 시냇물을 건너오니, 맑은 향기 잔에 지고 붉은 꽃잎 옷에 진다. 술동이와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라. 어린아이 시켜서 술집에 술을 몰아 어른은 지팡이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모래사장 맑은 물에 잔 씻어 술을 부어들고 냇물을 굽어보니 복숭아꽃 떠내려온다. 무릉도원 가깝구나, 저 산이 거기인가.

술발 사이 오솔길에 진달래꽃 꺾어들고 산머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수많은 촌락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네. 안개, 노을, 빛나는 햇살은 수놓은 비단 펼쳐놓은 듯 엇그제 점던 들녘 봄빛이 넘치누나.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그 밖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 누추한 곳 가난한 살림에도 헛된 생각 아니 하니 아무렴 일생의 즐거움 이만하면 족하지 않은가.

이 순간 선생은 ‘공명’과 ‘부귀’의 현실을 완전히 벗어나 있으며, ‘누추한 곳 가난한 살림’조차도 즐겁고 만족스럽다. ‘나’에서조차 탈각한 정신의 대자유로 삶을 관조하면서 ‘유유자적 읊조리며’ ‘한가로움 속 참맛을 누린다.’ 거기에는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는’ 숲속의 새와 ‘물아일체’가 되는 감흥까지 곁들여 있다.

이처럼 풍류정신이 펼쳐내는 즐거움, 만족감, (한가로움 속) 참맛, (물아일체의) 감흥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미적 쾌감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쾌감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식색의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또는 원하는 것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기쁨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풍류정신의 쾌감은 그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렇게 상상해보자.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서 느끼는 쾌감과 아름다운 꽃 앞에서 얻는 그것이 같을까? 물론 다르다. 전자는 정욕의 흐린 눈빛을 담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미적 쾌감의 성질이 여기에서 밝혀진다. 각종의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얻는 쾌감과 달리 그것은 국어사전의 말대로 “속된 일을 떠나서”, 즉 모든 현실적 이해타산을 벗어나 그야말로 ‘한가롭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다. 칸트가 “아름다움이란 무관심의 쾌감”이라고 절묘하게 정의한 것처럼, 미적 쾌감은 대상 앞에서 그저 ‘무(관)심’하게 얻어지는 것이다. H. 마르쿠제의 말을 들어보자 “미적 지각은 쾌감을 수반한다. 그 쾌감은, 대상의 질료나, 대상의 (내·외적)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대상의 순수형식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발생한다.”¹⁷⁾ 풍류정신의 쾌감 또한 그와 같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 풍류정신은 “갓 꺾여 익은 술을 두건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술잔 세며 마시”는 등 오직 즐거움만 추구할 뿐, 거기에서는 선

17) H. 마르쿠제/ 崔鉉.李根英 역, 『미학과 문화』(서울: 범우사, 1989), 110쪽.

비들이 강조해마지 않았던 도덕정신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은가.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건강한 모습을 띌 수 있단 말인가. 헨리 시지윅이라는 학자는 말한다. “도덕은 죄악을 근절하고 일소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반해, 인생을 미적인 태도로 관조하는 관점에서는 생동감 있고 충만한 흥미를 위해 필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죄를 인식한다.”¹⁸⁾

그러나 우리 전통의 풍류정신에는 도덕생활이 무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아우르는 고차원의 세계가 담겨 있다. 이 점은 우리의 고전에서 ‘풍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고 있는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857-?)의 글에서 확인된다. 선생은 <난랑비서鸞郎碑序>(‘난’이라는 화랑의 비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풍류라고 한다.” 선생은 이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요컨대 선행의 도덕정신과 충효의 사회정신, 그리고 자연을 숭상하는 정신이 거기에 들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참다운) 풍류는 일상의 삶과 사회를 외면하고는 “멋들어지게 노는 일”에만 빠지지 않는다. 그것은 건강한 도덕정신과 사회정신을 함께 갖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 전통의 풍류는 유희의 정신에 더하여 도덕정신과 사회정신을 조화롭게 갖추고 있다. 이 점은 화랑들의 행적을 기록한 『삼국사기』(진흥왕 37년)의 다음 글에 잘 드러난다. “화랑들이 구름처럼 모여 때로는 서로 도의를 닦고, 때로는 서로 음악으로 유희하며 명산대천을 노닐면서 아무리 멀어도 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다.”

풍류정신은 이처럼 도덕과 사회를 잊지 않는 현실합리적인 정신과 관조적인 유희의 정신을 조화롭게 갖고 있다. 말하자면 풍류정신은 현실 속에서 강력한 도덕(사회)정신으로 작동되다가도, 돌아서서는 유희와 관조의 기쁨을 누린다. 그것이 가능한 근거는 자연관에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고운孤雲의 선생의 ‘풍류도’ 가운데 자연을 숭상하는 정신세계에 주목해보자. 우리의 전통에서 자연은 만물의 근원이요 삶의 요람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자연은 사람들에게 삶의 불안과 세상의 위협을 벗어나 조용히 쉴 수 있게 해주는 “영혼의 커다란 진정제”(괴테)이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만사만물을 초월적으로 관조하는 심미의식과 유희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희의 정신은 도덕정신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생활의 긴장과 피로감을 덜어주면서 자연의 정점에서 세상과 삶을 관조하는 가운데 생명적 활력을 재충전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도덕생활에 심미적 유희의 정신이 매우 긴요함을 일러주거니와, 풍류정신은 양자를 조화롭게 갖고 있는 우리 전통의 중요한 정신자산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거기에 깔려 있는 자연숭상의 정신

18) 멜빈 레이더, 버트람 제섭/ 김광명 옮김, 『예술과 인간가치』(이론과 실천, 1994), 312쪽.

은 오늘날 자연의 학대와 파괴를 일삼는 우리의 삶에 크나큰 의의를 갖기도 한다.

IV. 동학정신

동학정신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대답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동학혁명에 담긴 개혁(혁명)정신에, 또는 경전의 “시천주侍天主” 글귀에 담겨 있는 종교정신에 주목할 수도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주제들 전체를 다루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다. 전주정신을 규명하고 또 제안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다 아는 것처럼 동학의 창시자인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1824-1864)는 원래 유학을 공부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의 한계와 폐단을 자각하면서 불교와 도가道家의 사상까지 끌어들이며 서학西學(천주교)에 대항하는 동학을 창도하였다. 그것은 본래 ‘한울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신앙이다.

그러면 수운이 자각한 유학의 한계와 폐단이란 무엇이었을까? 그는 “인의예지는 먼저 성인의 가르친 바요, 수심정기守心正氣는 오직 내가 다시 정한 것”(<수덕문修德文>)이라 한 만큼, 일견 선비정신을 전적으로 계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후 동학사상의 전개 과정에서 살펴보면, 인(사랑)·의(의로움)와는 달리, 예(예의)에 관해서는 강한 반발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예(예의)는 “자타의 관계를 매개해주는 윤리질서”라 하였다. 부연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각자 다른 신분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해나가는데 요청되는 관계질서가 바로 예의다. 그러므로 예의는 기본적으로 신분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부인,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요구되는 일상의 예의들이 그렇다.

이는 예의에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관념이 잠복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테면 ‘아랫’ 사람은 ‘윗’ 사람을 공손하게 모셔야 한다. 한 마디로 “찬 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것은 양반과 상민과 천민의 신분차별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혹자가 예의에서 ‘미시적 권력의지’를 살핀 것도 이 때문이다.¹⁹⁾ 그것이 과연 선비의 예의정신의 본질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²⁰⁾ 하지만 예의의 부정적 측면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드러나고

19) 김동노, <유교의 예와 미시적 권력관계>, 『유교의 예와 현대적 해석』(청계, 2004), 57쪽 이하 참조.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학사상은 사회계층적으로나 개인생활상에서나 이처럼 예의관념에 내재된 불평등질서를 타파하려 하였다. 이 점은 동학의 삼대교주인 손병희 孫秉熙(1861-1922)가 제창한바, “사람이 바로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에 깊이 담겨 있다. 이를 신동엽(1930-1969) 시인의 대서사시 <금강>의 한 구절에서 확인해보자. 시인은 동학의 이대교주인 최시형崔時亨(1827-1898)이 어느 신도의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엮는다.²¹⁾

(전략)

어느 여름

동학교도 서徐노인 집에서

저녁상을 받았다

수저를 들으려니

안방에서 들려오는 베짜는 소리

“저건

무슨 소립니까?”

“제 며느리 애가

베 짜는가 봅니다”

“서선생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 분이 바로 한울님이십니다

어서 모셔다가

이 밥상에서

우리 함께 다순 저녁

들도록 하세요”

(후략)

20)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기현, 『선비』(민음사, 2009) 276쪽 이하 참조.

21) 이하 시와 관련한 글은 필자의 『천작』(서해문집, 2013), 39-43쪽을 참조 수정한 것이다.

우리는 평소 시아버지와 며느리, 남편과 부인, 선생과 학생, 남자와 여자 등등 사회생활상 주고 받는 ‘이름’ 들에 따라 삶을 영위한다. 삶은 그러한 이름들의 의미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요 현장이라 할 수도 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평소 자신이 얻은 이름들의 의미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면서 살아간다. 예를 들면 우리는 결혼과 함께 전에 없던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그 의미와 역할을 갑자기 떠안게 된다. 그 이전에는 처녀와 총각, 여자와 남자, 아니 더 이전에는 한 인간일 뿐이었는데 말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각종의 이름들이 연출하는 한 편의 거대한 연극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한 이름들은 당사자의 존재를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똑같은 사람인데도 남자(아들)와 여자(딸)이라는 이름이 각종의 차별을 지어내고, 더 나아가 그 차별은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 속에서 더욱 심화된다. 영호남의 지역감정이나, 또는 다문화 가정속 인종차별적인 언행도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자타의 존재를 왜곡시키는 이름에 매몰된 결과에 다름 아니다. 한 사람을 순수인격이 아니라 그러한 이름들로 규정해버리는 것이다.

위의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집살이의 현장에서 폭로하고 있다. 한 여자가 ‘며느리애’ 라는 이름과 역할을 얻으면서 시아버지와 상하의 불평등관계를 맺는 모습을 말이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름’ 을 얻는 순간, 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본래적 존재(인격)가 은폐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며느리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시아버지도 존재의 은폐와 소외를 겪기는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이름은 우리에게 사물의 진실을 전하도록 의도되어 있지 않”(E. 카시러)은 터에, 이름에 갇히고 또 집착하는 한 자타를 막론하고 존재의 은폐와 소외가 불가피하다.

“그 분이 바로 한울님” 이라는 가르침은 이와 같이 존재를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이름’ 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일갈대성의 경구다. 그것은 사람들을 각듯이 공경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미를 넘어선다. 우리가 무슨 말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한울님’ 을 우러러 경외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이름’ 너머 본래적인 인격으로 경건히 대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남편과 부인이라는 일상적인 존재의 겉모습을 벗어 던지고, 무어라 이름할 수 없는 ‘별거벗은’ 순수존재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사람을 넘어 만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길쭉의 풀들을 ‘잡초’ 라 하여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혐오하지 말고, 저들을 나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순수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주제로 돌아가자. ‘인내천’의 동학정신은 신분차별적인 예의를 부정한다. “그 분이 바로 한울님”이라는 주장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남편과 부인, 남자와 여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신분에서 유래되는 모든 차별적 윤리를 부정하면서 모든 사람을 깎듯이 공경하고 모셔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한편으로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사랑의 거기에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만약 이러한 동학정신이 정말로 전주사람들의 정신적 유전인자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만방에 대놓고 자부심을 과시해도 좋을 것이다.

아무튼 “사람이 바로 하늘”이라는 주장은 동학혁명 시절의 화석에 불과하지 않다. 그것은 오늘날, 아니 미래에도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영원한 이념이다. 사람들은 각종의 ‘이름’들에 간혀 자타의 존재를 제멋대로 왜곡하고 은폐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상은 일상의 도처에서 목격된다. 예컨대 우리는 사장 앞에서는 긴장하면서 조심스러운 태도와 말씨를 보이지만, 수위에게는 거만하게 함부로 처신한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리우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물론 사람은 ‘이름’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름’에 간혀서는 안 된다. 그것의 횡포와 폭력성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름’ 속에서도 ‘이름’ 밖의 뜻을 헤아리고, ‘이름’을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부정할 줄 아는 변증법의 정신을 익혀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사물들에게 상투적으로 불러주었던 ‘이름’들을 벗겨내면 순간 전혀 그 동안 은폐되어 있던 존재의 세계가 새롭게 열릴 것이다.

V. 사람이 하늘

이상으로 그 동안 전주정신으로 거론되어온 선비정신과 풍류정신과 동학정신의 내막을 잠깐 들추어 보았다.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전주사람들에 의해 전통적으로 공유되어온 특유의 정신일까? 이에 대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설사 그러한 요소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다른 고장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될 것이다. 사실 이 점은 요즘 몇몇 지역에서 내놓고 있는 정신들도 다를 게 없다.

한편으로 우리는 전주지역이나 기타 다른 지역의 거주자들이 전주에 대해서 실제로 갖고 있는 전주 특유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전주정신을 모색해볼 수 있다. 전주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것은 주로 풍류(소리)와 음식문화로 집약된다. 하지만 음식문화에 대해서는 그것의 정신적 바탕을 추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전주정신’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한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풍류(소리와 서예)도 적어도 오늘날에는 전문가들의 전유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전주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현재와 미래의 생활 속에서 추구하고 또 뿌리내려야 할 바람직한 삶의 정신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 우리는 본론에서 살핀 세 가지의 정신을 토대로 모색해볼 수 있다. 게다가 그것이 전주지역의 전통정신을 일부나마 담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추출해서 전주정신으로 천명할 수도 있다.

앞에서 논의한 세 가지의 정신에는 하나의 일관된 의식이 깔려 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영위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그것이다. 물론 각각에는 특징적인 입각점의 차이가 있다. 그와 같은 과제를 선비는 도덕(철학)적으로, 풍류는 예술적으로, 그리고 동학은 종교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로 수렴할 수만 있다면 더없이 훌륭한 전주정신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것을 “사람이 하늘”이라는 동학의 구호에서 발견한다. 물론 필자가 제시하는 저 구호는 동학정신의 뜻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거기에다가 선비정신과 풍류정신까지 융합하려 한다. 즉 저 ‘사람’에는 (선비정신의) 도덕적, (풍류정신의) 예술적, (동학정신의) 종교적 의미가 모두 함축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하고 고결한 존재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이고 예술적이며, 나아가 종교적인 사고와 행위가 필요하겠기 때문이다.

즉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아우르고, 잇속에 흔들리지 않는 의로움의 정신으로 처사하고, 공경지심으로 서로 예의를 갖추는 도덕정신을 기르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삶을 관조하고 유희하는 풍류의 정신을 배양하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과, 나아가 풀 한 포기 곤충 한 마리에서까지 ‘하늘’ (신)의 뜻을 경건히 헤아려 대면하고 실현하자는 것이다. 전주가 표현 그대로 “사람의 도시”요 “품격의 도시”가 되려면 전주인들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의 정신과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창조적 변방성의 정신’, ‘삭임’과 ‘꽃심’

- 문학작품으로 바라본 전주정신 -

김 승 종*

<목 차>

- I. 전주 정신 확립의 전제 조건
- II. ‘온·다라 인문학’을 통해 제시된 전주정신
- III. ‘한’과 ‘삭임’의 전주정신
 - 1. 천이두의 ‘한(恨)’ 이론과 ‘삭임’
 - 2. 가람 이병기의 자연친화적 ‘풍류정신’
 - 3. 신석정의 ‘목가적 저항정신’
 - 4. 최승범의 ‘아늑하고 부드러운 정서와 맑고 밝은 정신’
- IV. 『혼불』에 나타난 ‘온’의 정신과 ‘꽃심’
 - 1. ‘창조적 변방성’의 정신, ‘온’의 정신
 - 2. 최명희의 ‘꽃심’과 레비나스의 ‘타자의 얼굴’
- V. 전주정신 확립을 위하여

I. 전주 정신 확립의 전제 조건

전주 정신은 “전주가 배출한 인물들에 의해 이룩된 역사적 근거와 문화적 성과, 그리고 전주에 터전을 잡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에 누적된 경험을 통해 추출 가능한 정신”이다. 선사시대부터 마한, 백제, 후백제,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시기 등 천여 년에 걸쳐 형성된 전주 정신은 전주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전주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규정하고 인도함으로써 전주 사람들을 다른 지역 사람들과 구별하게 만들고 전주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정신이기도 하다.

*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전주는 후백제 36년(900~936년) 간 한 나라의 수도로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중심부와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꺾박과 견제의 대상인 경우가 더 많았다.¹⁾ 백제 시대에는 부여, 공주, 익산 등이 전주보다 번성하였고, 고려 시대에는 태조 왕건에 의해 후백제의 흔적들이 대부분 지워졌으며²⁾ 왕도로서의 품격은 유지하였지만 정치적으로 득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풍패지향’ 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점하기도 하였지만, 정여립이 연루된 기축옥사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차대 받았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 사람들은 언제나 높은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품격 있는 삶’ 을 추구하였다. ‘품격 있는 삶’ 은 ‘문화’ 와 ‘예술’ 을 통해서 표현되는 바, 전주가 조선 시대와 근대 초기에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일관되게 수행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물론 전주에서 찬란한 예술이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풍요’ 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⁴⁾ 농수산물이 가장 풍부하게 생산되고 유통·집결되었던 전주는 조선 시대 내내 경제적 풍요를 구가하였으며, 부를 축적한 부유층이나 관리들은 문화예술인들이나 장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신영복은 최근 간행된 저서 『담론』에서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이루어진다.” 고 하였다. 중심부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일 뿐, 창조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류 문명의 중심은 항상 변방으로 이동하였다. 오리엔트 지중해에서 그리스, 로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으로 세계의 중심부가 계속 이동하였으며,

1) 물론 전주는 호남지역의 수부로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통일신라시대에는 9주 5소경의 하나인 완산주가 되었고, 고려시대의 안남도호부를 거쳐 전주는 호남의 중심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며, 경제적 풍요와 문화적 융성을 바탕으로 한양, 평양과 더불어 3대 도시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개경이나 한양으로부터는 늘 견제와 감시를 받았다. 따라서 전주가 ‘변방’이라 함은 ‘내세울 것 없이 변두리 역할만 하던 지역’이라는 뜻이 결코 아니며, ‘중앙의 감시와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잘못된 관습과 체제를 해체하고 모순을 혁파하며 올바른 방향성을 갖도록 중앙을 늘 일깨우고 비판하는 ‘창조적 변방성’을 지닌 도시로서의 변방“을 의미한다.

2) 왕건은 후백제가 멸망하는 940년, 전주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하고 후백제 지우기 작업을 벌였다. 궁성을 파내고 그곳에 물을 가두는 방식으로 후백제를 해체시켰으며, 궁궐, 내성, 외성 등도 파괴하였다. 심지어 모든 관아의 기록과 문서, 책자까지 소각하여 없앴다고 한다.

송화섭, 「후백제가 조선 왕조를 낳다」, 『온·다라 인문학 인문강좌 자료』, 2014. 10. 120쪽

3) 이동희는 “선조대 정여립 사건 이후 호남 출신 인재들의 문과 급제율이 떨어져 충청도보다 급제자가 적으며, 이후 그 하향세는 더 커졌다고 한다. 이것은 정여립 사건으로 전라도가 반역향이 되어 차대 내지 견제를 받은데 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이동희, 「‘전주 사불여’와 전주 정신」, 『온·다라인문학 토론회 자료』, 2014. 10. 30. 22쪽

4) 송화섭은 “15세기 후반 전주는 전국에서 상업유통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상품유통은 17세기 이후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상설점포가 크게 늘어났다. 전주의 장시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도 대도시의 면모와 전통을 가진 측면도 있지만, 전주가 해안지방과 내륙지방을 잇는 海港都市의 성격이 크게 일조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여 전주의 경제적 풍요상을 설명하였다.

송화섭, 「전주의 場市발달과 음식문화」, 『온·다라인문학 인문주간행사 자료 -태평오길의 상인을 찾아서』, 2014. 10.29.

중국은 중심 자체가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주변부(거란, 여진, 몽고, 만주 등)의 역동성이 끊임없이 중심부에 주입되었다. 따라서 이때 ‘변방’의 의미는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변방성(邊方性)’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영복의 주장이다.⁵⁾

변방이 창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심부에 대한 열등감이 절대 없어야 한다. 오히려 중심부를 능가하는 높은 자부심과 자존감 및 품격을 주변부가 지니고 있어야만 중심을 해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 전주가 조선 시대에 ‘완판본’으로 대표되는 가장 뛰어난 인쇄술과 출판 기술을 가지고 최고 품질의 도서를 생산·유통·소비하였던 도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영상매체나 전자매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책’은 당연히 지식과 정보의 보고(寶庫)이자 주요 전달 매체이다. 같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완판본 소설이 경판본보다 내용, 형식, 표현, 종이의 질(한지), 인쇄술, 판매 부수 및 전국적 유통망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 서적보다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따라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비록 정치적, 행정적으로 전주는 중앙의 견제를 받아왔지만 문화 창조와 변혁의 측면에서는 분명 전주는 한양이나 평양을 능가하였다.⁶⁾

이 글에서는 문학작품을 통해 전주 정신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전주는 주지하다시피 걸출한 문인들을 많이 배출해온 도시이다. 또한 출생지는 전주가 아니지만 오랜 기간 전주에서 생활하며 문단활동을 하거나 학창생활을 보내면서 전주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전주의 정신을 삶과 문학으로 구현한 작가와 시인들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전주에서 출생한 문인들만으로 대상을 국한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전주와 관련을 맺은 모든 문인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주 정신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전주가 아닌 국내외 어느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자신이 전주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으며, 삶의 영위 방법으로서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정신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⁷⁾

5) 신영복, 『담론』, 돌베개, 2005, 21쪽.

6) 전주에서 찍은 책은 서울에서 찍은 경판본과 비교해서 완판본이라고 한다. 전주는 당시 서울을 제외하고 그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이었으며 전국적인 판매 유통망을 지니고 있었다. 완판본은 글씨와 표현이 다른 지역 판본과 크게 달랐다. 완판본이 형용사와 감탄사를 많이 사용하는 리드미컬한 율문체인데 비해 경판본은 간결 소박한 산문체였다. 완판본이 날씬 반듯한 해서체로 누구나 알기 쉬운 반면 경판본은 흘려쓴 궁서 내지 초서체였다. 내용도 전라도 사투리가 적절히 배합되어 있다. 완판본은 경판본에 비하여 훨씬 길이가 길었을 뿐만 아니라, 서사적 완성도도 높았다고 평가된다.

7) 홍성덕, 「전주정신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 『온·다라인문학 토론회 자료』, 2014. 10, 30. 69쪽.

II. ‘온·다라 인문학’ 을 통해 제시된 전주정신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종합연구소와 전주시청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수행되는 ‘인문도시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이에 연구와 사업의 명칭을 ‘온·다라 인문학’이라고 정하고 인문강좌, 인문체험, 인문주간 행사 등을 진행 중이다.

2014년 10월 30일에 전주 한벽극장에서 열렸던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전주정신! ’ 온·다라 ‘ 무엇인지」 대토론회’에서 다섯 명의 발표자들에 의해 전주정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날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장)는 전주 사람들은 “**배타적이지 않고 더불어 사는 풍류 정신**”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또 그 풍류정신에는 “넉넉함과 포용력이 있으며 느긋함과 여유, 절의와 의리, 점잖음과 부드러움이 있다.”고 하였다. 저항에서 풍류가 나왔다고보다는 절의정신과 삶의 상대적 여유에서 풍류문화가 전주에서 발달했다는 것이다. 정여립의 기축옥사 이후에 전주 사람들이 관직에 많이 진출하지 못하고 중앙의 차대를 받았던 것이지만, 전주 사람들이 경제력을 토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벼슬에 덜 연연하고 독자적인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풍류가 발전했다고 지적하였다.⁸⁾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최기우는 조병희, 최승범, 최명희 외 전주 지역 문인들의 작품들에 나타난 전주정신을 정리하였다. 작촌 조병희가 그의 수필집 『완산고을의 맥박』에서 언급한 “**백제인의 가슴, 그 온유한 심성에 뿌리를 내린 ‘멋’과 ‘예술’**”, 고하 최승범이 「전북의 아름다움」에서 이야기한 “**아늑하고 부드러운 정서와 맑고 밝은 정신**”, 그리고 최명희가 장편대하소설 『혼불』 전체를 통해 강조한 “**수난을 곳곳하게 이겨내는 힘을 지닌 아름다움과 생명력**”으로서의 ‘**꽃심**’ 등이 전주정신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참조해야 될 내용들이라고 정리하였다. 최기우는 또한 “기축옥사로 희생된 수많은 선비들과 자주적이고 평등한 삶을 갈망한 동학농민혁명의 주체들, 백성의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다 희생된 전주인들의 마음”을 일컬어서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강자에게 용감하게 맞서는 ‘솔찬히 아고똥한’ 정신**”이라고 하였다.⁹⁾

국어학자인 이태영은 다른 판본과 대비되는 완판본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근대적 시민의식이 발달하고 만민이 평등하다는 의식이 앞서고, 저항적·진보적 의식이 강화된 도시로서 전주는 ‘**완(完)**’의 정신을 지녔다.”고 하였다. 경판본 소설에 비해 완판본 소

8) 이동희, 앞의 글, 22~23쪽.

9) 최기우, 「전주가 자연스레 만든 품격」, 『온·다라인문학 토론회 자료』, 2014. 10. 30. 15쪽.

설은 서체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서사적으로도 완성도가 높고 해학과 풍자가 넘치며 세련된 표현 방식을 구사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전주의 문화가 상층부의 양반들만이 지니고 있었던 문화를 중인 계층이나 서민 계층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 발전시킨 결과”라고 하였다.¹⁰⁾

또한 인문강좌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 강사들이 강의 중에 전주정신을 다각도에서 언급하였다. 역사학자 홍성덕은 전주한옥마을의 문화자원들을 소개하면서 “경기전과 전통 성당이 마주서 있는 것을 비롯하여 전주에는 다양한 가치와 이념, 종교 등이 대립하고 갈등하기보다는 공존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 주는 ‘상생’ (相生)과 ‘해원(解冤)’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고 하였다.¹¹⁾

또한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관 연구조사부장)는 전주에서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양상을 소개하면서 당시 동학농민군들이 보여 주었던 정신을 ‘상생과 배려, 그리고 나눔의 정신’이라고 정리하였다. 동학농민군들은 관군 및 일본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전개하면서도 결코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인명을 살상하지 않았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人乃天) “라는 사상을 가졌기에 동학농민군들은 하늘과 같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고 남의 재물을 함부로 빼앗지 않았음은 물론, 작은 것도 서로 나누면서 혹독한 고통을 함께 견뎌나갔음을 그들이 남긴 편지글이나 행적을 적은 글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이병규는 지적하였다.¹²⁾

향토사학자인 신정일은 모두가 평등한 대동세상을 꿈꾸었던 정여립의 사상을 ‘더 먼 것에 대한 사랑’이라고 정의하였다. 신정일은 “대도(大道)가 행해지니 천하가 만민의 것이 되고 어질고 유능한 자가 선출됨으로써 모두가 신의를 중히 여기고 화목한 사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와 자식만을 사랑하지 않고 모두 한 가족 같이 사랑하였다.”라는 『예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정여립의 대동사상을 ‘더 먼 것에 대한 사랑’이라고 정의한 것이다.¹³⁾

10) 이태영은 “전주에서 발간된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과 서울에서 발행된 경판본 한글 고전소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판본(서울본) 한글 고전소설이 양이 매우 빈약하게 출판된 데 비하여, 완판본은 동일한 소설이라도 양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이야기(소설, 설화)에 대한 감각이 매우 풍요로웠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래서 한글 고전 소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로 완판본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둘째, 안성판과 경판본이 18세기 말에 나왔고, 완판본이 19세기 초에 간행되어 약 30년의 차이를 보이지만, 지방에서 무려 130여 년간 고소설이 간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전주의 경제·문화적인 풍요로움이 서울과 대등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고소설 이외에도 수많은 판매용 책을 찍어서 서울과 다른 지방에 판매망을 두고 판매를 하였다는 점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책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출판문화가 대단히 발달하였음을 보여준다.”고도 하였다.

11) 「전주한옥마을의 형성과 문화자원」, 『온·다라인문학 인문강좌 자료』, 2015. 1. 9.

12)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과 전주」, 『온·다라인문학 인문강좌 자료』, 2015. 4.1.

13) 신정일, 「정여립의 대동사상」, 『온·다라인문학 인문강좌 자료』, 2015. 4.8.

이처럼 ‘온·다라 인문학’의 인문강좌와 인문체험을 통해 이미 다양한 각도에서 전주 정신이 조명되었고, 이와 같은 시도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홍성덕이 지적한 것과 같이 전주 정신은 고정 불변의 정신이라기보다는 늘 살아 움직이면서 변화하는 정신일 수밖에 없다.¹⁴⁾ 지역의 정신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정신이기도 하지만 당대를 사는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를 결집시키고 지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게 함과 동시에 보다 나은 미래를 견인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Ⅲ. ‘한’과 ‘삭임’의 전주 정신

1. 천이두의 ‘한(恨)’이론과 ‘삭임’

천이두(1930~)는 남원 출신 평론가이자 교육자이지만 전북대학교에서 제자들을 키웠고, 전주에서 『문화저널』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였는가 하면, 판소리 연구자로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등 대부분의 삶을 전주와 함께 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구태여 남의 이목이나 이력에 집착하지 않았고 학문과 평론에 정진하였다. 비록 지방에 거주하며 서울에 원고를 보내면서도 서울에 거주하는 이들보다 평론가로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활발한 평론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단순한 평론 활동에 그치지 않고, 개별 작품들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paradigm)을 독자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학문 세계를 구축하였다.

1993년에 문학과지성사에서 발간된 『한의 구조 연구』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 중 하나이자 ‘한’에 대한 연구의 집대성이면서 동일 분야 최고 수준의 학문적 경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한’을 애상의 정서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로 인식하던 기존 의 평면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천이두는 ‘한’이 지닌 서로 상반되는 양면성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역동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함으로써 ‘한’ 연구의 일대 전환을 이루었다.

천이두는 한국인의 주체에 있어서 “‘한’의 본질적 속성은 끊임없이 삭는 것이며 이 ‘삭임’에 의해 한의 독소, 즉 공격성(怨)과 퇴영성(嘆)은 초극되어 긍정적이면서도 미학적이고 윤리적인 가치(情과 願)로 승화·발효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원(怨)’은 일

14) 홍성덕, 「전주정신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 『온·다라인문학 토론회 자료』, 2014. 10. 30.

이 잘못되었을 때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고 ‘탄(嘆)’은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자책하는 태도와 마음을 가리킨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시험에 떨어졌을 경우, 혹은 배신을 당하거나 큰 손해를 입었을 경우 우리는 흔히 남 탓을 하거나 스스로를 확대하면서 증오와 좌절의 감정을 더욱 확대 생산시키는 경우가 많다.¹⁵⁾

그런데 천이두는 “‘한’이라는 정신 기제는 그 부정적 정서와 태도를 ‘삭임’이라는 과정을 거쳐 긍정적인 정서와 태도로 승화·발효시킨다.”고 하였다. ‘삭임’이란 국어사전에 의하면 “먹은 음식을 소화할 시키다.” 혹은 “분을 가라앉히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또 ‘삭힘’은 “발효시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아마도 천이두가 사용함 ‘삭임’에는 사전적 의미 외에 “발효시키다”의 뜻과, 주역에서 기원한다는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뜻 등이 더불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은 ‘한’을 삭이면서 인간으로 성숙해 가고, 그 ‘한’을 즐기면서 ‘멋’을 추구했다. 곧 한은 한국인에 의해 끊임없이 투사되고 표상되면서 ‘멋과 슬기’를 생성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삭임’에 의해 부정적인 정서와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과거 전주에서 가장 활발하게 공연되고 유통되었던 ‘판소리’와 이를 바탕으로 만든 ‘판소리계 소설’을 들 수 있다.¹⁶⁾

예컨대 춘향이라는 천기의 소생은 이몽룡과 이별하고 변학도로부터 모진 시련을 겪는다. 당연히 춘향으로서는 자신의 비천한 출신 성분과 처지에 대해 비관적·절망적으로 생각하거나(嘆), 자신을 떠난 이몽룡을 비롯한 양반 계층을 원망하고 증오할(怨)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춘향은 이몽룡을 원망하기보다는 그와 진정으로 사랑한 것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이몽룡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변학도에 항거한다. 비록 부친이 양반이지만 모친이 천민인 경우, 모계의 신분을 따라간다는 사회적 관습이나 변학도를 비롯한 양반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춘향은 스스로 자신의 품격을 ‘양반가 여성보다 더 고귀한 존재’로 승격시킨다. 비록 몸은 매질에 의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감옥에 갇혀 부자유한 몸이 되었지만 그의 인격과 정신은 양반가의 여성보다도 고결(高潔)하고 청아(清雅)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퇴락한 모습으로 찾아온 이몽룡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고 변학도의 모진 고문과 겁박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처럼 『춘향가』와 『춘향전』에 그려지고 있는 춘향은 ‘한’을 온몸으로 구현하고 있는 존재이다. 얼마든지 남을 원망하고 자신을 비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의 품격을 높이고 타자를 포용하면서 스스로를 최고의 품격을 지닌 여성으로 격상시킨

15)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3, 113~115쪽.

16) 천이두, 위의 책, 115쪽.

춘향은 분명히 타자 지향적이면서 현재의 상태에 얽매이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으며 긍정적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수동적 능동성’을 지닌 인물이다.¹⁷⁾ 특히 전주에서 출판된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가 12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수많은 『춘향전』 중에서 판소리계 소설로서의 특징¹⁸⁾을 가장 분명하게 지니고 있거나 ‘한’의 정서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삭임’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단어로 천이두는 ‘시김새’를 들었다. 시김새의 ‘시김’이라는 말은 ‘삭임’에서 온 것으로 본다.¹⁹⁾ ‘시김새’란 “판소리 창자가 수련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그 가락에 제대로 삭고 익어서 예술적인 멋을 성취하게 된 상태”를 말한다. 곧 판소리 가락을 잘 소화시키고 그 오묘한 경지를 터득하여 차원 높은 예술로 승화시킨 정도나 차원을 일컫는 말인 것이다. 판소리에서 ‘한’의 정서는 이러한 ‘삭임’의 과정을 통해서 표출되고 극복되는데, 끊임없는 ‘삭임’의 과정을 통해 부정적 정서는 극복되고 타자를 배려하고 창조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긍정적 정서가 생성하게 된다.

천이두는 “광대가 ‘시김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신 집중을 바탕으로 ‘불퇴전의 정진’ 있고서야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한’의 소유자가 배신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어도 반격과 보복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와 좌절, 배신감, 절망감 같은 부정적 정서들을 삭이는 ‘인육과 정진의 과정(‘삭임’)’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 ‘슬기’를 획득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라고 하였다. 춘향이 ‘십장가’를 부르며 모진 매를 견뎌내고 감옥살이와 사형 언도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이몽룡에 대한 절개를 지킨 것처럼,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육·정진’하는 ‘삭임’의 과정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한’을 실현하는 인물들은 모두 상대방을 거짓 없이 사랑하고, 무섭게 견디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존엄성을 결코 허물지 않는다. 또 그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친 사람들, 사물들, 인연들에 대해 성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고자 하는 정신과, 자신의 몸을 비우고 열어서 서로 통하고 교감하게 만들어 주는 ‘소내(疎內)’의 정

17) ‘수동적 능동성’은 천이두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레비나스가 이야기하는 ‘책임’과도 상통하는 개념이다. 곧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감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고통 받는 타자들의 문제를 바로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음으로써 자신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적 연대와 공의(公義)와 공동선(公同善)을 실현하는 과정”을 천이두는 ‘수동적 능동성’ 혹은 ‘소극적 적극성’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8)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는 그동안 조동일, 김흥규 등과 같은 국문학자들이 주장한 판소리의 이원적 성격, 이른바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 곧 ‘기생 춘향’과 ‘기생 아닌 춘향’의 갈등과 충돌 양상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판본으로 평가되고 있다.

19) 천이두, 위의 책, 111쪽.

신을 지니고 있는 바, 이는 바로 전주정신의 ‘핵’을 이를 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²⁰⁾

2. 가람 이병기의 자연친화적 ‘풍류정신’

우리나라 대표 시조시인이자 국문학자인 가람 이병기(1891~1968)은 전북 익산 출생이지만 전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는 1952년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장을 맡으며 상당 기간 전주에서 활동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고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면서 모진 시련을 감내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수감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²¹⁾

그가 전북대학교에 재직할 당시 전주향교 부속건물인 ‘양사재’에서 지냈으며, 그가 있었던 방을 지금은 ‘가람다실’로 부른다. 가람의 서재에는 늘 건란이나 풍란 등이 채워져 있었고,²²⁾ 양사재 뜰에는 매화나 백련을 심어 항상 자연을 벗 삼으며 풍류를 추구했다.

가람은 어린 시절에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고 『음빙실문집』을 통해서 새로운 사조에 접한 한학적 지식인답게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문화 감각을 지녔다. 그의 시인적 소양과 역량의 상당부분은 그가 옛 선비들의 심미적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함으로써 터득한 것이었다. 이병기는 이런 점에서 옛 선비들의 예도와 풍류의 상속자였다. 여기서 ‘풍류’란 “인문학적 교양에 기초한 세계의 감각적 향수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풍류의 속성은 고상(高尚), 우아(優雅), 쇠락(灑落), 아취(雅趣) 등과 같은 도덕적·심미적 자질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조 사대부의 심미적 문화에서 ‘풍류’는 “인문적 성숙에서 우리나라의 인간의 내면적 기품을 매개로 세계와 향수(享受)의 관계에 들어서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황종연은 이병기가 바로 이러한 사대부들의 풍류를 계승하여 삶 자체를 향수(享受)한 것으로 보고 있다.²³⁾

20) 최유찬, 『세계의 서사문학과 『토지』』, 서정시학, 2008, 361쪽.

21) 가람의 좌우명은 ‘후회하지 말고 실행하자.’였다고 한다. 50여 년 간 꾸준히 일기를 쓴 것도, 전 생애 언제나 떳떳하여 흠결을 남기지 않은 것도 이 좌우명을 따랐기 때문이다.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에는 ‘창씨개명’에도 응하지 않았고, ‘끝까지 지조를 지키며 단 한 편의 친일(親日) 문장도 남긴 일이 없는 영광된 작가’라고 기록돼 있다. 가람은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민족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나라와 겨레를 잊지 않았던 백세지사(百世之師)로 평가되고 있다.

22) 예로부터 난의 향기와 자태는 선비의 고결하고 청정한 기품에 대한 우의(寓意)로 간주되었고, 난을 완상하는 행위는 선비의 인간적 이상을 숭상하는 행위와 동일시되었다(황종연, 「이병기와 풍류의 시학」, 263쪽)

23) 황종연, 「이병기와 풍류의 시학」, 『한국문학연구』, 제8집, 1984, 265쪽

빼어난 가는 잎새 굳은 듯 보드랍고
자줏빛 붉은 대공 하얀한 꽃이 벌고
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다.

본디 그 마음은 깨끗함을 즐겨하여
정(淨)한 모래 틈에 뿌리를 서려 두고
미진(微塵)도 가까이 앓고 우로(雨露) 받아 사느니라.

- 이병기, 「난초·4」

가람의 시조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난초」는 1939년 간행된 이병기의 『가람시조집』에 수록되어 있는 연시조이다. 이병기는 “자연과 인간이 아무런 갈등 없이 소통하고 화해롭게 공존하는 상태에 있는 인간, 혹은 자연 질서의 운행과 개체적 삶의 영위가 서로 합치되는 지점에 존재하는 인간을 ‘산인(山人)’이라고 칭하였다. ‘산인’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심미적 문화에서 이상화된 인간이며, 선비들이 ‘풍류’를 통해서 따르고자 했던 인간형이었다. 이병기는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 물(物)이 또한 나의 정(情)을 갖추고 내가 또한 물의 정을 갖춘다. “는 식의 선비들이 추구했던 철학적 이상에 동조한다. 난(蘭의) 재배는 그의 물아일체(物我一體)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풍류적 행위이다. 난을 기르는 정신과 행위는 물질적 풍요로는 성취할 수 없는 ‘삶의 질’, 혹은 ‘품격’ 그 자체이다.²⁴⁾

3. 신석정의 ‘목가적 저항정신’

신석정(1907~1974)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서 시문학과 시인, 혹은 전원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시인이다. 1924년 〈조선일보〉에 「기우는 해」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중앙불교전문강원에서 불전을 공부했으며 전주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1955년 전북대학교에서 시론을 가르치기도 했다. 1939년 첫 시집 『촛불』을 펴냈고, 1970년 마지막 시집으로 『대바람 소리』를 펴냈다.

신석정의 제자이자 시인인 허소라는 신석정이 ‘목가 시인’으로만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허소라는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 친일시를

24) 황종연, 앞의 논문, 273쪽. 이와 같은 이병기의 ‘풍류 정신’은 유학적인 세계관을 지닌 선비들이 나름대로 ‘한’을 구현하였던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곧 가람은 ‘풍류’라는 ‘인문학적 소양과 도덕적·심미적 자질’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및 독재정권이라는 부정적 시대에 맞섰고 타협을 거부하였다. 그의 ‘난 재배’와 ‘국문학 연구’, ‘시조 창작’ 등은 부정적 시대로 말미암아 발생된 부정적 감정과 정서를 선비정신과 풍류로 승화·발효시켜 얻어낸 창조적인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쓰지 않은 사람은 석정 선생밖에 없었다.” 라고 하며 미발표작 11편을 발굴·소개하였다. 1960년대에 신석정은 개혁적인 성향이 짙은 ‘민족일보’에 강한 저항정신이 담긴 시들을 많이 썼다. 이처럼 신석정은 낙원 지향의 서정시와 치열한 역사의의 시가 따로 가지 않고 이를 통합할 줄 알았다는 것이다.²⁵⁾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 세 해가 지나갔다. / 다시 우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덤불』, (『해방 기념 시집』, 1946)

전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은 산수가 수려하고 들이 넓어 일찍부터 농경문화의 꽃을 피웠다. 그리하여 호남 사람들은 평화롭고 아늑한 삶의 터전에서 기상이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지어 불러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백제의 패망 이후 동학농민혁명의 좌절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주변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이 지역 사람들은 현실의 아픔과 한을 신석정처럼 예술적 성취로 승화시켜왔다.

해방 직후에 쓴 시 중 남한 문학을 대표하는 시로 알려진 「꽃덤불」에서 신석정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 특히 지식인들이 겪었던 좌절과 절망, 그리고 고통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석정은 그런 부정적 정서에 함몰되지 않고 밝은 미래를 염원하고 있다. 비록 “겨울 밤 달”은 아직 차지만,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겠다는 시인의 꿈은 “고통과 절망을 상생과 용서의 정신을 통해 승화함으로써 밝은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진다. ²⁶⁾

4. 최승범의 ‘아늑하고 부드러운 정서와 맑고 밝은 정신’

신석정의 사위이자 제자인 고하 최승범은 1931년 남원 출생으로 전북대학교 국어국문

25) 허소라, 「목사시인 신석정, 저항정신 시 많이 썼다」, 『전북일보』, 2009. 4. 16.

26) 신석정은 「전원으로 내려오십시오」라는 수필에서 “우리 고장의 풍광은 산자수명 그대로 찢들지 않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수필에서 석정은 건원의 후백제 건국과 몰락, 몽고의 침입, 임진왜란 당시의 전주 수성의 성공과 정유재란 당시의 실패, 동학농민혁명의 성과와 한계 등과 같은 전주의 유구한 역사를 언급하면서 ‘한강’과 ‘북한산’으로 대변되는 ‘중앙’에 비해 규모와 위력 면에서 뒤떨어졌지만, ‘청초명미(淸楚明媚)’와 ‘산자수명(山紫水明)’으로 대변되는 ‘자연적·도덕적 아름다움’과 ‘창조적 변방성’을 지님으로 말미암아 전주가 서울 못지않은 높은 자존감과 품격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였다. 시집 『난 앞에서』, 『천지에서』 등과 평론집 『한국수필문학연구』 등의 저서가 있다. 한국문인협회와 예총 전북지 부장을 역임하였고, 1969년 「전북문학」을 창간했으며, 현재 전북대 명예교수이자 고하 문학관장으로 있다.

최승범은 수필 「전라도의 아름다움」에서 다음과 같이 전북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전북의 아름다움 모두어 생각하면, 이 고장 산수 같은 아늑함과 부드러움, 선인들 둘레와 나누어 온 맑고 밝은 빛이라네,

아늑함과 부드러움 정서적인 것이라면, 맑음과 밝음은 정신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서 이 정신이 바로 전북의 아름다움 이뤄 왔다네.

‘인결(人傑)은 지령(地靈)’이란 말 낡았다고만 할 것인가. 저 정서로 하여 전북 예술 꽃이 피고, 저 정신 꽃대로 하여 전북 기풍(氣風) 햇불이었지 않은가.

뉘라 하여 제 고장에 대한 애착 없으리만, 아름다운 전북 이 고장 생각하면, 전북의 토박이인 것이 이리 자랑일 수 없다네.

- 최승범, 「전라도의 아름다움」

비록 위의 수필에서 최승범은 전주만이 아닌 전라도 전체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또한 전주의 정신이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²⁷⁾ 최승범은 이 수필에서 전북의 산수가 ‘아늑하고 부드러운 정서’를 조성하고, 선인들의 빛은 ‘맑고 밝은 정신’을 이루었으며, 이 모든 것이 ‘전북의 아름다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또한 아늑하고 부드러운 정서로 말미암아 전북예술이 발전하고, 또 맑고 밝은 정신은 ‘전북의 기풍’이 조성되었다고도 하였다.

이 수필의 5장에서 최승범은 전북 지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훨씬 더 혹심한 고통과 시련을 겪어 왔음을 동시에 상기시킨다. “제 땅을 지키고, 제 삶을 지키려 했던 후백제인들의 진충(盡忠)”을 왕건은 ‘배역(背逆)’으로 몰았고, 정적이었던 동인들을 숙청하기 위해 서인들이 일으킨 기축옥사로 말미암아 전북 지역은 ‘배역향’으로 지목되어 이후 엄청난 견제와 차대를 감수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인들은 기축옥사 직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27) 언급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 곧 후백제 건국, 조선 건국, 정여립 사건, 동학농민혁명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의 주요 배경이 전주라는 점에서 최승범이 언급하고 있는 전북인의 정신은 전주정신이라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웅치 전투와 이치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그리고 전주성을 끝끝내 수성하여 호남의 곡창을 굳게 지켜 아군에게 군량을 공급하는 한편, 적의 군량은 고갈케 함으로써 임란 전체의 판도를 역전시키는 데 호남의 의병들은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천이두의 지적대로 전북인들이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삭임’의 정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가혹한 고문과 처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大義)’를 실현하기 위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애국심과 민족애로 승화시켰다.²⁸⁾

갑오년(甲午年·1894) 녹두장군 동학군이 올린 햇불, 그 햇불이 밝힌 기치,
 사람 목숨 죽이거나 재물손상 하지 말 것.
 충효를 다하고 백성을 편안히 할 것.
 일본 오랑캐 내쫓아 성도(聖道)를 밝힐 것.
 서울로 들어가서 권귀를 없앨 것.
 4대강령 빛 부셨지. 이 모두 가렴주구(苛斂誅求) 외세침략(外勢侵略)에서 사람다운 사람살
 이 되찾아 지키자는 햇불 기치 아닌가.
 전라도 전북 땅 이 땅 누려 삶을 가꾼, 이 땅 선인들의 아름다움이여, ‘미친바람’ 다스
 린 슬기여, ‘검은바람’ 이겨낸 용맹이여, 이 슬기 이 용맹에 ‘반역향’을 덮씩우다니 이
 를 말이랄 수 있겠는가.

- 최승범, 「전북의 아름다움」에서

전북은 조선 중기 이후 후기에 이룰수록 지속적으로 소외당하고 차별받았다. 과거 급제자 수의 현저한 감소가 이를 증명한다. 전주를 비롯한 전주지역 백성들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처사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다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들은 판소리, 출판, 서화,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화적 창달(‘풍류’)를 통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조선의 현실에 역동적으로 대응하였다. 천주교와 동학이 가장 먼저 전파된 곳도 아니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전주에서 발생하고 경상도에서 발원한 동학이 전라도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발전한 것은 따라서 우연이 아니다.

위의 수필에서 최승범은 수직적(봉건적)인 인간관계를 강요하던 조선의 이데올로기와

28) 최승범의 「전라도의 아름다움」 5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임진왜란(1592-1598) 7년 전쟁 전라도 창 의(倡義) 군량(軍糧) 아니더면, 또 남원·이치·금산의 저 혈전(血戰) 없었다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겠 나. / 충무공 말씀이신 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 / 이 한 말씀 생각해 보세.” // 이와 같은 내용은 전주 사람들이 역울한 일을 당한 후 발생하기 마련인 원한을 긍정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 태도와 행동으로 승화시켰음을 최승범이 적절하게 표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신분 질서에 대항하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 주권을 지켜내고자 했던 전북인들을 ‘미친바람 다스린 슬기와 검은 바람 이겨낸 용맹’을 지닌 사람들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전북인, 혹은 전주 사람들은 중앙 정부의 차대에 실망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기존의 모순을 극복하고 중심부를 해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하고자 했다. 곧 중심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변방’으로서의 역할을 국내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수행한 곳이 전북이고, 전주였다고 할 수 있다.

IV. 『혼불』에 나타난 ‘온’의 정신과 ‘꽃심’

한국문학사에 큰 궤적을 남기고 별세한 『혼불』의 작가 최명희(1947~1998)는 전주를 ‘꽃심 지닌 땅’이라고 하였다. 장편소설 『혼불』과 미완성 장편소설 「제망매가」, 단편소설 「만종晚鐘」을 통해 전주의 역사와 삶을 담았다. 전주에서 나고, 전주에 묻힌 작가는 늘 전주를 자랑스러워했다.

최명희는 전북 전주시 풍남동(당시 화원동)에서 아버지 최성무(崔成武, 1923-72)와 어머니 허묘순(許妙順, 1927-96)의 2남 4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전주풍남초등학교, 전주사범학교 병설여자중학교,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를 거친 뒤, 2년간의 공백기를 가졌다. 1968년 영생대학(현 전주대학교) 야간부 가정과에 입학하여 2학년을 수료했는데, 이 기간 중 최명희는 모교인 기전여고에서 서무직에 종사하기도 했다. 1970년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학년에 편입해 1972년 졸업과 동시에 기전여고에 교사로 부임하여 2년, 1974년 서울 보성여고로 옮겼으며 만 9년 간 국어교사로 재직했다. 1997년 전북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²⁹⁾

1. ‘창조적 변방성’의 정신, ‘온’의 정신

전주에서 주인공 강모는 역사교사이자 인생의 큰 스승인 심진학을 만난다. 심진학은 승자의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아닌 기록되지 못한 패자의 역사, 곧 전주의 역사, 나아가 조선의 역사에 주목한다. 강모와 함께 만주로 건너 간 심진학은 일본 제국에게 짓밟혀 신음하고 있는 조선의 모습을 신라에 패하고 한낱 ‘지령이’로 기록된 ‘전환’의 모습과 상동관계에 놓여 있다고 본다.³⁰⁾

29) 최명희문학관 작가소개 사이트, ‘아소 님하’, <http://www.jjhee.com/>

승자가 아닌 패자, 백제 후손의 관점에서 창작된 『혼불』의 역사 서술 방식은 중앙중심의 획일화된 역사가 아닌 지역 정체성을 담보한 ‘지역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혼불』의 역사 서술에서 나타난 이러한 지역적 관점은 우리가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중앙에서 기술한 역사, 이른바 관학의 역사에는 아무래도 지배 이데올로기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의 입장에서 새롭게 기술된 역사는 그 지배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해체하는 성격을 지니게 마련이다. 『혼불』에서 전현, 유자광 등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고 여성, 하층민 등에 의해 남성이나 상층 계급에 속하는 이들이 도전받는 양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다.

전주의 이름을 보자.

이제 제군들이 부조(父祖)의 함자(銜字)와 휘자(諱字)를 똑바로 아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 음덕을 입고 살아갈 땅의 이름 또한 잘 알아야만 한다. 땅은 어버이이기 때문이다.

역사 선생은 칠판에 백묵으로 강렬하게 ‘全州’라고 썼다.

“전주는 온전 전(全)과 고을 주(州)로서 온전한 고을이라는 말이고, 완산은 완전할 완(完)에 피 산(山)이니, 산의 고어가 ‘들’인 것을 안다면 ‘온 들’이라, 완전한 피와 어울려 다함없이 완전한 산과 들, 즉 완전한 누리를 일컫는 말이다.”

이는 전주가 나지막한 산자락에 둘러싸인 원형분지로서, 동남쪽 저만큼 산악지대를 우뚝 우뚝 장수처럼 첩첩이 늘어세우고, 서북쪽 비옥한 평야지대를 아득히 풀어서 펼쳐 놓아 비산비야를 적절히 이룬 지형인데다가, 서해 바다 또한 지척인지라, 산과 들과 바다의 산물이 사시사철 풍요롭게 모여들고, 기후조차 온화 따뜻하여, 사람들의 성품은 명랑하고 낙천적이면서 남방인 특유의 개방적인 호방함을 넉넉하게 가진 바를 기리어, 만물이 은성하며 모든 것을 완비하여 원만하다는 뜻을 글자로 표현한 것이리라.

“이 글자 속에는 무궁하면서도 아늑한 이상(理想)이 담기어 있다.”

‘전’자나 ‘완’자나 모두 온전하다는 뜻으로, ‘온’이란, 흠이 없다, 혹은 모든 것, 그리고 갖추어져 부족함이 없는 상태, 백천만 숫자를 가리킬 때, 백의 옛말이다.

온 세상, 온갖 것, 온 힘을 다하여, 온통.

백제 사람들은 이 온이란 말을 즐겨 써 온 것 같다. 그 시조인 온조왕의 이름 첫 글자인 ‘온(溫)’에도 드러나 있고, 국호 백제의 ‘백(百)’도 훈으로 읽는다면 ‘온’이다. 이 ‘온’ 속에는 완전·원만·광대함을 사모 숭앙하는 정신이 깃들여 있다.

- 최명희, 『혼불 8권』 80~81쪽

30) 고은미, 「지역사의 관점에서 본 『혼불』」, 『온·다라인문학 인문강좌 자료』, 2014. 10.

최명희는 심진학의 입을 빌어 ‘완산(完山)’의 옛 이름을 ‘온’과 ‘들’의 합성어로서의 ‘온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온’은 ‘온전하다’, ‘흠이 없다.’,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백(百)의 고어가 ‘온’이라는 것과 백제 시조가 ‘온조왕’인 것도 ‘온’이 지닌 이런 의미들과 연관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은 문헌을 통해 입증된 역사적 사실이나 객관적으로 입증된 견해라기보다 대부분 작가가 문학적으로 상상한 내용이다. 그러나 문학은 역사와 달리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을 함께 다룬다. 실제로 전주가 과거에 ‘온들’이라고 불렸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주의 옛 이름을 ‘온들’이라고 상정하였을 때 갖게 되는 전주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자부심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온들’이란 명칭은 전주의 실제 역사, 문화, 정신 등과 비교할 때 의미심장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온전하고, 흠이 없고,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인간이나 도시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의 다양한 뜻은 ‘실제의 상태’이기보다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혹은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원래 전주는 동·남쪽은 지대가 높은 반면, 서·북쪽으로는 지대가 낮아 홍수에 취약했다고 한다. 큰 비가 내릴 경우, 높은 지대로부터 한꺼번에 낮은 지대로 큰물이 들어 전주천이 범람하기 일췌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전주 사람들은 전주천의 물길을 조정하고 덕진제와 같은 독을 높게 쌓는 한편, 준설 작업을 열심히 함으로써 오늘날 좀처럼 범람하지 않는 전주천이 형성되었고 한다. 또한 전주는 마한, 백제, 통일신라, 고구려 유민, 중국 등의 문화나 정신, 혹은 상품 등이 활발하게 교류되고 융합되었던 지역으로 추정된다.³¹⁾

전주가 ‘완판본’으로 대변되듯이 중심부 못지않은, 때로는 중심부보다 훨씬 훌륭한 문화를 창달시킨 것은 전주가 배타적이기보다는 포용적이고, 폐쇄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이며, 보수적이기보다는 진보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는 상주 출신의 견훤을 받아들여 후백제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고, 분향을 오래 떠나 함경도에서 나고 자랐던 이성계를 넉넉하게 포용함으로써 조선 건국의 태반이 될 수도 있었다.³²⁾

31) 홍성덕, 「아하 그렇군요,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 사이트, <http://www.jeonjumuseum.org>

32) 또한 전주는 조선왕조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왕들이 직접 방문은 하지 못하였지만 전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나 전주를 격상시킴으로써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였다. 영조가 극심한 분당정치를 왕권 강화와 탕평책으로 돌파하려 할 때 전주 이씨 시조를 모시는 ‘조경단’을 세우고, 고종황제가 쓰러져가는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친필로 ‘태조고황제주필유지(太祖高皇帝駐畢遺址)’ 비문을 내린 것은 전주가 조선 왕실의 태반으로써, 또는 정신적 지주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전주 사람들은 기축옥사로 인해 중앙 정부로부터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병을 일으켜 전주성과 호남평야를 지키고 태조 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도 하였다. 또 천주교나 외지에서 발원한 동학을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주체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양반의 전유물이었던 문학, 음악, 무용, 서화 등을 중인이나 서민은 물론 천민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문화로 전환·확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도시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전주는 단순히 다른 지역과 다른, 차별성만 지닌 도시가 아니라 수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창조적 변방성을 지닌 진보적 도시로서의 역할’을 늘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 정여립의 대동사상, 동학사상, 기독교 사상 등을 통해 봉건사회가 고수하던 수직적 인간관계를 민주적 수평적 인간관계로 바꿔 나감으로써 근대 시민 사회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민주주의적 체제를 어느 도시보다 앞장서서 준비하고 선도한 것도 전주였으며, 국가가 외세와 손을 잡고 자국의 백성을 진압하려 할 때, 재래식 무기와 농기구를 들고 조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외세에 맞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일으킨 곳도 동학농민혁명군의 지도부가 있었던 전주였다. 이 모두 전주가 늘 드높은 자존감과 자부심을 지닌 ‘창조적 변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2. 최명희의 ‘꽃심’과 레비나스의 ‘타자의 얼굴’

전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북작가회의’는 1997년 창립총회 기념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정여립의 대동정신, 그리고 동학혁명 등에 일관되어 있는 만민평등사상이 이 지역문화의 연원이었음을 새삼 깨달으면서 우리는 지역 문화의 정수를 한데 엮어 민족문화의 내일을 가꾸고자 합니다. 평등사상과 한의 정서,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비극적 혈연을 전라도는 고통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 고통과 희망을 우리가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나라 글쓰기의 수위를 그리고 우리가 가꾸어 나갈 민족문화의 숲을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아 주십시오.”

위의 선언문에서 작가들은 전주의 전통이 지닌 ‘양면성’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정여립의 대동정신과 동학혁명 등에 일관되어 있는 만민평등사상이 이 지역문화의 연원”

이라는 점은 무척 자랑스럽지만 또한 두 역사적 사건은 이 지역에 ‘한의 정서’와 ‘고통’을 심어 놓은 것도 사실이다. 이 ‘고통과 희망’이라는 비극적 혈연관계 속에서 지역의 문인들은 ‘민족문화의 숲’을 가꾸어 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바, 이는 앞에서 언급한 ‘삭임’의 정신을 통해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공격적이거나 퇴영적인 정서에 함몰되지 않고 타자를 배려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개척하는 문학을 창작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된다.

아우슈비츠 수감생활을 경험했던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세계를 구축하였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고통당하는 ‘타자’는 나에게 ‘윤리적 명령’을 내린다. 얼굴은 나에게 ‘명령하는 힘’으로서 다가오는데, 이 힘은 강자의 힘이 아니라 상처받을 가능성, 무저항에서 오는 힘이다. 타자의 곤궁과 무력에 부딪칠 때 나는 “부당하게 나의 소유와 부와 권리를 향유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한다. 이처럼 ‘타자의 경험’은 내 자신의 불의와 죄책에 대한 경험과 분리할 수 없다. ‘타자의 얼굴’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인간의 보편적 결속과 평등의 차원’에 비로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레비나스의 주장이다.³³⁾

대동사상을 주창한 정여립이나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믿고 실천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들 역시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의 경험’을 느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대체로 양반의 신분에서 속해 있었고 봉건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이 민중의 편에 서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은, 타자의 얼굴로부터 ‘윤리적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천민이라는 이유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 하층계급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느끼는 가운데 그들과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인간의 보편적 결속과 평등의 차원’에서 시대의 모순을 혁파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작가 최명희는 『혼불』 마지막 10권에서 ‘꽃심’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아직도 전주 사람들은 완산에 산다.

저 아득한 상고(上古)에 마한의 오십오 개 소국 가운데서, 강성한 백제가 마한을 한 나라씩 병탄해 올 때, 맨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전라도 지역 원지국(爰池國)의 수도 원산(圓山), 그 완산, 전주. 그리고 빼앗겨 능멸당해 버린 백제의 서럽고 찬란한 꿈을 기어이 다시 찾아 이루겠다고 꽃처럼 일어선 후백제의 도읍 완산.

그 꿈조차 짓밟히어, 차현 땅 이남의 수도 능욕을 다 당한 이 땅에서 꽃씨 같은 몸 받은

33) 강영안, 『타자의 얼굴』, 문학과지성사, 2005. 35~36쪽.

조선왕조 개국시조 전주 이 씨 이성계. 천 년이 지나도 이천 년이 지나도 또 천 년이 가도,
끝끝내 그 이름 완산이라 부르며 꽃심 하나 깊은 자리 심어 놓은 땅.

꽃의 심, 꽃의 힘, 꽃의 마음.

꿈꾸는 나라.

-최명희, 『혼불 10권』, 296 ~ 297쪽

최명희는 또 1998년 ‘호암상 수상 기념 강연’을 통해 다음과 같이 ‘꽃심’을 보다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바 있다.

“아름다운 것들은 왜 그렇게 수난이 많지요? 아름다워서 수난을 겪어야 한다면 그것처럼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수난을 꽃꽂이처럼 이겨내는 힘이 있어 아름다운 생명이지요. 그 힘을 나는 ‘꽃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난 이 땅 전라도는 그 꽃심이 있는 생명의 땅이에요.”

‘꽃심’은 최명희에 의하면, “수난을 꽃꽂이처럼 이겨내는 힘이며, 아름다움이며, 생명”이라는 것이다. “‘책임’은 내가 먼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작업의 결과이다. 책임을 통해 나는 타인에게 ‘수동적 대상’이 된다. 책임으로 주어진 나의 수동성은 나에게 동시에 선택과 과제로 주어지며, 수동성을 통해 나의 자유와 창의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의미를 얻게 된다. 나는 수동적 존재로 타인을 대신하여, 타인을 속죄하기 위해 고통 받는 불모의 모습을 하고 있다. 타인을 위한 대속이야말로 나를 한 인격으로, 책임을 갖는 존재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만들어준다”라는 레비나스의 주장과 최명희가 제시하는 ‘꽃심’ 사이에는 분명 상통하는 바가 있다.³⁴⁾ 최명희가 제시한 ‘꽃심’은 또한 천이두가 ‘한’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수동적 능동성’이라는 개념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균수 시인은 「용머리고개」라는 시에서 “용머리고개에는 /백제 여인들이 완산천 시린 물을 퍼다가 /싸움터에서 죽은 / 지아비의 피 묻은 옷을 두들겨 패던 빨랫돌들이 / 천 년 이끼를 키우며 살고 있다. / 백제 유민들의 때문은 이부자리를 모아다가 / 새 솜으로 타주던 솜틀집이 살고 있다 / 대나무장대에다가 찢어진 깃폭을 매달아 놓고 / 하늘을 열어 / 견훤성 불귀의 원혼을 불러들이는 / 패망한 역사의 술사들이 살고 있다 / 용머리고개에는 / 관군들의 대포와 머리를 쳐부수던 / 동학군들의 녹슨 팽이와 낫을 달귀 / 햇

34) 강영안, 앞의 책, 259쪽.

빛 일렁이는 무지개 날을 노와 / 비석거리에다가 걸어놓고 / 동학군 반골을 불러 모으는 / 대장간 풀무쟁이가 살고 있다.” 라고 하며 전북 사람들이 당해 온 중요한 시련과 고통들을 열거하고 있다. 위의 시 외에도 전북 지역 시인들은 그들이 창작한 시에서 백제와 후백제의 패망, 건훤의 좌절, 정여립과 동학농민혁명군들의 희생들을 수없이 반복하여 다루고 있다.

마치 파도가 연이어 밀려오듯이 전주는 다른 지역에서는 한 번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수없이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로지 ‘수동적 존재로 타인을 대신하여, 타인을 속죄하기 위해, 그리고 시대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전주 사람들은 고통을 겪어왔으며, 그 고통들은 ‘꽃심’으로 승화되었다. 몽테뉴가 말했듯이 “삶의 기술은 역경에 처할 때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주는 수많은 역경을 통하여 문화를 창달시켰으며,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었고, 타자의 아픔과 슬픔을 자신에 대한 윤리적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높은 ‘품격’을 보여 주었다.

V. 전주정신의 확립을 위하여 - 마무리를 대신하여

지금까지 전주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전주정신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주는 마한에서 백제, 그리고 통일신라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꾸준히 역량을 키워 왔다. 전주는 마한과 백제의 문화를 계승하되 신라와 고구려의 문물들도 포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후백제의 왕도가 될 수 있었다. 후백제는 비록 36년밖에 유지되지 못하였지만, 왕도로서의 기억은 전주 사람들로 하여금 ‘품격 있는 삶’을 살게 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육성하였다. 또한 함경도 경흥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성계가 무신으로 성공하여 본향인 전주를 찾았을 때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포용함으로써 조선 건국이 가능하게 하였다.

경기전은 단순히 태조의 어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조선 건국의 정신이 살아 있는 공간이 되었다. 경기전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전주사고가 있었는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다른 세 곳의 실록은 모두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전주사고의 실록만이 관원들과 선비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보존될 수 있었던 것도 경기전을 중심으로 하는 전주에 조선을 건국하였던 당시의 초심, 곧 나라와 백성을 깊이 사랑하는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전주는 호남의 수부이자 중앙 정부가 있었던 한양 못지않은 높은 자부심과 자존감 및 품격을 지닌 도시, 곧 ‘창조적 변방성’을 지닌 도시로 발전하였다. 중앙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봉건적 모순에서 헤어나지 못하였을 때, 전주는 시대를 앞서가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였다. 정여립의 대동사상, 천주교와 개신교의 수용, 동학의 포교와 동학농민혁명의 발발 등은 모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곧 전주는 기존의 가치(봉건적 가치, 수직적 인간관계)를 고수하려는 중앙에 맞서 그것을 해체하고 새로운 가치와 수평적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늘 ‘창조적 변방’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했고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주의 문화와 예술이 중앙의 수준을 늘 능가하였던 것도 전주가 ‘창조적 변방성’을 지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판소리가 전주대사습이라는 최고의 판소리경연장을 통하여 중흥하였고, 전주 음식이 오늘날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며, 전주의 시·서·화, 음악, 무용, 공예 등 모든 부문에서 전국 최고의 수준을 유지했던 것은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전주 사람들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창조적 변방’으로서 중앙을 일깨우고 선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완판본의 수준이 경판본은 물론 타 지역에서 간행된 도서들에 비해 훨씬 우수하였고, 이에 따라 전주에서 간행된 출판물이 전국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는 사실은 전주가 지녔던 문화적·정신적 영향력이 그만큼 컸음을 의미한다.

‘창조적 변방’이 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사람들은 높은 품격, 자존감, 자부심을 가지고 뚜렷한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 고통과 실패, 좌절과 패배에 굴복하고 좌절하기보다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고 성공과 승리의 씨앗을 잉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 ‘삭임’의 정신과 ‘꽃심’의 정신이다.

니체는 “인생의 완성이 혹독한 어려움에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 고 하였다. 어려움에 봉착하여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여서는 개인이고 지역이고 발전할 수 없다. 전주는 후백제의 멸망, 고려의 홀대, 기축옥사, 정유재란, 천주교 박해, 동학농민혁명의 패배 등과 같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오랜 세월 겪어 왔다. 전주의 높은 문화수준과 강한 정신은 이와 같은 시련과 고통을 ‘삭임’의 정신과 ‘꽃심’으로 극복해 온 결과이다.

【참고문헌】

- 강영안, 『타자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 신영복, 돌베개, 『담론』, 2015. 4.
- ,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돌베개, 1988.
- 송화섭 외, 『전주의 역사와 문화』, 2004. 4.
- 신정일, 『지워진 이름, 정여립』, 가람기획, 2003.
- 이병천, 『당신에게, 전주』, 꿈의 나라, 2015. 6,
- , 『모래내 모래톱』, 문학동네, 1993.
- 조병희, 『완산고을의 맥박』, 신아출판사, 2001.
- 전북대문인작품집 간행위원회, 『큰 가람 깊은 소리』, 신아출판사, 1997.11.
-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정신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 『전주학연구』 3집, 2010.4.
-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3.
- 최명희, 『혼불』, 한길사. 1997.
- 최명희, 「제망매가」, 『전통문화』, 1985. 9.
- 최유찬, 『세계의 서사문학과 『토지』』, 서정시학, 2008.10.
- 양귀자, ‘고향예찬/전북’, <동아일보>, 1998. 7. 23
- 최기우 희곡, 「정으래비」, 희곡집 『상봉』, 2009.
- 최명희, ‘고향예찬- 기억은 저마다 한 채의 집을 짓는다’, <새전북신문>, 2014. 10. 9.
- ‘온·다라 인문학’ 인문강좌, 인문주간, 인문체험 자료(2014.9 ~ 2015.6)

완판본 옛 책으로 본 전주정신

이 태 영*

<목 차>

- I. 서론
- II. 전주의 언어
- III. 선비의 도시, 전주
- IV. 종교 · 학문적 이상향의 도시, 전주
- V. 정자체 한글 사용의 도시
- VI. 대외적으로 활발한 교류
- VII. 완판본에 나타난 간기로 보는 전주 정신
- VIII. 결론

1. 서론

본 발표는 조선시대 한양의 경판본과 쌍벽을 이룬 인쇄문화인 전주의 완판본 옛 책을 중심으로 그 특징에 나타나는 전주 지역민의 의식과 정신을 다루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전라북도 전주는 쌀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활동의 중심지였다. 거기서 나오는 풍요로움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적 욕구에 의해 기록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천년 이상 보관하는 한지를 만든 문명의 도시이다. 기록의 수단인 한지의 발달로 서예, 그림, 부채,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전통문화가 발전하였다. 임진왜란 때 전주를 지켜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하여 한국의 역사를 살아 있게 한 도시이다. 전주는 판소리의 고장이고, 판소리는 전라도 말로 해야 맛이 난다고 했다. 전주의 말은 발음이 쉽고, 매우 부드러우며, 가락이 있어 판소리에 제격이다. 전주의 정서는 매우 안정되어 있고, 여유가 있다. 풍요로움과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여유 속에서 전국에서 가장 전통적인 음식을 만들고 있다. 전주가 보여주는 정서적 안정감은 바로 이처럼 다양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서 나오는 것이다.

전주에서 발간된 옛 책이 서울과 더불어 조선시대 최고의 수준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인쇄문화는 조선시대에 와서 절정을 이루는데 전라감영에서 발간한 완영본이 약 70여 종류, 사대부들의 요청으로 전주에서 발간한 완판사간본이 약 230여 종류가 되었다.

그 후 판매용 책이 100여 종류가 발간되었다. 완판본 판매용 옛 책은 교육용 책, 생활백과용 책, 한글고전소설, 유교용 책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선시대 판매용 책이 만들어진 곳은 서울(경기 포함), 대구, 전주(태인 포함) 등이었다. 이처럼 판매용 책이 발간된 것은 당시의 이 지역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전주의 문화사적 여러 요인과 더불어 지역민들의 지적 욕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완판본 연구는 형태서지학적인 입장에서 주로 다루어 왔다. 곧 책의 종류, 책의 출판과 판매 등 외형적인 입장이 주로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완판본이 전주, 전라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조선시대와 개화기 시대에 전주 사람들이 보여주는 의식의 세계를 살펴보고 한다. 전통문화도시에 걸맞은 지역의 정신을 드러내는 역사를 개발하지 않고는 외형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전통문화라고 하기 어렵다. 문화는 삶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II. 전주의 언어 - 부드럽고 여유롭고 넉넉한 정신

전북 사람들은 점잖고 유순하다.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전북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특징은 언어에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1. 부드러운 언어

전주 지역어는 표준어에 가장 근접한 언어이다. 왜냐하면 단모음 10개(아, 어, 오, 우, 으, 이, 에, 애, 외 위)를 완벽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전북 말은 큰 특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로 이처럼 부드러운 것이 큰 특징이다.

1) 유기음보다는 평음으로 발음한다. 된소리나 거센소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 꽃이[꼬시], 밭이[바시], 짚이[지비]

(2) 못해요[모대요] 밥하고[바바고] 숯하고[수다고], 육학년[유강년]

2) 연결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도 줄여서 부드럽게 발음한다.

(1) 먹어보니까 - 먹어볼게, 웃으니까 - 웃을게/웃으면서 - 웃음서, 가면서 - 감서/
가는데 - 가는다/웃으면 - 웃으면

3) 격조사의 발음도 편한 발음을 지향한다.

(1) 집에서 - 집이서, 집으로 - 집이로, 병원에 - 병원으, 위에 - 옥으

4) 가락, 장단의 언어이다.

(1) 강조할 때, 장음으로 말하는 특징이 있다.

‘겁~나게, 점~드락, 포도~시, 콩~장히, 워~너니’

‘머덜라고리여~, 이거시 머~시나요?’

(2) 친근감을 표시하는 형태소 사용

‘나 간다~잉, 잘 잤다와~ 잉’

5) 많이 사용하는 부사에서도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별로 없다

‘보도시(겨우), 뜬금없이(갑자기), 술찬히(상당히), 죄다(모두), 맥없이/매렵시(그냥),
육장(계속), 대번에(바로), 내동(내내), 겁나게(아주,매우), 엘라(오히려), 머나(먼저), 점
드락(종일), 팜나(밤낮,매일)’

6) 여유가 있는 발음

발음을 아주 경제적으로 쉽게 한다. 이러한 발음은 판소리를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에는 이러한 방언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다.

(1) | 모음 역행동화(움라우트) : 아비-에비, 고기-괴기, 당기다-댕기다, 다리다-대리
다(다리미-대리미), 속이-석이, 잡히다-좍히다, 속이다-석이다

(2) 원순모음화 : 거미-거무, 호미-호무, 나비-나부, 파리-포리, 팔-폴, 팔-폴, 먹다-

묵다, 짧은-짧룬(짧롭다), 기르다-지루다. 질구다, 얼리다-얼구다

(3) 전설모음화(구개모음화) : 스물-시물, 쓰레기-시레기, 벼슬-베실, 벼실, 보습-보십,
쇠스랑-쇠시랑, 이슬비-이실비, 마을-마실간다, 가을-가실,

(4) 구개음화 : 건디다-전디다, 김-짐, 길-질, 기침-지침, 곁에-절에, 김제-짐제, 짐제,
김계, 허-셔, 힘-심, 형님-성님, 헤다-세다, 흉악한 -송악한

2. 문화적 언어 - 농도

전라북도농사는 농사를 주로 지어온 고장이기 때문에 자연이나 농업을 경외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판소리와 고전소설과 관련되어 풍자나 해학적인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다.

1) 겁나다, 겁나게 :

‘겁’ 이 가지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 이라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추상적 의미가 ‘겁나다’ 에서는 ‘무섭거나 두렵다’ 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로 변한다. ‘겁나다’ 가 수효나 분량 또는 정도를 나타내는 체언을 만나면, 형용사로 변하면서 ‘많다’ 는 의미를 갖는다. ‘겁나다’ 가 갖는 ‘많다’ 의 의미도 ‘무섭고 두려운’ 수나 양, 정도를 나타내야 하니까, 극단적인 ‘매우 많다, 굉장하다, 엄청나다’ 는 의미를 갖는다.(이태영, 2012:78)¹⁾

‘아주 많다’ 의 의미로 사용되는 ‘겁나다’ 가 주로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지역에서 사용되는 이유는 농경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전라도 지역은 김제·만경 평야, 나주 평야 등 논과 밭이 있는 평야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고 크다. 또한 여기서 생산되는 쌀을 포함한 곡식의 양이 다른 지역과 달리 엄청나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는 어휘가 발달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 단순한 삶 : 거시기

전북 방언의 ‘거시기’ 는 대명사, 감탄사로 쓰이고, ‘거시기허다’ 는 대용언으로 쓰이고 있다. ‘거시기’ 는 명확하지 않은 사물이나 사실을 말할 때 쓰이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나 동작을 이룰 때 쓰는 말이다.(이태영, 2002:54)

전북 사람들이 ‘거시기’ 를 많이 쓰는 이유는, 첫째, 화자나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1) 이미 이승재(1992:63)에서도 전라방언에서 ‘아주 많다’ 의 뜻을 가진 ‘쌌다’ 를 ‘쌓이어 있다’ 와 같은 농경문화에서 온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보일 경우에 굳이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단순한 농경사회에서는 상대방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셋째, 말을 할 때 시간을 벌기 위해서 군말로 쓰거나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넷째,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친밀한 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루를 농사를 짓는 일을 한다면, 거의 같은 일이 단순하게 반복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이 ‘거시기’라는 어휘를 만들었을 것이다.

3. 다양한 표현의 언어 - 풍자, 해학

전라 문학에서 판소리, 한글고전소설과 같은 문학적 바탕은 필사본 소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이 필사본이 유행하면서 문학적 상상력은 배가되고, 거기에 서민의 언어인 방언을 이용하여 구체적 삶의 상상력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²⁾

1) 피벗다, 피를 벗다, 피를 활썬 벗다, 피복쟁이

‘피벗다’의 ‘피’는 ‘고의’의 준말이다. 이 ‘피’가 된소리가 되어 ‘피’가 된다.

아 늙은 양반이 여름 돌아오면 마루 꼬터리에다 문발을 딱 쳐 놓고는 더웁다고 피를 활짝 벗어. 마루에 앉아서 더웁다고 말여. 근디 문 앞에 가 공동 시암이 있었다네. 아 그런디 피를 활짝 벗고는 앉아서 “에이, 더워서 이거 바람 좀 쐬야겠다” 그러드래야. <뿌리 깊은나무 민중자서전3,임실,013p>

아, 인제 점심 때쯤 가니께, 고삿질(골목)에서 폐복쟁이 놈들이 누어서 떡하니 놀아. 아 이놈들 봐라, <5-2,전북전주시·완주군편,259>

2) 해학적인 표현은 한글고전소설과 판소리 사설에서 많이 보인다.

변사또의 수청 요구에 춘향이는 방언에서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는 수사의문문의 문장인 전라도 특유의 표현으로 수청을 거절한다. 이 수사의문문은 의문이 아니라 의문문 자체가 답이 되는 문장이다. 도도한 춘향이가 전라도 방언을 이용하여 변사또를 풍자한다. (이태영, 2011:193)

(변사또) “미인을 보난 법이 달아리 촉불아리 이헝가 제일 좇타 쫓갓튼 저 얼굴과 눈갓튼 저 살거리 추파갓튼 눈뵈시로 흥 목익여 써보난 양잉도 갓튼 입슈알노 스랑 게워 웃난

2) 일제강점기 소설가 백룡 채만식 선생은 풍자문학의 대가로 일컬어진다.

것을 혼나도 못보고서 귀먹은 중 마키득기 쇼경의 즈릭 쥐듯하기만 하여면 무슨 재미
있건난야 성가시다 썩 버셔라”(『신재효관소리사설 춘향가(동창, 134)』)

(춘향) “오날 전역쑤이관디?”

4. 전주 방언과 역사성

전주 방언은 개인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역사가 보여주는 언어를 간직한 방언들이 대부분이다. 몇 예를 제시하기로 한다.

1) 자빠지다

전주사람들이 많이 쓰는 ‘자빠지다’는 ‘넘어지다’와 함께 표준어이다. 따라서 ‘자빠지다’는 방언이면서 표준어인 셈이다. 전라도 사람들은 ‘자빠지다’를 주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오래된 옛 말이기 때문이다.

현대 국어 ‘자빠지다’에 대응하는 15세기 어형은 ‘젓바디다’이다. 이 어휘의 형태 변천 과정은 ‘젓바디다>젓바지다>*젓바지다>잣바지다>자빠지다’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사람들은 오래된 우리말을 방언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³⁾

病흔 사르미 젓바디여 누워 활시우를 베오<1466구급방,상,61b>

仰白臥 젓바더 눕다 往後倒 젓바디다<1690역어유,상,40a>

젓싸딜 패 沛<1661천자철,13a>

沛 젓싸딜 패<1700천자영,13a>

2) 땡글다

전라 방언에서 두루 쓰는 ‘땡글다’는 역사적인 변천과정에서 ‘땡글다>땡글다>민글다’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볼 때, 전라 방언의 형태들은 역사적인 잔존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땡글다’가 『훈민정음해례본』에서 ‘새로 스물여덟 字꼴을 땡글노니’와 같이 15세기부터 처음 쓰인 것이어서 문헌상으로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어휘이다.

3) 필자는 21세기 세종계획에서 ‘한민족언어정보화분과’를 담당한 바 있다. 이때 만든 프로그램은 ‘한민족 언어정보화 통합 검색 프로그램’인데 이 안에 ‘국어 어휘 역사 검색 프로그램’이 있다.

Ⅲ. 선비의 도시, 전주 - 지적 탐구 정신이 매우 강한 도시

전주는 조선시대 후기 인쇄기술과 유통 구조가 서울에 버금갈 정도로 발달한 도시였다. 동시대 중국 상해와 비교할 정도로 인쇄와 출판 사업이 호황이었다.

1. 임금의 지시로 찍은, 완영본의 발달

영조와 정조 임금의 지시로⁴⁾ 전라감영에서 출판한 ‘완영본’ 책은 70여 종류에 이른다. 그 책의 내용으로 분류해 보면 ‘정치, 역사, 제도, 사회, 의학, 군대, 어학, 문학, 유학’ 등이 해당된다.(鄭亨愚외, 1979:558)

*정치서 : 『明義錄』, 『明義錄彥解』, 『續明義錄』, 『續明義錄彥解』, 『今忠壯遺事』, 『梁大司馬實記』, 『御製綸音』

*역사서 : 『綱目』, 『御定史記英選』, 『史記評林』, 『左傳』, 『訓義資治通鑑綱目』, 『新刊史略』

*제도서 : 『國朝喪禮補編』, 『大典通編』, 『喪禮補編』, 『受教輯說』, 『增修無冤錄』, 『欽恤典則』, 『四禮便覽』, 『栗谷全書』

*사회서 : 『加髻申禁事目』, 『警民編』, 『警世問答』, 『鄉禮合編』

*醫書 : 『東醫寶鑑』, 『醫學正傳』

*兵書 : 『續兵將圖說』

*어학서 : 『三韻群彙』, 『正音通釋』, 『華東正音通釋韻考』

*문학서 : 『簡易集』, 『訥齋集』, 『東岳集』, 『屯庵集』, 『白江集』, 『御製追慕錄』, 『永世追慕錄續錄』, 『陸奏約選』, 『月軒集』, 『潛齋稿』, 『潛齋集』, 『蒼霞集』, 『皇華集』, 『厚齋集』, 『石洲集』

4) 조선왕조실록에 영조와 정조 임금이 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영조 039 10/09/02(갑술) / 전라 감영에 《동현주의(東賢奏議)》 및 《속경연고사(續經筵故事)》를 간행하여 올리도록 명하다》【원전】 42 집 452 면

《정조 020 09/09/11(정사) / 《대전통편(大田通編)》을 반포하다》- 또 호남(湖南)·영남(嶺南)·관서(關西)의 감영(監營)에 명하여 번각(飜刻)하여 판본(板本)을 간직하게 하였다.【원전】 45 집 539 면

《정조 041 18/12/25(무인) / 주자의 서간문을 모은 《주서백선》이 완성되다》또 호남·영남·관서의 감영에 명하여 번각(飜刻)하고 판본을 보관하게 하였다.【원전】 46 집 534 면 《정조 045 20/11/03(갑진) / 《무원록언해》를 간행·배포할 것을 명하다》【원전】 46 집 676 면

《영조 059 20/03/05(계미) / 순천부에 있는 판본이 희귀한 《성리대전》을 개수하게 하다》【원전】 43 집 128 면

《영조 059 20/02/17(을축) / 사서·삼경·《사략》·《소학》 등을 간행케 하고 오자가 없게 교정자를 계척하다》【원전】 43 집 127 면

*유학류 : 『性理大全』, 『性理大全書』, 『聖學輯要』, 『小學諺解』, 『御定朱書百選』, 『朱子大全』, 『朱子文集』, 『訓義小學』, 『訓義小學具諺解』, 『訓義小學大全』, 『七書』

*기타 : 『豊山洪氏族譜』

이렇게 찍은 책은 주로 관료들에게 배부되는데, 책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 지역에 사는 다른 선비들은 빌려서 베껴 보거나, 아니면 완영책판으로 다시 왜출을 부탁하여 보기도 하였다. 전라감영에서 찍은 완영판은 전라도 지역과 다른 지역에 사는 수많은 선비들의 지적 탐구 의욕을 자극하게 되었고, 바로 이어서 사대부들의 책인 ‘私刊本’이 등장하게 된다.

2. 士大夫들의 책, 사간본(私刊本) 등장의 의미

서울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私刊本’의 출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완판사간본은 정확한 출판연대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완영판의 출판이 주로 1700년대에 많이 출판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볼 수 있어서 1800년대라 말할 수 있다. 사간본으로 출판된 책 수가 무려 230여 종인데 완영본을 일부 포함한다고 해도 200여 종류가 출판이 된 셈이다. 이 책의 내용 역시 ‘정치, 역사, 제도, 사회, 의학, 군대, 어학, 문학, 유학, 법률’ 등 아주 다양한 종류가 출판되었다.

『韓國冊板目錄總攬』에 수록된 비방각본을 류탁일(1985:24)에 의해 분류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七書類(9種) : 論語(諺解)(2), 大學(諺解)(2), 孟子(諺解)(3), 中庸(諺解)(2), 書傳(諺解), 詩經(諺解), 周易(諺解), 胡傳春秋, 禮記

禮書類(7種) : 家禮, 大明集禮, 喪禮補編, 喪禮備要, 五禮儀, 儀禮經傳, 儀禮問解

史書類(5種) : 綱目, 史記英選, 史記評林, 史略, 通鑑

儒家類(12種) : 啓蒙傳義, 東萊博義, 釋尊儀式, 性理大典, 聖學輯要, 宋名臣錄, 心經釋義, 朱書百選, 理學通錄, 朱子大全, 朱子封事, 眞西山集

童蒙類(6種) : 大千字, 童蒙先習, 小學(諺解)(4), 類合, 註解千字文, 孝經

韻書類(8種) : 增補韻考, 三韻聲彙, 三韻通考, 龍龕手鏡, 韻會玉篇, 字彙, 全韻玉篇, 正音通釋

政教類(23種) : 警民篇, 警世問答, 內訓, 大明律, 大典通編, 名義錄(諺解), 續名義錄, 三綱行實, 綸音, 呂氏鄉約(諺解), 二倫行實, 經筵講義, 東賢奏議, 無冤錄, 詞訟類抄, 受教輯

錄, 陸宣公奏議, 陸奏約選, 律學解頤, 貞觀政要, 正俗(諺解), 闡義昭鑑, 欽恤典則
 農書類(4種) : 農家集成, 農事直說, 農書, 蠶書
 兵書類(3種) : 三略, 續兵將圖說, 孫武子
 醫書類(12種) : 救急簡易方, 東醫寶鑑, 銅人經, 馬醫方, 脉訣, 傷寒賦, 傷寒指掌圖, 五臟圖, 醫學入門, 醫學正傳, 人皇法體, 診脉須知
 文學類(7종) : 古文眞寶, 唐音, 東文選, 東文粹, 文章軌範, 剪燈新話, 靑丘風雅
 文集類(39종) : 簡易集, 溪隱集, 孤竹集, 南軒文集, 陶隱集, 東岳集, 東槎集, 屯庵集, 牧隱集, 白江集, 柏谷集, 百拙齋集, 百洲集, 四佳集, 石州集, 達性集, 仙源集, 同春年譜, 陽村集, 聯珠集, 玉溪集, 牛溪集, 栗谷集, 月軒集, 挹翠集, 李相國集, 訥齋集, 紫陽文集, 潛齋集, 長吟集, 靜觀集, 竹西集, 竹吟集, 屯菴集, 滄浪集, 清溪集, 清露集, 澤堂集, 化堂集, 皇華集, 厚齋集, 芝峯類說
 其他(6種) : 江陵金氏族譜, 歸去來辭, 騰王閣, 五行精記, 兵衛森, 戒酒書
 계 141種

완판사간본은 간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출판 기록과 판목 기록으로 확인될 뿐이다.⁵⁾

완판사간본이 보여주는 전주의 인쇄문화는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당시의 전라도 지역과 다른 지역의 선비들이 출판업이 성행한 전주 지역의 출판사에 책을 주문 요청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요청을 받고 출판사는 주문자 생산을 해서 배포하였을 것이다. 한편 출판사는 요청이 많은 책의 경우 대량 인쇄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판매하였을 것이다. 셋째, 이처럼 많은 책의 수혜자는 이 지역에 사는 선비가 우선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 선비들의 지적 욕구와 탐구 정신은 조선시대에서 이 시기가 가장 활발한 시기였을 것이다.

3. 전주 향교의 역할

전주 향교는 공자를 모신 사당이며, 조선시대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였다. 19세기 후반 전라감영의 출판 기능이 약해지고 사간본이 줄어든 사이에 주로 유림들이 많이 활동하는 전주 향교가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전주 지역 선비들의 활동 무대라고 말할 수 있다.

5) 전주지역에서 임진왜란 후 간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 주요 목록은 『諸道冊板錄』(1750년) 35종, 『各道冊板目錄』(1778년) 44종, 『鏤板考』(1796년) 33종, 『冊板錄』(1814년) 26종, 『完營客舍冊板目錄』(1885년) 39종, 『林園十六志』(19세기 중엽) 18종, 『龍湖閒錄』(19세기 말) 36 종 등이다. 여기 수록된 책판이 231종에 이른다. 책의 종류로만 해도 80종에 이른다.

1) 완영 책판의 보관 및 계승

완산감영에서 책을 출판할 때 사용한 책판은 전주향교 소유로 이전까지는 전주 향교의 장판각(藏板閣)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 책판은 1899년(고종 3년)에 전라관찰사 趙翰國이 전주향교로 이전하였다. 전주향교에서는 홍수, 사변을 겪으면서도 잘 보관하여 선비와 유림의 역할을 다하였다. 주로 ‘『資治通鑑綱目』, 『東醫寶鑑』, 『性理大全』, 『栗谷全書』, 『朱子文集大全』, 『增修無冤錄』, 『史記』, 『史略』’ 등의 책판이 있다. 이 책판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04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는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기탁되어 보관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필자가 소장한 『朱子文集大全』 표지의 배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를 보면 ‘癸丑(1913년)’년에 전주 향교에서 이 책판을 이용하여 후쇄한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많은 책을 인출했을 것이다. 또한 이 완영본 책판은 1900년대 초 민간업자에게 대여가 되어 ‘『동의보감』, 『주서백선』, 『동래박의』’ 등은 전주에서 판매용으로 많이 쇄출되어 판매되었다.

朱子文集大全一部共六十一冊
先生沒後七百十三年
降生七百八十四年
癸丑孟夏於完府鄉校印來

IV. 종교·학문적 이상향의 도시, 전주

1. 사서삼경의 도시

조선시대는 유교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책을 보더라도 중국의 朱熹(朱子)의 수많은 글을 써놓은 ‘『朱子大全』, 『朱子書節要』, 『朱書百選』’ 등이 만들어졌다.

또한 전주에서는 전라감영에서부터 四書三經을 찍기 시작하여 판매용 책으로 대량으로 인쇄되었다. 일반 서적보다 큰 책으로 만들어졌고, 또한 휴대용 수진본으로도 만들어 판매되었다. 전주에서는 七書房을 중심으로 사서삼경이 인쇄되어 전국으로 판매되었다.

‘사서삼경’의 대량 생산의 의미는 무엇일까? 과거용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사서

읽어야 하는 필독서였다. 유교적 교양을 쌓으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였다.

완판본 중 유학에 관련된 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완영본 : 朱子書節要, 性理大全, 性理大全書, 聖學輯要, 小學諺解, 御定朱書百選, 朱子大全, 朱子文集, 訓義小學, 訓義小學具諺解, 訓義小學大全, 七書, 資治通鑑綱目, 栗谷全書, 尤菴先生言行錄
- 2) 완판사간본 : 家禮, 綱目, 啓蒙, 古文眞寶, 論語大文, 論語大全, 論語諺解, 大學, 大學大全, 大學諺解, 道學正脉, 孟子, 孟子大文, 孟子大全, 孟子諺解, 三綱行實, 喪禮補編, 喪禮備要, 喪禮抄, 書大文, 書傳大全, 書傳諺解, 性理大全, 聖學輯要, 小學, 小學講本, 小學啓蒙, 小學大全, 小學諺解, 小學集成, 詩大文, 詩傳大全, 詩傳諺解, 心經釋義, 御定朱書百選, 諺解呂氏鄉約, 呂氏鄉約, 禮記, 栗谷全書, 儀禮經傳, 儀禮文學, 儀禮問解, 儀禮正傳, 二倫行實, 周易, 周易大全, 周易諺解, 朱子大全, 朱子奉事, 朱子封事, 中庸大全, 中庸諺解, 中庸集略, 中庸或問, 學蔭通辨, 或問中庸, 孝經, 訓義小學
- 3) 완판방각본⁶⁾ :
 - (1) 교양서 : 明心寶鑑抄, 諺解圖像童蒙初學, 啓蒙篇, 童蒙先習, 擊蒙要訣
 - (2) 예절에 관한 책 : 喪禮類抄, 喪禮, 四禮便覽, 喪禮抄要, 喪禮抄
 - (3) 사서삼경 : 大學諺解, 中庸諺解, 論語諺解, 孟子諺解, 詩經諺解, 書傳諺解, 周易諺解, 中庸章句大全, 小學諸家集註, 詩傳大全, 大學章句大全

주자에 의해 집대성된 성리학은 유교를 통해 새로운 국가사회를 건설하려는 조선의 국시(國是)였다. 중국에서 주자학의 융성이 출판문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한국유학의 발달 역시 기록과 출판의 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학을 기반으로 하였던 조선 지식인들의 기록문화에 대한 관심은 유가경전 및 역사서, 그리고 그들 삶의 자취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문집의 출간 등에서 확인된다. 상례와 제례를 강조했던 유학은 체계화되고 다소 복잡한 의식체계를 통해 삶과 죽음의 연속적 이어짐을 구체화시켰다. (이천승, 2013 참조)

6) 유교와 관련된 태인본으로는 공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방각본은 『孔子家語』, 『孔子通紀』, 『新刊素王事紀』 등이다. 둘째, 유교적 교양이나 교화를 강조하는 내용의 서적을 출판하여 『明心寶鑑抄』, 『孝經大義』, 어린이 교육용 도서인 『童子習』 등이 출판되었다. 셋째, 실용성을 가진 방각본을 출판하였다.

2. 종교의 도시

전주는 조선시대 초·중기는 불교와 유교가, 후기에는 천주교와 도교가 그리고 개화기에는 개신교가 발전한 도시이다. 서지학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주는 여러 종교가 어우러진 도시임을 알 수 있다.

1) 완판 사찰본

전북 고산의 안심사, 화암사는 1400년대 불경을 많이 찍은 곳이다. 태인 용장사는 1635년에 한 해에 14권의 책을 찍어낸 큰 절이었다. 여기서는 전주 인근 사찰의 예를 제시한다.

(1)全州 圓嶠寺 - 현재 완주군 소양면 청량산

佛祖三經(불조삼경), (四十二章經, 佛遺教經, 滂山警策), 至正辛丑(1361) 重刊留全州圓嶠寺⁷⁾

六祖法寶壇經諺解(육조법보단경언해), (권하, 1496, 1551년 복각본, 全州圓嶠寺)

(2)全州 長波寺 白雲庵

妙法蓮華經(묘법연화경), 順治三年丙戌(1646) 全州長波寺白雲庵開刊

妙法蓮華經(묘법연화경), 順治十一年甲午(1654)八月日 全州長波寺白雲庵開板

(3)全州 終南山 松廣寺 - 현재 완주군 소양면

佛祖源流(불조원류), 乾隆二十九年甲申夏刊板于全州終南山松廣寺觀音殿(1764)

(4)전주 南高寺

大報父母恩重經(대보부모은중경), 歲辛酉(1741)季夏 全州南高寺開刊

大報父母恩重經(대보부모은중경), 乾隆五十九年甲寅(1794)四月日 全州南高寺開板

(5)全州 母岳山 金山寺

金剛般若波羅蜜經(금강반야파라밀경), 肅宗 20년(1694)

佛說大報父母恩重經(불설대보부모은중경), 숙종 27년(1701)

佛說大報父母恩重經(불설대보부모은중경), 肅宗 46년(1720)

(6)全州 歸信寺

妙法蓮華經, 萬曆三十七年己酉(1609)二月日 全羅道全州歸信寺開刊

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영조 44년(1768)

7) 원암사에서 간행한 책은 보물 제 694호로 지정되어 현재 성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 나주 운흥사(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972) 소장본은 보물 제694-2호로 지정되었다.

(7) 全州 關聖廟 - 호남 도교 문화의 본산

明聖經, 丁亥仲冬全州南廟藏板

玉皇寶訓, 乙未孟夏重鐫完南廟藏板

2) 천주교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⁸⁾

1801년 3월 신유박해(辛酉迫害) 중 시아버지 유항검과 남편이 체포된 뒤, 같은 해 10월 18일(음력 9월 11일) 국청에서 사형이 선고되어 전주로 환송되자, 나머지 시댁 식구들과 함께 10월 22일(음력 9월 보름)경 체포되어 전주옥에 갇혔고, 이어 10월 24일 시아버지 유항검이, 11월 14일 남편 유중철이 각각 순교한 후, 이순이 루갈다는 이듬해 1월 31일(음력 1801년 12월 28일) 시어머니 신희(申喜), 시숙모 이육희(李六喜), 시사촌동생 유중성(柳重誠, 마테오) 등과 함께 전주 숲정사에서 참수당해 순교하였다.

순교하기 전에, 어머니 권씨, 친언니와 올케 등에게 보낸 2 편의 옥중 편지를 남겼다. 한 편은 이순이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이고, 다른 한 편은 이순이가 큰언니와 올케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순이 루갈다 옥중 편지’는 모두 4편이다. 이 책의 ‘옥중 편지 주석’에서는 원문 순서대로 (1) 이경도(李景陶) 가롤로가 옥중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2) 이순이 루갈다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3) 이순이 루갈다가 친언니와 올케에게 보낸 편지, (4) 이경언(李景彦) 바오로가 쓴 옥중 기록 등이다.

V. 정자체 한글 사용의 도시 - 대중 지향 정신의 도시

1. 완판본과 경판본 한글고전소설의 차이

완판본은 한글고전소설이 서울과 함께 조선 후기에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전주의 경제적·문화적인 풍요로움이 서울에 결코 뒤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완판본’이란 용어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여 다음의 세 가지 개념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다.(이태영, 2013:32-33)

8) 이 옥중 편지는 한글필사본으로 현재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운영하는 호남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이 편지는 1868년 8월 울산 장대에서 병인박해 때 불잡혀 처형을 당한 순교자 김종륜(金宗倫, 루가)이 필사하였다. 이 편지는 당시 사회의 모습과 천주교 박해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 자료이며 천주교 신앙문화 자료이다.

1) 전주에서 발간한 옛 책(협의를 개념)

- (1) 전라관찰사 또는 전라감영에서 찍은 책을 이르는 말.(완영본)
- (2) 전주에서 찍은 주문용 책인 ‘私刊本’을 이르는 말.(完板 私刊本)
- (3) 전주에서 찍은 필경본, 석판본, 활자본을 통틀어 이르는 말.(完版本)

2) 전라북도에서 출판한 옛 책

- (1) 전라북도 태인, 전주에서 발행한 판매용 책을 통틀어 이르는 말.(완판 방각본)
- (2) 전라북도 사찰에서 출판한 불경, 도교에 관한 책을 통틀어 이르는 말.(완판 사찰본)

3) 전라감영이 관할하던 호남 지역에서 찍은 옛 책(광의의 개념)

주로 영·정조 시대와 그 전후, 호남의 수도인 전주의 전라감영에서 찍은 옛 책이다. 전라감영에서 관할하던 나주, 남원, 태인, 임실 등에서 발간한 책을 포함한다.

완판본과 경판본 한글고전소설이 보여주는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에서 출판한 경판본은 ‘궁체’의 하나인 반흘림체(半草書體)를 쓴 반면, 완판본은 민체로서 초기본은 행서체로 후기본은 모두 정자체(楷書體)로 쓰였다. 경판본은 식자층들이 읽을 수 있도록 반초서체를 썼고, 완판본은 일반 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주로 정자체를 썼던 것이다.

둘째, 경판본은 장수가 16장에서 38장본까지 있다. 대체로 20장본과 30장본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완판본은 73장본, 84장본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경판본 『춘향전』은 20장본인데 비하여 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는 84장본이다. 이는 이야기(소설, 설화)에 대한 감각이 매우 풍요로웠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셋째, 경판본은 이야기 서술 방식이 한문투의 문어체 방식이었지만, 완판본은 우리말투의 구어체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완판 고전소설의 특징은 일상언어인 구어체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방언이 많이 사용되어 있다.

완판본 한글 고소설은 낭송되었는데, 그 증거는 ‘화룡도 권지하라, 도읍전상이라, 도읍전권지이라’ 등과 같은 고소설의 제목에서 발견된다. 제목 뒤에 ‘-이라’를 붙인 것은 고소설을 낭송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한글고전소설과 전라 방언

완판본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전라 방언과 아주 밀접하다.

완판본(完板本)「명사」『문학』 조선 후기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간행된 목판본의 고대 소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들어 있어 향토색이 짙다. (표준 국어 대사전)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처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의 특정지역 방언 현상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매우 드물다. 여기에 추가하여 그간 손으로 쓴 필사본 한글고전소설을 포함하면 그 양은 매우 방대한 양이 될 것이다.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음운 현상은 구개음화, 전설고모음화, 움라우트, 원순모음화 등이다. 이러한 특징은 전북 방언의 공시적인 음운 현상과 매우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구개음화 현상

대표적인 음운 현상으로 구개음화를 들 수 있다. 구개음화는 k-구개음화, h-구개음화의 예를 들 수 있다.

(1) k-구개음화의 용례

(춘향전) 엉접결에, 짚은, 저을, 질구나, 전티어선, 화짐, 질, 절에, 질러내니, 질게 쉬고, 지다릴제, 찌어라, 찌여, 치, -찔리(끼리)

(심청전) 질삼, 젓티, 질너니여, 질게, 황천질, 먼질, 집도다, 전디지, 쓴쳐, 질, 지심, 해썸, 집피, 제우/체우, 접저고리, 짓거ㅎ다, 직거, 짐쌈, 치, 지달이다, 웃지슬, 찌고

(전북방언) 김-짐, 길-질, 길게-질게, 기르다-질르다, 기침-지침, 곁에-절에, 김제-짐제, 짐게

(2) h-구개음화의 용례

(춘향전) 심, 세아리다, 성님, 셔, 숨악, 상단 (심청전) 셔, 세알리다, 쉬과람, 승

흔, 심.

(전북방언) 혀-셔, 힘-심, 형님-성님, 헤다-세다, 흥악한-송악한

2) 전설고모음화(치찰음화)

(춘향전) 실품, 시럽다, 구실, 하였시니, 시물, 질길, 쇠시랑, 질겁다, 칭칭, 곳인, 목심

(심청전) 실하, 질거움, 이실, 실푼, 몹실, 잇시리, 무신, 시물, 우심, 무름씨고, 벼실, 직시

(전북방언) 스물-시물, 쓰레기-시레기, 벼슬-베실, 벼실, 보습-보십, 이슬비-이실비, 쇠스랑-쇠시랑

3) 움라우트 현상

(춘향전) 귀경, 허수애비, 애미, 맥혀, 이대지, 깎끼다, 지팽이

(심청전) 밋겨스니, 디린, 믹키여, 믹겨, 메기고, 맥이고.

(전북방언) 아비-애비, 고기-괴기, 안기다-앵기다, 밥이-뵈이, 속이다-쇿이다, 곰곰이-곰뵈이, 참빳-챔빳

4) 원순모음화

(춘향전) 심운, 높은, 업운, 나쁜, 참우로, 아프다, 짚운, 삼우며, 푸다, 거무, 춤

(심청전) 나부, 너부신, 몬저, 몬쳐, 압푸, 읊푸, 아부, 아부지, 높푼, 집푼, 이무, 거문, 을푼, 시푸던지, 썩부

(전북방언) 거미-거무, 호미-호무, 나비-나부, 파리-포리, 먹다-묵다

3. 일제강점기 한글 교육과 완판본 한글고전소설

정자로 글자를 새긴 이유는 소설 한 권을 다 읽으면서 우리 한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발간의 목적이 단순한 소설을 발간한 것이 아니라 한글교육을 위한 책이었다. 『언삼국지』의 첫 페이지에 ‘가갸거겨’로 시작하는 자모음표인 반절표가 붙어 있어서 이를 입증하고 있다. 소설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한글 교육을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한글의 역사에서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중요하다. 세종대왕이

1443년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상에 내놓은 뒤로 거의 모든 책은 한문을 번역하여 한문 원문과 한글 번역문(언해문)을 싣고 있다. 순수하게 한글로만 된 것은 책이 아니라 편지, 또는 필사된 글과 같은 간단한 글이 대부분이다. 1896년 『독립신문』에 와서야 공식적으로 국한문이 혼용되었으니 사실상 우리의 문자는 한문이 크게 대우를 받은 셈이다. 그래서 옛 책에 나오는 우리말은 대체로 한문을 번역한 번역투가 아주 많다.

전주에서 발간한 완판본 고전소설은 셀 수 없이 많이 팔렸다. 실제로 책에 필사된 책주인의 주소를 보면,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을 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전라도를 대상으로 한 한글 교육은 물론 전국적인 한글 교육에 크게 공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의 검열을 받던 시대라 한글 교육을 위한 교과서를 발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이 한글 교과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4. 완판본 한글고전소설과 한글성경

1858년 완산에서 발간한 천자문에는 ‘세재무오모춘완산양동신간(歲在戊午暮春完山養洞新刊)’의 간기가 있다. ‘양동(養洞)’은 현재의 전주 근처에서는 찾기 어려운 지명이다.

‘완주군 구이면 안덕 신기마을 양생동’이란 마을은 구이를 지나 운암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장파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장파 부락 들어가기 직전에 저수지를 끼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왼쪽 산에 양생동(養生洞)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곳에서 모악산을 넘으면 수류성당이 나온다. 이곳은 천주교 박해 때 피난한 천주교 신자들과 신부가 모여 살던 곳이다. 여기서 솥을 구워서 내다팔면서 살고 있었다. 바로 이곳에서 ‘양동천자문’ 한 권을 출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장파부락에서는 조선시대 한지를 생산하고, 자기 그릇을 굽기도 하였다.

이 장파부락과 안덕부락은 정읍 태인하고도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산 하나만 넘으면 태인이다. 이 태인은 18세기말 조선의 판매용 책의 출판을 선도한 곳이어서 이 지역과의 관련성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프랑스 출신의 신부인 블랑 부주교가 여러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블랑 부주교는 1882년 경 완주군 구이면 장파리 ‘배재(梨峙)’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 내용에는 ‘박무주’라는 사람에게 자판을 새기라고 돈을 주었다는 내용과

‘문필립보’라는 사람이 나무활자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장과 부락과 안덕 부락에서는 조선 후기에 한지를 많이 재배하던 곳이라는 것이다.

블랑(Blanc, 白圭三, 1844-1890)은 프랑스 출신의 신부로 1876년 조선에 입국하여 1882년 제7대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된 분이다. 부주교의 신분으로 전라도에서 장수, 용담으로 피신하고 있으면서 남원, 진안, 무주 등 교우촌을 순방하면서 숨어 전교를 하였다. 1884년에는 제7대 조선교구장 블랑 부주교가 『성교 요리 문답』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새로 『성교 백문답』을 간행하기도 했다. 1886년 서울에 정착하여 명동 주교좌 본당 설립하고 성서활판소를 만들어 많은 책을 간행하였다.

비슷한 시대에 구이에서 출판한 곳은 석구 부락과 광곡, 귀동(龜洞)이 있는데 석구 부락은 1823년 『별월봉기』라는 한글고전소설을 출판한 곳이고, 광곡 부락은 1893년 『조웅전』을 출판한 곳이다. 귀동(龜洞)은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구암마을로, 1907년 『초한전』, 1908년 『소덕성전이라』, 『장경전』을 찍은 곳이다.⁹⁾

필자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몇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었다.

첫째, 19세기 말 프랑스 신부인 블랑 부주교님이 전주와 완주에서 선교할 때, 한글로 된 교리 책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한글 목판을 다루는 각수가 매우 필요하였을 것이다. 블랑 부주교님의 편지에 나오는 ‘박무주’라는 사람에게 자판을 새기라고 돈을 주었다는 내용이 있었다.¹⁰⁾

왜 프랑스 신부님은 이 ‘박무주’라는 각수를 찾았을까? 이 ‘박무주’는 한글을 주로 목판에 새기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 각수가 1800년대 후반에 구이에서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을 전담하여 새기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신부님으로서는 천주교의 교리를 전하기 위하여 한글 책이 필요했고 그래서 한글을 전담으로 새기는 ‘박무주’를 찾아 한글로 된 교리책을 출판하려고 했을 것이다.

둘째, 천주교 교리 책은 처음에는 손으로 쓴 필사본이 많이 발행되었고, 그 뒤에 대량 생산을 위해 목판본을 생산하였으며, 활자본이 생산되면서 많은 자료가 출판되었다. 1864

9) 물론 ‘龜洞’은 ‘丁未(1907) 孟夏完南龜石里新刊’의 간기에 나오는 전주 ‘龜石里’를 의미할 수도 있다.

10) 광교록계도 완주군 구이면 봉성에서 찍은 ‘조웅전’에 나오는 각수 이름이 ‘박이력’과 ‘서봉운’이다. 이 각수의 이름이 나오는 ‘조웅전’은 정확한 간기는 없지만 글자의 모양으로 보건데 1800년대 중후반 정도에 출간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박무주’라는 사람과 ‘박이력’이라는 사람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웅전상이라(33장본) 녁남각수의 박이력 서봉운, 도웅전권지이라(33장본), 조웅전권지삼이라(38장본)

도웅전 권지일(36장), 조웅전 권지이(37장), 조웅전 권지삼(21장), 광서십구연(1893)계스오월일봉성신간이라.

년 목판본으로 『신명초행』(神命初行), 『회죄직지』(悔罪直指), 『성찰기략』(省察記略), 『성교요리문답』(聖敎要理問答), 『턴주성교공과』(天主聖敎功課)가 발간되고, 1865년에 『성교절요』(聖敎切要)가 1885년에 『주교요지』(主教要旨)가 발간되었다. 1864년에 목판본으로 만든 『신명초행』(神命初行), 『회죄직지』(悔罪直指), 『성찰기략』(省察記略) 등은 1882년에 활판본으로 다시 만들어진다. 이는 대체로 서울에서 출판되었다. 그러나 비록 서울에서 출판되었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프랑스 신부들이 주도하여 전주의 각수를 불러 목판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천주교가 신자를 위해 한글 교리책을 발간한 일이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을 펴내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러나 불랑 주교의 한글로 된 교리책을 발간하려는 노력 속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각수들이 서로 관련되어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글을 전문으로 새기던 각수가 서울에서 활동하던 불랑 주교에게는 크게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한글 고전소설을 새기던 각수와 활자를 만드는 사람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5. 완판본 한글고전소설과 시민의식

1) 판소리 계열 고소설 - ‘춘향전, 심청전, 토별가, 적성의전’

판소리를 향유하던 전주 시민들이 청각적 일회성을 넘어서 시각적이며 환상적이고 영원성을 추구하는 판소리계 소설을 원하게 되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대중들의 지식 욕구, 독서 욕구에 의하여 출판사에서 책이 만들어져 판매되었다.

따라서 개화기 시대의 이 지역의 시민들은 자기의 지적인 욕구를 해소하려는 많은 계층이 있었다. 당시 전주가 서울과 마찬가지로 개화 의식이 매우 빠르게 진전된 도시였음을 말하여 준다.

2) 영웅소설 계열 고소설과 민중 의식 - ‘유충열전, 소대성전, 이대봉전, 조웅전, 홍길동전’

전주에서 발간된 고소설 중 초기 소설에는 영웅소설인 『조웅전』이 많이 발간되었다. 그뒤에 『유충열전』이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보인다. 같은 영웅소설인 ‘『소대성전』, 『용문전』, 『이대봉전』’ 등이 발간되었다. 영웅소설은 선인과 악인의 싸움에서 선인이 승리하는 ‘권선징악’적인 내용의 소설이다. 또한 ‘충효’를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영웅소설이 이처럼 많이 발간된 이유는 당시의 명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중시하는 풍조에도 있었지만, 서민들의 신분 상승 욕구, 또는 새로운 세상을 희구하는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 여성 해방과 시민 의식 - ‘춘향전, 장수정전, 이대봉전’

『춘향전』은 기생의 딸인 춘향이 사대부 집안의 아들이 이몽룡과 결혼하는 이야기이다. 양반과 평민의 신분을 뛰어 넘는 내용은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장수정전』은 여주인공인 정수정이 매우 획기적인 여성의 활약 모습을 작품화한 것이다. 『이대봉전』은 위기에 처한 명나라를 구하는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소설에서 볼 수 있는 당시의 전주 시민들의 의식에는 여성 해방, 신분 차별 철폐에 대한 강한 민주적인 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충효사상과 여성 신분 상승 - ‘심청전’

『심청전』은 봉건적이고 유교적이며 가부장적인 소설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성의 신분 상승을 꿈꾸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필사본 고소설

목판본 한글 고대소설이 생기기 전, 이미 우리 전주에서는 판소리 사설을 손으로 써서 이야기 책을 만들어서 읽고 있었다. 한 번 만들어 놓은 책을 이 사람 저 사람이 베껴서 여러 종류의 새로운 소설을 만들어 냈다. 손으로 베끼면서 자기의 마음에 맞게 상상력을 동원하여 고친 것들이 아주 훌륭한 새로운 소설의 이본(異本)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필사본 고소설을 만들어낸 주요 계층이 집안에 있던 부녀자들이란 사실은 전주의 여성들이 지식과 문화 욕구가 강하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6. 『가람일기』와 근대 전주

1945년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이 되고,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에 1950년 6·25 사변이 터졌다. 영화인, 미술인, 문학인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전주를 찾게 되었다. 전주 중앙동과 고사동의 인근 지역은 문화 예술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음식점, 다방, 술집 등이 번창하였고, 극장과 다방을 중심으로 수많은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음악, 미

술, 서예, 문학, 영화 분야가 큰 발전을 하게 되었다.

1) ‘양사재’ 와 가람 이병기

가람 이병기 선생이 전북대학교에 발령을 받게 되자, 1951년 6월 4일 양사재로 이사를 하였다. 이곳에서 1956년까지 주로 기거하게 된다. 가람 선생은 양사재에서 약 5년간 기거하시는 동안 전주를 중심으로 문예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며, 양사재를 중심으로 많은 문인들과 교분을 나누게 된다.

특히 문인 중에서는 신석정, 김해강, 백양춘(신근), 최승범과 주로 만났으며, ‘가람일기’에 이름이 언급된 분들을 들어보면 박준규, 김상기, 소공(素空), 포광(包光), 우당(愚堂), 유효석, 고희곤, 이우식, 박천일, 양상경, 김남곤, 유엽(柳葉), 이혜구(李惠求), 조병희, 문선규, 호산 이광렬, 김용규, 국어학자 김형규, 정인승, 박길진(원광대학 학장), 장순하(삼남신문사), 김근수, 김충선 등이 보인다.

2) 시인 신석정(辛夕汀)

신석정은 1907년 7월 7일 전북 부안읍 동중리에서 출생하고, 1930년 3월 서울로 상경하여, 石顥 朴漢永 선사가 경영하는 ‘중앙불교전문강원’에서 공부한다.

1931년 6월 『時文學』 3호에 ‘선물’을 발표하여 시문학 동인이 되어 박용철, 정지용, 김영랑과 활동하며 한편으로는 이광수, 한용운, 주요한, 김기림과 교분을 쌓으면서 영향을 받는다.

1950년 6·25사변이 일어나고 1952년 전주로 활동무대를 옮긴다. 1961년 남노송동 ‘比斯伐艸舍’에 기거하면서 활동한다. 1951년부터는 태백신문사 편집고문으로 있으면서 전북대학교 ‘시론’ 강의를 맡아 후진 양성과 전북문학 활동의 선도가 되었다.

1954년 전주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전북대학교와 영생대학에서 시론을 강의한다. 1958년 이병기와 공저로 『명시조 감상』(박영사), 역서 『매창시집』(낭주문화사)을 출간한다.

3) 전시종합대학과 전북대학교

1951년 정부에서는 전시체제에 맞게 대학을 연합하여 전시연합대학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난 온 많은 인사들이 전시연합대학의 강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람 이병기 선생을 필두로, 철학과 전원배, 국어학의 김형규, 정인승, 김영수(김포강) 등이 있었다.

전북대학교는 1951. 12. 10. 이리농과대학, 전주명륜대학, 군산대학이 합쳐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개강하게 되었다. 전시연합대학에서 가람 이병기, 미당 서정주, 김형규, 정인승 박사 등이 강의를 하였다. 52년 9월부터 56년 8월까지 가람 이병기 선생이 문리과대학장 역임하고, 건재 정인승 박사가 전북대 총장을 역임하게 된다. 신석정 선생은 전북대학교에서 7년 동안 시론을 강의하였다.

4) 영화인과 우인다방

도립극장(전주극장) 골목에 있던 다방으로, 6·25직후 연예인이 가장 많이 모인 다방이다. 출입한 연예인으로는 변기중, 김승호, 이예춘, 허장강, 김진규, 주선태, 황해, 박노식, 전택이, 노경희, 도금봉, 김희갑, 현인, 김정구 등이다. 우인다방은 주로 극단배우들이 많이 다니는 다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951년 경찰 계몽영화인 「애정산맥」, 1953년에는 된 소장이 부대와 이탈되고 포로가 되는 영화 「아리랑」이, 1955년에 명작영화 「피아골」이 완성되었다.(장명수, 2009:490참조)

Ⅵ. 대외적으로 활발한 교류 - 전국성과 차별성을 확립한 최고의 장인 정신

1. 판매용 책의 발달 - 사대부의 책에서 소시민의 책으로

완영본과 사간본은 사대부들을 위한 책이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서 대중을 위한 판매용 책이 찍혀 전국에 판매가 된다. 당시 한양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책을 찍어내어 전국에 판매가 된다.¹¹⁾ 이로써 판매용 책은 전국성을 갖게 되고 특히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은 ‘완판본’이란 이름을 획득하면서 서울의 ‘경판본’과 차별성을 갖게 된다.

현존하는 완판본 한글 고소설의 종류는 23 가지이다. 이 가운데 판소리계 소설이 『열여춘향수절가』, 『심청가』, 『심청전』, 『화룡도』, 『퇴별가』로 5종이고, 나머지 대

11) 경기도 안성에서 발간한 소설을 제외한 방각본으로는 ‘『童蒙初讀』, 『啓蒙編諺解』, 『童蒙初習』, 『明心寶鑑抄』, 『三體千字文』, 『草簡牘』, 『通鑑節要』, 『幼蒙先習』, 『千字文』’ 등이 있다.(이정원, 2005:166) 대구를 중심으로 한 방각본은 金璣鴻이 운영한 ‘在田堂書鋪’가 대표적인 서점이다. 이 서점에서는 嶺營板의 사서삼경 중 일부인 『大學諺解』(1913), 『大學章句大全』(1913), 『中庸諺解』(1913), 『中庸章句大全』(1913) 등을 왜출하여 판매하였고, 『童蒙先習』(1910년 경), 『保幼新編』(1909), 『喪禮備要』(1913), 『十九史略』(1913), 『全韻玉篇』(1913), 『註解千字文』(1913), 『通鑑節要』(1890) 등 도합 10여 종의 책을 간행한 바 있다.(장인진, 2001:68 참조)

부분은 영웅소설이다. 판본이 다른 종류를 합치면 약 50여 종류가 된다.

자녀 교육용 도서로는 ‘『천자문』, 『사자소학』, 『이천자』’ 등이 발행되었고, ‘『동몽선습』, 『명심보감초』’와 같은 아이들의 수신서가 발간되었다.

완판 방각본 중 생활백과용 도서가 많이 발간되었다. 이는 한자 공부를 위해 필요한 ‘옥편’, 상례와 제례에 필요한 도서, 한문과 한글로 편지를 쓰는 법, 가정에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의학서, 공문서에 필요한 이두문 작성에 관한 책,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한 도서, 길흉화복에 관한 책 등이 발간되었다.¹²⁾ 이 도서들은 같은 시대에 서울에서 많이 발간되었다.

완판 방각본 중 ‘사서 삼경’은 아주 다양한 서지적 특징을 보이면서 발간되었다. 다른 방각본 책과는 다르게 아주 큰 책으로 발간된 것이 특징이며, 또한 휴대에 편리하게 수진본으로도 발간된 특징을 보인다. 이 이외에도 ‘『상례초』, 『상례초요』, 『증보삼운통고』¹³⁾’ 등이 수진본으로 발간되었다.

2. 전국, 서울, 상해와 교류

전주는 전라감영의 소재지이면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권이었다. 당연히 모든 물자가 거래되고, 소비도 전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중국과 일본의 상품이 들어와서 거래되었고 상설점포인 시전(市廛)이 설치되어 지역적 시장의 중심권으로 역할을 하였다.(소순열·원용찬, 2003:102참조)

1) 서울, 대구와 교류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은 완판본 다른 책과 더불어 서울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었다. 그 증거로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의 맨 뒤에 붙은 판권지에 ‘分賣所’가 나오는데 그 서점들이 대체로 서울에 있는 서점들이다. 또한 ‘京鄕各書館’이라는 기록도 함께 보인다. 이것은 여러 지역의 서점에서 판매했다는 기록이다. 판권지에 따르면 전주의 칠서방에서 만든 책을 서울의 ‘新舊書林, 雁東書館, 東美書市’에서 판매한다는 기록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대구 ‘在全堂書鋪’의 고무인이 찍힌 경우도 있어서 말 그대로 경향 각지에서 책이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태인 방각본의 책판은 전주로 옮겨와서 계속 출판되었다. 『孔子家語』, 『增刪濂洛風雅』, 『詳說古文眞寶大全』, 『新刊救荒撮要』, 『大明律詩』, 『孝經大義』 등이 방각본으로 계속 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수진본 『增補三韻通考』는 경북대 남권희 교수 소장본으로 ‘歲丁卯孟冬完府新刊’의 간기를 갖는다.

전주 다가서포에서 발행한 ‘통감’의 판권지에 대구 ‘新舊書鋪(朴承源)’의 고무인과 대구 ‘재전당서포’의 고무인이 찍혀 있다. 이 고무인은 대체로 특약을 맺은 서점 간에 사용하던 고무인이다. 따라서 전주의 책을 대구에서 판매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¹⁴⁾

2) 중국과 교류

중국에서 발행된 『孔子家語』와 『繪圖情史』란 책에는 고무인이 찍혀 있다. 그 고무인에는 ‘全州多街町 昌南書館 主務 張在彦’이란 기록이 있다.

전주에 있던 ‘七書房’에서 인쇄한 책들은 전주의 ‘昌南書館’과 서울의 ‘新舊書林, 滙東書館’에서 판매된 것을 알 수 있다. 전주의 책방과 서울의 책방이 서로 판매를 위한 협약을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나라 때 중국에서 찍은 책이 ‘滙東書館’에 납품이 되고, 다시 ‘滙東書館’에서는 전주의 ‘昌南書館’에 납품을 하여 중국 책을 전주에서 팔았던 것이다.

3. 우수한 품질의 가내수공업 제품 개발

남문시장을 중심으로 발달한 가내수공업 제품은 그 질이 매우 우수하였다. 수백 가지의 가내수공업이 발달하여 전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게 되었다. 출판업도 가내수공업 중의 하나였다.

1)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 딸린 외공장의 분포

甲匠10, 冶匠68, 弓人40, 矢人61, 木匠59, 皮匠61, 鑪匠6, 漆匠61, 沙器匠39, 弓弦匠2, 紙匠236, 席匠58, 磨造匠5, 墨匠6, 梳省匠1, 油具匠55, 梳匠1, 扇子匠2, 箱子匠4 (『經國大典』)

갑장(甲匠) : 갑옷 장인, 야장(冶匠) : 쇠로 연장 만드는 장인, 궁인(弓人) : 활 장인, 시인(矢人) : 화살 장인, 목장(木匠) : 목가구 장인, 피장(皮匠) : 가죽 장인, 유장(鑪匠) : 유기 그릇 장인, 칠장(漆匠) : 옷칠 장인, 사기장(沙器匠) : 사기그릇 장인, 궁현장(弓弦匠) : 활시위 장인, 지장(紙匠) : 한지 장인, 석장(席匠) : 돛자리 장인, 마조장(磨造匠) : 돌과 쇠를 연마하는 장인, 묵장(墨匠) : 먹, 소성장(梳省匠) : 빗과 솔 장인, 유구장(油具匠) : 기름 먹인 도구

14) ‘南安齋 고서목록’ (2011)에 들어 있는 『喪禮備要』(卷上, 下, 崇禎再甲子(1744)秋嶺營開刊)에는 앞표지 裏面에 ‘丙申二月十八日購入南門市場’와 같은 ‘買得記’가 쓰여 있다. 이를 보면 남문시장의 책방에서도 대구에서 발행된 책이 판매가 된 것으로 보인다.

만드는 장인, 소장(梳匠): 머리빗 장인, 선자장(扇子匠): 부채 장인, 상자장(箱子匠): 상자 장인

2) 시장의 가내수공업

전주 시장의 가내수공업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담배-연초전(煙草塵), 담뱃대-연죽전(煙竹塵), 백미와 잡곡-싸전[米塵], 진 어물-생선전(生鮮塵), 마른 어물-좌반전(佐飯塵), 놋그릇-유기전(鋤器塵), 솜-면자전(綿子塵), 돛자리-인석전(茵席塵), 실-진사전(眞絲塵), 꿀-청밀전(淸蜜塵), 소금-염전(鹽塵), 쇠붙이-철물전(鐵物塵), 마구(馬具)-마전(馬塵), 짚신-승혜전(繩鞋塵), 가죽신-혜전(鞋塵), 목물-물상전(物相塵), 흰 갓-백립전(白笠塵), 검은 갓-흑립전(黑笠塵), 바늘-침자전(針子塵), 벚집-고초전(藁草塵), 분가루-분전(粉塵), 씨앗-잡살전[種子塵], 족두리와 노리개-족두리전(簇頭里塵), 간장.된장 내다 파는 외해전[外鹽塵], 장롱-장전(櫥塵), 장작-시목전(柴木塵), 옹기전(甕器塵), 한지-지물전(紙物塵)

VII. 완판본에 나타난 간기로 보는 전주 정신 - 문화적 전통을 잊지 않는 자존(自尊)의 정신

1. 간기에 나타난 ‘完’ 의 의미

전주를 중심으로 간행된 완판본의 간기에는 간행지가 표시되어 있다. 이를 개괄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完營, 完營藏板

完山, 完山府, 完府, 完府之溪南山房, 完山 北門內, 完山 西門外, 完山 梁冊房, 完山 招安局
完西, 完 西溪, 西溪, 完南, 完南鍾洞, 完南 龜石里, 完南廟藏板, 完龜洞(龜洞)

全州南廟藏板, 全州府

豐沛

완판사찰본에서 ‘刊行地’를 표시할 때는 ‘전주’의 경우에는 ‘전라도’라는 말을 생략한다. 이는 ‘전주’가 전라도의 수도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였다.

『六經合部』, 永樂十二年甲午(1414) 全羅道高山地安心寺開板

『妙法蓮華經』, 順治三年丙戌(1646) 全州長波寺白雲庵開刊

영남의 감영은 ‘嶺營’이라고 간기에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호남의 감영을 ‘湖營’이라고는 쓰지 않고 ‘完營’이라고 쓰고 있다. 전라감영에서 ‘완영’이란 이름으로 책이 발간된 시기는 주로 1700년대에서 1800년대까지인데 1700년대부터 간기에 ‘完營’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完’이 생산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는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完營’은 ‘전라감영, 완산감영, 호남관찰영’으로 불리고, 전주는 ‘풍패지향, 호남제일성’의 별칭을 갖게 된다. 여기서 ‘完’은 ‘큰, 완전한, 훌륭한’이란 의미를 내포하기 시작하였다.

『東醫寶鑑』歲甲戌(1754) 仲冬 內醫院校正 完營重刊

『御定朱書百選』乙卯(1795) 完營新刊

완판방각본(판매용 책)은 대체로 ‘完山’이란 발행지를 보여준다. 1800년대 초에 찍은 책들은 ‘完山府, 完府’를 사용하여 이 책들이 ‘전주부’에서 찍은 것임을 보여준다.

『蘇大成』丙申(1838)夏 完府新板

『晚六先生行狀』, 崇禎後三辛丑(1781)三月日 完府開刊

『華東書法』: 歲庚申(1800)秋開刊于完府之溪南山房

완판본에서 거의 대개의 책은 전주를 상징하는 한자어 ‘完’이 들어간다. ‘完山’이라고도 쓰지만 ‘完’자 만으로도 전주를 나타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전주를 통칭하는 말로는 ‘完山’을, 서쪽은 ‘完西’, 남쪽은 ‘完南’으로 썼다.

完山, 完山府, 完府, 完府之溪南山房, 完山北門內, 完山西門外, 完山梁冊房, 完山招安局

完西, 完西溪, 西溪, 完南, 完南鍾洞, 完南 龜石里, 完南廟藏板, 完龜洞(龜洞)

『孟子集註大全』, 『유충열전』, 乙丑(1805) 전주에서 간행한 희현당철활자본 『孟子集註大全』에는 전주를 ‘豐沛’로 나타낸다.

『유충열전』 豐沛重印(1912)

『孟子集註大全』 歲在丁卯豐沛新刊

『孟子集註大全』 乙丑四月豐沛鑄印(1805)

‘完’은 하나의 음절로도 ‘호남’과 ‘전주’를 상징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完紙, 完板, 完營’과 같은 말이 쓰이게 된다.

完營, 完營藏板, 完州, 完紙, 完東門

전라도 사람들은 ‘完’이란 음절을 ‘完山=백제(후백제)=全州=全羅道=湖南=完’이라는 등식으로 생각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런 의식이 조선시대에 강화된 이유는 전주가 후백제의 도읍지였고, 또한 조선을 건국한 이태조의 본향(豐沛之鄉)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VIII. 결론

전국 최고의 인쇄문화인 완판본의 여러 특징을 통하여 살펴본 전주시민들의 의식은 다 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기록문화와 전주정신

1) 전주의 언어

전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거세거나 된소리가 많지 않아서 매우 부드럽다. 가락과 장단이 있어 음악적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넉넉함을 보여준다. 언어에서도 풍요로운 환경에서 오는 ‘부드럽고 여유롭고 넉넉한 정신’을 보여준다.

2) 선비의 도시

조선시대 전주는 호남의 수도였다. 남원, 태인, 나주 등 전라도 선비들은 책을 구하기 위해 전주로 모여 들었다. 특히 한옥마을에 있는 자만동, 옥류동에 살던 선비들은 전주

향교와 더불어 조선조 후기까지 선비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다. 서지적으로만 보더라도 완영본, 완판사간본에서 이 지역 선비들은 ‘지적 탐구 정신이 매우 강한 도시’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종교, 학문적 이상향(理想鄕)의 도시

조선의 국시인 유교는 물론, 불교, 도교, 천주교, 개신교가 잘 발달된 도시를 이루고 있다. 유교적인 서적은 국가의 주도로 주로 감영에서 만들었다. 불교 서적은 전주와 전주 인근 사찰에서 많은 책을 인쇄하였다. 전주는 천주교에서 최초의 순교자를 배출한 도시이다. 개신교가 의료를 통해 봉사한 도시이다. 전주는 ‘종교와 학문의 이상향적인 도시’를 꿈꾸던 도시였다.

4) 완판본 한글고전소설과 시민의식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이 많이 출판된 것은 이 지역민들의 흥미와 지적인 욕구에 말미암는다. 영웅소설을 통한 새로운 세상의 희구, 신분 상승 욕구, 여성소설을 통한 여성해방, 신분 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필사본 소설을 통해서도 문화적 욕구를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지역민들이 ‘근대적 시민의식과 민주 의식’이 고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정자체 한글 사용과 한글 교육의 도시

서울의 경판본 한글고전소설의 글꼴이 반흘림체(반초서체)로 지식인을 위한 책인 반면에 전주의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은 정자체(해서체)로 일반 대중을 위한 글꼴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이 책은 한글교육에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전주 사람들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과 나누려는 ‘대중 지향 정신의 도시’를 지향하였다.

6) 대외적으로 활발한 교류

완판본은 전주가 낳은 하나의 수공업 제품이다. 수많은 수공업 제품이 전주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 전역에서 사용된 ‘전국성’을 갖고 있으며, 최고 품질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의 ‘확고한 장인 정신’을 낳게 하였다.

7) 완판본에 나타난 간기로 보는 전주 정신

이 지역 사람들은 ‘완산’을 잊지 않고 끝까지 사용하였다. 이는 ‘백제의 문화적 전통을 잊지 않는 자존의 정신’이라 생각한다. 이어지는 후백제의 도읍지, 그리고 조선왕조의 역사를 정신사적으로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조선 시대와 개화기 시대의 전주는 바로 ‘지식산업사회’의 중심지였다. 무엇보다도 종합적인 지식 정보화의 기반을 정밀하게 구축하고, 우리 문화의 전산 자료를 빨리 구축하여 지적 산업과 문화 산업으로 재생산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조선조 최고의 지식 정보 산업의 메카였던 전부를 현대의 지식 정보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려면 옛 책과 그와 관련된 문화를 문화 콘텐츠 개발에 응용한다면 최적의 자료가 될 것이다. 영상 산업은 무엇보다도 콘텐츠가 필요한 산업인데,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중 기록 문화를 이용하면 좋은 산업적인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관광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관광 해설사 양성에 사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야 한다. 어린이 교육을 통하여 선조들의 지적 정신을 소개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신문 및 방송 매체를 이용하여 지역민의 자긍심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전주는 유형의 문화는 물론이지만 무형의 문화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그러므로 무형의 유산을 유형화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무형의 문화재를 유형화하는 일은 매우 용이한 일이 되었다. 다른 도시 사람들이 전주를 보고 느끼는 바로 그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한 매우 소중한 무형의 유산이다.

수많은 문화유산을 스토리텔링하여 재생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문화적 경계가 허물어진 이 시점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스토리의 재생산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산업화를 하거나, 관광을 위하거나, 전통문화를 위하거나 간에 지역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자료 수집, 자료의 종합적인 구축 등이 반드시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희승(1981), 「호남 방각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도서관학 학위논문(석사).
- 金東旭(1973), 「坊刻本小説 完板・京板・安城板의 内容 比較 研究」, 『연세논총』 10-1, 연세대 대학원.
- 김동욱(1974), 『한국고전소설판각본자료집』, 국학자료원.
- 김동욱(1994), 「방각본에 대하여」,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223-246쪽.
- 김두중(1973), 『韓國古印刷技術史』, 탐구당.
- 류탁일(1985), 『완판 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 박상국(1987), 『全國寺刹所藏木板集』, 문화재관리국.
- 송일기(2000), 「泰仁 坊刻本の 出現 時期 및 養眞居士 朴致維의 行歷考」, 『고서』 제9호, 한국고서협회, 9-24쪽.
- 옥영정(2010), 「非小説 漢文坊刻本 刊行에 대한 書誌的 高찰」, 『洙上古典研究』 31, 213-254쪽
- 이창현(1995),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천승(2013), 「완판본의 철학적 기반과 배경」, 『2013년도 완판본 학술발표대회 발표초록』. 전주 완판본문화관.
- 이태영(2002), 『전라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신아출판사.
- 이태영(2004), 「지역 전통 문화의 기반 구축과 그 활용 방안 -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그 활용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 30집(영남대), 273-304쪽.
- 이태영(2007) 「새로 소개하는 완판본 한글고전소설과 책판」, 『국어문학』 43집, 29-54.
- 이태영(2008), 「전라감영과 시장의 발달이 호남문화에 끼친 영향」, 『전라감영연구』, 전주역사박물관·전라문화연구소, 165-190쪽.
- 이태영(2010), 「완판 방각본 출판의 문화사」, 『洙上古典研究』 31, 91-115쪽
- 이태영(2011), 『전라북도 방언 연구』, 역락.
- 이태영 편저(2012), 『전주의 책, 완판본 백선』, 전주시·전주문화재단.
- 이태영(2012), 「전라방언 ‘겹나게’의 어휘사」, 『한국언어문학』 83, 69-90쪽.
- 이태영(2013), 「완판본의 개념과 범위」, 『洙上古典研究』 38, 9-36면.
- 이태영(2014), 「완판본에 나타난 刊記의 특징」, 『洙上古典研究』 42, 321-350면.

이혜경(1999), 「조선조 방각본의 서지학적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장명수 엮음(2009), 『전주의 8·15해방과 6·25전쟁 격동시대 구술실록(1945-1960)』 개정판, 전주 근대생활조명 100년 제2권, 전주문화재단.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2011), 『全州 南安齋 所藏 全義李氏家の 古文獻』, 湖南圈域古文書資料集成2.

鄭亨愚·尹炳泰(1979), 『韓國冊板目錄總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58쪽.

조희웅(1999), 『古典小說 異本目錄』, 집문당.

조희웅(2006), 『고전소설 연구보정(상, 하)』, 박이정.

천혜봉(2006), 『한국서지학』, 민음사.

문화로 본 전주정신

함 한 희*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전주정신과 정체성
- III. 집단정신과 에토스(ethos)에 대해서
- IV. 집단정신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 1. 자연론에서 출발한 기질론
 - 2. 문화론에서 출발한 기질론
- V. 집단정신과 이상적 인성
- VI. 집단정신의 구성주의적 시각
- VII. 전주음식문화의 성격
- VIII. 전주 풍류문화의 성격
- IX. 대조와 상보의 관계
- X. 맺음말

I. 들어가며

전주정신이란 전주의 정신이라는 뜻이지만, 이는 전주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정신 즉 집합적인 정신이라는 말의 함축적 표현이라고 본다. 특정한 개인, 일부의 위인들이 지닌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사람들이 지향하는 집단정신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런가 하면, 이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은 공유된 가치지향점이 그 집단정신 속에 들어있다는 점이고 그것을 밝혀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집단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필자는 전주정신의 인식적 차원 (epistemology)을 좀 더 규명하고자 한다. 그런 연후에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보통의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전주사람들이 공유하는 이상적 차원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전주정신과 정체성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필자는 전주정신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를 놓고 오랫동안 고심했다. 전주정신에 대한 인식론을 펴는 것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 역사학, 심리학, 인류학 등 각 학문 분야마다 전주정신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고, 접근하는 방법도 같지 않다. 다양한 인식과 접근방법이 있지만, 문화인류학자인 필자는 ‘집단정신’의 영역도 문화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선다. 문화의 산물로 집단정신을 분석하는 것은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지만, 전자에 무게를 실어서 필자는 전주정신의 인식 차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한다. 전주정신은 전주의 일반 시민들이 공유하는 집합적 정신이며, 이는 달리 표현하면 집단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스스로가 전주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공유하는 근본적인 이념이나 사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즉, 집단정신에는 공유성, 가치지향성, 의식·무의식적 차원, 이념적이며 사상적 체계를 가진다는 특성이 있다. 이렇듯 윤리성과 체계성을 띠고 있는 전주정신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일 리는 없다. 오랜 역사와 문화의 토양을 위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위에서 지적인 특징을 가진 집단정신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인류학계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해왔다. 또한 집단정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증명하는가의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²⁾ 최근에는 집단정신의 존재 유무나 방법론의 문제를 떠나서 집단정체성(identity)의 형성 및 정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활발해진 정체성 논의는 기존의 심리학에서 다룬 개인정체성 논의의 차원과 다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개인정체성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에릭 에릭슨의 주장에 힘입어서 정체성 연구는 지역, 민족, 성(性), 계급, 국가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었다.³⁾ 정체성 문제가 급부상한 까닭은 후기산업사회에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글로벌리제이션, 다문화주의 등과 관련이 깊다. 포스트모던 사회를 이해하는

2) 인류학계에서는 세계2차세계대전 이후 현대문명사회 연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각성아래서 국가나 현대 사회 내 하위 집단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심리인류학 연구자들-Ruth Benedict, Margaret Mead 등-선도했으나,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3) 에릭슨의 연구는 다음을 참고 한다: Erick Erickson, 1964 Identity and Uprootedness in Our Time, *Insight and Responsibility*, Norton Press.

데 핵심적 연구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스콧 래쉬, 조나단 프리드먼 1997) 이는 기존의 경계가 흐트러지고, 때로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문화의 혼성현상이 목격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체성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자아 및 집단의식의 상실감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⁴⁾ 불확실성이나 모호성이 팽배해지면서 결국은 ‘나(우리)는 누구인가’를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정체성의 위기는 후기산업사회가 배태한 것으로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던 정체성은 사회, 계급, 민족의 이동이 두드러지면서 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 전라도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사람들)가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체성의 위기가 아닐까 한다.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거나 모호해졌다고 보는 위기 의식이 전주정신 찾기, 확립 등의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통문화 중심도시, 한문화수도 등은 최근 전주가 내건 정체성의 방향이다. 전주뿐만 아니라 한국전체로 볼 때도 전통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서 전주가 차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캐치프레이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찾기를 활용한 정치적 의도가 이 운동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스스로를 타자(타 집단)와 구별해서 자신의 특징을 드러내야만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도와 전주 공동체 형성이라는 통합을 위한 기능적 목적도 들어 있다. 그래서 정체성 담론은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말하게 된다. 따라서 정체성은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산물이어서 고정불변일수 없고, 상황이나 의도에 따라서 새롭게 또 달리 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최근 전주정신의 논의도 이 세 가지 측면-정체성의 위기의식, 차별화를 위한 전략적 차원, 내부 답합을 위한 기능적 차원-을 모두 지니고 있다. 특히 타 지역과 차별화된 그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의도가 정체성 담론의 중심이 되고 있다.

III. 집단정신과 에토스(ethos)에 대해서

문화인류학계에서는 한 때 집단정신 즉 집단이 추구하는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에토스(ethos) 연구에 힘을 쏟은 적이 있었다. 한 집단이나 민족의 특징을 드러내는 기질, 성격

4) 문화의 혼종성에 대한 연구는 호미바바의 역작을 참고한다: Bhabha, Homi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문화의 위치』, 2002, 나병철 역, 소명출판)

가운데에서 윤리적 정신이 함축된 에토스에 대한 관심은 일명 ‘문화와 인성(personality)’ 연구에서 출발하였다. 이미 고전이 된 루스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마가렛미드의 『세부족사회에서의 성과 기질』 등의 연구는 특정한 사회 또는 부족/민족의 인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서 인성의 형성을 통해서 문화의 특징을 찾는 저작들이다. 인성/성격/기질이 개인이 타고난 독특한 특성 즉 유전적이고 심리적인 개성이라고 보는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맞서서 사회 속에서 형성된다 점에 주목하는 분야가 인성(personality)연구자들이다. 즉 인성이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형성된 인성의 특성을 찾는데 힘을 기우렸다.

사람들의 성격은 다분히 개인적인 것, 심리적인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인류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자신들이 연구하는 부족사회 내 집단적으로 공통된 인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른 부족과 차별된 특징이라고 보았다. 언어와 관습이 다르듯이 이들이 저마다의 집단 기질이 다르다는 점을 흥미롭게 생각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이 분야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도 집단 내 하부 조직의 다양성이나 개인들의 개성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집단 내 존재하는 상이점도 있지만, 에토스연구에 흥미를 가진 연구자들에게는 집단적 동질성에 더 관심을 쏟았다.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화 또는 문화화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기질이나 가치·윤리·도덕 등을 습득하게 된다. 그 훈육의 장치는 사회 내 다양하게 존재하기 마련인데, 특히 가정, 학교, 이웃 공동체, 공적·사적 모임, 종교집단, 놀이집단 등을 통해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명시적·암묵적인 컨센서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사회적 단위가 작은 부족사회, 농촌 및 지역사회 등의 경우, 에토스를 파악하는 일은 단위가 큰 사회인 국가와 민족보다 상대적으로 쉽다고 본다.

집단적 기질에 관심을 두었던 인류학자들은 부족사회를 단위로 했던 연구를 확대해서 국민성 연구에도 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를 단위로 했을 때 기질이나 에토스 논의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국가는 정치적 집합체인데다가, 그 구성체의 복잡성과 복합성으로 인해 하나의 단일한 정신적 특징을 담아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국민성론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지적으로 종료되었다. 소규모 사회를 대상으로 한 인성에 기초한 문화론 연구가 호평을 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국민성 연구는 연구방법의 문제로부터 연구결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지적되면서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전주라는 지역사회가 가지는 정신 또는 에토스를 찾는 일이 ‘국민’이라는 집단 보다

는 규모가 작지만,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다문화주의 등이 공통점, 유사성을 찾고자 하는 에토스적 훈육주의와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단위가 작은 지역사회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공통된 기질이나 정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연구방법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집단정신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1. 자연론에서 출발한 기질론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인성을 형성하는 요소로 네 가지 정도를 거론한다. 생물학적 요인, 문화적 요인, 자연환경, 그리고 개인의 고유한 경험이 그것이다.(랄프 린튼 1984) 이 네 가지의 요인 가운데 각별히 생물학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립하면서 상반되는 두 갈래의 이론을 가지고 격렬한 논쟁을 하기도 했다. 이 논쟁을 자연론과 문화론의 대립이라고 부른다. 전자는 인성의 형성에 있어서 유전적·생물학적 요소의 중요성을 내세우는데, 이 이론은 몇 가지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인성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교육의 목적이나 의미가 거의 없어진다. 또 어처구니없는 본질주의나 인종주의적 도그마에 빠질 위험도 있다. 예를 들면, 나치독일에서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한 것이나 일제가 조선인의 열등함을 만들어낸 것처럼 특정한 인종의 우월성 또는 열등함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흑인에 대한 백인의 우수성·우월주의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인들도 과거의 경험을 잊은 듯 인종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우수하다든가,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는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들이 인종차별의 경험을 토로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지역주의가 심화되면서 각 지역에 따른 기질적 특징이 있다는 호사가들의 말도 있다. 특별한 증거도 없이 막연하게 평하는 지역기질론의 본색은 자연론이나 지리결정론적 입장에서 나온다.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발상이다. 전라도사람들은 변덕스럽고, 경상도 사람들은 무뚝뚝하고 충청도 사람들은 웅크리고, 강원도는 감자바위의 촌스러움이 있다고 한다. 지역, 민족, 집단에 따른 기질론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남부와 북부사람들이 기질이 다르다고 서로 비판적이다. 영국인들이 아

아일랜드인을 구별할 때도 기질론이 등장한다. 다혈질이고 감정이 풍부한 아일랜드인과 이성적이고 냉정한 영국인은 다르다고 한다. 자연론이나 지리결정론에 입각한 기질론의 한계가 뚜렷함에는 여전히 민족적/지역적/집단적 차이가 인구에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일반인들이 문화적 차이를 느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마추어식의 단정적이고 증거가 없는 기질론 보다는 문화론의 입장에서 그 차이를 좀 더 신중히 그리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요구된다.

2. 문화론에서 출발한 기질론

자연론자들에 비해서 문화론자들은 후천적 요소인 문화화의 과정을 중시하면서 인성이나 기질의 특징을 발견하고자 한다.⁵⁾ 어린아기가 태어나자 교육이 시작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정과 사회 안에서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인성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때로는 태어나기 전부터 교육이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해서, 태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 아동의 발달과정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이론적 틀에 기초하여서 영아, 유아 단계에서부터 성장과정에 주목한다. 인성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부모 및 가족들의 육아방식, 문화화 과정, 그리고 교육이다. 문화화 과정이란 어린아이들이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연스럽게 가족의 품에서 자라는 동안 부모, 형제자매, 이웃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동안 배우게 된다. 어릴 때 헤어진 쌍둥이를 추적하여 유전적으로 거의 비슷한 조건을 가진 아기들이 서로 다른 부모를 만나서 자라났을 때,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 랄프 린튼은 개인의 선천적인 자질이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선천적 자질 조차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리하여 “‘본성 대 양육’ (nature vs. culture) 이라는 과거의 공식은 본성 = 양육이라는 새로운 공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랄프 린튼 1984: 131). 이는 오래된 학설이기는 하지만, 문화가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5) 문화와 인성의 관계를 중시하는 학자들을 심리인류학자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마가렛 미드, 랄프 린튼 등을 꼽는다. (마가렛 미드 1988, 랄프 린튼 1984 참고)

V. 집단정신과 이상적 인성

집단기질 또는 집단정신과 관련된 용어와 간단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⁶⁾

- ① 사회적 인성: 어떤 사회집단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을 말한다.
- ② 최빈적 인성: 한 사회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인성의 유형을 말한다.
- ③ 국민성: 국가적인 범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인성을 말한다.
- ④ 정체성: 타자와 타집단과의 차이를 통해서 내(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적인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주체로 인식하는(적응하는) 과정을 말한다.
- ⑤ 이상적 인성: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을 말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흔히 일본인의 특성, 중국인의 특성을 운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위의 집단적 기질의 여러 유형들을 크게 구애받지 않고 통상적으로,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이다. 아마도 많은 이들은 국민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한다. 과거에 한국인의 기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표현들도 많았다. 한국인은 게으르다, 비관적이다, 당파싸움을 잘한다 등 식의 부정적인 한국인론이 널리 퍼져 있었던 시기도 있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경향이 남아서 자기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학술적인 연구결과를 거친 것도 아니고, 더구나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도 힘든 평가 아닌 평가이다. 정치적인 언설로 이용될 때가 많다는 점도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적 인성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을 말한다. 인성은 문화의 수많은 구성요소와 특징이 통합되어 있는 방식을 말하지만, 이상적 인성은 사회로부터의 요구된 것이어서 이러한 인성을 가진 사람은 그 사회에서는 모범적이라는 칭찬을 듣게 된다. 베네딕트는 그의 저서 『문화의 패턴』에서 다음과 같이 이상적 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⁷⁾

베네딕트는 본인이 연구해 온 두 부족의 상반된 기질을 이상적 인성이라는 차원에서

6) 기질과 정신은 엄밀히 다른 뜻의 용어이지만, 사회적·문화적 기질, 정신, 인성, 성격 등 집단성을 지칭할 때는 굳이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 이 글에서도 집단정신과 집단기질, 집단적 인성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7) 베네딕트의 이상적 인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까닭은 전주정신이 바로 전주시민들의 이상적 인상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다. 과키우틀족과 주니족은 서로 매우 다른 기질적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두 부족이 각기 서로 다른 이상적 인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루스 베네딕트 2008) 예를 들어서, 과키우틀족은 디오니시시적 인성에 높은 가치를 두는데, 단식, 자학, 마약을 통해서 환상적 경지를 고취하면서 그들의 이상적 인성을 가꾼다. 그런가하면, 주니족은 아폴로적 인성에 가치를 두는데, 항상 질서정연함을 추구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이상적 인성을 구현하고자 노력한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디오니소스적·아폴로적 인성이란 니체의 작품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디오니소스적인 인간은 “존재의 일상적인 범위와 한계를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존재의 가치를 추구한다. 그는 자신의 오감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도피하고자하는 욕구가 있다. 그리하여 그의 욕망은 그러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극에 달하는 의식을 마다하지 않는다. 니체는 이러한 감정에 가장 유사한 상태는 혼미한 상태, 취한 상태, 광란의 상태와 가깝고, 이것이 깨우쳐주는 바가 많다고 주장한다. 블레이크의 “극단으로 가는 길은 지혜의 궁전에 이른다”는 말과도 같다. (루스 베네딕트 2008)

원주민들 가운데 디오니소스적인 패턴의 문화에서는 꿈이나 환상이 주는 초자연력을 획득하려는 관습과 연관이 깊다. 자기 팔의 피부를 벗겨내고, 손가락을 으깨며, 높다랗게 세운 장대 끝에 가죽 끈으로 자기 어깨를 묶고서 몸을 흔들어댄다.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기도 한다. 아폴로적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불신하고 그러한 경험의 성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그는 그러한 경험을 금지시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오직 하나의 법칙, 즉 그리스적인 감각의 척도만 알고 있을 뿐이다” 그는 중도를 지키며, 혼란을 일으키는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니체는 이러한 유형의 인간을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심지어 춤의 광희에 달해 있을 때에도 시민으로서의 명성을 잊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였다. (루스 베네딕트 2008)

이 두 부족은 서로 다른 이상적 인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문화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점을 베네딕트는 강조하였다. 동일한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이상적 행위를 밝힘으로써 문화의 특성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이론에서는 공동체의 동질성, 통합성을 강조하며, 이로 인한 내부의 다양성이나 다양한 요소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루어가는 문화의 특성을 소홀히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전주의 이상적 인성 또는 에토스를 밝혀보고자 한다.

Ⅶ. 집단정신의 구성주의적 시각

전주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인성 또는 에토스를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여기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전주정신이란 전주 시민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이상적 인성이라고 본다. 공통으로 추구한다는 것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을 던질 수는 있다. 공동체 내부의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상적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문화적 현상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하다. 둘째로 전주시민들의 집단정신을 드러내는 특정한 문화현상을 통해서 분석을 시도한다. 이는 현재 전주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살아있는 정신 속에서 이상적 인성을 찾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집단정신은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중시한다. 다시 말해서 전승성과 미래지향성은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로, 문화와 인성 연구자들은 에토스를 본질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필자는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인성이나 기질 또는 정신은 변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기존에는 내부적인 다양성도, 시간적인 변화도 크게 중시하지 않았지만, 필자는 집단정신이 시대상을 반영할 뿐 아니라 정치적이고 훈육적이라는 점에 비중을 실는다. 전주사람들이 집단적 가치로 만들어가는 것, 즉 재창조성을 지닌 역동적인 산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뜻이다. 또한 전주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도 긴밀하게 연관지으며 사회적 주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그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본다.

집단, 민족, 국가는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전통을 창조해 내기도 한다.(Hobsbawm 1993) 하물며, 전주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면밀히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인 전주의 음식과 풍류를 통해서 집단정신의 특징을 밝혀보고자 한다.⁸⁾ 전주음식은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이고, 풍류 역시 그러하다. 이 둘은 대조적이면서도 상보적인 성격을 가진 문화적 요소들이다. 음식은 禮에서 출발해서 藝가 되지만, 풍류는 藝에서 출발해서 禮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조성과 상보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전주가 예향이라고 불리는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 두 문화요소를 분석해서 전주의 에토스에 가까이 다가가 본다.

8) 전주정신 정립을 위한 설문조사가 2015년 4월-5월에 걸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시되었다. 총 3,500여명이 참가했다. 이 조사 결과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는 음식문화 44.9%, 소리·서화 26.0%, 풍류 12.3% 순으로 나왔다. 이 조사는 전주시 평생교육과 주관으로 시행되었다.

VII. 전주음식문화의 성격

전주는 오랜 동안 호남 일대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다. 전라도 감영은 호남 일대를 다스리는 지방정치의 중심지였다. 뿐만 아니라 전주에는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인근에서 생산되는 산물의 집산지로 경제 활동도 활발했다. 비근한 예로 조선 후기 남밖장 (현 남부시장)이 전국의 6대 시장 중 하나로 꼽혔다.⁹⁾ 조선 왕조 내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를 누려온 전주에서 음식문화가 발달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하여서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천혜의 자연지리적 환경이 제공하는 풍부한 식재료 덕분에 전주의 음식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전주 음식을 설명할 때 빠뜨리지 않고 소개되는 것이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이며, 전주의 팔미(八味, 여덟 가지 미식) 또는 십미 (十味, 열 가지 미식)를 거론하기도 한다. 이처럼 전주 음식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식재료, 조리방법, 맛 등에 초점을 맞추거나,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더하여서 본고에서는 음식과 관련된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특징을 열거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는 전주의 전통음식은 예(禮)로 시작해서 예(藝)로 마무리 짓는 음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정성을 쏟아 조리한다는 것이 바로 음식 예절의 기본이었다. 먹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푸짐하면서도 맛깔스럽게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전주 여성들의 손맛에서 나왔다. 음식을 예술의 경지로 이끈 것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예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숨씨가 먹는 이들의 미각과 시각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감동까지 선사한 것이 바로 전주 음식이었다.

둘째로는 전주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전승 비법으로 조리하는 향토음식이 발달되었다. 전주에는 오래 전부터 전주의 팔미 또는 십미 라고 꼽히는 음식들이 있다. 오랜 세월 구전되어 온 이야기를 가람 이병기선생은 근음삼수 (近吟三首)에서 언급하였고(1950년대 초), 이어서 이철수도 전주야사(1967)에서 콩나물과 미나리를 더하여서 십미를 소개하였다.¹⁰⁾ 사람들 마다 다소 차이는 있는데, 최근 많이 인용되고 있는 전주 팔미는, 기린봉 열무, 신평리(현 송천동) 호박, 한내 무, 상관 게, 전주 남천 모자(모래무지), 선왕골 파라

9) 남밖장은 풍남문 밖에 있었다고 붙여진 명칭이다. 한 때, 서문밖에 있었던 선밖장도 변창했으나, 1923년에 남밖장에 병합되었다(조병희, 『완산고을의 맥박』, 2001, 신아출판사.337-338쪽)

10) 조숙정, 2008, 『콩에서 발견한 전북의 음식문화』, 전라북도/국립민속박물관, 171쪽; 전북대학교, 2001, <전주 8미 및 장류 발굴 조사보고서>. 2001, 12-13쪽.

시, 대흥리 서초, 오목대 황포묵이다.¹¹⁾ 이러한 향토음식들이 이제는 노인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지만, 여전히 전주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

셋째로는 발효음식이 발달되었다. 음식을 묵히고 기다려서 깊은 맛을 낼 뿐아니라 영양식의 과학화를 이루었다. 음식전문가들이 공통되게 지적하는 것은 장류(된장, 고추장, 청국장)와 젓갈의 사용이 중요하다고 한다. 장류나 젓갈은 발효음식의 대명사이고, 묵히고 기다려야 제 맛을 내기 마련이다. 즉 자연의 이치를 따르되,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제대로 된 맛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장을 담글 때 택일이나 고사를 지내기도 했을 정도로 온갖 정성을 다 했다. 발효음식은 묵히고 기다리는 ‘정성어린 음식’임에는 틀림없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숨씨가 어우러져서 독특한 맛을 내며 건강에도 좋은 발효음식이 전주 음식의 기둥이 되어 왔다.

VIII. 전주 풍류문화의 성격

최근 풍류를 연구한 정성미 (2015)에 의하면, 조선시대 풍류 또는 풍류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던 기록이나 풍류객을 그린 그림을 통해서 풍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풍류를 지닌 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기록들이 왕조실록에 등장하며, 이를 종합하면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청렴한 삶을 지향하는 태도를 지닌 선비를 지칭할 때 사용하곤 했다. 연회장에서 술자리와 여흥을 즐기는 사람을 통상 풍류객이라고 했고, 일반적으로 세상의 욕심과는 거리를 두는 사람으로 불렸다. 「포의풍류도 (布衣風流圖)」를 그린 김홍도는 ‘종이로 만든 창과 흙벽으로 된 집에 살지만 평생토록 벼슬하지 않고 그 속에서 시가나 읊조리며 살고자 한다(綺窓土壁終身布衣嘯詠其中)’라는 문구를 적어 두었다. 선비가 문방사우를 곁에 두고, 책을 높이 싸놓고, 비파를 타는 정경을 그린 김홍도를 통해서 풍류가 당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풍류는 “시를 짓고 노래를 하는 ‘예술적 행위’, 때로는 술을 마시고 여흥을 즐기는 ‘놀이적 행위’, 그러나 교양을 지키며 청렴한 ‘선비정신’ ”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탈속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멋이 갖든 시와 놀이를 더불어 즐기는 사람들을 풍류객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정성미 2015)

11) 전주시청 홈페이지, <http://food.jeonju.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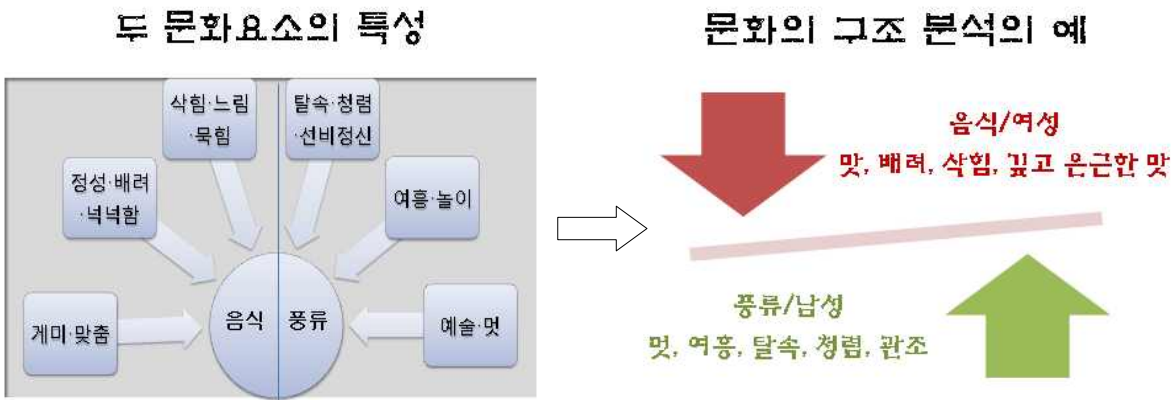
[그림 1] 「포의풍류도」 종이에 담채, 27.9cm×37cm, 개인소장

전주의 선비들이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안빈낙도의 생을 살면서 이웃을 돌보며 후학을 양성해 온 예들이 많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에서 학자촌 (선비촌)을 이루며 살았던 이들이야말로 전주풍류정신을 현대까지 잇던 사람들이다. (함한희 편, 2008a, b) 다른 지역과 달리 전주한옥마을 선비들의 풍류정신 속에는 시대의 아픔을 시, 서화로 승화시키며 나라와 유학을 지켜냈다. 근현대의 풍류정신을 다시 재조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지 여흥이나 즐기는 객들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학문과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IX. 대조와 상보의 관계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과 풍류, 이 두 문화요소의 특징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음식문화의 특징은 정성과 배려 속에 넉넉함이 묻어나고,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음식을 삭히고, 묵혀서 먹기에, 느낌의 음식이면서 재미를 낸다. 풍류는 탈속과 청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술적 행위와 여흥을 즐기는 멋을 지니면서 시대의 아픔까지도 승화시킨다. 이 두 문화의 특징을 개체의 집합으로만 보기보다는 구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야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음식과 풍류가 대조적이면서도 상보적이라

는 관계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대조란 말 그대로 서로 반대되거나 달라서 대비된다는 뜻이고, 상보란 서로 보완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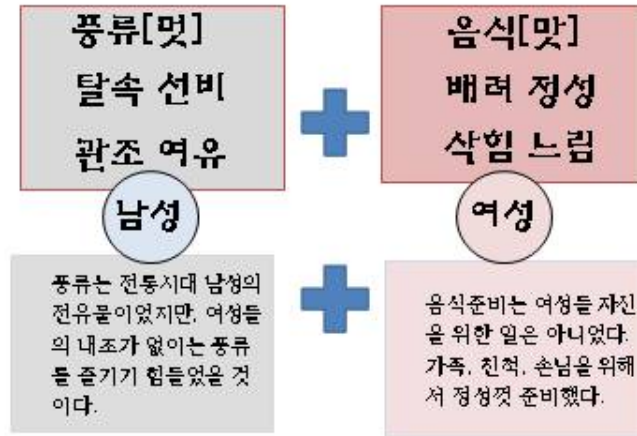
[도표 1] 음식과 풍류문화의 특성

[도표 2] 음식과 풍류의 구조분석

음식과 풍류가 대조의 차원에서 보면, 여성과 남성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음식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맛을 낸다면, 풍류는 시간을 잊거나 잃어버리려는 의도가 있다. 시간이 필요한 음식과 시간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풍류는 대조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살기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몸짓이 음식이라면, 꼭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필요가 있는가하는 정신이 바로 풍류이다. 사람들과 나누어서 먹고 맛있게 먹도록 배려 먹는 것이 음식문화라면, 혼자서라도 즐길 수 있고, 관조와 버림이 풍류문화의 특성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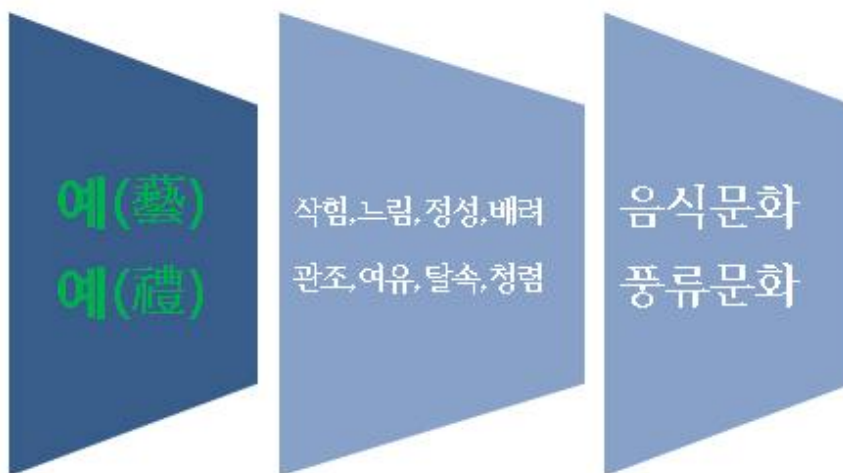
이와 같은 대조의 차원은 상보의 차원을 만났을 때, 통합하여 두 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풍류는 전통시대 남성의 전유물이었지만, 여성의 내조가 없이는 풍류를 어찌 즐길 수 있었겠는가. 한편, 음식준비는 여성들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가족, 친척, 손님을 위한 일로 솜씨를 다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했다. 남성과 여성이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탈속의 선비가 관조와 여유를 부릴 수 있다면, 집안에 머물면서 두루 식술을 챙기고, 친척들을 관리하며 집안을 경영했던 여성들의 배려와 여유가 상보적이었다. 전통시대의 남/여, 맛/멋, 생활/예술의 차원을 이해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바로 대조적이며 상보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대조적이며, 상보적 관계



[도표 3] 음식과 풍류의 통합적 이해

전주음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삭힘, 묵힘의 발효의 맛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래서 맛이 깊고 은근했다. 풍류역시 마음을 삭히는 것으로 정신을 발효시키는 효과와 같다. 음식의 삭힘과 관조의 미덕이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까닭이 이 지점이다. 또한 풍류방의 음악은 느리고 여유가 있다. 이 느낌과 여유 역시 전주음식 문화의 핵심 요소이다. 느낌과 여유의 미학은 은근과 끈기로 이어져 왔다.



[도표 4] 전주음식과 풍류를 통해 본 정신세계

X. 맺음말: 예(藝)와 예(禮)를 숭상하는 전주정신

전주정신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어떤 정의를 내려도 그것은 만장일치가 될 수 없다. 전주시민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인성 또는 문화적 주체성은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서로 다른 지향점이 조화롭게 존재하기도 하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다양성을 인정하되, 가장 근본이 되는 것, 마치 최대공약수를 셈하듯 집단정신 속에 내재된 공유 가치의 핵심을 밝혀보는 노력은 여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한다.

필자는 전주정신을 에토스 또는 이상적 인성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했고, 공유된 윤리적 가치 지향점이 있음을 전제로 했다. 그리고 집단정신의 주체들이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전주정신을 추구하기에 전승성과 미래지향성이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았다.

전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두 종목-음식과 풍류-를 분석해서 전주정신이 예(藝)와 예(禮)를 숭상하는 기질/마음/인성이라고 정리해 본다. 전주의 전통음식은 예(禮)로 시작해서 예(藝)로 마무리 짓는 음식이라고 보았고 전주의 풍류는 예(藝)를 숭상하면서 예(禮)를 완성하는 문화로 보았다. 전주의 음식은 여성들의 정성과 배려가 먹는 이들의 미각과 시각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감동까지 선사하면서 예술의 경지로 이끌었다. 정성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예의에서 나온 것이다. 전주의 풍류는 탈속과 청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술적 행위와 여흥을 즐기는 멋을 보여주는 문화이다. 그러면서도 풍류객들은 시대의 아픔까지도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예(禮)를 갖추는 품격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근현대 전주의 선비들이 그 모범을 보여 준 사례를 위에서 언급했다.

이 두 문화는 남/여, 멋/맛, 탈속/배려와 같이 대조와 상보적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풍류의 관조적 정신은 음식의 삭힘과도 같고 여유로운 풍류문화는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발효식품을 기본으로 하는 전주의 음식문화와도 상통한다. 이 두 문화요소 속에는 예술과 예의를 존중하는 넓고 깊은 정신이 도사리고 있음을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랄프 린튼 1984 『문화와 인성』 (전경수 역), 현음사.
- 루스 베네딕트 1974 [1946] 『국화와 칼』 (김윤식·오인석 역), 을유문화사.
- _____ 2008 『문화의 패턴』 (이종인 역), 연암서가.
- 마가렛 미드 1988 『세 부족사회에서의 성과 기질』 (조혜정 역) 이대출판부.
- 스콧 래쉬·조나단 프리드먼 1997, 『현대성과 정체성』 (현윤호병, 안정석, 차원현, 임옥희 역), 현대미학사.
- 전북대학교, 2001, <전주 8미 및 장류 발굴 조사보고서>. 2001.
- 전주시청 홈페이지, <http://food.jeonju.go.kr>
- 정성미, 2015, 향제줄풍류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병희, 『완산고을의 맥박』, 2001, 신아출판사
- 조숙정, 2008, 『콩에서 발견한 전북의 음식문화』, 전라북도/국립민속박물관.
- 함한희 편, 2008a, 『한옥마을 선비와 선비문화』,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 사업단/전북대학교 박물관.
- _____, 2008b, 『전주한옥마을 구술열전』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사업단.
- Bhabha, Homi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문화의 위치』, 2002, 나병철 역, 소명출판)
- Erickson, E. 1964 *Insight and Responsibility: Lectures on the Ethical Implications of Psychoanalytic Insight*. Norton Press.
- Hobsbawm, E. & T. Ranger eds., 199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pters
- Mead, M. 1956 *Coming of Age in Samoa: A Psychological Study of Primitive Youth for Western Civilization*. New York : A Mentor Book,

全州品格論

송 화 섭*

<목 차>

- I. 서론
- II. 고려시대 전주의 품격
- III. 조선시대 전주의 품격
 - 1. 조선 전기
 - 2. 조선 후기
- IV. 全州人性論 · 全州品格論 · 全州風俗論 考
 - 1. 全州人性論
 - 2. 全州品格論
 - 3. 全州風俗論
- V. 맺음말

I. 서론

인품은 사람의 품격을 말한다. 품격은 품성과 인격의 조합이다. 품성은 사람의 성질(character)을 말하는데, 사람마다 살아가는 지역에 따라 성질이 다르다. 지역은 삶의 뿌리를 둔 곳을 말하며, 뿌리의 성질을 본성, 천성이라고 부른다. 본성은 타고 태어난다고 한다. 세 살버릇 여든살까지 간다는 말에, 본성은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지역과 바탕이 다르면 성질도 다르다. 이것을 기질(氣質)이라 부른다. 기질은 지역적이고 집단적이다. 집단적 기질은 관행과 풍속에 녹아있다. 집단적 기질의 차이는 자연지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인문적 환경의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 전주대학교 교수

지역에 따라 인성도 기질도 다르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의 기질에서 차이가 있고, 전라도에서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기질 차이가 있다. 광주 전남사람들은 억세고 동적, 적극적인 반면 전주사람들은 순하고 정적,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기질의 차이가 있다. 전주를 중심으로 운봉 남원 중심의 산간지역 사람과 정읍 고창 중심의 평야지역 사람들의 기질 차이가 있다. 기질의 차이는 사람들이 사는 자연지리적 환경과 자연환경에서 살아온 삶의 방식과 역사사회적 배경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기질이 다르면 인성, 문화, 말씨 등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전라도는 좌도와 우도로 나누는데, 좌도와 우도의 생활관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본성은 하루 아침에 바뀌지도 않지만, 하루 아침에 생성되지도 않는다. 전주가 어떤 도시였는지, 전주사람의 품성이 어떠하였는지 역사에서 그 행간을 읽어내고자 한다. 전주의 정체성과 전주 정신은 역사에 기술되어 있다. 역사는 전주에 바탕을 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록해놓았다. 이 사료에는 전주사람의 성격과 인품을 기술해 놓았고, 전주가 어떠한 도시였는지를 기술해놓았다. 다행히도 고려시대 전주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에 남아있고, 조선시대 전주사람들의 성품과 전주의 품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겨져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전주사람들의 성품과 전주의 품격을 기술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전주의 품격을 읽어보고자 한다.

역사는 거울이라 하였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주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과 전주사람들이 추구해왔던 삶의 가치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II. 고려시대 전주의 품격

고려시대 전주이야기는 『동국이상국집』에 몇 가지가 남아있다. 『동국이상국집』은 이규보가 편찬한 전집인데,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전주에 지방관리로 잠시 내려와 있었기에, 전주사람들의 이야기와 전주의 생활풍속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규보는 고려시대 1200년대 전주 풍속에 대하여 매우 귀중한 자료를 남겼다. 정말 다행이다. 전주의 품격에 관하여 다음 세가지 자료를 인용한다.

(A) 전주(全州)는 완산(完山)이라고도 일컫는데 옛날 백제국(百濟國)이다. 인물이 번창하고 가

옥이 즐비하여 고국풍(故國風)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질박하지 않고 아전들은 모두 점잖은 사인(士人)과 같아, 행동거지의 신중함이 볼 만하였다¹⁾.

(B)한 나라의 가뭄은 조정에 있는 이들의 수치요, 한 지방의 가뭄은 고을을 지키는 자의 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남방이 두 경계로 갈라졌으니 羅州가 변두리를 돌렸고 전주가 이 지역을 연결하고 있는데, 어찌 나주에는 비를 주고 全州만 가물게 하십니까? 하늘이 무슨私が 있어서 그러하겠습니까? 이는 우리들이 정치를 잘못된 것이 그 원인입니다. 하늘의 노여움을 용서받을 수 없거늘 감히 神龍에게 먼저 빌겠는가? 하늘의 뜻은 오직 龍王이 주도하는 바라. 龍王의 간청이라면 하늘이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비를 얻는 것은 官吏의 효험이 아니고 바로 용왕의 공이오니, 이 해가 흉년이 되지 않는다면 어찌 그 보답의 제사가 풍부하지 않겠습니까?²⁾”

(C) “삼가 채소과일과 맑은 술의 제수로써 ①성황대왕(城隍大王)의 영전에 제사지냅니다. 내가 이 고을에 부임하여 나물 끼니도 제대로 계속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냥꾼이 사슴 한 마리를 잡아와서 바치기에 내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가 ‘이 고을에는 예부터 매월 초하루에 저희들로 하여금 사슴 한 마리와 꿩 토끼를 바쳐 제육(祭肉)에 충당하게 하고, 그런 뒤에 ②아리(衙吏)들이 공봉(公俸)을 받아서 주찬(酒饌)을 갖추어 성황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곧 하나의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하기에, 내가 노하여 매질하면서 꾸짖기를 ‘네가 어찌 나에게 알려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짓을 하느냐? 무릇 ③제 고을의 선물 꾸러미나 청탁 고기를 거절하지 않고, 산의 살쥔 노루나 매끈한 토끼와 곰 발바닥 코끼리 발가락과 바다의 상어·송어·메기·잉어와 새벽비둘기, 야생 고니 등 맛난 음식을 불러들여 수두룩 앞에 쌓는 자들이야 차마 그 진미를 홀로 다 먹을 수 없어서 대왕에게 바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어찌 나물 끼니로 가난하게 지내는 나로서 달마다 생물을 죽여 귀신을 살찌게 하기 위해 내 자신의 죄를 더하겠는가? 그리고 귀신도 정직한 귀신이라면 나에게 이런 것을 바라지 않으리라.’ 하고는, 곧 아리(衙吏)들에게 훈계하여 이제부터는 다시 고기를 쓰지 않기로 하고 채소과일과 주찬 따위의 진설은 알아 하게끔 맡겼다고. 나의 약속이 이러하니, 대왕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으나, 바라건대 너그럽게 나를 완악하여 옛 관례를 따르지 않는다 하지 마시오.³⁾”

1) 『東國李相國集』第23卷 記 南行月日記

「全州者 或稱完山 古百濟國也 人物繁浩屋相櫛比 有故國之風 故其民不樵朴 吏皆若衣冠士人 進止祥審可觀」

2) 『東國李相國集』第37卷 哀詞 祭文 - 全州祭龍王祈雨文

「一國之旱 則在朝者差 一方之旱 則守土者罪 惟此南方 岐爲二界 羅帶于陬 全襟其會 何彼境之得滋 獨吾偏之未溉 天豈有私而爲是歟 殆巨吾輩之政穢 天怒不可于号 敢先贖于稱神龍 天之澤惟龍所導 龍之請天豈不從 在斯時而得雨 非吏之效 而乃龍之功 歲不至於飢歟 何報祀之不豐」

3) 『東國李相國集』第37卷 哀詞 祭文 - 全州祭城隍致告文

「謹以蔬菓清酌之奠致祭于城隍大王之靈 予吏于茲蔬茹猶不績 而有獵夫致一鹿于門 予其由則曰此州自古每月旦使吾等貢一鹿若雉兔尤祭肉然後 衙吏等愛公之俸備酒饌致祭 于城隍此成例也 予怒而鞭之 曰汝何不稟於

(A)는 전주(全州)에 완산(完山)이라고 일컬은 백제국(百濟國)이 있었다는 것이다. 전주는 인물이 변화하고 가옥이 즐비하여 고국풍(古國風)이 있었다.” 는 기록이다. 여기에서 고국은 백제를 말함인가 후백제를 말하는가 명시하지 않았지만, 완산이 백제국의 치소였음을 밝히고 있다. 백제는 부여에 도읍하였던 백제가 아니라, 후백제를 지칭하는 듯하다. 인물이 변화하고 가옥이 즐비하였다면 도읍의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부 건치연혁조에도 “전주부는 본래 백제의 완산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백제 시대에 전주에 치소가 있었다는 뉘앙스도 있다. 전주가 백제의 도읍이 아닐지라도 백제 시대에 전주가 지방세력의 거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완산의 ‘백제국’ 설은 무엇을 말함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완산의 백제국은 신라 진흥왕 16년(555)에 신라에 공략당하고 진흥왕은 완산에 완산주를 두었다가 동왕 26년에 완산부를 폐한다. 진흥왕대에 전주가 신라에 공략당했다는 역사는 기록에 없다. 이상한 일이다. 신라 진흥왕대(540 ~ 576)에 신라 영토에 5주를 설치하는데, 比斯伐州(下州)가 들어간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당이 백제를 공략한 후에 다섯 都督府를 두었는데, 신라가 그 지역을 병합한후에 熊州·全州·武州 三州와 여러 군현을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이 때에 전주를 완산이라고 하였고, 『삼국사기』 지리지에 完山은 比斯伐·比自火라고 한다는 기록을 달아놓았다.

그렇다면 진흥왕 16년에 설치한 신라의 하주(下州)가 비사벌주이고, 비사벌주가 완산주가 된다는 뜻인데, 백제가 신라에 병합되기 이전에 진흥왕 26년(565)에 백제의 전주(완산주)를 공략하여 폐하고 비사벌주(下州)를 설치하여 정치적 통제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성립된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 창녕현 건치연혁조에 창녕을 비자화군(比自火郡) 또는 비사벌(比斯伐)이었고, 진흥왕(眞興王) 16년에 하주(下州)를 두었다가 21년에 혁파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따라서 완산주의 比斯伐 설은 『삼국사기』 지리지의 잘못 기록한 착오에서 빚어진 해프닝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규보가 기록한 백제국은 후백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후백제의 도읍이었기에 인물이 번화하고 가옥이 즐비하다는 표현을 하였을 것이다. 이규보가 전주에 사록 겸 장서기로 부임해왔을 1199~1200년대에 전주가 느낀 고국풍을 기술한 것이다. 100년대까지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 분위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도 인물이 번화하고 가옥들이 즐비한 왕도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 같다. (A)는 전주의 도시 품

吾而爲是耶凡不拒乃 州之苞饋飽而致山之麋麋豨免熊踏象白之肉海之鮫鯢鯉晨晝露鵠之崇積於前者不忍獨亨滋味其獻于大王宣矣 豈以予蔬食之窮約月殺生物圖神之肥而積罪予躬耶」

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주사람들은 질박하지 않고 아전들은 젊잖은 사인과 같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질박하지 않다는 것은 순박한 시골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지 않다는 뜻이다. 전주사람들이 왕도사람들의 인품을 갖추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전주의 지방관리들도 젊잖게 의관을 갖추입은 士人같다, 즉 선비와 같은 인품과 품성을 지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관사인은 지방관리들이지만 후백제 왕도의 왕경인 풍모를 갖춘 모습을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방관리들만 의관사인이었겠는가. 왕도 전주에 살던 사람들도 의관사인에 준하는 인품을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衣冠士人の 행동과 행위의 신중함이 불만하였다는 것은 매우 높은 품격을 소유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관사인은 한마디로 고려시대부터 전주사람들은 매우 훌륭한 인품을 지녔고, 전주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기와집들이 서로 즐비하게 이어진 도시, 왕도의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다.

후백제가 936년에 멸망하였지만 260여년이 지난 1200년경까지도 전주는 왕도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고, 전주사람들은 의관사인의 인품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전주의 지방관리들이 젊잖은 의관사인같다고 본 것이 인상적이다. 누구보다도 지방관리들이 모범적인 관리의 품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B)는 고려 983년(성종2년)에 전국에 12목을 설치한 이후, 당시 전주목에서 거행된 기우제 기록이다. 기우제의 대상은 용왕이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국가이념으로 하였기에 용왕도 護法龍, 護國龍이었다. 호법룡은 불교 경전에 묘사되어 나타나는데, 天池龍宮에 거처하는 용왕이다. (B)에서 용왕의 처소는 하늘못(天之潭)으로 표현하였다. 하늘못의 용왕은 천지용왕(天池龍王)과 다름이 없다. 전주에서 천지담을 지칭할만한 곳은 덕진연못 외에 다른 곳은 달리 없다. 고려시대까지 덕진연못은 천연못이었으나 조선 전기에 현재와 같은 제방을 축조하면서 덕진제로 표기되었다. (B)에서 덕진연못이 천지담이고 천지담이 용왕의 처소라는 사실은 조선전기 서거정의 沛鄉十詠가운데 덕진연으로 알 수 있다.

다음 시문은 서거정이 지은 덕진연(德津淵)⁴⁾이다.

(D) 덕으로서 지은 진의 이름이 헛되지 않았도다 / 以德名津語不空
 백성에게 은택입혀 세상 구제한 공이 있네 / 澤民曾有濟時功
 그 누가 알리오 깊은 못에 용이 누워서 / 誰知泓臥龍行□
 때로 능히 십우와 오풍을 행사하는지 / 十雨時能又五風

4) 徐居正, 『四佳集』 「四佳詩集 卷之四十五」 沛鄉十詠 德津淵

(D)는 서거정이 덕진연못을 읊은 시문이다. 서거정은 직접 전주 덕진연못을 둘러보고 덕진연못의 유래를 밝히고 있는데, 덕진은 덕으로서 지은 이름(以德名津)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德이 龍이다. 서거정은 깊은 못에 용이 누워있는데 누가 알리오라 하면서 덕진연못이 용의 처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깊은 못이 덕진연못이며, 덕진연못의 용이 십풍오우의 능력을 가졌고, 조선전기까지도 덕진연못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관행이 전승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B)에서 기우제를 지낸 곳은 덕진연못이었으며, 대상은 天之潭龍王, 즉 天池龍王이었다. 고려시대의 기우제는 사찰에서 거행하는 기우도와량과 민간에서 거행하는 기우제가 행해졌는데, 전주 덕진연못의 기우제는 민간에서 거행한 기우제였지만 대상은 기우도량과 같다.

(C)는 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 제37권에 실린 전주제성황치고문이다. 전주 성황제에 관한 기록이다.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에 전주의 대표적인 풍속으로 두 제문을 남겼는데, (B)의 全州祭龍王祈雨文과 (C)의 全州祭城隍致告文이다. (C)의 치고문도 고려시대 전주의 도시 품격과 전주사람들의 품격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전주의 성황신이 성황대왕이다. (C)-①성황대왕은 성황신의 위상이 높은 대왕이란 뜻이다. 『전주부사』에 전주의 성황신은 김부대왕 일가이다. 김부대왕은 신라 56대 임금이었던 경순왕이다. 김부대왕 일가는 경순왕, 장남 마의태자, 태자매, 정후허씨, OO부인 5인이다. 전주성황신 5위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다. 실제 왕이 성황신으로 등장하는 사례는 전주 외에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높은 신격의 성황신으로서 성황대왕이라고 한 것 같다. 현재 전주 성황신 5위의 신상이 보존되어 있다.

둘째, 전주의 성황제는 삭망제의 방식이었다. 삭망제의는 매일 초하루와 보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관리들이 제사를 전담하였다. (C)-②삭망제의는 전주의 지방관리들이 공방의 일부를 걷어서 주찬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전주 성황제는 전주의 지방관리들이 주도하였으며, 이미 전통적인 관례로 정착되었다고 기록해놓았다. 한마디로 전주성황제는 관주도형의 성황제 역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전주의 성황대왕이 신라 56대 경순왕이었기에 관리들이 주도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전통은 후백제시대부터 내려온 관행이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후백제 시기에 해인사로 출가한 범공화상이 전주 성황산에 사당을 짓고 김부대왕 일가 5위를 享祀晨夕하였다는 이야기가 「全州東固寺事續記」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동고사는 옛 성황사터에 들어선 사찰이다.

셋째, (C)-③는 성황제를 지내는 광경 일부를 설명한 것인데, 하나는 전주성황제에 주변

고을에서 온갖 청탁의 선물꾸러미를 공물로 받쳤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주성황대왕에게 바치는 제물을 열거하였는데, 요즘에는 감히 볼 수 없는 기이한 제물을 성황제상에 올려놓고 있다. 새벽비들기, 고니, 코끼리발가락, 곰발바닥, 사슴, 상어, 송어, 잉어 등 매우 진귀한 음식들이 제물로 올려지고 있다. 이처럼 성황제에서 주변 고을의 선물꾸러미나 청탁고기를 받았다는 것은 전주고을의 위상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성황제상의 진설은 단오제의 성황제를 지낼 때 제물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C) 전주 성황제는 전주의 품격과 전주사람의 정치적 위상과 사회적 신분을 보여준다.

첫째, 성황대왕은 성황신가운데 가장 높은 신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김부대왕(경순왕) 일가를 성황신으로 모신 것은 국내에서 전주가 유일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후백제 왕도의 위상이 깃들여 있는 것인데, 전주 성황신의 신격이 높다는 것은 전주사람들의 정치적 위상과 신분, 지위가 높다는 것을 대변한다.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에 1392년 전국의 성황신에게 서열에 따라 작위를 내리는데, 전주 완산성황에게 두 번째로 높은 啓國伯의 작위를 내리고 있다. 개성의 송악신에게 鎮國公의 公爵을 내리고 다음에 전주의 완산성황에 백작 작위인 계국백을 내리고 있다. 작위는 신분의 지위와 위계에 따라 사람에게 내리는 사회적 벼슬이지만, 려말선초에 도시의 수호신인 완산성황신에게 계국백 작위를 내린 것은 전주와 전주사람들의 품격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완산성황신의 계국백 작위는 전주사람들의 정치적 위상과 사회적 신분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둘째, 전주의 성황제는 국제관사(國祭官祀)였다. 고려시대 국가사전에 성황신은 中祀의 대상이었다. 성황신이 국가수호신이 아니라 지방 도시의 수호신이란 점에서 중사의 대상으로 치제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은 지방세력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황제가 국가사전에 편제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제라면, 관사는 관청에서 제사를 담당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전주의 성황제는 지방의 관리들이 자신들의 급료(公俸) 일부를 떼어서 주찬을 마련하여 성황제를 지냈다는 사실이다(C-②). 이 기록은 전주 성황제가 官祀였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성황제를 지방관리들의 급여를 떼어서 제물을 차렸다는 기록은 전주가 유일할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전주의 지방관리들과 성황신의 상호 관련성을 시사하는데, 이는 후백제 시대의 왕도의 전통이요 관행임이었다. (A)에서 전주의 지방관리(衙吏)들이 쫓잡은 의관사인(衣冠士人)이라고 지칭하였듯이, 고려시대 전주의 아전들이 주관하는 성황제는 지체높은 성황신일 수 밖에 없으며, 그 위상을 고려하여 성황대왕이라는 신격을 붙였고, 계국백의 작위를 가한 것이다. 계국백의 품격은 전주·전주사람들

의 품격과 비례한다.

셋째, 고려시대에는 지방도시마다 단오절 성황제는 고을의 커다란 연례행사였다. C-③에서 주변 고을에서 선물꾸러미와 청탁고기를 전주성황신에게 바쳤다는 사실은 전주 성황신의 품격을 보여준다. 따라서 모든 군현 단위에서도 단오절 성황제를 지냈다. 그래도 각 군현의 향리들이 전주 성황신에게 선물청탁하고 공물을 바친 것은 전주성황신의 권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황신의 권세는 전주와 전주사람들의 권세를 대변한다. C-③에서 성황제의 진설은 전주 지방관리들과 전주고을 사람들이 성황제에 얼마나 극진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김부대왕 대왕을 성황대왕으로 받들고, 왕족의 일가를 전주의 성황신으로 배향한 것은 후백제 왕도 사람들의 관행이었을 것이다. 전주 성황신 5위가 김부대왕 일가이고, 성황신 5위를 받들고 향사신석을 한 사람이 경순왕의 둘째 아들 범공화상(梵空和尚)이었다. 그는 王族이었다. 범공화상의 향사는 전주 성황대왕의 神格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준다. 성황신의 신격은 主祭者의 品格과 비례한다.

Ⅲ. 조선시대 전주의 품격

1. 조선 전기

(E) 전라도 관찰사 홍경림이 전주부의 품관 현령 정고석 등 50여인의 등장을 치계받았다. 내용인 즉은 本府는 다른 州府와 같은 데가 아니고 곧 우리 태조의 왕실이 발상한 지역인데, 지형이 남쪽은 높고 북쪽은 虛하여 바닥 기운이 분산하기 때문에, 鎭山 이름을 乾止山이라 하고 또한 제방을 쌓고서 이름을 덕진(德津)이라 하였으며, 절을 창건하여 乾興寺라 하고, 또한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산을 가련산(可連山)이라 이름한 것이 모두 『輿地勝覽』에 실려 있습니다. 나무꾼을 금단하고 경작을 금단한 지 그 유래가 이미 오랜데, 廢朝 때에 충에받던 녹주(綠珠)가, 건지산 안팎 계곡과 德津堤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개간한 것을 反正후에 예전처럼 도로 묵혔습니다. 그런데 뒷날 菁川府院君 柳順汀이 功臣田 준례에 의해 떼어받아 개간하여 왕실 고장의 진산이 마침내 빨갱게 되었으므로 온 고을 민중들이 팔을 걷어올리며 통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예전처럼 경작을 금단하고 도로 묵혀 왕실이 발상한 고장을 가꾸게 하소서⁵⁾.

5) 『朝鮮王朝實錄』中宗實錄 中宗 20年 8月 1日

全羅道觀察使洪景霖, 以道內全州府品官前縣令鄭考石等五十餘人等狀馳啓, 其略曰: 本府則不與他州同, 乃我太祖璿源毓慶之地, 而南高北虛, 氣脈洩焉, 故名其鎭山曰乾止山, 而又築堤, 名曰德津, 創寺曰乾興, 其西又有小山, 名曰可連, 俱載《輿地勝覽》。禁樵、禁耕, 其來已久, 至廢朝, 內嬖綠珠, 其乾止山內外渠、德津堤, 盡爲斫伐開墾。反正後, 如舊還陳矣, 而其後菁川府院君柳順汀, 以功臣田, 例受起耕, 御鄉鎭山, 終至濯濯,

(E)는 전주가 다른 주부와 다른 조선 태조 왕실의 발상지(璿源航慶之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주의 지형이 南高北低하는 背逆之地임을 밝히고, 전주의 지기가 북쪽으로 분산되는 지형이므로 진산을 건지산이라 하고 덕진제방을 쌓았고, 건흥사를 창건하였다는 이야기다. 전주가 조선왕조의 발상지인데 풍수지리적으로 결함을 안고 있으니 제방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덕진제방을 쌓기 위해서 전라도 관찰사 홍경림과 전주부 현령 정고석 등 50여명이 등장을 치계하여 대규모 토목공사를 왕실에 청원하였다는 내용이다. 현재 덕진제방은 乾止山과 可連山 사이에 쌓은 비보풍수 기능의 토축 제방이다. (E)의 내용은 덕진연못이 1525년(중종20)에 축조한 것임을 말해준다. 결과적으로 덕진제방은 전주가 조선왕실의 발상지인데, 풍수적으로 불완전하여 국가적 토목공사로 축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F) 삼가 생각하건데, 우리나라는 유학을 숭상하고 도를 중시하며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세우니 비록 궁벽한 고을이라도 다 그러하거늘 하물면 전주는 우리 조종의 고향 땅이며 남국 인재가 모이는 곳 같으니, 더 말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 교육을 제일로 삼는데다 고을의 자제들이 文獻世家들이 많으니 선을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므로 일향 교화가 잘 되고 많은 인재가 그 중에서 배출되니 비록 지령의 좋은 기운이 모여서 된 것이라고는 하나 또한 교육에 바탕이 있기 때문이다⁶⁾.

(F)는 전주는 우리 조종의 고향 땅임을 명시하고, 남국의 인재가 모이는 곳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전주고을 사람들이 교육을 제일로 삼아 고을 자제들이 많은 문헌세가를 배출하였다. (F)의 ‘우리 조종의 고향 땅’은 (E)의 ‘우리 태조 왕실의 발상지’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구절이다. 전주는 왕조의 발상지이다보니 남국의 인재들이 모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자녀 교육을 제일로 삼은 결과, 문헌세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전주고을 사람들이 교육을 제일로 삼고 학문을 좋아한 결과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고, 자연스럽게 남국의 인재가 모이는 곳이 되었던 것이다. 실제 조선시대 전라도 문과급제자가운데 전주는 139명으로 가장 많은 문과급제자를 배출한 고을이다. 전주는 왕실 조종의 본향이었기에 남국의 인재가 몰려드는 도시의 품격을 갖추었으며, 전주사람들은 학문을 숭

一邑人民，扼腕痛憤。伏請依舊禁耕還陳，以培璿源航慶之地。

6) 『四佳集』四佳文集 第2卷 記 全州鄉校重新記

「恭惟我國家，崇儒重道，建學立師，雖窮陬僻邑，莫不皆然。況全爲我祖宗豐沛之地，而南國人才之淵藪，則其所以教養之者，尤所當先。鄉之子弟，又多文獻世家，樂善好學，故一鄉化之，茂才間出，是雖坤靈淑氣之所鍾，亦莫非教養之有素也」

상하며 교육을 제일로 여기는 품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G) “전주부는 땅이 넓고 백성이 많이 모여살고 일이 번성하여 번거롭다. 또한 사방으로 통하는 요충지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충청도를 경유하여 호남으로 가거나, 영남으로 가는 자들이 모두 이 곳을 지나가니 진실로 사람들의 왕래가 폭주하는 곳이다⁷⁾.”

(G)는 서거정이 조선 전기에 전주에 대해서 쓴 글이다. 전주는 대도시임을 말해주듯이 땅이 넓고 백성이 모여살고 일이 번성할 정도의 도시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전주가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양에서 충청도를 경유하여 전라도로 내려갈 때나, 영남으로 가려는 자들도 전주를 경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폭주하는 곳이라 하였다. 한양에서 충청도를 거쳐 호남으로 가는 도로는 湖南大路라 할 수 있으며, 영남으로 가는 자들도 전주를 경유하여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 교통로는 統營別路를 두고 말한 것 같다. 전주가 사방으로 통하는 요충지라는 사실은 단순히 사람의 왕래뿐만 아니라 물자 유통과 수송의 요충지가 병행되었을 것이다.

(H)하물며 전주는 풍속이 순박하여 사람마다 군자의 풍모가 있는데, 남다른 정치를 이루는 것은 이전에 비해 백배는 될 것이다. 훗날 임금님이 칭찬하여 포상을 받을 것이니 남주의 이목(耳目)을 영화롭게 할곳은 전주가 아니고 어디가 있겠는가⁸⁾.

(H)은 서거정이 전주부윤 이공에게 쓴 시의 서이다. 서거정은 이천의 관리였다가 전주로 부임하는 이공에게 전주사람들의 기질을 글로 써서 보낸 것이다. 서거정은 전주사람의 기질과 전주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전주의 풍속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순박하고, 군자의 풍모를 지니고 있다. 사람들이 君자의 풍모를 가졌다는 이규보가 말한 의관사인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과 같다. (H)은 조선 전기의 기록이지만, 고려시대 전주사람들의 행동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자의 풍모는 衣冠衙吏, 衣冠士人처럼 용모가 품격이 있다고 평가한 것과 상통한다. 전주사람의 군자다운 풍모는 후백제 왕도사람들의 모습, 즉 후백제 왕경인의 체통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데

7) 徐居正, 『四佳集』 四佳文集 第2卷 記 全州拱北亭重新記

「又復全州府. 府地廣民稠. 事繁以劇. 又居四方樞轄之地. 由京而之忠清. 由忠清而之湖南. 之嶺南者皆由焉. 實冠蓋輪蹄之走集也.」

8) 徐居正, 『四佳集』 四佳文集 第5卷 序 送全州府尹李公詩序

「況全爲州. 風俗淳朴. 人人有君子之風. 其致異政. 當百倍於利矣. 他日璽書褒獎. 榮南州之耳目者. 非全. 誰耶. 嗚呼.」

다른 곳보다 백배는 용이할 것이다 라고 격려하면서, 정치를 잘하여 훗날 임금님의 칭찬을 받고 포상을 받아서 남쪽 고을에서 이목을 영화롭게 할 곳은 전주 말고 어디가 있겠느냐 하면서 전주사람들의 예찬론을 펼쳐놓았다.

(I)전주부 풍속편에 사람들이 영리하고 재빠르다. -주기에 “토잡비척하고 사람들이 약삭빠르다.-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완박하지 않다. -이규보의 기에 인물이 번화하고 가옥이 즐비하며, 고국의 풍모가 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어리석거나 완박하지 않고 모두가 의관을 갖춘 선비와 같으며, 행동거지가 본받을 만 하였다. 집을 다스리는 자는 대부분 곡식을 비축하여 흉년에 대비한다. :이경동의 기에 있다. 남국의 인재가 몰려있는 곳이다. : 서거정의 기에 있다. 물건을 싣는데 수레를 사용하고, 저자는 가게들이 줄을 지어 상품의 교역을 한다⁹⁾”

(II)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부 풍속편의 기록이다. 전주의 풍속에 사람들이 총명하고 약삭빠르다고 하였다(俗尙儇利). ‘약삭빠르다’는 지혜롭다. 꾀가 많다. 영리하다. 명석하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총명하니 약삭빠를 수 밖에 없다. 또한 전주부의 기문에 전주가 토잡비척한 곳이라 하였다. 토잡비척(土雜肥瘠)은 전주의 토양이 비옥하기도 하고 척박하기도 하다는 뜻인데, 전주는 좌도와 우도를 양쪽에 끼고 있기에, 토잡비척이란 용어를 사용한듯하다. 산간지역은 척박한 땅으로 인식하였고, 평야 지역은 비옥한 땅이라는 인식은 농업사회의 전통적 생업방식에서 비롯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민불추박(民不樵朴)에 대해서는 이규보의 기문을 주에 인용하면서 해석을 내리고 있다. 민불추박(民不樵朴)은 전주는 인물이 변화하고 가옥이 즐비하여 고국의 풍모를 갖고 있는 고로, 그 백성들이 질박하지 않고, 모든 의관사인들의 행동거지가 볼만하다(可觀)는 뜻을 축약한 것이다.

전주가 지방일지라도 지방도시나 농촌의 사람들과 달리 어리석거나 순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민불추박이라고 축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의 내용을 재인용한 것으로 볼 때, 후백제 도성(또는 왕경)이었던 전주사람들의 풍모가 조선전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순박하기 않다는 것을 농촌사람들이 아닌 왕경인의 풍모를 갖춘 사람들이라는 점을 축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변화하고 가옥이 즐비하며, 고국의 풍모가 있다는 사실의 전주가 왕도와 왕경인들이 살

9) 『新增東國輿地勝覽』全州府 風俗

「俗尙儇利 州記土雜肥瘠俗尙儇利, 民不樵朴 李奎報記 人物繁華柳比古國之風故 其民不樵朴 皆若衣冠土人進止可觀 治家者多蓄穀以備凶荒 李瓊全記, 南國人材之淵藪 徐居正記, 任載用車 列肆交易」

왔던 대도시임을 강조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이경동의 기문을 인용하여 집을 다스리는 자는 곡식을 비축해놓고 흉년기근에 대비하였다(治家者多蓄穀以備凶荒). 전주사람들은 흉년과 기근에 대비하여 곡식을 집에 모아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전주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또한 전주는 남국의 인재가 모여드는 곳이라 하였다. 서거정의 기문을 인용하여, 전주가 남국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南國人材之淵藪)이라 하였다. 전주가 왕도의 기운을 갖고 있는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이라는 사실은 전주가 후백제의 왕도였고, 그러한 왕도의 기운이 전주에 전라 감영이 들어서게 만든 동기였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시대 초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전주는 대도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인재들이 몰려드는 도시가 되었던 것이다.

단지 인재들만 몰려드는 곳이 아니라, 물류유통이 활발하였던 곳이 전주였다. 전주에서는 물건을 싣는데 수레를 이용하였으며, 저자는 가게들이 줄지어 상품을 교역을 한다(任載用車 列肆交易)고 하였다. 열사(列肆)는 상설 가게점포가 잇달아있는 저자거리를 말하는데 전주의 남문밖시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게점포가 잇따라 구성되어 있는 장사에서 물류유통이 크게 번창하였음을 말해준다. 列肆交易은 전주, 나주, 경주에서 행해졌던 사례를 볼 때, 전통적인 대도시에서 상품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된 곳을 말한다.

(J) 내가 어려서 책을 끼고 어른을 따라 거리에서 놀 때는 풍속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검소한 것을 즐기지 아니했고 후생들은 노는 데에만 힘을 뿐 책을 읽고 활쏘기와 차 모는 것을 익히는 자는 아주 적었다. 그런데 그 후에 습속이 크게 변하여, 자제들은 향학(鄉學)에서 글을 읽고 성균관(成均館)에 뽑히는 자가 시험 때마다 7·8명에 이르고, 문과와 무과에 오르는 사람이 거의 시험 때마다 빠지는 수가 없었다. 사시(四時)로 연방회(蓮榜會)를 열면 참여하는 자가 언제나 수십 명이 되었으니, 후진은 흥기하고, 상숙(庠塾)에는 글을 강론하고 배우는 소리가 높았다. 봄 가을 향사(鄉射)에는 활을 쥐고 술잔을 높이 든 자 쏘면 반드시 명중하니 간성의 재목이며, 집안을 다스리는 자 곡식을 저축하여 흉년에 대비하는 사람이 많았다. 길에서는 여자와 같이 수레를 탄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 옛날에 보던 바와는 크게 상반된다고 하겠다. 일찍이 『地理誌』를 보니, ‘풍속은 사람들이 약삭스러워 늙은 사람이 보면 책망할수 도 있다.’ 하였는데, 내가 보고 기억한 바로는 어려서 장성하기까지 수십 년에 불과하나 풍속은 많이 변하여서 기약한 일 없이 자연적으로 좋아졌으니, 다시 한번 좋아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도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는가¹⁰⁾

(J)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전주부 루정에 이경동(李瓊全)의 기문 일부이다. 이경동은 전주가 본관이지만 탄생지를 명확하지 않다. 그는 1462년(세조 8) 진사시에 합격하여 중앙에서 관리로 활동하였으며, 서거정, 양성지와 동시대 인물이며, 세조실록의 편찬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J)는 고려말 조선초에 전주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F)에서 전주는 조종의 땅으로서 교육을 제일로 삼고, 고을의 자제들이 문헌세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전주는 왕적의 기초를 창립하였으니,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되는 땅(王迹實我朝鮮根本之地)이기에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에 힘을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조종의 땅 전주(我祖宗豐沛之地)를 위하여 왕조 차원에서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전주를 부로 승격과 자제들을 뽑아서 숙위에 넣는 일(選子弟入宿衛)과 慶基殿을 조성하는 일이었다. 태조는 전주부의 자제들가운데 선발하여 숙위에 넣고 남다르게 총애하였다. 숙위는 전주에서 선발한 자제들을 왕실 주도하에 궁궐로 데려와 교육기관에서 특별 관리하면서 교육을 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왕조 차원에서 전주의 인재양성과 자제들을 선발하여 숙위에 넣을 정도로 인재양성에 집중하였다. 이경동은 전주가 자제교육을 제일 중시한 성과가 드러나고 있음을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 건국과 함께 교육을 중히 여기고 인재육성을 집중한 결과, 전주 사람들의 품격이 바뀌었다. 이경동은 자신이 어렸을때에는 사치를 즐기며 화려한 것을 추구하였으며, 노는데만 신경을 집중하였는데, 자제들을 선발하여 숙위에 넣고 향학에서 글을 읽는데 노력한 결과 문과 무과 급제자들이 배출되면서 교육도시로서 면모가 바뀌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경동은 과거급제자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전주의 도시분위기가 크게 변화하였다(其後大變)고 표현하였다. 예를들면, 거리에서 남자들이 여자와 수레를 함께 타는일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이러한 일은 옛날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라 하였다.

(J)는 고려시대 말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들의 생활이 화려하고 사치를 즐겼으며, 검소한 생활을 하지 않았으나, 조선 건국 후에 자녀들에게 유학교육에 전념한 결과, 전주사람

10) 『新增東國輿地勝覽』全羅道 全州府 樓亭

「與時上下僕童子時 挾冊從先長者遊街巷間 俗尚華麗不善儉素 後生事遊挾知讀書習射 御者蓋寡 其後大變 其習子弟業文由鄉學選補成均者 每試多至 七八人登文武科者 殆無虛勝 四時設蓮榜會坐者 常數十人後進興起 庠塾多講誦聲 春秋鄉射執弓 揚鰾者發必命中 有干城之材 治家者多蓄穀以備凶荒 道上未嘗 見有女同車者 其視昔日之所爲乃大相反 如是嘗觀地理志云 尚儂利父老見之未嘗不發愧 以僕所觀記 自幼至長 數十年耳風移俗易乃有不期 然而然者一變至道 又何疑焉今」

들의 생활관습이 변화하였고, 새로운 품격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남녀가 평등하고 함께 어울리는 사회분위기였다면, 조선 전기에는 유학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남녀유별하는 생활관습이 유발된 것이다. 이러한 생활관습의 변화는 크게 바뀐 것이며, 옛날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라고 기록해 놓았다. (J)내용은 전주부에 국한된 전주이야기지만 문화사적으로 보면, 러말선초 사회변동의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내용이라 할 수 있다.

(H)에서 서거정은 전주사람들이 군자다운 풍모가 있다(人人有君子之風)고 하였는데, 과거급제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전주가 ‘선비의 도시’로 변모하여 사람들이 군자답다고 하였다. 군자(君子)는 학식과 덕행이 높고 인자한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품은 과거급제를 하여 관직에 나아간 사람들의 품성에서 나올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후백제 왕도의 전통을 가진 왕경인(王京人)처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가졌으나, 조선건국 이후 학문과 교육을 제일로 숭상하면서 많은 과거급제자의 배출과 관직 진출이 전주의 분위기를 조선왕조의 근본인 조종의 도시(豐沛之地)로 바뀐 것이다.

또한 (J)에서는 전주사람들이 약삭빠르니 노인들에게서 책망받을 수 있다(尙儼利父老見之未嘗不發愧)하고 있다. 여기에서 尙儼利는 (I)에서도 전주사람들이 기질을 말해주고 있는데, 父老, 즉 어른들이 봤을 때에는 꾸지람들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본 것이다. 상현리는 총명하고 영리하며 예리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과연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오늘날 상현리를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하는 고민이 있다. 그리고 (J)에서는 집을 다스리는 자는 곡식을 비축하여 흉년과 기근에 대비하였다(治家者多蓄穀以備凶荒)고 하여 전주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과 같다.

2. 조선 후기

(K) 전주는 사월에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가득하고 연등이 집집마다 걸려있는게 한양과 흡사하다. 佛心을 가진 사람들이 앞다투어 물가에 병풍을 두르고 용왕에게 굿을 하였다. -전주 고을 사월 초파일 풍속에 물위에 병풍처럼 천막을 설치하고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서로 유희를 즐겼는데, 이를 용왕에게 제를 올리는 것이라 한다¹¹⁾

11) 金鍾正,『雲溪漫稿』全州道中

「全州四月雜花香。燈火家家似漢陽。捨翠佳人爭約。伴水頭屏帳賽龍王-州俗四月八日 設屏帳於水上 相與飲食遊嬉 以祭龍王云」

(K)는 金鍾正의 『雲溪漫稿』전주도중 기록이다. 김종정은 1800년대 인물이다 김종정이 전주에 내려온 계절이 4월 초파일경이다. 4월초파일에 전주의 집집마다 연등이 걸려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漢陽과 같다는 표현이다. 불심을 가진 사람들이 앞타투어 물가에 병풍을 두르고 용왕굿을 하는 모습을 기술하였는데, 전주 용왕제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해놓하고 있다. 김종정이 본 전주용왕제는 덕진연못에서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4월초파일에 덕진연못 물가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서로 음식을 나눠먹으며 춤과 놀이를 즐겼다(相飲食與遊戲)고 하여 전주용왕굿이 축제형태로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거정이 전주에 내려와 직접 목격한 전주의 풍속을 기술한 것이다.

(B)에서 고려시대부터 전주에서 용왕에게 기우제를 지내는 관행이 있었는데, (K)는 전주에서 용왕제의 풍속이 조선후기까지 전승되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전주용왕제는 덕진연못(高麗:天之潭, 朝鮮:德津淵)에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천년의 전통을 가진 4월초파일 풍속이었다. 사월초파일에 용왕제를 지냈느냐고 의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용왕제의 대상이 호범룡이기에 사월초파일에 용왕제를 봉행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도심 한가운데에서 4월초파일에 용왕제를 봉행하는 곳은 전주가 유일하다. 전주용왕제를 거행한 곳은 물머리(수두)인데, 그곳이 덕진연못가 용궁각이다. 용궁각은 무네미다리 옆에 위치하여는데, 용궁각은 옛 모습 그대로이나 현재는 옴팡집이라는 간판을 걸고 음식점의 식당으로 활용되고 있다. (K)는 전주가 전통문화의 도시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L)전주(全州)는 강해(江海)의 도회(都會)이고 재화와 물자를 실어 나르는 길목이며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이므로, 현리(僥利)에 매우 밝아 사람들이 추박(樵朴)하지 아니하다¹²⁾.

(L) 조선 후기 許穆은 「眉叟記言」에 전주를 江海都市로 표현하였다. 강해도시는 강줄기가 바다와 연결된 도시로서 해상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된 고을을 말한다. 강해도시 전주는 재화와 물자를 실어 나르는 길목이라 하였다. 전주가 강해도시의 면모를 갖춘 것은 만경강의 수로교통 기능을 두고 한 말이다. 만경강을 통해서 전주는 해상교역이 매우 용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강해도시는 만경강을 통해서 나룻배들의 왕래가 빈번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주는 만경강을 통해서 해상교역 및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지리적 잇점을 갖고 있으며, 좌도와 우도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전주를 통해서 내륙

12) 許穆, 『眉叟記言』 第35卷 原集外篇 東事 地乘
「全州江海之都會 物貨之途 商賣之所 尙僥利 民不樵朴」

산간지역으로 물자유통 및 이동이 매우 용이한 지역이다.

그리하여 상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라 하였는데, 전주 풍남문 밖 장시, 즉 전주 남부시장을 두고 한말일 것이다. 전주는 전라감영이 있었기에 물자유통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지만, 지리적으로 江海都市였기에 해상과 수로 교통을 이용하여 상인들의 왕래가 용이하여 물화가 쌓이는 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전주는 장삿꾼들이 몰려들어 재화와 물자가 넘쳐나는 곳이기도 하고, 전주사람들이 현리(僥利)를 숭상하였다고 한다. 현리는 총명하고 예리하다는 해석인데, 상행위와 관련하지 않는 전주사람들의 인품을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불추박(民不樵朴)은 전주사람들이 송곳처럼 날카롭지도 않고, 시골사람처럼 야박하지도 않다라는 해석이다. 추박(樵朴)은 의관사인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전주사람들이 점잖고 품모가 있다는 뜻이다. 尙僥利와 民不樵朴은 전주사람들의 기질을 단적으로 집약해서 표현하는 용어일 수 있다.

(M)전주는 사람들이 뻘뻘할 정도로 많고 재화가 아주 많이 쌓여있으며, 서울과 다를바가 없으니 진실로 하나의 큰 도회지라 하겠다¹³⁾.

(M)는 (L)의 내용을 보완해주는 측면이 있다. 전주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이기도 하고, 재화가 아주 많이 쌓여 있는 대도시라는 이야기다. 바다와 연결된 만경강 수로교통 뿐만 아니라 사방의 육로교통이 발달한 곳이 전주였다. 전주는 물류 유통이 빈번하여 재화가 아주 많이 쌓여있다는 곳인데, 물론 전주가 전라도의 치소인 전라감영이 있기에 사람이 많고, 물화가 쌓였다고 볼 수 있지만, 수로교통과 육로교통의 物貨가 쌓이는 곳임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많고 재화가 많이 쌓여있는 모습이 한양과 다를 바가 없다 하였으니 삼남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라 아니할 수 없다.

(N)풍속이 노래와 색을 숭상하고 부유하고 분에 넘치는 사치를 즐기며 사람이 많으며, 총명함이 가벼운 경향이 있어서 기교부리는 듯하다. 문학을 중히 여기지 않아서 대단치 않게 여긴다. 그러므로 과거에 급제하여 현달한 사람의 수가 경상도보다 적은 것은 문학을 연마하는데 스스로 이름을 내세우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¹⁴⁾.

13) 『擇里志』八道總論 全羅道

「府治人物稠衆貨財委積與京城無異城一大都會也」

14) 李重煥, 『擇里志』全羅道篇

「俗尙聲色 富侈人多 僥薄傾巧而 不重文學 以故科第顯達遜 於慶尙蓋人少 以文學砥礪自名故也」

(N)는 이중환이 『택리지』 전라도 풍속에 대하여 평하고 있지만, 전라도 전체라기보다는 전주를 중심으로 전라도를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 사람의 풍속에 상성색(尙聲色)이라 하였다. 소리와 색을 숭상하였다는 것은 생활관습에서 풍류를 즐기는 관행이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聲은 시조, 소리, 현악기 연주 등을 지칭할 수 있으며, 色은 여자와 술이 함께 어울려서 풍류를 즐기는 생활상을 尙聲色이라 표현했던 것은 아닐까. 또한 이러한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은 부유하고 사치를 즐기는 사람들(富侈人多)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총명하고 예리함을 가버히 여겨 잔재주(儼薄傾巧而)를 부리는 성향이 있다. 전주사람들이 상현리하는 기질이 있기에 현박경교이(儼薄傾巧而)라는 구절을 사용하지 않았나 한다. 풍류를 즐기다보니 문학을 중히 여기지 않는 풍조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라도 사람들이 풍류를 즐기고 숭상하면서 문학을 중히 여기지 않아 경상도보다 과거에 급제하는 수가 적은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전라도가 경상도보다 과거급제자가 적은 것은 전라도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O) 호조판서 민유중이 말하기를 전주에는 시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유통이 아주 쉽습니다. 먼저 전라감사에게 돈을 보내 잘 굴리다가 연말에는 쌀을 사서 會錄함이 편할 듯합니다¹⁵⁾.

(O)는 호조판서 민유중이 전주에는 시전이 많아서 유통이 쉬우니, 돈을 잘 굴려 돈을 증식하기 좋은 곳이니, 전라감사에게 돈을 보내 잘굴려서 증식한 뒤 연말에 쌀을 사서 거둬들이라는 내용이다. 시전은 아주 많았다고 했는데, 조선후기에 전주의 장시는 사대문 밖에 조성되었는데, 남문장, 서문장, 북문장, 동문장에 場市가 번창하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조선 후기에 조정에서도 돈을 굴려 재화를 증식시킬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전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P) 호남은 최대의 물산이 모이는 곳이다. 전주 또한 대도시이다. 자고로 다스리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인심이 토속하니 어찌하랴. 본디 풍속이 영악스럽고 사람들은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는 기교가 나날이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다스리기 어려운 풍속이다¹⁶⁾.

15) 『肅宗實錄』卷9 肅宗6年 5月 辛亥

「戶曹判書閔維重曰全州市廛甚多 通貨最易 先送錢文于全羅監司處 善爲轉販 年終買米會錄似便」

16) 『承政院日記』1440冊 正祖3年 4月 26日

「湖南地大物衆 全州又大都會也 自古謂以難治 人心土俗何如 元始曰 俗本獷悍 民尙狡詐 機巧日生 終是難治之俗矣」

(P)는 전주사람들의 인심과 기질에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해놓았다. 사람들은 영특 또는 영악하고(俗本獯悍), 사람들이 교활하며 남을 잘 속이는 관행(民尚狡詐)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 영한과 교사는 湖南地大物衆를 전제하고 있다. 전주가 호남에서 물산이 제일 크게 몰려오는 곳이기에 상인들의 상행위 관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사람들의 기질에 대하여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衣冠士人, 君子라 하였고, 민불추박, 상현리의 풍속과 기질이 있다고 하였다. 民不樵朴과 尚僥利를 俗本獯悍과 民尚狡詐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 아닌 듯하다. 민불추박과 상현리는 전주사람이 전체적으로 가진 관습을 표현한 것이라면, 獯悍과 狡詐는 물산이 집하되는 전주의 장사에서 장삿꾼들이 보여주는 상행위 관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상거래에서 가격 흥정의 관행은 속고 속이고 하는 것이니 다스리기 어려운 풍속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終是難治之俗矣).

따라서 (P)의 내용은 장시의 상거래 질서와 유통 과정에서 장삿꾼과 소비자들의 상행위를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전주에 살고 있는 전체 사람들과 연계해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이미 조선후기에는 전주 장시에는 보부상들과 온갖 지역에서 사대문 밖 장시에서 상거래를 하는 전문상인이란 점에서 시장에서 상거래를 담당하는 상인들과 전통적으로 전주에서 살아온 평범한 전주사람들은 분리해서 해석해야 한다. 難治의 대상은 전주사람들이 아니라 전주의 장시에서 상거래가 이뤄지는 관행은 바로잡을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Q)전주 풍속에 현리를 숭상하고, 사람들이 순박하지 않다. 집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곡식을 비축하여 흉년기근에 대처하였다. 남국의 인재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수레들을 이용하여 열사교역이 이뤄졌다.¹⁷⁾

(Q)은 『輿地圖書』의 기록이다. 『여지도서』는 조선 영조때에 기록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부의 풍속을 그대로 전제하고 있다. 『여지도서』 풍속조의 전주사람 품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 기문을 전제하면서 전주의 품격과 전주사람들의 기질을 밝혀주고 있다. 『輿地圖書』 전주 풍속조 내용은 1905년(광무9)에 펴낸 『完山

17) 『輿地圖書』全州 風俗

「俗尚僥利 州記土雜肥墾俗尚僥利, 民不樵朴 李奎報記 人物繁華柳比古國之風故 其民不樵朴皆若衣冠士人 治家者多蓄穀以備凶荒, 南國人材之淵藪, 任載用車 列肆交易」

誌』에도 그대로 내용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주 사람들의 품성과기질이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말한다. 『여지도서』에서 강조한 전주의 도시 성격과 전주사람들이 기질은 다섯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 상현리(尙儼利)이다.

둘째, 민불추박(民不樵朴)이다.

셋째, 치가자다축곡이비흉황(治家者多蓄穀以備凶荒)이다.

넷째, 남국인재지연수(南國人材之淵藪)이다.

다섯째, 열사교역(列肆交易)이다.

이상의 다섯가지는 전주가 어떠한 곳이고, 전주사람들의 기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다. 상현리(尙儼利)는 약삭빠르다는 해석도 있지만, 전주사람들이 매우 총명하고 예리한사람들이라는 이야기이다. 민불추박(民不樵朴)은 사람들이 송곳처럼 가식적이지 않으면서 시골사람처럼 야박하지도 않은 기질이 있음을 말해준다. 민불추박에는 더 깊은 뜻을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치가자다축곡이비흉황(治家者多蓄穀以備凶荒)는 전주사람들은 집집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항상 곡물을 비축하여 흉년과 기근에 대비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전주고을사람들은 흉년과 기근에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배경에는 물자와 재화가 쌓였던 곳이라는 역사가 새삼 의미를 갖는다. 다음으로 남국인재지연수(南國人材之淵藪)는 남국은 호남지방을 가리키고 남주는 전주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호남의 인재들은 전주에 몰려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전라감영이 전주에 있었으니 당연히 전주에 인재들이 몰려들었겠지만, 후백제 왕도에 이은 조선왕조의 발상지가 전주였기에 전주에는 전라도에서 인재가 가장 몰려있는 곳이라는 해석이다. 열사교역(列肆交易)은 저자거리에서 상설점포들이 열지어 상품을 교역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전주에서 물자와 재화가 유통되는 경제의 중심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Ⅳ. 全州人性論・全州品格論・全州風俗論 考

1. 全州人性論

1) 衣冠士人

(A)吏皆若衣冠士人은 1200년대 전주의 지방관리들이 마치 의관을 갖춘 선비와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규보가 전주에 장서기로 부임하여 전주사람들의 행동거지를 살핀 결과, 지방관리들이 한결같이 의관사인의 모습이어서 가관(可觀)이었다고 했다. 1200년대까지 인물이 繁浩하였고, 가옥이 즐비하여 고국의 풍모가 있었다고 하였으니, 전주는 사람들이 많고 가옥이 즐비한 大都市였으니 후백제 王都의 면모가 고려 중기 이후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의 주변고을에서 5월 단오절 전주성황제 거행시에 선물꾸러미나 청탁고기를 바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때, 전주의 지방관리들은 후백제의 왕경인으로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王京人=衣冠士人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있다.

(J)에서 조선 건국 직후 태조가 전주의 자제들을 선발하여 宿衛시켰으며, 조선왕조의 근본도시로서 유학교육과 인재양성을 중시하면서 교육을 제일 중히 여기며 鄉學열이 높아졌고, 문과, 무과의 과거급제자들이 많아져서 관직 진출자가 많았다. 그 결과 조선전기에 전주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F)에서 전주는 文獻世家들이 많아졌고, 善을 좋아하고 學問을 좋아하는 교육의 도시로 바뀌었다. 조선 전기에 전주사람들이 마치 君子같다고 하였다. 군자는 유학의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는데, 衣冠士人=君子는 서로 상통하는 면이 있다. 고려시대 의관사인과 조선시대 군자는 기본적으로 학덕을 갖춘 선비로 보아야 한다.

2) 民不樵朴

(A)민불추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고려 중기에 전주사람들이 樵朴하다는 것이다. 『동국이상국집』 역자는 민불추박을 ‘질박하지 않다’고 해석하였다. 추박은 (H)淳朴과 상통하는 것 같다. 추(樵)를 가식적이지 않는 순박하다는 해석한다면, 민불추박은 전주사람들이 순박하지 않다는 것인데, 전주사람들이 시골사람들처럼 순박하지 않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전주사람들이 大都會 사람으로서 ‘세련되었다’고 본 것일까. 영어 단어에서 ‘세련되었다’는 sophisticated인데, 해석은 ㉠순진성을 잃은, ㉡교양 있는 인식이 높은 세련된, ㉢기교에 치우친 멋부린, ㉣지식인 취향의 고급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불추박의 적절한 영문 단어가 sophisticated이다. 영문 해석을 빌면, 민불추박은

1200년대 고려중기 전주사람들의 ‘교양있는 인식이 높은 세련된’ 모습을 표현한 문구로 해석된다. 1200년대 전주는 후백제 왕도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었기에, 이규보는 인물이 번창하고 가옥이 즐비한 고국풍이 있는 도시(人物繁浩屋相櫛比 有故國之風)로 기술한 것이다. 고려시대 내내 전주사람들은 후백제 王京人의 풍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왕도였던 전주에 조선시대 전라감영이 들어선 지방행정의 중심지이고, (J)처럼 전주는 한양못지 않은 대도시 분위기였다(京城無異城一大都會也). 또 (H)사월초과일의 도시 분위기가 한양과 흡사하였다(燈火家家似漢陽)고 하였다.

그리고 (G)의 내용에 조선 전기에 전주는 대도시의 분위기였다(府地廣民稠 事繁以劇)고 기술해놓았다. 민불추박은 대도시 전주에 사는 전주사람들이 ‘촌스럽지 않은 지식인 취향의 고급스러운 품격’을 가졌음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역사기록에서 민불추박이 고려 중기이후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주사람의 기질이 민불추박하다는 것을 말한다. (I)『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도 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에서 민불추박을 재인용하고 있으며, (O)『輿地圖書』의 전주 풍속에서도 사람들의 인성이 민불추박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주사람들은 고려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민불추박한 전주사람들이었다. 민불추박은 전주가 지방일지라도 순박한 시골사람들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지 명쾌한 해석이 어렵다. 전주사람의 인성은 민불추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P)의 俗本獐悍과 民尚狡詐가 民不樵朴을 동일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민불추박은 교활하고 사기성이 높은 것과 다르다. 여러 전주 사료에서 민불추박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지만 전주사람들의 기질을 獐悍과 狡詐로 빗대어 평가한 것은 『承政院日記』가 유일하다. 승정원일기의 獐悍과 狡詐는 전주사람들의 인성, 관습을 폄하했다기 보다는 湖南地大物衆를 전제하므로써, 조선후기 전주 사대문 밖 장터에서 列肆交易하는 상인들이 商行爲 관습을 표현한 것이기에 전주사람 전체를 적용하는 것을 무리라고 본다.

민불추박은 한자 문구인데, 영문으로 sophisticated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인니, 우리말의 표현과 해석이 난해하다면 영문으로 전주정신의 상징하는 외래어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3) 尙儼利

(I)俗尙儼利는 전주 풍속에 사람들이 현리(儼利)의 관습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 상(尙)은 風潮, 風習, 崇尚하다는 뜻이다. 현(儼)은 영리하다. 재빠르다. 민첩하다는 뜻이고, 리(利)

는 날카롭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현리(僊利)는 전주사람들이 총명하고 예리한 인성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영리하다. 총명하다. 재치있다는 영문 표현은 clever이다. clever는 똑똑한, 기발한, 머리회전이 빨라 상황·문제에 대한 대처가 재빠른, 시야가 넓고 건전한 판단력이 풍부한, 교양교육을 쌓은 결과 수준높은 지식 분야에 흥미와 능력을 지닌 뜻을 갖고 있다. 한문인 僊利는 영문인 clever로 해석이 가장 적절하다. 전주사람들이 clever하다고 할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의 譯者는 尙僊利를 ‘약삭빠르다’고 해석하였다. 약삭빠르다는 ‘약다’ ‘잔피부린다. 고 해석할수 있지만, 상현리는 민불추박과 비슷한 전주사람들의 품격을 기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불추박이 ‘기교에 치우친 멋부린’ 모습으로 해석되는데, (N)僊薄傾巧而是 ‘총명함이 가벼워지면 기교(잔재주)부리는 것 같다’고 한 것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知的 세련됨이 지나치면 약삭스럽게 보일 수 있다. (J)尙僊利父老見之未嘗不發愧는 ‘약삭스러우면 어른들에게 책망을 듣거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현리는 약삭스럽다. 영악스럽다. 잔재주가 많다. 잔피부린다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렇다면 상현리는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난 나머지 잔재주를 부리거나 잔피부리는 사람처럼 보일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주사람들이 영리하고 총명하여 그 도가 지나쳐 어른들에게 편잔을 듣거나 책망을 듣는 일이 있을 정도였다고 보아야 한다. 상현리는 영어인 clever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며, (P)의 狡詐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교사는 교활하고 사기성을 가진 뜻을 갖고 있지만, 상현리는 재치있고, 똑똑한 총명하다는 전주사람들의 인성을 해석한 것이다. 尙僊利를 전주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진 본질이요 기질이라 할 수 있는데, clever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¹⁸⁾.

(Q)『輿地圖書』『完山誌』 풍속에서도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 내내 전주사람들의 人性論에서 화두인 민불추박과 상현리를 전주정신으로 내세우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4) 尙聲色

(N)상성색은 이규보(1690-1756)의 『擇里志』에 처음 등장한다. (N)은 전주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전라사람들을 평한 것인데, 소리와 색을 즐겼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 중기 이후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에 한량들이 妓女들과 뱃놀이를 즐기거나, 야외에서 어울리는

18) 본 논문을 작성하는데, 민불추박(民不樵朴)과 상현리(尙僊利)를 英文으로 표기하는데 도와주신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겸임교수인 김경미 박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것을 보면, 상성색은 閑良들이 기녀들과 함께 소리를 즐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녀들과 즐긴 남자들은 선비와 다른 한량으로 보여 성상색은 특정한 신분이 즐기는 풍류였을 것이다. 판소리의 주 소비층도 한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비들이 樓亭에서 詞章을 즐기는 풍류와 한량들이 기녀들과 즐기는 풍류는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N)상성색의 聲은 閭巷에서 즐기는 판소리로 추정되고, 색은 기녀들과 어울려 놓는 것을 말한진데, 전주가 여상색의 중심이라고 단정짓기는 쉽지 않다. 『新增東國輿地勝覽』전주부 누정조에 鎮南樓, 濟南樓, 拱北亭, 快心亭, 內射亭, 淸讌堂, 萬化樓 등 官衙樓亭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전주의 관리들은 누정에서 풍류를 즐기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는 관아루정 외에 들모임을 할 수 있는 돈대(墩臺)가 많다. 娛穆臺, 李穆臺, 城隍臺, 千景臺, 萬景臺, 億景臺, 文學臺, 嘉樂臺 등 야외에서 시회를 가졌던 돈대가 곳곳에 있다. 특히 가락대(嘉樂臺)는 전주 풍류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조선후기 지도에서 가락대의 詩會 그림은 전주 풍류의 상징적 이미지를 보여준다¹⁹⁾.

전주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논할 때에 풍류를 내세우지만 왜 전주사람들이 풍류를 즐겼는지, 어떠한 풍류를 즐겼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풍류가 다 같은 풍류가 아니니, 풍류의 유형을 어떻게 볼것이나 하는 문제가 선행적으로 갈래타기를 해야 한다. 심산유곡의 누정에서 선비들이 즐기던 隱逸風流를 말하는 것이냐, 세속의 도시에서 한량들이 즐기는 閭巷風流를 말하는 것이냐, 서민들이 세시풍속에서 집단적 관행으로 내려오는 遊戲風流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다. 尙聲色은 隱逸風流와 다른 풍류문화로 보아야 할 것 같다.

2. 全州品格論

1) 정치적

『조선환여승람』에 전주의 군명에 견성(甄城)이 등장한다. 견성은 후백제 견훤정권의 도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후백제 왕도의 도성이 견성이었다. 견훤고궁터에서 나온 막새에는 전주성이라 하였으니, 전주성이 견성이었다. 그후 1199년 이규보가 장서기로 전주에 내려왔을 때, 전주의 향리들이 성황제를 지내는데, 주변 여러 고을에서 선물꾸러미를 바치거나 청탁고기를 바치는 상황이었다. 고려 중기에도 전주는 정치적 지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전주의 성황대왕이 신라 56대 경순왕이었는데, 전주의 성황신, 즉 完山城隍神이 1393년 정부에서 啓國伯이라는 伯爵의 작위를 내리고 있다. 계국백은 개성의 성황

19) 송화섭, 「근현대 풍류문화의 전개와 변화」 『전주학연구』제5집, 전주역사박물관

신에게 내린 鎮國公의 작위 다음으로 높은 신격이다.²⁰⁾ 성황신의 권세는 집단적으로 성황신을 모시는 집단의 권세와 비례한다. 완산성황에 계국백의 작위가 내려진 것은 전주 사람들의 사회적, 정치적 권세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권세가 높은 성황신이었기에, (C)-②에서 전주의 衙吏(관아의 관리)들이 공봉을 받아서 주찬을 갖추어 성황에게 제사지내는 관례가 정착되었다고 본다.

전주사람들의 사회적 신분과 정치적 권세가 조선왕조의 본향이 되는 원동력이었다.

전주의 정치적 지위를 보여주는 내용이 (E)乃我太祖璿源毓慶之地와 (F)我祖宗豐沛之地이다. (E)(F)의 핵심은 전주가 조선왕조 왕실의 발상지라는 점이다. 조선시대 내내 왕실 차원에서 전주에서 벌인 기념사업은 조선왕조의 발상지라는게 직접적인 이유였다. 전주에 조선시대 왕궁이 있었던 곳은 아니지만, 조선왕조의 뿌리(根本)가 전주라는 사실이 전주의 정치적 지위를 갖게 만들었다. 핵심적인 것은 전주가 후백제의 왕도였고, 조선왕조의 본향이란 사실이다. 조선왕조의 뿌리는 후백제에 있다고 본다. 후백제가 없었다면 조선왕조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규보가 『동국이상국집』에 고려시대 전주이야기를 남긴게 천만다행이다. 전주 성황제의 연행 관련 자료는 전주사람들의 정치적 지위와 권세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고려시대에 그만큼 전주가 정치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후백제와 조선왕조를 잇는 브릿지라 할 수 있다.

2) 경제적

다음 자료는 조선시대 전주의 경제력에 대한 기록이다.

- (D) 物貨之途 商賣之所
- (J) 貨財委積
- (K) 富侈人多
- (M) 治家者多蓄穀以備凶荒
- (M) 任載用車 列肆交易
- (R) 州之人物殷富禮文繁²¹⁾

(D)(J)(K)(M)(M)(R)를 정리해보면, 전주는 재화와 물자를 유통하는 곳으로 항상 재화가 쌓여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전주사람들은 재물이 넉넉하고 부유하여 사치하는 사람들이

20) 『朝鮮王朝實錄』太祖實錄

21) 『新增東國輿地勝覽』全州府 樓亭條 “州之人物殷富禮文繁”

많았다. 남밖장(현 남부시장)에서는 수레들을 이용하여 상설점포가 준비한 상설점포에서 상품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전주사람들은 집집마다 경제적 넉넉하여 항상 흉년과 기근에 대비할 곡식을 비축하고 있었다. 전주에서 열사교역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15세기 말 이전에 가게점포들이 준비하였고, 전주는 전국적으로 상업유통이 활발하게 전개된 대표적인 큰도시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列肆交易이 전주, 나주, 경주에서만 이뤄졌다고 하니²²⁾, 조선시대 이전부터 상설점포들이 형성되었고, 물건을 싣는데 수레를 이용할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I)에서 전주를 江海都市라 하였으니, 만경강을 통해서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유통망을 연결하는데 전주장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肅宗實錄』에 “전주에는 市塵이 매우 많기에 유통이 아주 쉽습니다. 먼저 전라감사에게 돈을 보내 잘 굴리다가 연말에 쌀을 사서 회록함이 편할 듯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承政院日記』에 “호남은 지대물중하고, 특히 전주는 大都會로서 돈과 온갖 값나가는 물화가 아울러 모여 기교가 날마다 발생한다.” 하여 전주는 대도회로서 값나가는 물화가 유통되는 명품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 전주장은 남문장, 서문장, 북문장, 동문장의 사대문 밖의 장사에서 물화유통이 활발하였다. 전주가 상거래가 폭증하자 조정에서는 전라감영에서 동전을 주조하여 유통시키는 조치를 취하게도 하였다. 심지어 전주는 원격지와 교역도 촉진되어 중국과 일본의 상품이 거래될 정도로 국제시장의 기능을 하였다고 본다. 그 역사는 후백제와 오월국의 사신교류에서 이미 전주는 국제교역과 문물교류가 이뤄졌던 도시임을 알 수 있다. 국제교역은 고려시대까지 올라간다. 1200년대 전주 성황제의 코끼리 발가락과 곰발바닥 제물은 수입품으로 추정되는 바, 동남아시아 지역과 교역으로 직수입된 것은 아닐까 한다.

3) 사회적

위에서 열거한 전주 풍속 관련 문헌에 등장하는 다음 기록을 통해서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자.

(G) 又復全州府. 府地廣民稠. 事繁以劇. 又居四方樞轄之地.

(L) 全州江海之都會

22) 김대길, 「조선시대 전주의 시장과 유통망」 『전주의 시장과 경제』 전주역사박물관, 2013.

(M) 府治人物稠衆

(K) 州俗四月八日 設屏帳於水上 相與飲食遊嬉 以祭龍王云

첫째, 전주는 사람이 많고 땅이 넓은 대도시였다는 사실이다. 사람이 많이 운집하여 대도시의 분위기가 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사에서 물화가 유통되는 것도 京城 못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며, 사월초파일 집집마다 연등을 걸어놓은 풍속도 漢陽 못지 않다고 하였다. 전주의 대도회 모습이 한양 못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전주는 교통의 중심의 중심이었다. 한양에서 전라도, 경상도를 내려갈 때에도 전주를 경유하였다는 것인데, 湖南大路와 統營別路가 전주를 경유하도록 도로가 조성되어 있다. 지방에서 한양에 올라가거나, 한양에서 지방에 내려오려면 전주를 경유하게 되어 있다. 전주가 사통팔달의 도시였음은 (G)의 又居四方樞轄之地 기록이 말해준다. 이러한 교통망의 발달로 전주에 물화가 쌓이고 보부상들이 전주에서 장사하기 좋았던 것이다.

셋째, (L)은 전주가 ‘江海都市’ 라고 밝히고 있다. 강해도시는 강과 바다가 연결되어 바다에서 수로를 이용하여 교역이 가능한 지역을 말하는데, 전주는 만경강을 이용하여 서해안의 해상교통 및 교역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전주의 사탄은 짧은 강이지만 모든 조수가 통하므로 장삿배가 통한다(全州之沙灘水雖短皆以其通潮而)” 고 하였다. 사탄은 沙川津 근처 지명으로 보인다. 回浦까지 潮水가 들어왔다 한다. 강해도시는 전주가 해상교통과 내륙교통이 함께 연계되어 있는 海港都市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주가 내륙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수로를 통한 바다와 연계되어 있기에 물산유통이 더욱 풍성했다고 보여진다. 전주의 장사가 하천변을 끼고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강해도시와 연관성을 보여준다. 전주의 만경강 교통로는 후백제시대부터 발달하였기에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 내내 강해도시로서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4) 교육적

전주 풍속 관련 기록에서 교육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F)而南國人才之淵藪.

(F)則其所以教養之者. 尤所當先. 鄉之子弟. 又多文獻世家. 樂善好學.

(J)其習子弟 業文由鄉學 選補成均者 每試多至 七八人登文武科者 殆無虛榜 四時設蓮榜會坐

者

常數十人後進興起

『新增東國輿地勝覽』 전주부 누정조에 태조 이성계가 임금이 되자, 전주고을의 자제들을 선발하여 숙위에 기숙시키면서 유달리 총애하였다(選子弟入宿衛以寵異之)고 기술해놓았다. 조선건국 직후부터 전주에 유학과 예학 진흥을 위하여 자제들의 교육에 최우선의 교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李瓊全의 記文에 어렸을때에 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어른들을 따라서 놀때에는 책읽는 것을 소홀히하였는데, 조선 건국 후에는 습속이 크게 변하여, 자제들이 향학에서 글을 읽고 성균관에 뽑히는 자가 시험때마다 7,8명에 이르고, 문과무과 급제자들이 과거시험에서 빠지는 수가 없을 정도로 과거급제자들이 많았다. 후진이 흥기하고, 庠塾에는 講誦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시분위기가 확 바뀐 것이다. 고려말 분위기는 풍속이 화려하고 사치를 즐겼는데, 조선초에는 鄉學이 흥기하면서 善을 즐기고 학문을 좋아하는 검소한 생활로 바뀐 것이다. (J)는 고려말 조선초의 전주사람들의 생활상이 확 바뀐 모습(其後大變)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F)처럼 남국의 인재들이 전주에 모여드는 곳이 되었다.

3. 全州風俗論

고려시대 이규보는 『東國李相國集』에서 全州祭龍王祈雨文(B)과 全州祭城隍致告文(C)을 남겼다. 천만다행이다. 두 제신문이 남아있기에 고려시대 전주의 풍속을 이해할 수 있다; (B)(C)가 전주정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1) 사월초파일 용왕굿(龍王賽)

4월초파일은 석가탄신일이다. 석가탄신일이 4월초파일에 거행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중기일 것이다. 정월대보름(음1.15) 上元燃燈이 4월초파일로 변경된 것이다. 全州祭龍王祈雨文은 4월초파일에 용왕에게 기우제를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기우제는 용왕의 처소인 용궁에서 거행되었을 것이다. 용궁은 하늘이나 바다에 있는 것인데, 전주에서도 기우제를 지냈던 용궁이 있었던 것이다. 1936년 전주 덕진에서 창해수교를 개창한 김현덕(龍華夫人)이 龍宮閣에서 용왕굿을 거행하였는데²³⁾ 그 곳이 덕진연못 무덤이다리 옆 한옥건물(현 옴팡집)이다. 이 용궁각에서 용왕굿을 거행하였다는 사실이 (K)기록이다. (K)伴水頭屏帳賽龍王은 용궁각이 지어지기 전에 무덤이다리 옆에서 용궁의 용왕에게 굿을 하였음을 말해준다. (B)에서는 용왕에게 기우제를 지낸 곳을 천지담(天之潭)이라 하였다. 천지담은 하늘

23)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전주용왕제연구』민속원, 2013

못이다. 하늘못은 하늘에 위치하는 용궁을 지칭하는 것인데, 왜 하늘못이 등장하는 것일까. 天之潭의 표현은 고려시대에 불교가 국교였기에 도솔천 내원궁 앞에 위치하는 연못을 龍宮이라 하고 그곳에는 용왕이 인간세계에 미륵출현을 예시하는 細雨를 내리게 하여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 주는 역할을 한다. 이 천상의 용궁에 거처하는 용왕이 그대로 지상으로 내려와 전주 덕진연못에 잠룡(潛龍)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D)에서 徐居正(1420 ~ 1488)은 덕진연못에 臥龍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彌勒佛國淨土世界가 전주에서 구현된 것을 말해준다. 전주부성이 兜率天內院宮이라면, 덕진연못은 龍宮이다²⁴⁾. 천상의 신성한 우주적 공간체계가 그대로 전주의 도심에서 구현한 것인데, 이러한 4월초파일에 덕진연못에서 용왕제는 불교적인 이상향 세계의 구현을 기원하는 祈雨祭였다. 전주용왕제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천년 전통의 전통제전이라 할 수 있다.

2) 전주단오제

전주단오제의 핵심은 덕진연못 물맞이와 단오절 성황제이다. 성황제는 성황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성황은 도시의 수호신이다. 고려는 지방분권적 성향이 강한 국가였다. 따라서 지방에서는 성주, 장군들이 독자적인 지방세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邑治守護神에게 집단적인 공동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C)-②는 관아의 아리들이 供奉을 받아서 酒饌을 갖추었다는 사실은 전주성황제가 國祭官祀였다는 점을 말해준다. 성황신은 도교적인 지방도시의 수호신이었지만, 곰발바닥과 코끼리발가락을 제물로 올릴 정도로 지체 높은 성황신이었다. 전주성황신의 권세는 전주사람들의 권세와 일치한다. 성황대왕이 김부대왕이었고, 김부대왕 일가가 전주성황신인 점을 고려하면, 경순왕 가족이 전주성황신이 된 것이다. 전주 완산성황신에게 1393년(태조2)에 啓國伯의 爵位를 내리고 있다. 계국백은 고려수도였던 개경의 송악신에게 내린 진국공의 공작 다음으로 높은 작위다. 성황대왕은 성황신의 권세와 작위는 전주사람들의 권세와 전주의 품격을 대변해준다. 따라서 전주의 단오제는 고려시대 전통을 가진 도시수호신에 대한 읍치제사였다. 전주 성황제는 용왕제와 함께 대표적인 전주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크다.

24) 송화섭, 「전주 전통문화도시의 우주적 공간체계」 『인문콘텐츠』 27집, 인문콘텐츠학회, 2012

V. 맺음말

첫째, 전주는 품격이 있는 격조높은 도시이다.

전주의 품격은 전주가 후백제 왕도였을때부터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가 고려시대 초기에 왕도였으니, 왕도(王都)의 전통은 지우개로 지워질 성질이 아니다. 전주는 고려시대부터 대도시(大都會)였으며, 조선후기까지 대도시의 면모를 유지하였다. 역사 기록에서 전주의 풍광과 물산유통이 한양과 흡사하다고 할 정도였다. 왕도의 전통이 있었기에 전라감영이 전주에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주는 좌도와 우도를 양쪽에 끼고 있는 자연지리 환경과 사통팔달의 내륙교통망과 바다와 연결된 수로교통망이 사람들을 전주에 모여들기 좋게 하였고, 각종 물자가 전주로 집하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전주는 항상 물산과 재화가 넘쳐나는 곳이었다. 그래서 전주 사대문밖의 장시는 열사교역(列肆交易)의 중심지가 되었다. 전주가 내륙에 위치하면서도 강해도시(江海都市)라고 표현한 것은 만경강의 수로교통을 통해서 해산물 유통과 해상교역이 용이하였기에 물화(物貨)가 항상 풍성한 도시였고, 재화유통이 활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둘째, 전주사람들은 격조높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고려시대에 후백제 왕도 사람들을 王京人으로 불렀다. 고려시대 이규보는 전주의 왕정인들을 衣冠士人으로 표현하였다. 의관사인은 격조높은 선비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의관사인의 전주사람들을 민불추박(民不樵朴)하다고 한 것이다. 민불추박은 한마디로 지적으로 세련되었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전주가 조선건국의 본향으로 발돋움하면서 인재양성의 교육도시로 변모하였고, 전주사람들의 품성에 상현리(尙儼利)가 붙게 된다. 향학의 발달이 전주에 인재들이 몰려들게 된 것이다(南國人才之淵藪). 조선시대 전주사람의 기질에 상현리(尙儼利)가 붙는다. 매우 총명하다는 뜻이다. 전주사람의 본성과 기질은 민불추박과 상현리의 두 문구로 요약될 수 있다. 고려시대 衣冠士人·民不樵朴과 조선시대 君子·尙儼利가 전주사람들의 인품과 품성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민불추박과 상현리는 한문으로 우리말로 해석하는데 다양성과 난해함이 따른다. 그런데 영어로 해석하면 간단명료하게 전주사람들의 기질을 이해할 수 있다. 민불추박은 sophisticated고 해석할 수 있고, 상현리는 clever로 해석된다.

품격은 품성과 인격을 말한다. 사람의 품성은 문화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주는 전주라는 공간에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도시의 기운이 있었는지, 그 기운을 받은 사람들은 기질을 갖게 된다. 기질은 땅의 기운을 받아서 형성된 정신이다. 따라서 기질이 곧 품

격이라 할 수 있다. 품격은 정신과 마음의 문제이다. 전주의 품격과 전주사람들의 품성은 어제 오늘 만들어진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남긴 역사의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었다.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 내내 역사의 행간에서 전주사람들의 품격은 민불추박과 상현리였다. 글로컬(Glocal)시대에 전주정신을 ‘sophisticated’ ‘clever’로 정의하는 것은 어떨까.

‘저항’보다 ‘풍류’, ‘직설’보다 ‘풍자’

- 예술에 드러난 전주의 정신

곽 병 창*

<목 차>

- I. 논의의 전제
- II. 전주 전통연회의 담당계층과 조직
 - 1. 관민상화(官民相和)의 표상
 - 2. 경계를 넘나드는 장인정신
 - 3. 감춰진 저항 또는 탈현실의 딜레땅띠즘
- III. 판소리에 드러난 전주정신
 - 1. 판소리는 왜 아름다운가?
 - 2. 추임새와 ‘끼어들기’의 본능
 - 3. ‘끼어들기’와 ‘어울리기’의 거리
- IV. 문인화와 극예술에 드러난 전주정신
 - 1. 예(禮)와 의(義), 그리고 탈속(脫俗)의 기개(氣概)
 - 2. ‘고발’과 ‘풍자’ 사이
- V. 결론

I. 논의의 전제 - 전주예술의 개념과 범주

예술에 드러난 전주의 정신을 탐색하기에 앞서서 전제해둬야 할 게 있다. 전주정신, 전주예술 등의 개념과 범주를 정하는 일이다.

‘전주정신’이라 할 때의 전주는 과연 어느 공간을 가리키는가? 우선 역사적으로 현재의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을 포괄하던 조선시대의 전주부를 생각할 수 있다. 일제에 의

*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해 전주읍(현재의 전주시 권역)과 전주군(현재의 완주군 권역)으로 나뉜 것은 1935년이다. 지금 전주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전주의 공간적 범주는 이 시기의 분할을 기점으로 한다. 완주군을 포괄하는 전주권역을 설정하자는 주장은 조선시대의 행정구역 단위인 부 개념을 유지하는 선에서 출발하자는 의견과 같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와 연관 짓는다면 미래의 통합형 전주시 개념과도 이어질 수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금 전주시민들의 기억과 의식 속에 살아있는 전주의 공간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둘 중 어느 기준을 따를 것인가? 예술행위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둘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현재의 전주는 조선후기 이후 상공업의 중심지로 발전해온 근대형 도시의 면모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전주는 당연히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었고 예술 창작과 소비의 왕성한 거점이었다. 이에 비해 현재의 완주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근대형 농촌공동체의 문화와 풍모를 간직해온 곳이라 할 수 있다. 서로 섞일 수도 있고 경계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전주예술에서 전주정신을 찾고자 하는 일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전주예술’이라 할 때 전주의 공간적 범주는 현재의 전주 지역을 바탕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시간적 범주의 문제도 사전에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전주예술의 범주를 어느 시점까지 확장할 것인가? 또, 지금 당대의 전주예술을 논의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 부분도 역시 현재 전주사람들의 보편적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전주예술의 범주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전주사람들의 정신과 정서에 영향을 미친 전주의 예술행위가 중시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조선후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주사람들이 창작하고 향유해온 예술행위를 대상으로 삼는 게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은 현재 행정구역상의 전주 권역을 공간적 범주로, 조선후기(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를 시간적 범주로 삼아 전주사람들에 의해 창작, 향유된 예술행위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 구체적 장르는 판소리와 산조, 풍류, 살풀이 승무 등을 중심으로 삼는 전통연희, 창극과 연극을 중심으로 한 극, 그리고 문인화와 서예를 중심으로 한 미술 등이다.

전주 예술의 개념과 논의의 대상을 이와 같이 정하는 이유는, 전주의 예술과 전주를 제외한 전북 지역 전반의 예술, 더 나아가 전라도 일반의 예술 사이에 의미심장한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또한 전주예술이 주변의 다른 지역에 비해 그만큼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음을 인식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주예술의 면모를 제대로 탐색하고 규명한 선행연구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나마 단편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들도 대체로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음악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른바 지역학의 위상과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의 예술행위에 대한 장르별 연구가 심화, 확산되어야 할 때이다. 그를 통해서 전주예술의 장르별 특징과 차별성, 그 안에 담긴 독창적 정신성, 지역성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당대의 지역예술 활동에 대한 전문적 비평과 학문적 천착이 왕성해지기를 기대한다.

II. 전주 전통연희의 담당계층과 조직

1. 관민상화(官民相和)의 표상 - <재인청(才人廳)>

많은 이들은 전주의 전통예술, 특히 전통연희를 대표할 장르로 판소리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전주의 도시정체성과 관련한 각종 설문과 행정의 가치지향에서도 ‘판소리’는 전주를 대표하는 예술로 굳건하게 자리 잡아 왔다.

전주가 가장 즐겨 말하는 도시의 이미지 속에서 전주시가 얻고 싶어 하는 상징은 이곳이 전통문화의 고장이며 역사도시라는 도시의미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화적 이미지는 ‘예향론’이라는 일련의 이미지로 조직된다. 물론 이 두 가지 이미지는 판소리, 한옥보존지구, 음식문화 등의 현실적인 자원으로 표상되고, (중략) 전주의 이러한 전략은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소리축제(판소리), 천년고도 이미지 강화, 호남제일문으로 상징되는 호남수부로서의 옛 영화 되찾기 등 다양한 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기획들은 역사도시 또는 예향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 관광자원을 개발하자는 시도를 담은 것이었다.¹⁾

이른바 예향론을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 근거가 곧 판소리인 셈이다. 판소리로부터 파생한 기악의 대표 격인 존재가 곧 산조이고, 판소리와 매우 유사한 바탕과 기원을 지니고 발전해온 무용예술이 곧 살풀이²⁾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호남지역 세습무의 예능적

1) 원도연, <예향 전주, 그 이데올로기와 현실>, 전주문화원 주최 심포지움 원고. 『전주는 과연 예향인가?』 2001. 『‘온·다라’ 정신 발굴 및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전주대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14년 10월 30일. 100-101쪽에서 재인용

2) “한말에는 야제의 춤이 성행했는데, 이를 금지하자 무당들이 기방으로 흘러들어가 기녀가 되었고, 단순한

유산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³⁾ 여기에 전주권번을 중심으로 계승, 발전해온 독창적인 승무도 전주의 전통연회를 대표할 장르라 할 만하다.

구한말 이후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전통연회는 이처럼 판소리, 가곡, 가사, 시조창 등의 성악, 시나위와 제례악, 산조 등의 기악, 살풀이, 승무 등의 춤으로 대별해볼 수 있다. 이들 전통연회는 그 뿌리와 성장 과정이 서로 유사하다. 이 뿌리를 지탱하고 있는 조직이 곧 이 시기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재인청>, <풍류방>, <권번> 등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관민상화의 정신과 계층을 넘나드는 융합적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후기의 전주관아는 전라감영과 함께 당대의 예술이 생성, 성장, 변화, 분화하면서 활성화한 상징적 공간이다. 이 두 관청은 동시에 최대의 문화소비시장이기도 했다. 특히 전주관아의 아전들은 전주지역의 전통연회를 후원하고 통솔하는 주체세력이었으며 오늘날 전주대사습놀이의 출발이라 할 '전주부 통인청 대사습'의 실질적 주관자이기도 했다. 이들은 대사습에 참가할 예인들을 모으고 훈련시켰으며 초창기의 대사습은 전주부의 아전들과 전라감영의 아전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시킨 결과물이었다. 이들 아전계층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19세기 전주지역의 전통연회를 담당했던 계층이 곧 무부들이다.

호남지역의 무부들은 주로 무업과 민간예능에 종사하던 자들이었지만 일찍부터 관청의 각종 행사에 동원되었고 이들이 만든 자치기구가 곧 재인청(才人廳)이다. 이 자치 기구를 통해 무부들은 관청행사에 맞는 다양한 예능장르를 창안하고 연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노력 끝에 탄생된 예능이 판소리, 삼현육각잡이의 제례악과 연회악, 줄타기, 땅재주 등의 장르였다.⁴⁾

이들 재인청 소속 무부들의 활동은 당대의 연회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무엇보다 이들의 활동이 주로 전주관아와 전라감영 등 관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따라서 이들의 예술행위가 관청의 행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예능행위로 이어졌다는 점, 재인청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중앙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주요 통로가 되기도 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민간의 굿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이들의 초창

허튼춤에서 출발한 살풀이춤은 호남지방의 소리광대들에 의해 판소리와 병행한 기방예술로 승화되었다” 정병호, 『한국춤』, 열화당, 1985, 39쪽.

3) “호남지역 세습무의 무당굿은 판소리, 기악산조, 한국무용 등의 전통예술을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영금, <전통문화의 원천으로서 무 문화의 갈래와 위상>, 『비교민속학』 44집, 비교민속학회, 2011.4. 384쪽.

4) 이영금, <조선후기 전주재인청 무부들의 판소리 활동>, 『국어문학』 53집 2012년 8월, 국어문학회, 103-104쪽.

기 예능활동이 관과의 결합을 통해서 좀 더 세련되고 정제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삼현육각’은 원래 굿판에서 연주되던 시나위음악이었으나 관청행사에 맞는 제례악, 길군악, 취타곡 같은 새로운 삼현육각 음악을 창안하기도 했다.

재인청의 광대들이 관청을 위한 연예활동에만 종사한 것은 아니다. 이들의 예능은 양반과 중인들을 포함하는 민간영역의 향유자들에게 폭넓은 인기를 모으고 있었고, 따라서 이들 계층이 선호하는 방향으로의 예술적 개변이 일어났다. 따라서 판소리 광대들에게 최대의 후원자가 되었던 양반 중인계층의 현실인식과 가치관이 판소리의 세계관과 미의식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전주의 유력한 관리들이었던 아전 계층과 재인청 소속의 광대들이 만들어낸 최대의 이벤트가 곧 전주대사습놀이이다. 예능적 기량이 뛰어난 전라도 호남 인근의 재인, 광대들은 너나없이 재인청에 가입했고 이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든 콘테스트가 곧 전주대사습놀이였던 셈이다. 그러므로 전주대사습놀이는 무부(광대)들의 신분상승을 위한 중요한 통로이기도 했고 또한 전주아전과 무부들의 욕망이 맞물려 활성화한 결과이기도 했다. 물론 무부들의 활동이 관청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재인청을 토대로 연마한 자신들의 예능을 수단으로 양반 부잣집 중인들의 모임이나 생일잔치, 향교의 제례 등에까지 참여하여 자신들의 경제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갔다. 이와 같이 재인청 소속의 무부들은 지방이나 중앙관청의 영역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양반, 중인 등의 향유층까지 확보하여 자신들의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시켜나갔음을 알 수 있다.⁵⁾

결과적으로 재인청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이 시기 공연문화를 이끌었던 이들은 전주와 전라도의 정서와 생각을 고스란히 체화하고 있던 아전들과, 빼어난 기량으로 당대의 예술애호가들을 사로잡고 있던 전문예인들이었다. 이들의 의식 속에는 관민상화의 정신과 신분의 경계를 뛰어넘는 공존의식,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능력, 예술적 기량의 연마에 투철한 장인정신 등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경계를 넘나드는 장인정신 - <풍류방(風流房)>과 <권번(券番)>

풍류방은 창우집단, 사당패와 함께 19세기 호남음악문화의 3대 축이다.⁶⁾ 이는 경제적

5) 위의 글, 106쪽.

이득이나 예능에 대한 강제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음악행위의 중심이며 비평과 창작이 가능한 공간과 단위를 이르는 개념이었다.

풍류방에는 조선후기 중인지식층이 새로운 예술 수용층으로 부상함에 따라 그들과 예술적 취향을 같이 하는 어느 정도의 시문의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사로이 예술을 즐겼다. 그들은 시조, 가곡, 가사 등 정악을 주된 향유 장르로 하였는데, 가사, 시조 등 성악곡에 능통한 사람들을 ‘가객(歌客)’이라 불렀고 가곡반주나 영산회상 등 기악곡에 뛰어난 거문고 연주자를 금객(琴客)이라 불렀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중인지식층만이 아니라 예술을 애호하는 사대나 예술적 소양을 지닌 중인 부유층들도 많았다.⁷⁾

조선 중기 이후 전국 각지에 조직되어 있던 향리 선비들의 ‘연유계(宴遊契)’가 이 풍류방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풍류호사가들의 모임으로서 광대와 기생 등도 부분적으로 참여한 모임이다. 전주의 풍류방은 전주지역의 양반 사대부 계층들 사이에 조직된 것으로서 서울과의 교류 또한 매우 활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풍류방은 20세기 이후 기악 중심의 ‘율회(律會)’, 시조창 중심의 ‘시우회(詩友會)’ 등으로 분화하였으며 이른바 무계 출신의 창우 집단들과도 잦은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 후대에 접어들수록 창우 집단 출신의 예인들이거나 여성음악가들의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져서 일제 강점기 이후 형성된 권번문화와 융합,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과거에는 풍류방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창우 집단 출신 음악가들도 대거 참여하였다. 예컨대 전주산은 전주 및 정읍의 풍류에 두루 참여하였다. 19세기까지 호남의 풍류방에서 여성음악가들은 신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교(藝敎)로서 남녀가 공존하고 있는데 비해, 20세기에는 공식적 직업으로서 기생이 등장하면서 경제적 보상과 관련하여 풍류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중략) 결과적으로 19세기 호남의 음악사회는 20세기에는 풍류방과 권번을 계기로 분화되었다 할 것이다.⁸⁾

전주 권번은 1939년에 설립되었다. 전주권번은 남원, 군산에 비해 늦게 설립되었으며 호남지역에는 이외에도 정읍, 목포, 광주, 순천 등에 권번이 설립되었다. 호남에서 권번이 생긴 지역은 문화적, 경제적으로 기예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만한 여유 있는 지역이었다.

6) 권도희, <호남지역 근대음악사 연구>, 『한국음악연구』 38집, 한국국악학회, 2005.12. 5쪽.

7) 신은경, <풍류방예술과 풍류집단>, 『문학과 사회집단』, 한국고전문학회 0권 0호, 1995. 174쪽.

8) 권도희, 위의 글, 18-19쪽.

전주의 경제적 성숙과 문화적 역량이 권번의 설립을 이끈 것이다. 권번 설립의 또 다른 배경으로 갑오경장 이후 신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免賤) 창우 집단의 예술적 역량을 들 수 있다. 권번은 특히 여성예인들의 동업조합과도 같은 역할을 담당했으며 법적인 대변 기구로도 기능했다. 하지만, 그 대상은 여성예인들에게만 국한하지 않았고 남성예인들에게도 활동 공간이 열려 있었다고 전한다.

물론 권번의 뿌리는 조선 후기까지 각 지방의 관아에 설치되어 기생들의 가무를 관장 하던 기관인 ‘교방(敎坊)’이다. 교방에서 노래, 춤, 악기 등을 익힌 기생들은 관변행사와 시정의 유흥에도 참여하였고 관기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들의 연행공간이 권번으로 바뀌었다. 이후 권번은 교육, 여흥, 공연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방 이후 현대까지 이 지역의 전문적 예능집단이 형성되는 큰 원천이 되었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관기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생들의 연행공간은 권번으로 이어져 내려왔고 그 도도한 전승의 물결은 오늘날 전통예술의 큰 영역으로 자리잡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전통예술의 중심부에는 기생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⁹⁾

19세기까지 동호인적인 성격을 지닌 이들의 비경제적, 비정례적 활동공간이었던 풍류방은 권번이 생기면서 상례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풍류방이 사업화되었다. 나아가서 (권번은) 창우 집단에 속했던 기악 음악가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 풍류와 구별되는 완제풍류의 독창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풍류방과 권번의 예술사적 기여를 살펴보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전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들의 예술활동이 동호인으로서의 선비집단(풍류방)과 전문예인인 재인집단(창우집단-교방-권번)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융합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전주권번은 그런 의미에서 구한말 선비들의 풍류 문화와 창우집단의 전문적 예능이 왕성하게 교섭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는 전주의 예술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대체로 전북지방은 풍류와 창우 음악이 비슷한 비중으로 향유된다는 점에서 창우 음악이 우세한 전남지역과 대비된다. 전북지역에서는 이른바 “한량고” 고수들이 소리문화의 발전에 기여했다.¹⁰⁾

9) 황미연, <조선후기 전라도 교방의 현황과 특징>, 『한국음악사학보』 제40집, 한국음악사학회, 2008, 624쪽.

10) 권도희, 위의 글, 23쪽.

19세기와 20세기 전반, 중반을 이끌어온 전주 예술의 담당계층은 풍류방과 권번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존재들이다. 이들은 전 시대의 신분적 경계나 남녀 차별 의식을 뛰어넘어서 당대의 예술적 수요에 충실히 부응하는 창작과 수련에 몰두해온 이들이다. 동시에 이들의 정신적 바탕에는 탈현실적 여유와 풍류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게다가 예술적 완성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신분이나 출신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교류하고 이를 통한 적극적 융합을 도모한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 할 것이다.

3. 감춰진 저항 또는 탈현실의 딜레땅띠즘 - <풍류방(風流房)> 문화

‘풍류(風流)’의 사전적 정의는 “자연의 경치를 즐겨 시나 노래를 읊는 등 풍아(風雅)를 즐기는 것, 관악합주나 소편성의 관현합주를 가리키는 말, 정악(正樂)을 가리키는 말, 속악(俗樂)과 대비하여 씀”으로 밝혀져 있다. 전주사람들이 지닌 풍류적 정서의 바탕에 조선 중기 이후 권력으로부터 떨어진 몰락양반들의 소외감과 울분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발적으로 권력을 멀리한 향촌 선비들과 조선후기 새로운 상공업의 중심이 된 중인 계층의 경제적 풍요가 바탕이라 하기도 한다.

전라도 지역에 풍류문화가 성행한 배경에 경제적 여유로움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많은 이들의 생각이 일치한다. 국가재정의 절반을 담당할 정도로 넉넉했다는 전라도의 경제력이 이 지역의 양반이나 중인 부민, 지식인들에게 넉넉한 삶의 토양을 제공하였고 이 토양이 곧 예술에 대한 애착과 옹호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생활이 넉넉하면 심성이 온유해지게 마련이요, 온유한 마음은 멋을 챙기게 되고 멋은 예술로 발전된다.¹¹⁾

‘전주와 전라도는 그래도 경제적 형편이 타 지역에 비해 나은 편이었다. 따라서 전주에 유독 한이 많아 판소리가 발전했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 (중략) 풍류는 삶을 관조하고, 멋스럽고 운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풍류문화에는 배타적이지 않고 더불어 살며, 넉넉함과 포용력이 있으며, 느긋함과 여유, 절의와 의리, 점잖음과 부드러움이 있다. 사람살기 좋은 땅이라는 전주 이미지도 그런 풍류정신이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저항에서 풍류가 나왔다고 보다는 절의정신과 삶의 상대적 여유에서 풍류문화가 발전했다고 본다’¹²⁾

11) 조병희, 『완산고을의 맥박』 (2001. 신아출판사). 『‘온·다라’ 정신 발굴 및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전주대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14년 10월 30일. 8쪽에서 재인용

12) 이동희, <전주 사불여(四不如)의 정신>, 『‘온·다라’ 정신 발굴 및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전주대

풍류를 즐기던 이들의 활동공간이 곧 풍류방이다. ‘풍류방’이란 세상의 속된 일을 떠나서 음악과 함께 운치 있고 멋있게 인생을 즐기려는 음악애호가들이 모여서 연주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일명 ‘율방(律房)’이라고도 한다.¹³⁾ 또한 여기서의 음악은 실내공연에 적합한 것으로서 현악기를 중심으로 하는 ‘줄풍류’를 의미한다.

17-18세기의 풍류방 문화는 양대 전란 이후 전쟁의 상처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조선전기와는 다른 양상의 새로운 문예부흥의 기운을 주도한 공간이다. 조선후기 풍류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계층은 실학과 중심의 양반계층, 경제적인 안정과 양반들의 소양을 동시에 갖춘 중인계층, 음악적 연주기량이 뛰어난 악사들이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중인’들이다.

중인계층은 양반과 서민의 중간자적 위치에 놓임으로써, 상류층의 양반문화와 하류층의 서민문화를 적절히 수용하고 자연스럽게 두 가지 문화를 포용하는 문화적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음악 수용층을 형성하고 있는 중인계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¹⁴⁾

이처럼, 전주의 풍류방 문화는 예술적 창의력과 기량, 비평적 안목을 지닌 향반 세력이, 경제력을 지닌 중인세력의 매개적 활동을 통해 창우 집단의 예능을 수렴, 소통해온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향촌의 양반들은 풍류방을 중심으로 스스로 예술을 창작, 연마, 비평하면서 중앙과 각 지방의 선비들과 교류하였다. 자의든 타의든 이들은 중앙정부의 핵심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양반(鄉班 또는 殘班)들이었기에, 세속적 권력욕이 비교적 적었을 것이고 그 결과 예술에 대한 애호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깊어졌을 것이다. 19세기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풍류방에는 기생, 재인 등도 부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 중인계층과 향반들은 창우 집단의 예능을 수용하고 지도하거나 정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좀 더 밀접한 교류를 이어나갔다. 고창의 아전 신재효의 역할, 전주대사습놀이의 성립과정 등에서 이 두 집단의 교섭 양상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 이후에 풍류방은 율회, 시우회 등으로 분화하였다. 이후 권번 문화와 상호 교섭하면서 창우 집단과의 적극적 공존이 이루어졌다.

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14년 10월 30일. 24쪽

13) 신은경, 『풍류』, 보고사, 2000, 599쪽. 문주석, 위의 글에서 재인용.

14) 문주석, <조선후기 풍류방에 관한 소고(小考)>, 『시조학논총』 18권 0호, 한국시조학회, 2002, 254쪽.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삼아 전주 풍류방 문화의 특질과 그 정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와 ‘악’을 숭상하는 선비정신, 그리고 높은 예술적 수준과 심미안이다. 공자는, ‘악(樂)’에서 인(仁)의 발현가능성을 파악하고 그 예술성과 교화성에 주목하였다. ‘악(樂)’은 예(禮)와 더불어 이상적인 정치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인격완성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자 치세의 수단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확립시켜 놓았다.¹⁵⁾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선비들에게 예술적 소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민중예술을 수용하는 양반 선비들의 가치관과 자세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주지하다시피 민중연희로 출발했던 판소리가 계층을 뛰어넘는 예술로 발전하는 데에는 이른바 향반들의 역할이 컸다.¹⁶⁾ 이 과정에서 전주는 철저한 소비도시/수용공간으로 기능했다. 초기 판소리의 민중성이 탈색되고, 예와 악을 숭상하는 전주 양반의 정서에 어울리는 부분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이다. 현전하는 판소리의 주제의식이나, 전주 풍류문화의 중심이라 할 제례악, 시조창 등에서 그 대표적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풍류방 문화의 중심세력들은 인간적 감성의 자유로운 발산, 인간적 고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예술행위에 몰두하였다. 당대의 풍류방 문화를 주도한 양반들은 대체로 실학적 세계관을 지닌 이들이었고 이들은 인간 중심의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예술 행위에 대한 옹호 정신을 지닌 이들이었다.

조선후기 풍류방의 풍류행위는 인간중심의 음악을 지향한다. 이는 (중략) 조선전기의 의식적, 관념적 궁중음악의 틀에서 실학의 영향을 받은 현실적, 감성적 음악의 구조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의 절제에서 감정의 표현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⁷⁾

살풀이춤, 승무 등에서 느껴지는 구도자의 진한 인간적 고뇌나, 시나위와 산조가 보여주는 세속적 욕망과 인간적 감정에 충실한 연주 기법 등은 이와 같은 세계관의 발현이라 할 만하다.

셋째, 탈현실의 딜레땅띠즘과 체제 내적 공동체의식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100여 년 동안은 한국사 최대의 격동기였고 그 중심에 전라도가 있었다. 하지만 전주를 둘러싼 전

15) 한홍섭, <풍류도, 한국음악의 철학과 뿌리>, 『인문연구』 49권 0호,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292-293쪽.

16) 판소리와 창극은 그 중심 관객층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변화해온 장르이다. 초창기 판소리 청중은 연희로서의 판소리를 즐기는 청중이었고, 그 이후 진지한 판소리 청중들(양반들)에 의해 명창의 시대가 등장하였다. 서유석, 「연희에서 예술로 : 판소리 청중의 탄생과 변모의 의미」, 『판소리연구』 32집, 2011,

17) 문주석, 위의 글, 268쪽.

라도 지역이 수탈과 저항의 반복으로 점철된 이 기간에 전주의 지식인 그룹들이 선택한 예술 행위의 울타리는 이와 같은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둔 것이었다. 이는 이른바 전라도 지역의 저항정신과 대동적 공동체의식을 그대로 전주의 정신이라 말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전주의 독특한 문화적 지형과 경제적 위상은 예술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취향을 지닌 지식인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전주의 지식인들이 누리고 지향했던 소리와 춤, 기악 등의 연희 전통에서 체제나 권력에 대한 저항정신이나 계층을 뛰어넘는 공동체의식을 읽어내기란 쉽지 않다.

전주의 문화코드로서 저항과 풍류는 대립적이다. 저항과 풍류가 “한 바탕 한 뿌리에서 뻗은 두 가쟁이”라 한다 해도 전주에서 저항의 주체는 풍류적이지 않았으며, 풍류에서 저항 정신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전주의 풍류는 패배자의 쓰디 쓴 쓸개즙을 먹고 자라난 피안의 언덕일 뿐이다.¹⁸⁾

민족사 최대의 격동기를 소리와 연주, 춤을 즐기며 살아낸 전주 풍류객들의 정서 깊은 곳에 현실에 대한 울분과 저항의 기운이 어떤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었는지 짐작할 길은 없다. 풍류방-권번으로 이어지는 전주 예술의 실제적 면모에서도 저항의 기미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세태의 변화에서 비껴나 있으려는 탈현실의 딜레땅띠즘이 더 두드러진다. 풍류(도)의 본래적 지향점은 현세에서의 공동체적 조화를 추구, 현세에서의 삶의 가치를 긍정하고 찬미하는 태도이다. 하지만 조선후기 '풍류방'의 공동체의식은 계층을 초월하는 이상적 공동체가 아니라, 동류집단 내에서의 공동체적 조화를 추구하는 체제내적 공동체의식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주 풍류방 문화의 정신적 지향을 요약하자면, ‘예’와 ‘악’을 숭상하는 선비정신, 포용력, 융합적 세계관, 실사구시적인 사고와 인간중심 예술에 대한 애호, 탈현실적 딜레땅띠즘 등을 들 수 있다. 이른바 저항정신을 중심에 두는 전라도 전체의 정신적 맥락과 비교하여 더욱 세밀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18) 홍성덕, <전주정신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 『‘온·다라’ 정신 발굴 및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전주 대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14년 10월 30일. 70쪽.

III. 판소리에 드러난 전주정신

1. 판소리는 왜 아름다운가?

전라도의 소리는 그 자체가 이미 잔치이다. 그 가운데 특히 판소리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한 판 신명으로 풀어내는 독특한 장치들을 지니고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몇 개의 장치는, 장단, 이야기, 창법, 더늠, 추임새 등일 것이다.

첫째, 판소리가 지닌 가장 두드러진 음악적 특징은 장단(長短)이다. 아마도 지구상의 전통 성악 가운데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리듬을 자랑하는 음악이 바로 판소리일 것이다. 인류 공통의 리듬이라 할 두 박자(duple rhythm)와 세 박자(triple rhythm)가 판소리 안에서는 자유자재로 서로 넘나들면서 발휘된다.¹⁹⁾

둘째, 창법의 독창성 또한 판소리의 매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유럽 교회의 실내 음악으로부터 발전한 맑고 풍성한 성량의 클래식 창법과는 너무도 다른, 듣기에 따라 불편하고 거친 이 발성법이 판소리를 판소리답게 하는 으뜸의 매력이다. 이처럼 거칠고 불편한 방식의 발성법을 통해 얻어내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그 안에 수천 년 동안 커켜이 쌓여 온 개별 종족들 삶의 우여곡절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곱고 세련된 발성법만으로는 따라잡기 어려운 절실함과 호소력을 지닌다.

셋째, 판소리는 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종합적 공연예술이다. 판소리는 그 자체로 완결된 구조를 지니는, 한 편의 서사로서 손색이 없다. 주인공의 신비한 탄생으로부터 시련, 극복, 재회, 해피엔딩 등의 과정을 거치는 오래 된 ‘로망스(romance)’의 틀을 잘 유지하고 있다. 어디선가 들어 본 듯한 이 익숙한 이야기 구조가 동서양의 많은 이들로 하여금 판소리에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장치인 것이다. 물론 성의껏 그 이야기를 들려 줄 때에 가능한 일이다.

그뿐인가? 판소리는 그 안에 이미 숱한 다른 소리들을 끌어 담고 있는 소리의 보물창고 같은 존재이다. 대충 헤아려보아도, 슬픔으로 치면 이별가와 상여소리를, 기쁨으로 치면 돈타령, 눈 뜨는 대목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이밖에도 선비들의 여유와 풍류가 느껴지는 시창이나 가곡, 생산 현장의 투박한 민중성을 드러내는 농부거나 뱃노래 류(類), 더욱 거칠고 현장감 넘치는 각설이타령이나 전라도 특유의 말맛으로 막 빚어낸 욕설, 비어 등에 이르기까지, 판소리는 온갖 소리들이 질편한 시장의 좌판과도 같다.

판소리가 이처럼 소리의 보고가 된 것은 지난 시기의 명창 광대들이 당대 현실을 직시

19) 백대웅, 『인간과 음악』, 어울림, 2001. 4장.

하면서 동시대 사람들의 미감을 수용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덕이다. 그들은 그런 점에서 시대적 변화에 매우 명민하게 반응할 줄 알았으며, 당대 대중들의 예술적 욕망을 잘 움켜 담아서 이를 소리로 재현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그것이 이른바 술한 명창들에 의한 창의적 各片(version)으로서의 ‘더늌’이다. 더늌의 본질적 매력도 바로 그것이다. 판소리는, 전해 준 대로 배운 대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그 한없는 반복으로 지탱해가는 음악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판이 벌어지던 바로 그 시절 그 백성들의 슬픔과 기쁨이, 소리꾼의 입을 통해 켜켜이 덧입혀져 가는 게 소리의 참맛이고 그 나이에 하나하나가 결국 더늌이다.²⁰⁾

이것은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우 집단과 선비(아전) 집단의 교류와 접합으로 만들어진 적층적 집단의식(意識)의 발현이기도 하다. 판이 벌어지던 당대의 시공에서 백성들의 슬픔과 기쁨이 소리꾼의 입을 통해 켜켜이 덧입혀져 온 흔적이 곧 판소리이다. 그 적층의 기억을 표상하는 용어가 곧 더늌이다.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소리 광대들은 계층과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당대 민중들의 가장 절박한 염원과 미의식을 끌어 담아서 기존의 틀에 ‘더 넣을’ 줄 알았던 이들이다. 그뿐인가? 이들이 더 넣자고 들고 나온 새 각편(各片, version)들은 다수 청관중의 공평한 선택과정을 거쳐 마침내 정전(正典, canon)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러니 ‘더늌’의 정신이야말로 개방적 소통의식과 민주적 합의과정을 추구해온, 가장 전주다운 예술적 감성의 표상이라 할 만하다.

2. 추임새와 ‘끼어들기’의 본능

판소리의 아름다움이 지닌 이 모든 비밀의 열쇠들에 결정적으로 덧붙여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추임새’의 존재이다. 판소리 연행현장에서 관중들은 수동적인 감상자가 아니다. 그들은 수시로 이야기에 개입하고 말대꾸하기도 하며 극중 인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침내 그들의 슬픔과 기쁨에 흔쾌히 끼어들어 함께 어울리는 존재들이다.

판소리관중은 판소리광대, 고수에 대하여 상대역을 수행한다. 판소리관중은 광대, 고수가 공연 공간과 극 공간을 반복, 교체해 나가면서 연기, 역할을 수행할 때 이에 조용하는 참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장난스런 말로 받거나 추임새를 하거나 박수를 보내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²¹⁾

20) 광병창, 『연희, 극, 축제』, 도서출판 월인, 2007. 363-364쪽.

21) 홍순일, 「판소리창본의 공연문화콘텐츠적 성격」, 『공연문화연구 16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8. 213쪽

기실 관객이라는 개념은 서구적인 무대 관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전통연희에서의 관객은 공연 시간 동안 숨 죽여 배우들의 행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었다. 일설에 의하면 판소리광대가 관객을 향해 소리를 하게 된 것도 근대식 극장의 도입과 함께 변한 모습이라 한다²²⁾. 판소리광대는 주로 고수를 바라보고 연행을 하고 그 주변을 두르고 있던 청중들은 광대의 이야기에 추임새로써 화답해가며 판을 만들어 갔으니, 청중의 존재야말로 판소리연행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이었던 셈이다.

나 아닌 다른 존재인 이웃의 기쁘고 속상한 일에 보내는 가슴으로부터의 연대감, 그리고 몸으로 함께 감응하여 드러내는 완벽한 동질성의 표현이 곧 추임새의 바탕이다. 굳이 이름 붙이자면 전라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 있는 이와 같은 특성을 ‘남의 일에 끼어들기’ 그리고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판소리’라는 독특한 전승 연희의 연행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객/청중과 연희자 사이의 역동적 교감의 바탕에는 몸짓(춤)보다는 이야기를, ‘감상하기’ 보다는 ‘끼어들기’를 즐겼던 조상들의 심성이 깔려 있다. 그것은 곧 다른 존재들의 삶에 대한 ‘본능적 궁금함’이다.

풍요와 수탈의 기억이 엇갈리는 자리에서 만들어진 감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자연과 어울려 즐길 줄 알고 그 아름다움을 찬탄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귀 기울이고 끼어들어 함께 울고 웃기를 주저하지 않던 게 전주 사람들이다. 판소리 연행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라도 사람의 심성은 대상인 타자의 슬픔과 기쁨을 나의 그것으로 끌어안으면서 그 한에 동참하고, 그 한을 광대, 고수 등 연희자들과 함께 풀어내고 있는 한 판의 신명풀이를 통해서 가장 잘 확인된다.

판소리를 남들보다 좀 더 잘 이해하고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선조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에 대한, 남다른 본능적 정서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예사롭지 않게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전라도 말로 액상헌 것들 곁에 앉아 같이 부둥켜안고 울거나, 신명나는 일에 빠지지 않고 끼어들어 함께 놀 줄 아는 자세가 곧, 전주의 판소리, 판소리의 전주를 키워 온 밑둥이다. 그리고 그 자세는 결코 학습을 통해, 또는 제도나 권력의 강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지극히 자발적이고 본능적인 ‘집단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ness)의 소산이다.

22) ‘판소리에서 고수와 광대의 위치는 ‘마주보는 방식’으로부터 ‘고수가 광대의 왼쪽에서 광대를 보고, 광대는 청중을 향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서구식 극장의 도입과 대등한 자격과 권리를 지닌 유료청중의 등장이라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유도되었다.’ 최정선, 「판소리의 연행예술적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1990. 157쪽.

3. '끼어들기'와 '어울리기'의 거리

판소리 연행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끼어들기'는 곧 타자에 대한 관심, 이야기에 대한 관심, 공감의 유전자가 드러난 결과이다. 하지만, '끼어들기'는 일차적으로 공연자와 청/관중의 존재가 각자 독립적인 영역으로 나뉘어 있는 정황을 전제로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끼어들기'는 공연자인 대상을 나 아닌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근원적 '타자화'로부터 출발하는 감성이다. 그만큼 판소리 연행자는 전문화된 고급 예능의 보유자이고 그들이 지닌 소리기량은 청관중이 쉽게 따라하며 어울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경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소리를 즐기는 심성은 전문적 기량을 지닌 예능인을 대우하고 그 이야기에 공감, 격려하는 정서가 바탕이다.

이 점을 좀 더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주를 둘러싼 농촌공동체의 대표적 예술행위라 할 풍물굿의 정서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판소리를 향유하던 전주의 청중들과 풍물굿을 즐기던 농촌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의미심장한 정서적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주 청중이 대상을 객관화하여 바라보면서 함께 울고 웃는 공감의 정서에 익숙한 반면, 주변 농촌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대상과 주체가 나뉘지 않는 공동체적 예능에 더 심취해있었다.

풍물굿에서는 청관중과 공연자 사이에서 서로를 '타자화' 하는 과정이나 장치가 전제되지 않은 채로 공연의 전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일차적으로 가락이나 뒷굿의 전수를 위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전수 주체와 객체들의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면 다 같이 어우러져 판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한다. 뿐만 아니라 공연과정에 있어서도 청/관중은 수동적인 감상자의 자리를 벗어나서 굿에 혼연일체가 되어 참여하는 적극적 주체로 변환한다. 이것은 이들 공연자와 청관중이 사회경제적으로 동질감을 지닌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풍물굿은 공연에 참여하는 관중의 존재를 '비움과 채움의 원리'로 조직한다. 다시 말해 구경꾼으로 존재하는 관중을, 반복되지만 다양하게 변주되는 리듬, 다소 정형화된 진법 속에서 발산되는 우발적인 몸짓에 의해 축적되는 신명의 굿판에서, 공연자와 한 몸을 이루어 공연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존재로 변화시킨다. 나아가 공연자의 역할을 반주자/악사로 축소, 전이시키는 반면, 관중을 공연의 외부가 아닌 공연 내부의 영역에서 일군의 공연자로 조직한다. 그리하여 공연에 참여할수록 더욱 다양해지고 깊어지는 신명을 통해 목소리와 몸짓과 즉흥 연기, 즉 관중 자신의 몸에서 발산하고 다시 수렴되는 '리즘'(rhizome, 뿌리줄기)적 공연물을 생성하는 창조자의 존재로 변화시킨다.²³⁾

23) 이영배, 『교정과 봉합, 혹은 탈주와 저항의 사회극』, 아카넷, 2008. 290쪽.

이들이 공연 과정에 보여주는 역동적인 반응은 소리판에서의 ‘끼어들기’를 넘어서는 ‘어울리기’의 감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풍물굿이야말로 풍물이 지닌 단순한 리듬의 무한 반복과 그를 통해 야기되는 집단적 황홀경, 그리고 마침내 공연의 일부가 되어 가는 관객들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공연자와 청/관중은 일시적으로나마 공동체로의 회귀를 염원하는 잠재적 욕망을 재현해내고 스스로 누리게 된다. 이를 통해서 전라도 감성의 핵심이라 할 ‘어울리기’의 즐거움을 매순간 만끽하는 것이다.²⁴⁾

판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주의 정신은 대상에 대한 공감과 궁금함, 연민 그리고 개방적 소통의식과 민주적 합의과정에 대한 옹호 등이다. 하지만, 공존의식과 공동체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데 어울리기를 추구해온 전라도의 보편적 정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전주에 많았다고 전해지는 ‘귀명창’의 탄생 과정과 그 역할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귀명창’이란 판소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감식안을 지닌 고급 청중을 일컫는 표현이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웅만한 소리의 사설에 통달하고 그 세세한 의미와 맥락, 출전 등에 해박한 존재들이다. 거기에 음악적 소양 또한 풍부해서 장단의 변화와 성음, 창자들마다 천차만별인 ‘시김새’의 미묘한 차이도 감지할 수 있는 이들이었다. 결국 이들 귀명창은 소리를 듣고 품평도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비평가적 존재’였으며²⁵⁾, 이들의 미의식이 판소리 광대들의 예술행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자명한 일이다.²⁶⁾ 전문적인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못 했을지라도 필요하면 언제라도 북을 잡고 반주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귀명창’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른바 ‘귀명창’의 뿌리는 ‘풍류방’과 ‘권번’ 문화에서 찾을 수 있으니, 앞장에서 언급한 ‘한량고(閑良鼓)’의 존재와 연결지어 다시 고찰할 만하다.

이들은 누구보다 판소리를 애호하고 후원한 존재들이었고 그 예술적 아름다움에 깊이 공감하며 공연과정에 부분적으로 동참하기도 한 이들이다. 하지만 이는 대상인 창자들과의 일정한 거리를 전제로 한 것이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들이 이야기를 좋아하

24) 광병창, <끼어들기와 어울리기-축제와 연희에 드러난 전라도의 감성>, 『감성연구 제4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2.2. 109쪽.

25) 김기형, <진정한 귀명창 시대의 도래를 기대하며>, 『문화예술』 통권 313호(2005년 8월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5. 117-120쪽.

26) ‘19세기 후반기 이후 판소리 창자들은 소수의 귀명창인 향유층의 미의식에 부합하는 소릿조를 구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성기린, <유성기음반을 통해서 본 당대 판소리 향유층의 미의식>, 『판소리연구』 30권, 판소리학회, 2010년 10월, 168쪽.

고, 남의 삶에 귀 기울이며 그 희로애락에 정서적으로 공감하고자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 뿌리내린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과 모종의 선민의식을 모두 벗어버리고, 풍물굿에서처럼 공연자들과 혼쾌히 하나가 되는 ‘어울리기’의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IV. 문인화(文人畵)와 극예술에 드러난 전주정신

1. 예(禮)와 의(義), 그리고 탈속(脫俗)의 기개(氣概) - ‘문인화(文人畵)’의 정신

많은 이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전주의 풍경 중 하나가 바로 음식점, 다방, 술집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림과 서예 작품들이다. 개화기 이후 성장한 우리나라의 근대도시들 가운데 전주는 남달리 서화를 애호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자타가 인정하는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 후기 이후 이 지역에서 꾸준히 펼쳐져 온 문인화의 전통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문인화는 한 마디로 문인 즉 선비들이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다. 문인화는 남종화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기에 ‘남종문인화(南宗文人畵)’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된다. 전통적으로 문인화에서는 이른바 화공들의 작품에 비해 천연스러움, 자연스러움(平淡天真)을 더 높이 평가해왔다. 간단히 말해서 문인화란 문인들이 즐겨 행하던 여기(餘技)로서, 자신들의 학식이나 문기(文氣)를 조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순수하며 기법적으로도 화공의 기법과는 다르다.²⁷⁾ 이밖에도 문인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용어로 그림에 시를 곁들이는 기법(畵中詩)이나, 시상과 아취(雅趣), 기운생동(氣韻生動), ‘신사(神寫)’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그림에서는 사실적인 직업화보다 지적이고 철학적이며 ‘사의적(寫意的)’ 표현이 두드러진다. 이들의 사유방식은 문학과 회화의 합일(詩畵合一)에 있었다.

남종화의 창시자라 불리는 왕유(王維, 701-761)는 그림은 소리 없는 시(無聲詩)이며, 시는 소리가 있는 그림(有聲畵)이라 하였다. 또 소식(蘇軾, 1036-1101)은 시중유화, 화중유시라 하였고, (중략) 따라서 그림에 대한 많은 전문적 기법과 형식의 숙련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격무성(無格無性)의 순수 아마추어적 성향과 그 속에 담겨지는 탈속적 문학성, 철학성,

27) 한정희, <문인화의 개념과 한국의 문인화>, 『미술사논단』 4집, 한국미술연구소, 1997.1. 44쪽.

인격성으로서 일격의 경지를 더 높이 평가하였다.²⁸⁾

전주를 포함하여 전라도에서 주로 문인화를 그려온 이들은 조선 중기 이후 중앙정치에서 소외된 ‘사림(士林)’의 후예들이다. 이들은 연이은 사화(士禍)로 인하여 실각한 이들로써, 향촌에서 칩거하며, 교육, 저술에 몰두해왔다. 또한 대체로 도학적 성격을 지니는 호남유학의 주역들이었다. 이들의 면면은 17세기의 이제현, 이명육, 석계 최명룡, 진경화풍의 대가라 꼽혔던 최북 등에 이어서, 18세기에 들어서면 이종현의 산수, 초충(草蟲), 화훼(花卉), 이덕무의 영모 등으로 이어지고, 19세기 이일섬의 포도, 이형록의 책거리, 이경립의 산수, 인물화 등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지나는 동안 전주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한 이들로는 성리학과 천력, 산수, 시서화에 두루 능통했던 석정(石亭) 이정직(1841-1910, 김제), 석정의 제자로서 사군자, 난에 뛰어났으며, 심농과 호산의 스승이었던 벽하(碧下) 조주승(1854-1903, 전주), 석정과 간재 전우에게 수학한 당대의 거유(巨儒)이자 창씨개명, 단발령을 거부한 서예의 대가 유재(裕齋) 송기면(1882-1956, 김제-전주), 그의 직계로서 서예, 대나무그림의 대가인 강암(剛巖) 송성용(1913-1999, 전주), 예(禮), 서(書), 악(樂), 사(史)를 두루 섭렵하고 서예에 더욱 매진한 석전(石田) 황욱(1898-1993, 고창-전주), 호산(曉山) 이광렬(1885-1966, 전주), 유당(酉堂) 김희순(1886-1968), 심농(心農) 조기석(1876-1935), 유하(柳下) 유영완(1892-1953) 등이 있다. 물론 이보다 앞서 서예에만 몰두하면서 실험적 서법으로 일가를 달성하고 호산(湖山) 서홍순(1798-?)의 스승이기도 한 창암(蒼巖) 이삼만(1770-1847, 전주)이 끼친 영향도 심대하다.²⁹⁾

이들의 서예와 문인화 작업에 드러난 정신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문인화와 서예에서는 기교보다 선비의 내면세계를 표출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들은 사물의 외면을 닮도록 표현하는 ‘형사(形似)’를 넘어서 창작주체의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 작품에 드러나는 ‘사기(士氣)’, ‘서권기(書卷氣)’와 내적 의미의 ‘신사(神似)’를 중시하였다. 따라서 학문과 시문, 서화에서의 성취를 동일시하는 전통적 선비정신을 추구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창작에 임할 때는 창작주체의 품은 뜻이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것보다 앞서야 한다는 의미의 ‘의재필선’(意在筆先)의 사유를 더 강조하였다³⁰⁾. 예술적 기교가 그 안에 담긴 뜻보다 더 중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인 셈이다.

28) 송하경, 『서예미학과 신서예정신』, 도서출판, 다운샘, 2003. 285쪽.

29) 이철량, <호남의 글씨와 그림>, 『뜻이 도달하면 붓은 못 미쳐도』, 전주역사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 “호. 영남 선비들의 예술세계” 특별전 기념도록, 전주역사박물관/한국국학진흥원, 2007. 201-215쪽.

30) 문영란, <문인화의 프리즘을 통한 화예의 예술정신>, 『한국화예디자인학연구』 24권 0호, 한국화예디자인학회,

무엇보다 이들이 추구한 세계는 성리학적 이상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지치(至治)’의 경지였다. 구한말 이 지역의 많은 선비들이 실학적 가치관에 경도되어 있었다 해도 그 근본적 가치지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³¹⁾ 따라서 개화에 대한 열망과 기독교를 비롯한 낯선 가치관의 유입, 근대적 민중혁명과 이에 대한 가혹한 탄압, 일제에 의한 국토의 강점을 겪는 동안 이들은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 단발령에 대한 거부, 일제에 대한 항거의식 등은 이와 같은 가치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식민지, 해방,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의 유교적 이상주의에 대한 열망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구시대의 가치관이라 폄하될 만한 예와 의는 선비적 삶의 간결함과 시대적 불의에 대한 의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치는 이들이 창작해내는 그림과 글씨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 결과 이들 문인화의 흐름은 오래 된 정신적 규범이 급격히 희미해져 가는 현실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예와 의, 염치 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고 세속적 욕망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품격 높은 전주의 얼굴이 되어 곳곳에 의연하게 남아있다. 가히 아마추어리즘과 아카데미즘의 올곧은 결합이라 부를 만하다. 전주의 대중음식점에 서화가 많이 걸려있던 시절의 풍경은 역설적으로 이들의 예술작업이 자본의 욕망으로부터 아직 자유롭던 시기의 자취인 셈이다.

2 ‘고발’ 과 ‘풍자’ 사이 - 창극과 연극의 정신

창극과 신극 등 연극 분야에서의 전주예술은 위의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그 역사가 짧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그 속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현재에 이르러 전주 예술의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창작과 향유 행위 또한 매우 활발하므로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 5,6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북의 연극을 주도해온 것은 창극, 신파극 등이었다. 이 창극의 중심세력은 오랜 시간 동안 주로 ‘--협률사’, ‘--창극단’ 라는 이름으로 각지를 돌아다니며 공연활동을 펼쳐왔다. 이 시기의 주된 레퍼토리는 기존 판소리를 고스란히 무대극화하거나 야담, 설화를 바탕으로 한 창극 등이었다. 이 시기에 이 지역 출신의 명창, 창극인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전국을 무대로 순회공연을 하는 등 창극계의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다.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

2011, 185쪽.

31) “실학은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성리학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고, 성리학의 범주 속에서 사회개혁을 도모한 것이었다.” 김형수, <영호남 사람의 교유>, 『뜻이 도달하면 붓은 못 미쳐도』, 전주역사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 “호.영남 선비들의 예술세계” 특별전 기념도록, 전주역사박물관/한국국학진흥원, 2007. 177쪽.

동해온 이들로 고창 출신의 김소희(화랑창극단-여성국악동호회-국립국극단), 남원출신의 강도근(동일창극단), 정읍 출신의 김원술(여성국악단-신라국악단-대한국극단), 최난수, 김연수, 이성근 등이 있다. 특히 전주 출신의 홍정택과 김유앵은 [우리국악단]에서 활동하면서 주로 전라도 일대를 순회 공연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이들의 주된 레퍼토리는 장화홍련전 등의 설화물, 장희빈, 사도세자 등의 이조사극, 전통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이조창극 등이었다.³²⁾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독립국악원 창극단이 설립된 이후 전주지역의 창극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공연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그 레퍼토리는 대체로 이전 시기 민간창극단들의 공연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체로 대표적인 전승판소리들을 무대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우에도 새로운 해석으로 그 주제상의 현대적 개편을 시도하는 일은 드물었다. 대신 극장상황과 연출가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형식적 실험을 시도함으로써 이전 시기 창극과의 차별성을 꾀하여 왔다. 90년대 이후 전주를 중심으로 하여 거의 독점적인 창극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는 독립창극단은 전통적인 창극 외에도, 견훤, 논개, 전봉준, 권삼득, 항일 의병운동 등 몇몇 역사적 위인들과 사건을 소재로 한 기념공연류 창극들을 발표해왔다. 이들 창작 창극에 드러난 전주의 정신은, 후백제 또는 조선왕조의 수부이자 발상지였다는 자긍심, 나라를 지킨 의향으로서의 기개, 소리광대가 되기 위해 신분을 뛰어넘는 선택을 감행해낸 예술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불특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삼아 팔목할 인기를 끌고 있는 전주마당창극은 전통적인 판소리와 창극의 어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마당판에 모인 동시대 청관중과의 역동적 소통을 추구한다. 이 공연은 한동안 서양식 무대공연물의 엄숙주의에 사로잡혀있던 창극들과 달리 오래된 ‘판’의 정신을 되살리는 개방적인 공연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당대 현실을 적극적으로 작품에 끌어들여 연극적 에피소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실 풍자의 묘미를 제공함으로써 가장 전주다운 공연예술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³³⁾

전주의 신극 운동 세력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여러 군소극단들의 명멸로 간신히 그 맥을 이어왔다. 1960년대 초에 목포 출신 극작가이자 연출가였던 박동화가 전주에 내려오면서 창립한 극단 <창작극회>는 그 이후 전주의 연극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물론 초창기 이후 지금까지 명멸을 거듭해온 극단의 수는 의외로 많다. 창작극회처럼 50여 년이 넘도록 꾸준히 공연을 해 온 극단도 있고 불과

32) 이원희 외 공저, 『전북연극사』, 전라북도연극협회, 2008, 37-44쪽.

33) 광병창, <창극의 대중적 공연콘텐츠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전주마당창극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38집, 판소리학회, 2014.10. 153-239쪽.

1회의 공연만으로 사라져버린 군소 극단들도 많았다.

박동화와 <창작극회>의 연극 활동은 대부분 순수 창작희곡을 바탕으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여타의 극단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지닌다. 전국적으로도 이처럼 긴 세월 동안 극단 자체의 고유한 연극적 지향점과 정체성을 지닌 채 성장해온 경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른바 신극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전주연극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박동화와 <창작극회>의 작업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박동화 이후 고집스럽게 자체 창작희곡을 비롯한 국내 창작극만을 공연해온 <창작극회>의 활동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이는 술하게 명멸해 간 성인극단들이 대부분 <창작극회> 활동의 영향을 받거나 그 반작용으로 나타났었다는 점과 이 지역 대학 연극반의 태동 또한 거의 <창작극회> 초기의 전통과 대부분 섞여 있기에 그렇다. 무엇보다도 자체 창작희곡을 통해서 뚜렷한 연극적 지향점을 일관되게 드러내왔다는 점에서 <창작극회>의 작업은 전주 연극 정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에 틀림이 없다.

<창작극회>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동화의 연극관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남아 있는 몇 편의 희곡들과 그와 같이 활동했던 연극인들의 말을 통해 짐작해 보면 그가 취했던 소재와 연극적 기법이 상당히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박동화는 다양한 드라마투르기를 사용하여, (물질만능주의에 휩싸인)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통에의 집념, 화해와 용서, 숭고한 정신주의를 통하여 열린 세계를 지향하였다.³⁴⁾

그의 작품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물질문명의 발달과 그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빚는 가치기준의 변화 등에 대한 꾸준한 경고와 고발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거의 전편에 걸쳐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갈등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 갈등은 대체로 물질에 대한 정신의 우위, 변화하는 가치관 속에서도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한 강한 신뢰를 역설함으로써 교훈적으로 마무리된다. 마지막 작품이었던 「등잔불」(1978)과 「사는 연습」(1977)의 경우가 특히 이에 해당된다. 이와는 약간 경향을 달리하는 것으로 「산천초목」(1976)과 「여운」(1963)을 들 수 있는데 두 작품 모두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극한적인 시대상황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작품들에 비해 그의 역사에 대한

34) 이원희, <박동화 희곡의 현실대응 방식>, 『국어국문학』 119집, 국어국문학회, 1997.5. 460쪽.

관심의 폭을 살펴 볼 수 있게 한다.

「산천초목」은 한일합방을 전후한 때를 시점으로 삼고 구 봉건제도 하에서 부패한 관리와 일제의 식민통치라는 양면의 질곡을 동시에 안고 있는 농촌의 민중들을 등장시킨다. 구제도의 반상질서(班常秩序)가 남긴 개인·혈연적 원한과 남녀 간의 사랑 등이 복잡하게 얽힌 주인공들 사이의 갈등이 작품의 중심축이다. 이들의 갈등은 일제에 대한 정반대의 대응(일경 앞잡이와 의병)으로 바뀌면서 더욱 심화되다가 결국 여주인공의 죽음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다. 복잡한 갈등들이 뚜렷하게 한 가지 주제로 수렴이 되지 않지만, 작자는 주로 부패한 망국적 정부와 관리들에 대한 울분, 일제에 대한 적극적 항거의지 등을, 이런 비극적 상황이 각 개인에게 주는 인간적 갈등을 통해 제시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여운(餘韻)」(1963)은 자유당 몰락기를 배경으로 이기봉 일가의 가정적 갈등과 파국적인 종말을 그린 작품이다.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는 거물 정객 부부와 시대적 양심으로 괴로워하는 큰 아들의 반항적 성격이 주된 갈등이다. 여기에 주변 인물들이 상황에 대처하는 제 나름의 삶(부패한 공무원, 투사형 대학생, 배우, 기자 등)이 전체적인 흐름을 돕는다. 결국 사육에 눈이 어두웠던 부패한 정객부부가 자살하면서 아들에게 남긴 유서를 통해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아들이 부모의 죄과(罪過)를 대신 받으려 나선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반민주적 독재정권의 말로에 대한 냉소, 불의에 대한 원초적 정의감 등을 표현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나의 독백은 끝나지 않았다」(1959) 또한 다른 작품들에 서처럼 시대상황(6·25)이 빚은 인간적 갈등을 그 주된 모티프로 삼고 있다. 인민군에게 죽은 아내로 인해 격앙된 복수감이 한 무고한 교육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오판으로 이어진다. 그 과오로 인해 영원히 자학하는 삶을 사는 주인공인 퇴직 검사와, 죽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의 일념으로 주인공에게 다가가던 여주인공 사이의 애증 관계가 주요 플롯을 형성한다. 결국 주인공이 오판의 이유에 대한 해명을 다 하지 못한 채 죽음으로써 허망한 결말을 보인다. 이 작품에서 6·25라는 사건은 주인공들의 의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이 작품의 결론 또한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 비극적인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인간성의 회복임을 암시하면서 끝을 맺는다.³⁵⁾

「산천초목」, 「여운」, 「나의 독백…」 등은 모두 근대사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그 시대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극한 상황 속에서의 개인적인 삶과 인간관계 사이의 갈등에 초점

35) 광병창, <전북지역의 연극상황에 대한 점검과 전망>, 『남민』 창간호, 지양사, 1985.

이 맞춰져 있다.

박동화와 <창작극회>의 연극은 곧 6,70년대 전주연극을 대변하는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박동화는 ‘연극의 효용은 관객과의 교감을 통한 관중의식 선도에 있다’는 믿음을 지닌 연극인이었다. 또한 그의 연극들은 연극이 사회의 거울임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연극이 보여준 건전한 사회비판 정신, 인간성 상실에 대한 풍자와 고발, 권력에 대한 저항의지와 휴머니즘 옹호 등이 곧 지금에 이르도록 가치를 잃지 않고 있는 전주연극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이 글은 전주의 예술에 드러난 정신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그를 위해서 우선 전주 예술의 개념과 범주를 정하고자 하였다. 전주의 예술이란 현재의 전주 권역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아서, 구한말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예술가들에 의해 창작되고 전주의 수용자들에 의해 향유되어온 예술행위를 뜻한다. 여기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전통연희 등이 두루 포괄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문학을 제외한 장르들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현대적 장르구분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근대 이후 전주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삼아 판소리와 풍류예술, 문인화, 창극과 연극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주의 예술은 전라도의 보편적 예술과 다른 각도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둘째, 구한말과 근대를 거치며 전주의 예술을 이끌어온 주체는 향반과 아전, 신흥부호인 중인층과 창우 집단 등이다. 이들은 그 예술적 기량이 뛰어나고 심미안이 높았다. 또한 이 두 집단의 교류와 결합, 공존과 이합집산이 전주예술을 이끌어온 동력이자 바탕이다. 이들에 의해 조직된 것이 <재인청>, <풍류방>, <권번> 등이다. 이들 예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주 정신은 삶에 대한 관조와 여유, 고매한 예술적 심미안, 예악을 숭상하는 선비정신, 실사구시적인 사고와 인간중심 예술에 대한 애호, 탈현실의 딜레땅띠즘과 체제내적 공동체의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셋째, 판소리는 구한말 전주예술을 이끌어온 이들 집단이 왕성한 상호 교류를 통해 완성시킨 전주예술의 핵심적 자산이다. 판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주의 정신은 대상에 대한 공감과 궁금함, '끼어들기'를 통한 폭넓은 연민과 소통 정신, 해학적 세계관 등이다.

하지만, 공존의식과 공동체적 정서를 바탕으로 삼아서 한데 '어울리기'를 추구해온 전라도의 보편적 정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넷째, 미술 분야에서 근대 이후 전주예술향을 이끌어온 것은 시서화(詩書畵)를 함께 즐기고 창작해온 문인화의 전통이다. 구한말 이들이 추구한 세계는 성리학적 이상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지치(至治)'의 경지였지만, 일제강점기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선비적 삶의 간결함과 시대적 불의에 대한 의분을 담고 세속적 욕망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일상적 가치 규범이 되어 왔다.

다섯째, 전주의 창극은 대부분 판소리의 주제의식을 계승하면서 고도 전주의 역사적 자긍심을 강조하거나 지역의 위인들을 기리는 교훈적 가치를 내세워왔다. 전주의 신극운동을 대표하는 박동화와 <창작극회>의 연극은 건전한 사회비판 정신, 인간성 상실에 대한 풍자와 고발, 권력에 대한 저항의지와 휴머니즘 옹호 등의 주제를 담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연극관은 지금까지 전주 연극의 바탕이 되어왔다.

결론적으로 전주 예술에 담긴 정신적 지향점은, 예악을 숭상하는 유교적 도덕관념과 계층을 넘나드는 공존의식, 예술에 대한 적극적 옹호의지와 폭넓은 소통의 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근대화시기의 전주예술이 저항보다는 풍류적 가치에 더 기울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60년대 이후의 신극운동에서는 물질만능 사회에 대한 비판과 부정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풍자의 정신이 두드러진다. 이런 흐름은 최근 들어 전주 마당창극의 실험적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전주의 예술은 큰 정신사적 전환을 보인다. 당대의 폭압적이고 불의한 권력에 대하여 이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본격적인 저항의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비록 짧은 기간의 활동에 그쳤지만 <백제마당>과 <녹두골>의 마당극운동은 이후 전주지역의 공연예술에 '풍자와 저항'의 기운을 짙게 남겼다. 또한 <민중미술협의회>의 왕성한 창작활동과 <온다라미술관>을 중심으로 펼쳐진 민중미술운동의 중심세력들은, 이제 중견예술가들이 되어 전주 미술계의 한 기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전주 예술의 '저항과 풍자' 정신이 오랜 잠복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예술의 시대를 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근대 이후 전주의 예술은 '저항'의 기운을 짐짓 안으로 숨긴 채, 현실을 외면한 척하는 풍류의 뒤편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끝내 격동기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기에 전라도 전반의 예술에 담겨 있던 저항의 유전자가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저항과 풍류 사이의 그 팽팽한 길 위에서 전주의 예술가들은 찬란한 예술적 성취를 이루었고, 이

성취는 후대에 이르러 당대 현실에 대한 적극적 고발과 풍자라는 필연적 유산으로 이어졌다. 이제 전주예술에 대한 논의는 개별 장르들에 대한 섬세한 접근과 분석, 그리고 2010년대를 살아가는 당대 예술가들의 창조적 작업에 주목하면서 더욱 깊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조병희, 『완산고을의 맥박』 (2001·신아출판사).
- 정병호, 『한국춤』, 열화당, 1985,
- 송하경, 『서예미학과 신서예정신』, 도서출판, 다운샘, 2003.
- 백대웅, 『인간과 음악』, 어울림, 2001.
- 신은경, 『풍류』, 보고사, 2000
- 이원희 외 공저, 『전북연극사』, 전라북도연극협회, 2008,
- 곽병창, 『연희, 극, 축제』, 도서출판 월인, 2007.
- 이영배, 『교정과 봉합, 혹은 탈주와 저항의 사회극』, 아카넷, 2008.
- 전주대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소, 『‘온·다라’ 정신 발굴 및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2014.10.

2. 논문, 기타

- 이영금, 「전통문화의 원천으로서 무 문화의 갈래와 위상」, 『비교민속학』 44집, 비교민속학회, 2011.4.
- 이영금, 「조선후기 전주재인청 무부들의 판소리 활동」, 『국어문학』 53집 2012년 8월, 국어문학회.
- 권도희, 「호남지역 근대음악사 연구」, 『한국음악연구』 38집, 한국국악학회, 2005.12.
- 신은경, 「풍류방예술과 풍류집단」, 『문학과 사회집단』, 한국고전문학회 0권 0호, 1995.
- 황미연, 「조선후기 전라도 교방의 현황과 특징」, 『한국음악사학보』 제40집, 한국음악사학회, 2008.
- 홍순일, 「판소리창본의 공연문화콘텐츠적 성격」, 『공연문화연구 16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8.
- 최정선, 「판소리의 연행예술적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1990.
- 서유석, 「연희에서 예술로 : 판소리 청중의 탄생과 변모의 의미」, 『판소리연구』 32집, 2011.
- 곽병창, 「전북지역의 연극상황에 대한 점검과 전망」, 『남민』 창간호, 지양사, 1985.
- 곽병창, 「끼어들기와 어울리기-축제와 연희에 드러난 전라도의 감성」, 『감성연구4집』,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2.2.
- 곽병창, 「창극의 대중적 공연콘텐츠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전주마당창극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38집, 판소리학회, 2014.10.
- 김기형, 「진정한 귀명창 시대의 도래를 기대하며」, 『문화예술』 통권 313호(2005년 8월 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5.
- 성기련, 「유성기음반을 통해서 본 당대 판소리 향유층의 미의식」, 『판소리연구』 30권, 판소리학회, 2010년 10월.
- 문주석, 「조선후기 풍류방에 관한 소고(小考)」, 『시조학논총』 18권 0호, 한국시조학회, 2002.
- 한홍섭, 「풍류도, 한국음악의 철학과 뿌리」, 『인문연구』 49권 0호,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 한정희, 「문인화의 개념과 한국의 문인화」, 『미술사논단』 4집, 한국미술연구소, 1997.1.
- 이철량, 「호남의 글씨와 그림」, 『뜻이 도달하면 붓은 못 미쳐도』, 전주역사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 “호.영남 선비들의 예술세계” 특별전 기념도록, 전주역사박물관/한국국학진흥원, 2007.
- 김형수, 「영호남 사림의 교유」, 『뜻이 도달하면 붓은 못 미쳐도』, 전주역사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 “호.영남 선비들의 예술세계” 특별전 기념도록, 전주역사박물관/한국국학진흥원, 2007.
- 문영란, 「문인화의 프리즘을 통한 화예의 예술정신」, 『한국화예디자인학연구』 24권 0호, 한국화예디자인학회, 2011.
- 이원희, 「박동화 희곡의 현실대응 방식」, 『국어국문학』 119집, 국어국문학회, 1997.5.
- 이동희, 「전주 사불여(四不如)의 정신」, 『‘온·다라’ 정신 발굴 및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전주대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14.10.
- 원도연, 「예향 전주, 그 이데올로기와 현실」, 전주문화원 주최 심포지움 원고. 『전주는 과연 예향인가?』 2001. 『‘온·다라’ 정신 발굴 및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전주대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14.10.
- 홍성덕, 「전주정신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 『‘온·다라’ 정신 발굴 및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전주대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14.10.

종합토론

‘전주의 정체성과 전주정신’ 토론문

홍 성 덕*

□ 전주의 역사와 문화, 풍류문화, 철학, 문학, 완판본, 문화, 전주품격, 예술 등 8분야에서 전주정체성과 전주정신을 분석

-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전주정신 발굴 : 조법중, 이태영, 송화섭
- 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전주정신 발굴 : 이동희, 김기현, 김승중, 함한희, 곽병창

☞ 핵심 키워드 “풍류”

□ ‘전주’에 대한 ‘무한’ 긍정의 분석

- ‘학문적’ 논리성과 ‘감성적’ 타당성의 차이
- ‘대중적’ 동의와 합의 : 타자의 시선?

□ ‘전주정신’의 목적 지향적 분석

- ‘목적지향’이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
- 그래 온 것과 바라는 것 : ‘전주정신’의 시계열 분석과 지향

■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

- 전주 역사와 문화, 그 인식의 시작점. 마한? 백제? 후백제?
- 고구려, 백제, 신라 등 타자에 의해 형성된 전주의 역사적 특징들
- 왕도대망론 : 왕도사람의 인품, 왕도 분위기의 유지 무엇인가?
- 이성계의 오목대 잔치 : 거짓의 역사가 만든 이야기의 역사성
- 완판본 vs 영판본 : 완판본의 우수성의 보편적 규명
- 전주비빔밥의 유래 : 외면인가? 부정인가? 부정도 외면도 하지 않는 진실
- 해양교역 도시론 : 강해도회(江海都會)
- 일류여망론과 예술 : 일류가 되지 못한 일류들의 예술론

■ ‘풍류’에 대한 짧은 생각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풍류’의 개념에 대한 ‘동의’ : 풍류의 역사적 개념 변화와 인식
- 문화 향유로서 ‘풍류’는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누구의 것인가?
- ‘사불여(四不如)’와 풍류정신 : 아전, 기생, 소리, 음식 - 주체가 아닌 객체
- 소리와 색을 좋아(尙聲色)하는 것과 풍요, 물질기반을 갖춘 도시
- 전주는 ‘아전도시’인가 ‘양반도시’인가? - 외면하고 싶은 진실인가?
- ‘저항’의 기질과 ‘풍류’ - 저항의 주체와 풍류의 주체
- 충돌하는 개념들 : 저항/풍류, 조선왕실/동학, 아전/양반
- ‘전주정신’을 보는 시선들 : 어디에서 무엇을 보는가?
- ‘전주정신’을 왜 ‘역사와 문화’에서 찾는가? - 정체성과 지향성
-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날 것인가?

■ ‘전주정신’의 인터그래프 맵을 그려야 할 것

- 전주정신을 하나의 개념으로 설정할 수 없다.
- ‘풍류’는 행위의 개념이지 ‘가치’의 개념은 아니다.
- 전주정신은 ‘가치’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행위개념을 배치해야 한다.
- 역사성 또는 정체성을 토대로 전주정신을 구조화해야 하고 지향성을 담아야 한다.

‘전주의 정체성과 전주정신’에 대한 토론문

최 기 우*

1.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주

전주는 한국의 가치를 가장 잘 간직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한국 속의 한국’입니다. 전주는 대한민국이 펼쳐나갈 새로운 문화의 바탕입니다. 전주는 훼손되지 않은 빼어난 생태환경과 선인들의 지혜와 숨결이 고스란히 담긴 전통문화가 있습니다. 누천년의 당당한 역사와 서로 돕는 따뜻한 공동체의식이 있습니다.

전주는 사람과 생태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며, 지식과 변화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공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전주에 주목해 주십시오.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으로 가장 한국적인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전주. 21세기는 전주의 시대입니다.

전주는 당신의 자랑입니다.

인용 글은 전라북도 홍보책자의 한 부분에서 ‘전라북도’를 ‘전주’로 바꾼 것이다. 단어를 바꿔도 자연스럽다. 전주가 전주로만 존재할 수 없는 이유다. 전주의 성장은 13개 시·군과 더불어 있었다. (이는 충청·경상·강원의 도청소재지가 함께 소속된 다른 시·군들이 갖는 의미보다 훨씬 크다.) 전주는 다른 시·군을 대표해 산물의 집산지와 유통지의 역할을 해 왔다. 음식문화가 그렇고, 판소리도 ‘명창의 태생지’보다 ‘전주대사슴’이나 ‘귀명창’이란 단어가 앞서는 것이 한 예다. 도시 전주만의 정신 찾기. 이는 전라북도의 정신 찾기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2.

전주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가장 많이 부르고 들었던 단어 중 하나는 ‘전주’일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듣는 말이 그 사람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데, 제가 어떤 아주 날카로운 발음의 동네에서 태어나지 않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났다는 게, 항상 저에게 그 ‘ㅈ’ 발음이 주는, 이상하게 편안하고 낮은 음조이면서도 이렇게 활짝 피었다기보다는 속으로 스며

* 최명희문학관 학예연구실장

드는 것 같은 발음의 음감이 제 성격의 어떤 일면을 꼭 이루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명희. 1997년 11월 8일 국립국어연구원 특강 <『혼불』과 국어사전> 중)

‘전주’라는 지명이 주는 오랜 울림. 우리가 ‘전주’와 ‘완산’, ‘비사벌’과 ‘온’에 큰 관심을 갖는 것도, 기어이 전주의 정체성과 전주정신을 찾으려 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전주말의 특징과 사투리를 거론한 이태영의 글이 먼저 가슴에 차는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3.

전주시는 다른 도시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한계’가 있다.

도시를 대표하는 혹은 상징하는 혹은 부지불식(不知不識) 한껏 성장해버린 문화콘텐츠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 타 시·도의 콘텐츠였다면 크게 융성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전주에서는 한쪽으로 비껴서 있거나 밀쳐진 것들이 꽤 된다. 전주시나 문화예술단체 등에서 앞서 거론하는 콘텐츠들에 대한 투자도 빈약하긴 마찬가지다. 이곳저곳 눈치를 보다 결국 용두사미거나 모두를 서운케 하고 만다.

발제문을 읽다보니, 또한 큰일이다. 거론된 여러 정신들 모두 전주와 어울려 고개가 꼬덕여진다. 도시 전주에 자연스레 녹아든 ‘얼’들이 참으로 다양하고, 어느 것 하나 쉬 밀쳐둘 것이 없다. 과연, 어떤 ‘단어’를 선택해 도시 전주와 전주 사람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속엿 것’을 찾을 것인가.

•발제자들이 말한 주요 내용

발제자	주요 내용
조법중	•비사벌(가야와 전주), 보덕국(고덕산), 완산주, 후백제의 왕도, 조선왕조의 발상지, 경기전, 조선왕조실록, 조경묘, 예종대왕태실, 전주부, 전라감영, 전주의 음식(비빔밥과 한정식), 집강소, •<문화융합과 새로운 대안의 땅, 전주>, <백제 부활의 땅, 전주>, <왕도의 땅, 전주>, <조선을 먹여 살린 땅, 생명의 전주>, <모두가 하나 되어 평등한 대동과 개벽의 땅 전주> •전주정신은, 모든 구성원을 서로 같게 만든다는 의미의 ‘대동정신’, 또는 순수 우리말로 ‘다울정신’이다.
이동희	•정, 나눔과 배려, 천주교와 기독교, 포용과 융합, 저항과 변혁, 맛, 멋, 흥, 신명

	•전주사불여, 귀명창의 동네, 전주음식, 서화, 완판본, 한지, 전라감영, 곡창지대, 교통의 요지, 물산의 집결, 조선의 3대 시장, 혼요십조, 정여립 모반사건, •풍류문화를 꽃피운 전주정신: 삶의 여유와 넉넉한 심성, 타자에 대한 포용과 수용의 정신, 자존감과 자긍심, 독창성
김기현	•막연하게 거론되었던 선비정신과 동학사상과 풍류정신 •전주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현재와 미래의 생활 속에서 추구하고 또 뿌리내려야 할 바람직한 삶의 정신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 •“사람이 하늘”: ‘사람’에는 (선비정신의) 도덕적, (풍류정신의) 예술적, (동학정신의) 종교적 의미가 모두 함축. 인간의 존엄하고 고결한 존재됨을 실현하기 위해 도덕적이고 예술적이며, 나아가 종교적인 사고와 행위가 필요하다.
김승중	•후백제의 왕도, 조선 건국의 정신이 살아 있는 경기전, 정여립의 대동사상, 천주교와 개신교의 수용, 동학의 포교와 동학농민혁명, 전주음식, 최고 수준의 예술, 경제적 풍요, 완판본 •〈천이두의 한(恨) 이론과 삭임〉, 〈소내(疎內)의 정신〉, 〈가람 이병기의 자연친화적 ‘풍류정신’〉, 〈신석정의 ‘목가적 저항정신’〉, 〈최승범의 ‘아늑하고 부드러운 정서와 맑고 밝은 정신’〉, 〈최명희 『혼불』에 나타난 ‘온’의 정신과 ‘꽃심’〉 •‘창조적 변방성’을 지닌 진보적 도시, 전주: 전주의 높은 문화 수준과 강한 정신은 시련과 고통을 ‘삭임’의 정신과 ‘꽃심’으로 극복해 온 결과다.
이태영	•경제 활동의 중심지, 정서적 안정, 풍요로움과 여유, 지적호기심, 기록문화, 한지를 비롯한 전통문화 발전, 조선왕조실록, 판소리의 고장 •전주의 언어는 부드럽고 여유롭고 넉넉한 정신을 보여준다: 전주의 말은 발음이 쉽고, 매우 부드러우며, 가락이 있어 판소리에 제격. •〈지적 탐구 정신이 매우 강한 선비의 도시, 전주〉, 〈종교·학문적 이상향의 도시, 전주〉, 〈대중 지향 정신을 가진 정자체 한글 사용의 도시〉, 〈전국성과 차별성을 확립한 최고의 장인 정신을 가진 교류의 도시, 전주〉, 〈문화적 전통을 잊지 않는 자존(自尊)의 정신을 가진 전주〉
함한희	•예(藝)와 예(禮)를 숭상하는 전주정신 •삭힘과 묵힘의 발효의 맛, 깊고 은근함, 관조의 미덕, 느낌과 여유, 은근과 끈기 •전주의 음식은 여성들의 정성과 배려가 먹는 이들의 미각과 시각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감동까지 선사하면서 예술의 경지로 이끌었다. 전주의 풍류는 탈속과 청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시대의 아픔까지도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예술적 행위와 여흥을 즐기는 멋을 보여주는 문화다. 풍류의

	관조적 정신은 음식의 삭힘과도 같고 여유로운 풍류문화는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발효식품을 기본으로 하는 전주의 음식문화와도 상통한다.
송화섭	•〈후백제 이후 왕도의 전통과 대도시의 풍모를 지닌 품격이 있는 격조 높은 도시, 전주〉, 〈격조 높은 품성을 가진 전주사람들〉 •전주사람의 본성과 기질은 민불추박과 상현리: 전주사람들은 지적으로 세련되었으며, 교양이 있었고, 매우 총명하며 재주가 많았다.
곽병창	•전주예술의 핵심적 자산인 판소리, 시서화를 함께 즐기고 창작해온 문인화의 전통, 건전한 사회비판과 권력에 대한 저항의지와 휴머니즘이 담긴 신극운동 •전주의 예술을 이끌어온 이들을 통해 살피는 전주 정신: 삶에 대한 관조와 여유, 고매한 예술적 심미안, 예악을 숭상하는 선비정신, 실사구시적인 사고와 인간중심 예술에 대한 애호, 탈현실의 딜레땅띠즘과 체제 내적 공동체의식 등 •전주 예술에 담긴 정신적 지향점: 예악을 숭상하는 유교적 도덕관념과 계층을 넘나드는 공존의식, 예술에 대한 적극적 옹호의지와 폭넓은 소통의 추구 •저항과 풍류 사이의 그 팽팽한 길 위에서 전주의 예술가들은 찬란한 예술적 성취를 이루었고, 이 성취는 후대에 이르러 당대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과 풍자라는 필연적 유산으로 이어졌다.

4.

어느 도시가 가진 ‘얼’을 대표적인 이미지로만 쉽게 살펴보자.

- 순창은 매운(고추장·농민회·회문산) 도시인가? 풍류(귀래정·신경준)의 도시인가?
- 정읍은 풍류(유상곡수·상춘곡)의 도시인가, 저항(동학·항일의병)의 도시인가?
- 남원은 저항(춘향·만인의총·동학·김주열)의 도시인가, 사랑(춘향·변강쇠·만복사저포기·최척전)의 도시인가?

쉽지 않다. 전주정신 논의의 필요성과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전주정신은 풍류정신이다’, ‘전주정신은 저항정신이다’, ‘전주정신은 선비정신이다’, 라고만 단정한다면 그것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설득과 효용이 있을 것인가. 어느 도시가 지닌 정신은 단일품목으로 존재할 수 없다.

5.

김기현·이동희·함한희 등의 글에서 충분히 거론되었지만, 전주정신에 대한 논의에서 앞서 해결해야 할 것도 여전하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신의 구체적인 ‘단어=실체(예_ 풍류)’을 꺼내기에 앞서, 그 본질을 찾아야 하며, 그 찾을 대한 ‘왜’라는 물음이다. (전주정신의 찾기는 싸워서 나올 일이 아니다. 상생을 위한 물음이니, 개념을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조화를 통해 해원을 이뤄야 할 것이다.)

- 전주의 정신은 전주를 떠올리게 하는 정신인가, 전주 사람들이 떠올리는 정신인가?
- 전주의 정신은 대한민국에서 전주만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신인가?
- 전주의 정신은 전주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정신을 찾는 일인가?
- 왜 지금 전주정신을 말하는가?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얼’은 지금 시대에 필요한 정신이다. 전주의 정신을 찾는 일도 지금 시대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돼야 한다. 다변하는 시대를 먼저 고려한 시대정신 찾기. 그 시대에 거론되는 정신은 그 시대를 품어야하기 때문이다.

어느 도시가 가진 정신은 선인들의 여러 족적을 살피고, 그중 지금 먼저 떠올려야 할 정신세계를 찾는 일이다. 전주의 정신도, 전주가 지금까지 지켜온 정신이며, 전주가 지금도 지켜야 하는 정신이다. 그래서 2015년도에 먼저 거론해야 할 전주정신이 있고, 2016년도에 먼저 떠올려 살피고 가꿔야 할 전주정신이 있을 것이다. 2015년이 요구하는 정신은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격차해소일 수 있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평등이나 상생이나 화해일 수도 있다. 전주의 정신을 찾는 일은 도시 전주를 지탱해 준 여러 정신세계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먼저 거론해야 할 정신을 꺼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야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말을 최소화할 수 있다.

6.

환란과 난세의 2015년, 우선 지금에 집중하자. 선인들의 다양한 풍모 중에서 지금의 시대에 딱 맞춰 되살려야 할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것이 지금의 전주정신이다.